文學博士學位論文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2007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林 錫 圭

文學博士學位論文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2007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林　錫　圭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指導敎授　崔　明　玉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林　錫　圭

林錫圭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12月

委員長　이 상 억 (印)

副委員長　김 주 원 (印)

委　員　박 경 래 (印)

委　員　김 성 규 (印)

委　員　최 명 옥 (印)

<국문초록>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林 錫 圭

이 논문은 경북북부지역 중 문경지역(서북지역), 영주지역(중북지역), 울진지역(동북지역)에서 발화되는 말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로 세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운 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성조를 포함한 공시적 음운과정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성조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북북부지역어는 성조방언에 속하기 때문에 성조에 대한 인식은 최소대립어의 언급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음운과정의 기술에서도 성조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음운규칙의 기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별로 조사항목을 폭넓게 선정해야 함도 강조한다.

2장에서는 음소 목록 및 성조소 목록을 제시한바, 자음 목록에서는 세 지역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세 지역어 모두 'ㆆ'을 포함하여 자음 20개(ㅂ, ㅃ, ㅍ ; ㄷ, ㄸ ㅌ ; ㄱ, ㄲ, ㅋ ; ㅅ, ㅆ ; ㅈ, ㅉ, ㅊ ; ㆆ, ㅎ ; ㅁ, ㄴ, ㅇ ; ㄹ)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모음 목록에서는 차이점이 확인된다. 영주지역어는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와 달리 '으'와 '어'가 대립이 존재하여 모음 7개(이, 에/애(E) ; 으, 어, 아, 우, 오)가 확인된다.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성조소로는 低調(L), 高調(H)가 있으며 복합성조로는 저고복합조(L·H)와 고저복합조(H·L)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고저복합조의 음절수는 1음절임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기저형 설정 방법을 음소측면과 성조측면으로 나뉘어 고찰하고 그에 따라 기저형을 성조 유형별로 확인한다. 이어서 세 지역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몇몇 기저형을 대상으로 간단히 논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복합기저형의 문제를 다루며, 곡용에서의 기저형 설정 방법에 대하여 곡용 어간의 특이성과 관련지어 검토한다.

4장에서는 분절음운의 변동 과정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교체 과정으로는 평폐쇄음화, 어미 '아(X)'의 교체, 비음화, 유음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완전순행동화, 원순모음화, 전설고모음화, 경음화, 활음화 등이 확인되며, 탈락 과정으로는 후음 탈락, 유음 탈락, 비음 탈락, 자음군단순화, 어간말 '아/어' 탈락, 어간말 '으' 탈락, 활음 탈락 등이 확인된다. 첨가 과정으로는 'ㄴ' 첨가, 활음 첨가 등이, 축약 과정으로는 유기음화, 경음화 등이 확인된다.

여러 음운과정을 확인하면서 특히 완전순행동화와 활음화의 과정은 음장방언과 달리 성조방언에서는 성조의 고려 없이 제대로 설명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 '안동(LH)+에→안도오', '포항(HH)+에→포하아'와 같이 표면형을 3음절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성조방언에서 복합조가 실현되는 환경을 제시하고,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와 곡용에서의 완전순

행동화를 비교, 검토한다.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립쌍을 제시해 보기도 한다. 결국 성조배열제약이 관여하여 그 표면형은 '안도(LH·L)', '포하(HH)'로 도출됨을 주장한다. 활음화를 겪은 표면형 '다레(LH·L)', '밀까레(LLH·L)'에서 고저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것 또한 곡용 어간의 기저성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표면형은 성조배열제약과 밀접히 관련되어 도출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성조의 변동을 교체,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성조 교체는 저조화와 고조화가 확인되며, 성조 탈락은 분절음의 탈락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성조 축약은 활음화 또는 완전순행동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파악한다. 2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조는 'H_1'과 'H_2'로 나뉜다. 'H_1'은 'HLL, LHL'에서의 'H'이며 'H_2'는 'HHL, LHH'에서의 'H'이다. 성조배열제약은 'H_1'에 관련된 성조배열제약과 'H_2'에 관련된 성조배열제약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세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는 저고복합조와 관련된 성조배열제약이 차이를 보인다.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는 저고복합조 다음에 고조가 놓이지만 울진지역어는 저조가 놓인다. 울진지역어의 이러한 제약은 L·HL, H·LL이 합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문경지역어는 다른 지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별한 율동규칙이 존재한다. L로 시작하는 성조군에서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 또는 고저복합조가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약은 너무도 강력한 것이라서 HL 기저성조를 보이는 어사까지도 LH로 실현시키기도 한다.

성조배열제약 ① --- 'H_1'은 한 성조군 내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성조배열제약 ② --- 'H_2'는 한 성조군 내에서 연속으로 둘만 존재할 수 있다.
성조배열제약 ③ --- 'L·H'는 한 성조군 내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는 L·HH로 배열되고 울진지역어는 L·HL로 배열된다.
성조배열제약 ④ --- 'H·L'은 한 성조군 내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성조변동규칙은 이러한 성조배열제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그 규칙(고조화 규칙, 저조화 규칙)을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후행성분에서의 변동이 많다는 것도 이 세 지역어, 나아가 경북 방언 성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조화 규칙: 후행성분에서의 고조화만 존재한다.
$XY_0 \rightarrow L_0HHL_0/L_0H_$ (여기의 H는 'H_2'이며, X, Y는 임의의 성조이다)
$XY_0 \rightarrow L_0L{\cdot}HHL_0/L_0L{\cdot}H_$(문경지역어,영주지역어) $XY_0 \rightarrow L_0L{\cdot}HLL_0/L_0L{\cdot}H_$(울진지역어)

저조화 규칙
저조화 규칙 ①: 선행성분 'H_1'의 저조화 ---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면 선행성분의 'H_1'은 'L'로 교체된다.
저조화 규칙 ②: 후행성분의 저조화 ---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저조화 규칙 ③: 후행성분의 저조화 --- 선행성분의 성조가 'H·L', 'L' 또는 'HH', 'L·HH'로 끝나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형태소 경계이든 단어 경계이든 고조화, 저조화 규칙에 결과한 'H_1(또는 H·L)' 또는 'HH 또는 L·HH)'의 위치가 결정되면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모두 저조로 교체된다.)

주요어 : 경북북부지역어, 음운과정,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기저성조, 복합조, 성조배열 제약

目 次

<국문초록>

1. 서론 ······ 1
1.1. 연구목적 ······ 1
1.2. 연구대상 ······ 2
1.3. 선행 논의 검토 ······ 7
1.4. 연구방법 ······ 9
1.5. 논의의 구성 ······ 11

2. 음운 목록 ······ 12
2.1. 음소 목록 ······ 12
2.1.1. 자음 목록 ······ 14
2.1.2. 유음 목록 ······ 17
2.1.3. 모음 목록 ······ 17
2.1.4. 활음 목록 ······ 19
2.2. 성조소 목록 ······ 24

3. 기저형 ······ 43
3.1. 기저형 설정 방법 ······ 43
3.1.1. 음소 층위 ······ 43
3.1.2. 성조 층위 ······ 48
3.2.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 ······ 57
3.2.1. 어간의 기저형 ······ 58
3.2.1.1. 곡용 어간의 기저형 ······ 58
3.2.1.2. 활용 어간의 기저형 ······ 72
3.2.2. 어미의 기저형 ······ 94
3.2.2.1. 곡용 어미의 기저형 ······ 94
3.2.2.2. 활용 어미의 기저형 ······ 95

4. 음소변동 ······ 97
4.1. 교체 ······ 97
4.1.1. 어미 '아(X)'의 '어(X)'화 ······ 97
4.1.2. 완전순행동화 ······ 107
4.1.3. 평파열음화 ······ 124
4.1.4. 자음동화 ······ 127
4.1.4.1. 비음화 ······ 127
4.1.4.2. 유음화 ······ 129

4.1.4.3. 연구개음화 ········· 133
4.1.4.4. 양순음화 ········· 134
4.1.5. 경음화 ········· 136
4.1.6. 원순모음화 ········· 144
4.1.7. 전설고모음화 ········· 147
4.1.8. 활음화 ········· 148
4.1.9. 구개음화 ········· 156
4.2. 탈락 ········· 157
4.2.1. 자음군단순화 ········· 157
4.2.2. 후음 탈락 ········· 159
4.2.3. 유음 탈락 ········· 160
4.2.4. 비음 탈락 ········· 162
4.2.5. 어간말 '아/어' 탈락 ········· 166
4.2.6. 어간말 '으/어' 탈락 ········· 173
4.2.7. 계사 '이' 탈락 ········· 173
4.2.8. 활음 탈락 ········· 175
4.3. 첨가 ········· 177
4.3.1. ㄴ 첨가 ········· 177
4.3.2. 활음 첨가 ········· 179
4.4. 축약 ········· 181
4.4.1. 유기음화 ········· 181
4.4.2. 경음화 ········· 182
4.4.3. '여'의 '에'화 ········· 183

5. 성조변동 ········· 184
5.1. 교체 ········· 185
5.1.1. 고조화 ········· 185
5.1.2. 저조화 ········· 188
5.2. 탈락 ········· 205
5.3. 축약 ········· 206

6. 결론 ········· 212

참고논저 ········· 217

ABSTRACT ········· 228

1. 서 론

1.1. 연구목적

개별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연구가 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소중한 작업이 되었음도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많은 논의들이 해당 지역어에서는 특정 음운과정이 확인된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특정 음운과정을 규칙화하게 되는데 자료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1] 또한 음운규칙이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2] 이러한 점도 지역어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듯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음운론적 정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사 항목의 선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동남방언은 성조방언에 속하는 이상 음운론적 논의에서 성조를 제외한다면 그 논의는 허점을 보일 수도 있을뿐더러 음운론적 정밀화를 꾀하는 데에도 부족할 것이다. 대립쌍을 통한 음소 목록의 확정에서 성조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고, 활음화 과정, 완전순행동화 과정 등에서 표면형을 도출하는 데 성조축약의 과정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분절음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그 성과는 음운론적 실체를 규명하는 데 부족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성조방언을 연구할 때에는 성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만하다. 성조 연구 그 자체에도 의의를 둘 수 있지만 분절음 변동이 성조층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역으로 성조변동이 분절음 층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곧 성조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의 있는 작업이지만 나아가 해당 방언권의 음운론적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경북북부지역어의 음운론적 정밀화를 꾀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경북북부지역에서 발화되는 세 지역어 즉,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를 대상으로 음소 목록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조를 포함한 공시적 음운과정을 기술·설명하려 한다.[3] 한 지역어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보다 그 인접 몇몇 지역어를 고려할 때 의외의

1)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처'고', 처'도'(舞)'와 '다'치고, 다'치도(傷)'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규칙 적용이 달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견 어간의 음절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야˘단치고, 야˘단처도'와 같은 조사항목이 좀더 확보된다면 이에 대한 일반화는 달라질 수 있다. '4.1.8. 활음화'를 참고할 수 있다.

2) 유음으로 끝나는 곡용 어간 뒤에서의 경음화[불(火)+도→불'또']는 사실 어미 '-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말˘떼로(語, 말+데로)', '물'쪼'차(水, 물+조차)'에서는 물론이고, '불'쌀'구코(火, 불#살구코)', '물'쪼'코(水, 물#조코)', '예˘럴뜰먼(예를#들면)', '잘뜬'다'(刃, 陽, 잘#든다)', '딸'뚤'(女, 딸#둘)', 날˘뚜고(吾, 날#두고) 등 단어 경계에서도 경음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경음화는 후행요소가 [+설정성] 자질을 갖는 자음으로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제시된 자료는 영주지역어 자료이다. 자세한 것은 '4.1.5. 경음화'를 참고할 수 있다.

3) 소쉬르가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분을 강조한 후 국어음운론에서도 공시적인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성과를 얻을 때도 있다. 어떤 지역어 연구에서는 예외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몇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 예외가 오히려 규칙적 변동의 예였다는 사실도 드러날 수 있다.4) 즉 한 지역어를 통해서 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성과이겠지만 몇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운론적 논의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밀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음운과정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면 이러한 연구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경북북부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이 다른 동남방언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또 이 세 지역어 사이에는 어떤 음운론적 차이가 확인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적이다.5)

1.2. 연구대상

본고의 논의를 위해 제시되는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는 아래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 본다면 모두 경북북부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다.6) 영주를 북중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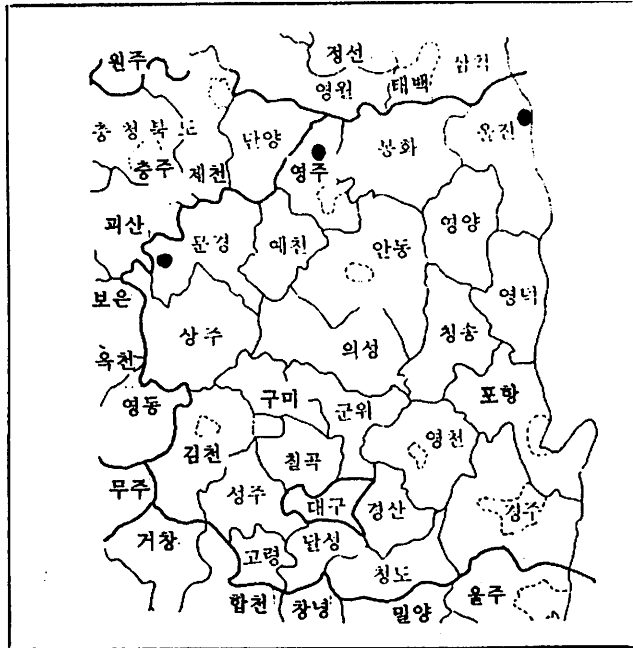
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병근(1981:242), 최명옥(1982:9), 최명옥(1988나:64-69), 곽충구(1994가:15)에서는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과정을 공시적 연구로 한정하였다. 사실 그 싹은 이익섭(1972가/1998:289), 이병근(1973/1998:20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반면 강창석(1989:34)에서는 곡용에서의 음운과정만을 공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송철의(1992:61-64), 송철의(2000:305-307)에서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경우 생산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공시적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신승용(2004:78-85)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공시 규칙이 가능함을 원순모음화를 통해서 제시하려 하였다. 요즈음 일부 형태론자들도 합성어, 파생어에서의 공시적 생산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견해인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과정을 공시적인 연구 대상으로 이해한다.

4)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패러다임 '주'고, 주'니, 조'도'(與)'와 '꾸'고', 꾸'니', 께'도'(借)'에서 모음어미가 통합된 두 형태는 분명 동일한 음운규칙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자와 같은 패러다임은 '주-(與)', '누-(尿)', '두-(置)'에서 확인되는 반면 후자와 같은 패러다임은 '꾸-(借)'에서만 확인된다면 후자와 같은 패러다임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울진지역어나 문경지역어를 통해 볼 때 오히려 전자와 같은 패러다임이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활용형 '조'도'(與)'를 공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

5) 최명옥(1994)에서는 음운(성조 포함), 어휘, 어법 등을 방언구획의 기준으로 하여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를 경북중동동부방언권에, 문경지역어를 경북서부방언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음운 또는 음운과정과 관계된 기준으로는 음운 목록('으:어, 에:애, ㅅ:ㅆ'의 대립 유무), 어미 '아(X)'의 교체 양상(눕+아도, 만들+아도 등), 자음군단순화의 양상(맑+고, 굵+고, 밟+고), 경음화 여부(말+도), 'Xi+a'에서의 음운과정의 차이(치+아도, 비비+아도 등), 어간 재구조화의 양상(바꾸-, 눕-, 굽- 등), 성조 유형(저고복합조의 유무)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여러 논자들이 경북의 방언구획을 논의한 바가 있으나 소수의 항목으로 방언구획을 논의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조에 관한 기준이 방언구획의 기준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면 성조에 관한 방언구획의 기준은 음운, 어휘, 어법 등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최명옥(1994)의 구획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성조 층위를 고려해 볼 때 최명옥(1994)의 구획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경지역어는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여야 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반면 예천, 안동, 영주, 봉화, 울진지역어 등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성조변동규칙의 관점에서도 서부방언권과 동부방언권은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L·HL(울진지역어)과 L·HH(다른 지역어)의 차이를 방언측정법으로 어떻게 점수화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울진지역어의 L·HL은 필자와 제보자간의 소통을 더디게 할 정도였으니 필자가 느끼는 언어적 거리는 상당했다 할 것이다.

6) 예천 지역어, 봉화 지역어를 포함한 경북북부지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덥˘꼬~덕˘꼬', '더'버(暑)'처럼 문

역이라고 한다면 문경은 북서부지역, 울진은 북동부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지도와 주요 조사 지점)

문경(聞慶[7])은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괴산, 충주와 접해 있으며, 남으로는 상주, 동으로는 예천, 안동과 접해 있다. 문경은 산업화 이전에도 괴산은 물론 단양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통할 수 있었다.[8] 경북선과 문경선이 있어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데 이

경·울진지역어의 경우는 더러 '고ˇ바'(麗), '추'바'(寒)'처럼 정칙 활용을 하는 형태가 수의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세 지역어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이'레' 지'꺼리요(문경)', '이'레' 주'께요(울진)', '이'레' 말ˇ해요(영주)'라고 하면서 방언형들을 제시하였다.

7) 문경은 1개 시, 2개 읍, 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문경장(2, 7일), 가은장(4, 9일), 점촌장(3, 8일)을 보기도 한다. 소백산맥의 영향으로 충청도보다는 역시 경상도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많았으며 경상도 중에서도 예천에 비해 상주 쪽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1949년 군청소재지가 문경에서 점촌으로 옮겨 오면서 점촌의 발전이 급속화되었는데.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점촌시로 하느냐 문경시로 하느냐의 문제가 갈등을 빚을 정도였으니 문경의 생활권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 제시되는 지역 관련 서술은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8) 문경 억양의 성격이 그 인접한 충청도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경과 괴산은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화령(괴산 연풍 방향), 조령(충주 수안보 방향)을 제외하면 험준한 고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문경에서 괴산의 관평 쪽으로 가면서 특이한 점을 확인했다. 막상 산을 다 내려서서 '이제 괴산이겠지' 하면 거기도 문경에 속해 있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말에는 성조에 의한 의미 대립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옆 작은 도랑을 지나면 그곳을 경계로 드디어 괴산 땅에 들어서게 된다. 산 아래에 있는 문경 사람들은 괴산 사람들과 일상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행정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는 산 너머에 있는 문경으로 가야 한다. 자동차로도 관공서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된다. 물론 시장

는 석탄산업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석탄 산업은 문경을 급성장하게 했는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거의 전 광산이 폐한 상태이다. 석탄산업의 발달은 아무래도 외지인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할 터인데 인근의 충청도 출신 광부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경을 드나들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경상도 사람들도 추풍령, 죽령보다는 조령을 주로 통과했다고 한다. 이처럼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문경 지역은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주(榮州[9])는 남쪽으로는 안동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봉화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예천과 접해 있다. 또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영월과도 접해 있다. 영주는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이 관통하고 있기에 일견 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영주를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경유지 정도로만 받아들일 뿐이다. 사실 이 노선들은 영월, 태백, 문경에서 생산되는 광물들을 수송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고속도로가 놓이기 전만 해도 영주에서 단양으로 통하는 도로는 죽령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고,[10] 강원도 영월과는 험준한 산세로 인해 도로가 놓여 있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왕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영주 지역의 경우 항상 고려되어야 할 점이 풍기 지역에 관한 특수성이다. 한국 전쟁 당시 북측 사람들이 소백산 가까운 지역을 보신처로 삼아 풍기 지역에 많이 이주해 왔고[11] 지금도 그런 사람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예천, 안동과 더불어 반촌 마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12]

도 더러 문경을 이용한다고 한다. 문경과 단양 접경 또한 산을 다 내려서도 경상도 땅이 있는데, 그 쪽 경상도 사람들 또한 성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역시 괴산 쪽 경계의 주민들처럼 도랑을 경계로 경상도 사람들(1말은 10되), 충청도 사람들(1말은 5되)이 마주보고 살고 있는 셈이다. 이들 두 접경에서의 마을 간에는 다툼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상주시와 보은군의 경계 지역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성조가 현저히 남아 있는 상주 화남면과 달리, 보은 마로면에는 성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9) 1995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풍기읍이 영주시에 편입됨에 따라 영주시는 1시, 1읍, 9면으로 구성되었다. 사람들은 주로 영주장(5, 10일)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풍기 인근에 있는 안정면, 봉현면 사람들은 풍기장(3, 8일)을 보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생활권이 둘로 인식될 정도였다.

10) 중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죽령을 넘기 위해서는 꼬부랑길을 자동차로 40분은 족히 가야 할 정도였다. 옛날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을 가기 위해 특히 과거 시험을 위해서는 죽령을 넘지 않고 조령을 넘었다고 한다. 다만 그 이전 통일신라시대에는 '경주-봉성(지금의 봉화읍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곳)-풍기-(죽령)-단양'이 파발을 위한 공식 경로였다고 한다.

11) 이러한 사실은 영주 지역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데, ≪鄭鑑錄≫에는 피신하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서 이른바 '십승지(十勝地)'의 처음으로 '풍기 금계 마을'이 제시되어 있다. 최태영(1984)와 정원순(1988)은 풍기와 인접한 순흥면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또한 풍기와 시장권을 같이 하는 안정면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가 조사한 자료와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물론 풍기 금계 마을의 영향이라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와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소위 'ㅂ' 변칙동사이다. 이런 예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에서는 더러 정칙활용을 보이기도 하고, '마시-(음)'류의 재구조화(마시->마세-) 또한 재구조화가 되기 이전 상태로 제시되어 있다.

12) 필자의 두 이모는 반촌 마을에 태어났으나 한 분은 민촌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특히 '조ˇ장(校長), 조ˇ실(敎室)'에서처럼 발화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도 더러는 희한한 말을 쓴다고 사람들이 놀린다고 하였다. 'ㄱ' 구개음화한 어형이 단어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지만 필자가 어릴 때에는 '식쩐(食前, 아침 식사 이전)'을 '식'껸''으로 과도교정하여 발화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ㄱ' 구개음화

울진(蔚珍13))은 북쪽으로는 강원도 삼척, 남쪽으로 영덕, 서쪽으로 봉화, 영양과 접해 있다. 삼척과는 관령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왕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고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울진의 경우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했었다는 것, 또 어업의 활황으로 어촌이 급성장했다는 것을 언어적 측면에서 분명 고려해야 한다. 울진은 고구려시대 때부터 1896년 13도제 실시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강원 지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1963년까지도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원도와의 교류도 꽤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어업의 활황으로 죽변과 후포의 급성장도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울진읍에 거주하는 이들도 죽변으로 시장을 보러 갈 때가 많다는 것은 언어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필자는 세 지역에서 어느 지점을 조사지점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종적으로는 가급적 경북의 다른 지역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각각의 북쪽 지점을 우선시하였다. 또한 횡적으로는 문경의 서쪽에서부터 울진의 동쪽에 이르기까지 방언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몇몇 마을을 염두에 두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문경은 가급적 서북쪽, 울진은 동북쪽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문경지역어의 경우 서쪽에 위치해 있는 가은읍 죽문리와 중앙이면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문경읍 팔령리,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예천과는 조금 거리를 둔 점촌 공평리에서 조사를 하였다. 죽문리에서 4킬로미터 정도 서쪽으로 가면 충북 괴산군에 이르게 된다. 죽문리를 조사지점 중 한 곳으로 한 이유는 충청도 말의 영향으로 죽문리 말에서 혹 성조 층위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14)

영주지역어의 경우 가급적 풍기 지역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또 인접한 봉화군과도 접경을 이루지 않는 단산면 구구리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단산의 최북단은 소백산 국망봉과 연결되어 북쪽과의 왕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단산면의 말이 다른 면의 말에 비해 접촉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부차적으로 안동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영주 최남단의 말도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같은 영주지역어라도 면 단위에

한 어형을 다소 꺼린다는 인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ㅎ' 구개음화한 '성'님', '성(兄, H_2)'과 같은 어형은 영주는 물론, 문경, 울진지역어에서도 '형'님', '헝(H_2)'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쎄(舌, H_2)', '소ˇ암(效)' 등 몇몇 어휘는 'ㅎ' 구개음화한 형태로 나타난다. 영주 화자들 중, '쎄'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민촌 지역에서는 사람에게도 쓴다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선ˇ(맞선')'은 '현ˇ'이라고 과도교정해서 발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경북북부의 반촌에서는 'ㅎ' 구개음화한 어형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참고로 문경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민원식(1982:52)에서는 '기ˇ무시-(穀)', '긴ˇ지-(飯)', '길ˇ-(長)' 등 과도교정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영주 반촌지역어에서도 쓰지 않는 말인 듯하다.

13) 울진은 1914년 평해군은 폐지되면서. 지금은 2개 읍(울진읍, 평해읍)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장권은 울진(2, 7일), 평해(2, 7일), 죽변(3, 8일), 후포(3, 8일) 등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林園經濟志≫에 어촌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이 여러 군데 성황을 이룬다는 것은 어업의 활황과 관계될 것이다. 사람들은 울진장이 가까운데도 죽변장을 자유롭게 다닌다고 했다.

14) 만약 성조 층위에서 동요가 있었다면 다른 마을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을의 말에서 성조 층위의 동요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2킬로미터를 더 서쪽으로 가서 거의 마지막 문경 쪽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성조 층위의 동요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 조금씩 특별한 형태가 보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울진지역어의 경우, 가급적 영덕과 거리를 두고 있는, 울진읍의 북동쪽인 온양리에서 주로 조사를 하였다. 온양리는 농업을 주로 하는 곳이지만 해안가 마을이라서,[15] 농업만을 생업으로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북면 고목리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울진의 동북쪽으로 삼척과의 접촉 양상을 알아보는 데에도 유리하리라 판단했다. 아울러 울진의 서부 지역인 서면을 지나면서 몇몇 제보자를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16]

세 지역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제보자를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17] 가급적 대중매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 제보자를 찾는 것을 우선시했는데[18] 중부방언의 'ㄷ' 변칙동사에 대당하는 어형이 '들ㆆ-(聞)', '물ㆆ-(問)'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접촉이 덜 이루어져 고형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제보자를 찾으려는 필자 나름의 기준이었다. 특히 위와 같이 발화하는 문경지역어의 제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에'미'(母)', '엔ˇ날(古)', '웨ˇ가(外家)', '웨'우-(暗記)~에'우-'보다는 '이'미'', '인ˇ날', '이ˇ가', '이'우-'로 발화하는 빈도가 높았다.

제보자

문경: 강용기(여, 81세, 가은읍 죽문리)
손영순(여, 73세, 점촌 공평동)[19]
황순동(여, 85세, 문경읍 팔녕리)
영주: 박명서(여, 78세, 단산면 구구리)

15) 주상대(1989:4)의 언급처럼 울진의 해안가 마을인 경우, 반농반어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필자가 조사지점으로 택한 온양리 주민들은 거의 어업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6) 이런 조사 방식(운행을 하다가 특정 마을에 들어가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문경 서쪽에서부터 울진 동쪽에 이르기까지 성조 층위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문경과 예천 사이의 산양천을 경계로 봉화와 울진 사이의 광회검문소를 경계로 특히 성조 층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필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적당한 제보자를 찾는 방식을 선호한다. 아침 차가 읍내로 가기 전에 간이정류장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무조건 태운다. 그러다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특정한 분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인심을 베푼 격이 되기 때문에 친밀감 측면에서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특히 울진 서면에서 울진읍까지는 자동차로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천천히 운행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낸 바 있다.

17) 제보자들은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4대째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하거나, 연령 때문에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며, 제시된 연령은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밖에, 보조제보자들도 많았으나 성명은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조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겨울을 통해 이루어졌고, 질문지는 지도교수인 최명옥 교수가 이전에 직접 만든 것을 토대로 하여, 세 지역어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몇 가지를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18) 전통적인 방언 연구의 경우,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을 접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가급적 제보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친척들이 어디에 살며 또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수다형 친척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 필자가 문경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이 분에게서는 주로 성조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반면, 분절음 층위에서의 조사는 매체에 비교적 덜 오염된 80세 전후의 제보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성조는 비교적 매체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필자의 판단이 작용했음을 밝힌다.

남점선(여, 60세, 문수면 조제리)[20]
울진: 오시관(여, 87세, 울진읍 온양리)
남종우(남, 86세, 북면 고목리)

영주에서 문경은 약 80킬로미터, 영주에서 울진은 약 110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데 영주-예천-문경 사이와는 달리 영주-봉화-울진 사이 특히 봉화읍에서 울진읍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상에는 마을이 드문드문 나타날 정도로 산악지대가 이어진다. 예천과 문경은 폭이 약 100미터 정도 되는 산양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산양천을 경계로 두 지역어는 특히 성조 층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21] 그것은 바로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율동규칙의 유무이다. 이 율동규칙은 인접한 예천 쪽 마을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봉화와 울진에서의 지역어 간 차이 중 대표적인 것은 봉화지역어의 성조배열 L·HH와 울진지역어의 성조배열 L·HL이다. 울진 서면사무소에서 봉화 쪽으로 30킬로미터에 걸쳐 산악지대가 이어지는데 군데군데 몇 마을에서 성조 실현 양상을 확인해 본 결과 봉화 쪽에 가까워질수록 L·HH의 발화빈도가 조금씩 높아진다. 울진과 봉화의 경계에는 광회리 검문소가[22] 있는데 광회리의 노년층 말에서는 어형에 따라 L·HL 2음절 어형이 일반적인 발화이나 L·HH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접촉의 양상을 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23]

1.3. 선행 논의 검토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 중 한 지역어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 논의로는 문경지역어를 연구한 민원식(1982), 이시진(1986), 영주지역어를 연구한 정원순(1988), 임석규(1999), 울진지역어를 연구한 주상대(1975), 주상대(1989)를 들 수 있다. 이 논의들 중 임석규(1999)를 제외하고는 성조 층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민원식(1982)는 문경지역어에 나타나는 음운과정 전반을 다루기는 하였으되 통시적인 요소와 공시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지금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80년대 토박이말이 꽤 제시되어

20) 필자의 고향이 영주이기 때문에 이 제보자를 만나 수시로 확인조사를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필자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특히 필자의 조모(89년 81세로 작고)의 말을 기억해 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필자가 대학 1학년 때 최명옥 교수의 권유로 필자의 할머니가 쓰던 말을 녹음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1) 말이 달라지면서 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산양에 거주하는 황영섭(75세)을 비롯한 몇몇 제보자는 옛날에 마을간에 다툼이 꽤 있었다고 했다. 산양천은 문경 산양면, 예천 용궁면 사이를 흐르는데 두 마을의 싸움이 격해지면 서로 '산'과 '바다'를 빗대어 욕을 했었다고 한다.

22)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진에 소속되어 있다. 이곳은 광산이 지금도 있는데 광산업이 활발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번화했었다고 한다. 광회리에 사는 김 노인(73세)의 증언에 따르면 50년대까지만 해도 울진 광회리와 봉화 사이에는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울진 지소장(경사)과 봉화 출장소장(경위)의 계급이 달라서 마을의 분쟁은 울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듭지어졌고 젊은층끼리의 싸움에서도 봉화 젊은층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23) 울진 서면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는 버스 운행 시간과 교통비를 고려해 지금도 봉화 현동 쪽으로 장을 보러 다니기도 한다.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시진(1986)은 문경지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제시된 자료는 문경지역어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해 보인다. 이들 두 논의 모두 음운과정의 정밀화를 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영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정원순(1988)에서도 민원식(1982)와 이시진(1986)에서의[24]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자료 또한 그다지 면밀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정원순(1988)은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기술한 것인데,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음은 물론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음운과정 전반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석규(1999)는 성조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면서 분절음 논의에서 성조 인식이 중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단, 음운과정을 다루면서 한 지역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특정 음운과정의 기제를 제대로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울진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주상대(1989)는 자료의 면밀한 수집을 통한 논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를 주로 어휘음운론, 자립분절음운론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해 보려는 것이었으므로 필자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25]

개별 주제를 통해 이들 세 지역어를 연구한 성과도 눈에 띈다. 문경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사회방언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박경래(1985), 박경래(1986)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논의에서는 문경지역어와 괴산지역어의 세대별 음운체계, 세대별 자음군단순화 양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영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최태영(1984), 신승원(1990가) 등을 들 수 있다.[26] 최태영(1984)는 움라우트에 관한 논의로서 단일 형태소 내부, 형태소 연결, 그리고 복합어에서의 움라우트의 실현 양상과 움라우트의 음운론적·형태론적 제약과 조건 등을 논의한 것이다. 신승원(1990가)는 이 지역어를 면 단위로 조사하여 음운, 어휘 및 형태, 어법의 측면에서 방언 분화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울진지역어에 대한 연구로는 생성음운론 초창기에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 따라 음운론적 차이가 확인됨을 강조한 이병근(1973)을 들 수 있다. 성조 층위에서 김차균(1997)은 울진지역어와 삼척지역어를 대조하면서 전자에서는 HH가 확인되고 후자에서는 HH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울러 울진지역어의 고장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문규(1997) 또한 울진지역어의 고장조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박숙희(2005)에서도 확인된다.[27]

24) 이는 유일하게 성조 표시를 하려 한 논의이다. 그런데 표면성조가 HH로 나타나는 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듯하다. 이런 것들이 HL로 제시된 것이 꽤 많아 보인다.

25) 주상대(1989)보다는 주상대(1975)에 울진지역어의 자료가 더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조사 당시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26) 이 외에 오종갑(1982)와 이옥화·이수주(1983)이 있다. 현대 방언과의 대비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16세기 후반 자료인 ≪七大萬法≫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는 볼 수 없다.

27) 후술하겠지만 이는 고장조로 보기 어렵다. 단음절 어간이 단독형으로 발화될 경우 울진지역어의 어간은 영주지역어나 문경지역어의 L·H와 동일하다. 단, 어미가 통합할 때에는 영주지역어, 문경지역어와 확연히 구분된다. 그것은 성조배열 즉 L·HH과 L·HL의 차이이다. 울진지역어의 L·HL이 변이성조를 가지는 데 그것이 수의적으로 H:L로 나타나는 듯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장조를 저고복합조의 자유변이음으로 파악한다. 울진지역어의 일반적인 성조배열은 L·HL이지만 L·HH도 더러 확인되는데 이것이 저고복합조를 고장조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그간의 연구는 이들 세 지역어가 동남방언 특히 그 인근의 다른 하위방언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면밀하게 논의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영주지역어, 문경지역어, 울진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려는 것도 이러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1.4.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는 한 지역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체제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성조 지역어에 대한 음운론 연구는 일반적으로 음소론과 성조론을 함께 다루어 오지 않았다.[28] 분절음 층위와 성조 층위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두 층위의 논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제상의 약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성조 지역어에서의 음운론적 연구는 분절음과 성조가 함께 논의될 때 비로소 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소론과 성조론을 균형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29]

필자가 음소론과 성조론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음소론은 음소론대로 성조론은 성조론대로 따로 논의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조 층위를 소홀히 다룬 결과는 모음 목록 또는 모음 체계의 확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모음 목록 및 모음 체계를 확정할 때에 최소대립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음장방언에서의 모음 체계는 대체로 최소대립어를 통해서 논의된 반면 성조방언에서의 모음 체계는 최소대립어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30] 서부경남의 산청지역어의 모음 목록에 대해서만도 논자에 따라 8모음(김재문 1977:94~96), 또는 7모음(김정대 1998:324~329), 6모음(배병인 1983:24~30)로 각각 다르게 파악한다.[31] 단순히 조사지점의 문제 내지 제보자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한 지역어 내에서도 조사지점에 따라 음운 체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도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그러한 논의들이 최소대립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32] '틀(機)'과 '털(毛)'은 비성조방언에서는 최소대립어가 될 수 있지만 성조방언에서는 최소대립어라고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틀'과 '털'은 모음뿐만 아니라 성조도 대립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33]

28) 임석규(1999)와 김세환(2005)는 음소론과 성조론을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

29) 그동안 음운과정과 성조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더러 찾아 볼 수 있다. 서정목(1981)은 성조와 움라우트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이는 최명옥(1982), 백두현(1982나)에서 부정되고 있다. 이 밖에 이동화(1991), 최한조(1997) 등이 성조와 분절음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30) 임석규(1999:7-10), 임석규(2004:67-69), 김세환(2005:6-8)에서는 성조와 분절음까지를 고려하여 여러 최소대립어를 제시하였다.

31) 반면 전광현(1979:56)에서는 함양지역어의 모음을 8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모음간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덧붙이면서 대립쌍을 몇몇 제시하고 있다.

32)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진지역어에서도 변이음 '외'가 '외삼촌', '외가' 등에서 확인된다. 삼척지역어에서 10모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울진지역어에서도 일부 지역에 단모음 '외'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소대립어를 찾을 수 없다면 '외'를 모음 목록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에 의하면 경북의 대부분 지역어에서 '틀(機)'과 '털(毛)'이 구분되는 것으로

또 화자들이 '틀'과 '털'을 발화할 때 특정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발화를 하면서 두 단어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보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다른 최소대립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성조방언에서의 모음 목록 및 모음 체계는 성조를 고려하지 않고는 쉽게 확정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남방언의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성조에 대한 고민이 분절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성조가 분절음운과정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는 것 또한 서로 다른 두 층위를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어원 연구에서도 성조적인 측면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34]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분절음이 변동될 때 성조는 어떤 식으로 변동되는지도 면밀히 고찰하여 기존의 연구성과와는 다른 점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성조 연구가 성조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분절음 층위와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성조에 대한 이해는 분명 음운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성조방언을 대상으로 한 그간의 음운론 연구는 해당 자료에 성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도 더러 볼 수 있다. 성조방언 연구에 있어 자료에 성조 표기가 누락된다면 그 자료의 가치는 반감될 수 있을 것이다. 성조 표기를 일일이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도 성조 연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35] 아울러 그 논자에게도 또 다른 문제의식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36]

본고는 지역어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방식에 의해 기술·설명되는데 분절음 층위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소의 변동에 관한 공시적인 음운과정과 음운규칙을 연구하며, 초분절음 층위에서는 성조소 및 개별 어간과 어미의 기저성조, 나아가 성조배열제약과 성조변동규칙에 대해서 연구한다. 본고의 모든 공시적 음운과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뉘어 기술·설명될 것이며, 기저형은 각 지역어의 음운 목록 즉 음소 목록과 성조소 목록을 고려하여 설정될 것이므로 추상적인 기저형의 설정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다. 이에 단일기저형으로 다른 이형태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기저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분절음에 관한 논의는 어간말 또는 어미초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기술·설명하는 최명옥(1980), 배주채(1994)의 모델을 취하지 않고 음운과정별로 기술·설명하는 최명옥(1982)의 모

되어 있다. 이는 최소대립쌍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라 하겠다. 반면 진정한 대립쌍이라 할 수 있는 '글(書)'과 '걸(梱)'은 지역어에 따라 그 대립이 유지되는 지역어와 그렇지 않은 지역어가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34) '뚜께(蓋)'의 어원을 중세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동사 '둪-(蓋)'과 관련짓기도 한다. 당시의 평성은 경북 북부지역어에서 'H_1'(2장 참조)에 대응된다. '덥꼬(HL)', '덥께(HL, 덮개)'에서는 그 대응을 확인할 수 있으나 '뚜께(LH)'에서는 그 대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35) 신승원(1990가, 1990나)는 영주지역어의 성조를, 신승원(2000)은 의성지역어의 성조를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정철(1980)을 포함한 정철 교수의 일련의 논의도 의성지역어의 성조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36)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이 한국어의 성조를 연구하는데 우리 음운론자들은 성조라면 무조건 멀리하려는 경향 또한 지적하고 싶다.

델을 따른다. 음운과정별로 기술·설명하는 모델이 한 음운과정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음운과정간의 상호 관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음운과정 각각을 논의할 때에는 당연히 환경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조에 대한 논의는 어간과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의 성조 연구는 어미의 기저성조를 인정하는 논의와 어미의 성조는 어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어미의 기저성조를 인정하지 않는 논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에는 김차균(1977/80), 김성환(1987), 이동화(1990), 곽충구(1994가), 정원수(1994), 이문규(1998), 임석규(1999), 박진혁(2003), 김세환(2005), 박숙희(2005) 등이 포함되며,[37] 후자로는 문효근(1962), 정연찬(1977), 조현숙(1985), 이혁화(1994) 등이 포함된다.[38] 어간과 어미의 기저성조는 각 어간과 각 어미의 통합에서 나타나는 곡용 및 활용 패러다임의 성조를 고려하여 설정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조배열제약과 성조변동규칙이 논의될 것이다. 단일 기저성조로 여러 표면 성조를 도출하는 과정이 성조변동규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절음 층위에서의 기저형 설정 방식과 입장을 같이하여, 어간의 기저성조를 두 가지 이상으로 파악할 것이다.

1.5. 논의의 구성

본고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음소 목록과 성조소 목록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기저형의 설정 방법 및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을 확정할 것이다. 당연히 기저성조도 기저형에 포함될 것이다. 4장에서는 분절음 층위에서의 음운과정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조의 유용성이 강조될 것이다. 5장에서는 성조배열제약을 토대로 성조변동규칙을 교체, 탈락, 축약 세 부류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6장은 이 논문의 결론으로서 본론을 요약하는 식으로 서술될 것이다. 다만 경북북부지역어가 어떤 음운론적 특징을 보이는지 총괄해 보기 위해 동남방언의 일반적인 특징들과도 관련지어 서술될 것이다.

---

37) 곽충구(1994가)와 박진혁(2003)은 동북방언을 논의한 것이다.

38) 허웅(1954)는 후자의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허웅(1954:15)에서는 '-에서, -으로'의 경우 '중조(中調)'라고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봉국(1999:45-46)에서는 일부의 어미에 대해 기저성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절충적인 입장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2. 음운 목록

2.1. 음소 목록

경북북부지역에 위치한 이 세 지역어에서의 자음 목록은 다른 방언권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1] 다만 모음 목록은 동남방언의 여타 방언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최소대립어를 바탕으로 자음 목록과 모음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최소대립어를 제시할 때에는 성조도 고려할 것이다.

필자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성조를 고려하면서 최소대립쌍을 제시한 논의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대립쌍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음 목록 및 모음 체계가 올바르게 제시될 수 없다. 주지하듯이 동남방언의 모음 목록은 '으'와 '어'의 대립 유무, '애'와 '에'의 대립 유무에 따라 6모음, 혹은 7모음, 8모음으로 확정될 수 있다. 동부경남방언은 6모음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반면 서부경남방언은 동일한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6모음 또는 7모음, 8모음 목록 등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2] 이는 조사지점의 차이로 이해될 수도 있고, 조사자의 판단의 차이, 세대에 의한 차이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다만 최소대립쌍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했더라면 그 연구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로 볼 때 성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음소 목록이 제대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은 음소 목록을 설정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방식이다. 최소대립쌍조차 제시하지 않은 (1)과 같은 논의, 심지어 (1)과 같은 예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모음 체계를 확정한 논의도 눈에 띈다.[3]

(1) 은어(銀魚), 으뜸(元), 언덕(阜), 어른(丈)

(2) 가. 말(馬) : 물(水)　cf. 마'리, 무'리'
　　나. 말(馬) : 팔(腕)　cf. 마'리, 파'리

(3) 틀(機) : 털(毛)　　기(旗) : 귀(耳)　　시(時) : 쉬(蠅卵)

(1)의 경우는 주로 조사자의 판단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1)에 비해서 (2)는

---

1) 물론 지리적으로 조금 아래에 위치해 있는 하위 방언권에서는 경음 'ㅆ'이 실현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도 경북북부지역어와의 차이로 규정될 수 있다.

2) 고성지역어만 보더라도 논자에 따라 모음 목록을 각기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정연찬(1968:66-69), 최중호(1984:14)에서는 8모음, 정인상(1982:59)에서는 6모음, 박창원(1983:15)에서는 7모음 또는 6모음이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청지역어의 모음 목록에 대해서도 논자에 따라 8모음(김재문 1977:94-96), 또는 7모음(김정대 1998:324-329), 6모음(배병인 1983:24-30)로 각각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3) 임석규(2004가)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다.

대립쌍을 제시하면서 음소 목록을 설정하는 보다 보완된 방식이다. 비성조방언의 경우에는 (2가)와 (2나)는 모두 최소대립쌍이 될 수 있다. (2가)는 모음의 대립만으로 의미가 변별되며, (2나)는 음절초자음의 대립만으로 의미가 변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조방언의 경우에는, (2가), (2나)는 최소대립쌍이 될 수 없다. (2가)에 제시된 곡용형 '마'리', '무'리''를 통해 그 표면성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 전자는 고조에 악센트까지 표시하고 후자는 고조로만 기술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논자들이 후자의 '물'을 저조라고 기술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 근거해 볼 때 논쟁의 여지가 있는 (2가)와 같은 최소대립쌍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모음뿐만 아니라 성조까지도 대립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4] 필자는 어간과 특정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두고 두 어간이 구별된다는 화자들의 제보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어미와 결합한 형태를 발화하더라도 성조의 차이가 없는 어간을 최소대립쌍으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1993)에 제시된 일부 대립쌍을 뽑아서 제시한 것이다. 모음 목록을 설정하기 위한 대립쌍 중 (3)에 제시된 예는 성조방언권의 경우 올바른 대립쌍이 될 수 없다. (3)에 제시된 세 대립쌍에서 전자는 모두 악센트 표시가 되어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글(文)'과 '걸(擲柶)'을 통해서는 '으'와 '어'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 : 거'리'). 그러나, '틀(機)'과 '털(毛)'을 통해서 그 대립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트'리' : 터'리). '틀(機)'과 '털(毛)'의 경우는 (2가)와 동일한 유형으로 음소는 물론 성조도 대립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5] (3)에 제시된 '기(旗, 기'가) : 귀(耳, 기'가')', '시(時, 시'가) : 쉬(蠅卵, 시'가')'는 물론, 경남방언의 '들'고(擧)'와 '덜고'(減)' 혹은 '트'러'(回)'와 '터'러(脫水)' 등도 (2가)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두 대립쌍이 모두 모음 대립 외에 성조도 대립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으:어'의 대립어는 '거'리'(擲柶):그'리'(書), 어'비'(業):으'비'(邑), 어너'(言語):으너'(銀魚, 隱語):, 더'러도(減):드'러도(聞, 擧), 거'친다(經):그'친다(止), 늘ˇ(常):널ˇ(板), 이ˇ성(理性):이ˇ승(現世)'과 같이 성조 대립이 없는 경우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음소 목록을 확정할 때 최소대립쌍이 제대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조방언에 관한 한, 무엇보다 성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음소 목록을 최명옥(2004)의 체제에 기초하여 자음 목록, 유음목록, 모음 목록, 활음목록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음소 목록을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는 이유는 [자음성]

---

4) 또 경남서부방언에서 '배(梨, 배'가)'와 '베(布, 베'가')'의 경우 화자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모음 대립이 아니라 성조 대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를 허 웅(1954), 김차균(1980)의 체계에 의지한다면 전자는 고조이고 후자는 중조이다.

5)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성조배열을 고려하여 '털'은 H_1, 틀은 H_2로 파악한다. H_1은 그 좌우 음절에 모두 저조가 배열되며 H_2 뒤에는 또 다른 H_2가 배열된다. 성조형만을 보고서도 H_1과 H_2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HL', 'LH'을 굳이 'H_1L', 'LH_1'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 자세한 것은 '2.2 성조소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H_1/H_2'를 '① 허 웅(1954), 김차균(1980) ; ② 김영만(1986) ; ③ 이동화(1990), 신기상(1999), 이문규(2002) ; ④ 최명옥(1998) ; ⑤ 김주원(2000)'의 방식으로 나타내면 '① H/M ; ② 꽃류/풀류 ; ③ H/L ; ④ L/H ; ⑤ 봉우리형 H/뜀틀형 H'로 된다. 단, 이동화(1990), 신기상(1999)와 이문규(2002)의 견해는 표면성조 제시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저성조가 L인 어간인 경우 2음절 어미와 통합한 표면형은 이동화(1990), 신기상(1999)에서는 LLL, 이문규(2002)에서는 HHL로 제시된다(글망쿰 LLL : HHL).

의 유무, [모음성]의 유무에 기인한다. 주지하듯이 자음은 [+자음성], [-모음성], 유음은 [+자음성], [+모음성], 모음은 [-자음성], [+모음성], 활음은 [-자음성], [-모음성]으로 명시된다.

2.1.1. 자음 목록

세 지역어의 자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대립쌍은 다음의 (4), (5)에서 확인된다. (4), (5)에 제시된 어형은 어미의 성조에 관계없이 어간의 성조가 'H₂'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4), (5)에 제시된 어형들은 세 지역어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4)는 어두에서의 음소 대립, (5)는 음절말에서의 음소 대립을 보인 것이다. 'ㅇ'은 음절초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5)에 따로 제시한다.

(4) 가. 불(火) : 뿔(角) : 풀(草) : 물(水) --- ㅂ, ㅃ, ㅍ, ㅁ
나. 달(月) : 딸(女) : 살(膚) : 쌀(米) : 날(刃) --- ㄷ, ㄸ, ㅅ, ㅆ, ㄴ
다. 지(鼠) : 찌(線) : 치(箕) : 티(欠) : 기(耳) : 끼(才) : 키(身長)
--- ㅈ, ㅉ, ㅊ, ㅌ, ㄱ, ㄲ, ㅋ
라. 혹(贅) : 복(福) : 곡(哭), 족(足), 독(毒) --- ㅎ, (ㅂ), (ㄱ), (ㅈ), (ㄷ)

(5) 땅(地) : 땀(汗) --- ㅇ, (ㅁ)
농(籠) : 논(畓) : 녹(銹) --- ㅇ, (ㄴ), (ㄱ)

cf. (*만다), (*반다), 빤다(吸), 판다(賣, 掘), 난다(生), 단다(掛), 딴다(穫), 탄다(乘), 산다(買), 싼다(包), 잔다(睡), 짠다(織), 찬다(蹴), 간다(去), 깐다(孵), (*칸다), 한다(爲, 이상 HH), 머ˇ이(遠, 머니), 버ˇ이(開), 더ˇ이(減), 서ˇ이(疎), 저ˇ이(鹽), 거ˇ이(掛)

(4)와 (5)를 통해서 우리는 유음 'ㄹ'을 제외하고 18음소를 확인할 수 있다. (4)와 (5)에 제시된 대립쌍으로 모든 음소간의 대립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5)의 하단에 여러 음소간의 대립을 제시하였다.

(4), (5)를 통해서 확인한 18음소 외에 우리는 'ㆆ'을 자음 목록에 추가해 보려 한다. 'ㆆ'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김완진(1972)에서이다. 김완진(1972/1996:30)에서는 유음화의 간접동화를 시사하면서 관형사형 어미의 기저형을 'ㄹㆆ'로 설정해야 함을 간단히 제시하였는데, 이를 활용 어간의 기저형에 도입한 것은 강릉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이익섭(1972가/1998:286)이 처음이다. 다만 '들어#버:요(←부어요←붓어요)'에서 확인되는 'ㅅ' 불규칙용언의 경우에는 그 기저형의 말음을 'ㆆ'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이익섭 1972가/1998:298). 이후, 최명옥(1978:79-82), 최명옥(1982:100-101)에서 'ㆆ' 말음 어간을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면밀히 설명되고 있다.

최명옥(1978), 최명옥(1982)의 논의를 참고하여 'ㆆ'을 자음 목록에 추가해 보자. 'ㆆ'은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이는 (6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가. 누'쩨, 눈'노, 눈^나 ← 누ㆆ-(臥)
나. 누'제, 누'노', 논'나'(영주·문경)/난'나'(울진) ← 누-(泄)
다. 눅'쩨, 눙'노, 누'건나(영주·문경)/누'간나(울진) ← 눅-(濕)
라. 노'체, 논'노, 난^나 ← 놓-(置)

(6)에 제시된 활용형은 각 어간이 자음어미인 '-제', '-노'와 모음어미 '-안나(-았-+-나)'와 통합한 것이다. 각 어간과 어미 '-제'와의 통합에서 우리는 (6나)와 (6가), (6다), (6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6나)의 어미 '-제'는 어떠한 음운론적 변동도 겪지 않았으며, (6가), (6다), (6라)에서는 각각 어미초 'ㅈ'이 경음 또는 유기음으로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항의 두 번째 활용형 중, (6가), (6다), (6라)에 제시된 어형을 통해서 기저 어간의 음절말자음이 'ㄴ 또는 ㅇ'으로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음어미와 통합한 각 항의 세 번째 활용형 중, (6가), (6라)에 제시된 어형을 통해 모음간에서 음절말자음이 탈락된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의 어간말자음 중에서 어미초자음 'ㅈ'과 축약되어 'ㅊ'으로 변동하는 자음은 'ㅎ'뿐이다. 따라서 (6라)에 제시된 용언의 기저형은 '놓-'으로 설정될 수 있다. 어간말자음 'ㅎ'은 비음 앞에서는 비음으로 변동되며, 모음간에서는 탈락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활용형도 아울러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어미초자음 'ㅈ'과 축약되어 경음으로 변동되고(누'쩨), 비음 앞에서는 비음으로 변동되며(눈'노), 모음간에서 탈락하는(눈^나) 어간말자음은 일견 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나), (6다), (6라)를 통해 볼 때 (6가)에 제시된 활용형의 기저 어간은 어떠한 자음이 어간말에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음소 'ㆆ'이야말로 (6가)에 제시된 세 활용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6가)의 기저형은 '누ㆆ-'으로 설정될 수 있다. 반면 (6나)의 세 활용형을 통해 우리는 (6나)에 제시된 용언의 기저형이 개음절 어간(누-)임을 알 수 있으며,[6] (6다)의 세 활용형을 통해 특히 어미 '아(X)'와의 통합에서 '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6다)에 제시된 용언의 기저형은 어간말에 'ㄱ'을 가진 것(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저음소 'ㆆ'의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듯하다.[7] 'ㆆ'을 추상음소라고 하여 비판하는 논자들이 있는데 사실 'ㆆ'을 무조건 추상음소라고 단언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듯하다. 현대 국어의 음운과정을 'ㅿ', 'ㅸ'을 통해 기술한다면 이것은 추상적인 설명이 된다. 'ㅿ', 'ㅸ'은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이기 때문이다. 'ㆆ'은 이들과 성격이 분명 다르다. 성격이 다른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른 자음들처럼 대립쌍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추상음소로 인정한다면 필자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된 '聝'의 의미를 지닌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더 간결한 기술인가를 검토해 보자.

(7) 가. 실˘코, 실˘치, 시'르니, 시'러

---

6) '논나(문경·영주)/난나(울진)'에 대한 음운과정은 약간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4.1.1.절과 4.1.8.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7) 최근 'ㆆ' 설정을 꺼리는 논의로는 엄태수(1999:124-129), 김혜영(2004:26-31)가 있다.

나. 실ˇ꼬, 실ˇ찌, 시'르니, 시'러

(7가)에 제시된 활용형을 통해서 대부분의 논자는 기저형을 '싫ˇ-'로 설정한다.[8] 문제는 (7나)에서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ㆆ'을 음소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7나)도 (7가)와 마찬가지로 단일기저형 '실ˇㆆ-'을 설정한다. 그런데 'ㆆ'의 추상성을 비판하는 논자들의 체계에서는 기저형이 두 가지로 설정된다. 그들의 체계에 따르면 그것은 '싫ˇ-'과 '시'르-'일 것이다. 문제는 '싫-'이라는 기저형에서 'ㄾ' 자음군이 국어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7나)를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추상적이라는 한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복합기저형을 설정하게 되면 두 가지의 비판을 받게 된다. 하나는 'ㄾ' 자음군이 국어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복합기저형을 설정하여 어휘부를 왜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음장방언에서도 확인된다. 편의상 음장방언의 예를 제시한다.

(8) 가. 씨코, 씨:면, 씨:도(洗)
　　나. 씨꼬, 씨:면, 씨:도(洗)

각각의 패러다임에서 첫 번째 활용형 '씨코', '씨꼬'에서의 둘째 음절 첫 음소의 차이로 인해 (8가)에서는 단일기저형 '씽-'을 설정하고, (8나)에서는 복합기저형 '씯-'과 '씨:'를 설정하게 되면 패러다임 (8나)를 가진 화자는 복합기저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단일화 과정을 생각지도 않고 아무런 불편 없이 언어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합기저형이라면 단일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8나)에 제시된 활용형은 단일화 과정을 겪지 않고도 화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다. (7나)를 통해 제시된 복합기저형도 (8나)에서와 같이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복합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는 용언들은 '흐르-~흘르->흘르-(流)'로의 단일화, '돕:-~도우->도우-(助)'로의 단일화처럼 재구조화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9] 복합기저형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을 듯하다. 비록 이상의 논의가 'ㆆ'을 기저음소로 설정하는 데, 적극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ㆆ'의 설정이 음운과정의 기술에 보다 유리해 보인다.

이상을 통해, 활용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ㆆ'이 음소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다. 'ㆆ'을 포함하여 세 지역어에서의 확인되는 순수 자음은 'ㆆ'에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 ㅈ, ㅉ, ㅊ, ㅎ, ㅁ, ㄴ, ㅇ' 모두 19개라고 할 수 있다.

---

8) 김성규(1987:71-74), 김성규(1988:35)에서 처음 제기된 단음화 과정(성조방언에서의 비복합조화)이 자동적 교체가 아니라서 어휘부에 따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세 지역어에도 적용된다. '실ˇ꼬(截)', '시'러'에서 확인되는 '비복합조화(음장방언에서의 단음화)'는 일단 이 절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9) '흐르고, 흘러서, 흐르면' > '흘르고, 흘러서, 흘르면'에서 우리는 복합기저형 '흐르-'와 '흘르-'가 단일 어간 '흘르-'로 재구조화되었음을 알고 있다.

2.1.2. 유음 목록

(9)에 제시된 대립쌍을 통해 우리는 유음 'ㄹ'을 음소로 설정할 수 있다. 어두에서는 'ㄹ'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립은 (9가)와 같이 종성을 통해서, 혹은 (9나)에서와 같이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음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에서와 같이 제시된 어형은 어떤 곡용 어미와 통합되더라도 항상 고조로 실현되는 H_2 어간이다.

(9) 가. 딸(女) : 땀(汗) : 땅(地)
 나. 저리(箸, 寺) : 저기(煎) : 저미(點) : 저비(椄) : 저시(醢) : 저지(乳)

(10)을 통해서 유음을 자음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유음 'ㄹ'이 [자음성]과 [모음성]을 모두 지니기 때문이다. [자음성]과 [모음성]을 모두 지니지 않는 활음을 따로 목록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10) 가. 거'리'야(걸+이야), 윷'이야(윷+이야), 모'야(모+이야)
 나. 걸'로', 유'츠로(윷+으로, 영주)/유'처로(문경)/유'터로(울진), 모'로

(10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음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음을, (10나)를 통해서 모음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가)에서는 어미 '-이야'에서의 '이' 탈락이 모음 뒤에서만 확인되고, (10나)에서는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가 자음 뒤에서는 '-으로', 모음과 유음 뒤에서는 '-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2.1.3. 모음 목록

동남방언의 모음 목록에서 6모음과 7모음의 차이는 후설평순모음 'ɨ'와 'ə'의 합류 여부에 달려 있다.[11)] 대부분의 하위 방언권에서는 'ɨ', 'ə'가 합류되어 6모음으로 규정되나 경북의 최북단 지역에서 실현되는 영주지역어, 봉화지역어, 예천지역어, 또 거기에 인접한 안동지역어, 청송지역어, 의성지역어 등에서는 'ɨ'와 'ə'가 변별되어 7모음으로 규정되고 있다.[12)] 그러나 최북단

10) 필자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둘로 잡는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으X' 단일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유음과 모음 어간 뒤에서의 '으' 탈락으로 설명된다.

11) 동남방언의 모음 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 정리 및 모음 체계의 변화에 관한 고찰은 곽충구(2003:79-81)을 참고할 수 있다.

12) 필자가 직접 조사해 본 지역어 외에, 의성지역어는 정철(1980:350-355), 정철(1989:18), 청송지역어는 김세환(2005:7-8)를 따랐다. 정철(1980)에서는 의성, 안동, 청도, 문경, 선산, 고령, 성주, 영덕, 상주, 대구지역어 중 의성지역어와 안동지역어에서는 '으'와 '어'의 대립을 인정하였다. 최명옥(1992가/1998:424-425)에서는 이들 지역어 외에 군위, 칠곡, 달성, 경주지역어, 일부 영양지역어를 더 들고 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에는 대립쌍 '글:걸'이 영주, 봉화, 울진, 상주, 의성, 김천지역어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고령, 달성, 경주지역어에서는 '걸'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라 하더라도 문경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는 7모음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자유변이음으로 '으'와 '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으나 최소대립쌍으로는 그 대립을 인식하지 못한다.[13] 창원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영태(1983:83)에서도 'ɨ'와 'ə'는 물론 'e'와 'ɛ'가 현실음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화자들은 그 대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세 지역어에서의 모음 목록을 살펴볼 것이다. 자음의 최소대립쌍을 제시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어미의 기저성조와 관계없이 어간의 성조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H_2' 어형을 위주로 모음의 최소대립쌍을 제시한다.

먼저 '에'와 '애'의 합류 여부, '으'와 '어'의 합류 여부부터 검토해 보자. 그 합류 여부는 (11)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11) 가. 띠(帶) : 떼(時), 떼(群) --- i, E[14]　　cf. 테'가(輪), 태'가(胎)
　　나. 글(文) : 걸(擲柶)　--- ɨ, ə(영주지역어)
　　　　걸(文) : 걸(擲柶)　--- Ǝ[15] (문경지역어)
　　cf.[16] 어'비'(業):으'비'(邑)　더'기'(德):드'기'(得)　어너'(言語):으너'(銀魚, 隱語)
　　　늘ˇ(常):널ˇ(板)　떠'러(兢):뜨'러(물이 듣다)　더'러도(減):드'러도(聞, 擧)
　　　거'처(經):그'처(止)　이ˇ성(理性):이ˇ승(現世)　합'썽'(合成):합'씅'(버스, 合乘)

(11가)를 통해 세 지역어에서 음소 '에'와 '애'의 합류를 확인할 수 있고, 합류된 모음 'E'와 '이'와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경남 서부의 일부 방언을 제외

안동지역어를 연구한 논의 중 이재오(1971:63-64)만이 '으:어'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역어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조사지점과도 관련될 듯하나 좀더 많은 대립쌍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인다.

13)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박숙희(2005:9)에서도 울진지역어에 대해 7개의 모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문제는 대립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찰에만 의지한다면 연구자마다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울진 지역의 토박이 화자라 할 수 있는 주상대 교수는 주상대(1975:8-9)에서 '으'와 '어'에 대해 최소대립쌍을 설정할 수 없는 변이음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철(1980:350-355)에는 '으:어', '에:애'의 대립쌍이 꽤 많이 제시되어 있어, 음소대립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제시된 몇몇 단어들은 성조를 고려할 때 대립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4) 편의상 음소 'E'는 '에'로 전사하고, 'Ǝ'는 '어'로 전사한다.

15) 영주지역어에서 '으'와 '어'가 구분된다는 것은 임석규(1999)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참고로 '으'와 '어' 구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ə'로 완전히 굳어진 예들로는 덜ˇ(들), 덩따'리(등허리), -얼/-럴(-을/-를, H_2), 컹그랑'(큰 냇물), 어ˇ런(丈) 등을 들 수 있고, 'ɨ'로 완전히 굳어진 것으로는 끔ˇ(껌), 등거'리(덩어리), -드'라(-더라), -그'라(-거라), -든'동(-든지), 그'든(-거던) 등을 들 수 있다. 현지 조사시 이러한 몇 개의 조사 항목을 통해 두 모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어형을 더 조사하게 되면 두 모음이 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 '으'와 '어'가 구분된다고 해도 이 지역어의 '으'는 중부방언의 '으'와는 음성적인 차이가 있다.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받아쓰기에서 필자가 분명 '으'로 발음한 것들을 '어'로 적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중부방언의 '으'에 비해 이 지역에서 발화되는 '으'의 조음위치가 '어' 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영주지역어 화자는 그 나름대로 '으'와 '어'의 대립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16) 이는 영주지역어에서 '으'와 '어'가 구분됨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 예를 더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2음절 이하에서는 대립을 보여주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인명에서조차 영주 화자들은 헷갈리기도 한다. '제승', '춘득'이라는 이름을 각각 '제성', '춘덕'으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듯 2음절 이하에서의 혼란은 노년층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하면 동남방언의 하위방언권에서는 (11가)와 같은 합류가 통설인 듯하다.[17] 경북 북부의 세 지역어에서도 화자들은 노년층, 젊은층에 관계없이 두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만 (11나)의 경우, 영주지역어에서는 그 대립이 확연하며 문경지역어나 울진지역어에서는 그 대립이 확인되지 않는다. 화자들의 반응 또한 흥미롭다. 영주지역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목청을 돋우어 그 대립을 알리려 하고 문경이나 울진지역어 화자는 얼굴이 상기되면서 제보에 자신감을 잃기도 했다. 특히 대립쌍 '걸:글'은 글을 모른다는 비하의식과 관련되어 화자들에게 자신감을 잃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 듯하다. 문제는 '으'와 '어'의 대립이 젊은층 화자들에게는 더러 확인된다는 것이다. 젊은층에서는 '걸'과 '글'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어스름/으스름, 어스름/어서름, 어스럼/어스름'과 같은 것은 글자를 보고도 명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18]

이제 다른 모음의 대립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2)에 제시된 대립쌍을 통해 우리는 다섯 가지 모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가. 발(足) : 불(火) : 벌(罰) --- a, u, ə(영주)/Ǝ(문경, 울진)
　　나. 손(手) : 신(履) --- o, i

cf.[19] 으'비'(邑) : 어'비'(業) : 아'비'(壓) : 이'비'(口)
그'리'(書) : 거'리'(擲柶) : 고'리'(頭) : 기'리'(路)
사'니(山) : 소'니(客) : 시'니(神) : 수'니(萌) : 서'니(先)
세ˇ가(鳥) : 사ˇ가(四) : 서ˇ가(署) : 수ˇ가(數) : 시ˇ가(市)
에ˇ가(焦思) : 오ˇ가(五) : 이ˇ가(二)

이상에서 문경, 울진지역어에서는 '으'와 '어'의 합류, '에'와 '애'의 합류가 확인되므로 'i, E, Ǝ, a, u, o' 6개의 모음을,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에'와 '애'의 합류만 확인되므로 'i, ə, E, ɨ, a, u, o' 7개의 모음을 그 목록으로 확정할 수 있다.

2.1.4. 활음 목록

이 세 지역어의 활음으로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y'와 'w'가 존재한다.[20] 이는 (13)에

17) 다만, 경북 방언에서 '으:어', '에:애'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으로는 상주의 화북 지역어를 들 수 있다.(백두현 1985:85-87). 아울러 이 지역어는 성조가 의미 대립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북면은 서쪽은 속리산에 의해 막혀 있으나 북쪽으로는 충북과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한다.

18) 필자의 간략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경남방언의 화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19) (11), (12)에 제시된 대립쌍으로는 모든 모음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기에 예를 더 추가하여 제시한다. '으' 모음을 가진 대립쌍은 영주지역어를 위한 것이다. 이는 문경, 울진지역어에서는 모두 '어'비'(邑)', '거'리'(書)'로 전사된다.

20) 김종규(2003:4)에서는 y, w뿐 아니라 ʔ, h를 포함하여 활음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y, w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ʔ, h를 체계상에서 후음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필자가 써오던 기존 방식을 따라 y, w를 활음이라 하기로 한다.

제시된 대립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13)~(18)의 자료는 세 지역어에서 모두 확인된다.

(13) yE : wE : E
예ˇ(禮) : 웨ˇ(왜) : 에ˇ(勞心)

(13)에서 확인된 활음 y, w가 실현되는 어사로는 각각 '야ˇ(대답의 '예', 이#아이), 야께'이~여께'이(狐), 여'식'~여'시'가(女兒), 요'구~요'기(療飢), 유리'(琉璃)', '왼ˇ짝~웬ˇ짝(左側), 위ˇ가(外家, 영주)/웨ˇ가(문경, 울진), 웨ˇ국(外國)[21] 웨'놈(倭), 예주'루~예주'룩(차례로), 월'레'(原來), 왕(王, H_1)'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활음이 [-자음성], [-모음성]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겨ˆ(冬)', '머여'(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겨'의 음절구성은 CGV이고 '머여'의 음절구성은 CVGV이다. 두 단어에서 확인되는 활음(G)을 자음 또는 모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겨'에서의 활음을 자음으로 파악하게 되면 한국어의 어두에는 하나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는 제약에 어긋나게 되고, '머여'에서의 활음을 모음으로 본다면 모음이 연속으로 셋이 놓이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22]

주지하듯이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은 이 지역어들에서 분포상의 제약을 갖는다.[23] 소위 이중모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 한해서 분명히 실현되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서의 활음은 대체로 탈락된다. 그 대강을 보이면 (14)와 같다.

(14) 가. 여'게~여'가(餘暇), 야께'이(狐), 야ˇ(이#아이), 옌ˇ날(昔)[24], 요'구(療飢)[25], 유리'(琉璃),

21) 분절음 측면에서는 문경지역어나 울진지역어인 경우 '이ˇ가', '이ˇ국'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은 이것이 매체에 오염되지 않은 노년층의 발화이다. 80세 이상일수록 '이ˇ가', '이ˇ국'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울진지역어에 비해 이런 경향이 더 높다. 이는 'ö>we>wi>i'와 같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에ˇ가', '에ˇ국'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에ˇ가', '에ˇ국'이라고 하는 지역어에서는 다른 변화를 생각할 수도 있다. 영주지역어의 경우 '왼ˇ짝', '위ˇ가'로의 발화는 확인할 수 있으나, '위ˇ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제시하기 위한 표기 '위'는 단모음이 아님을 밝힌다.

22) '세운다(停止)'의 과거형 '세윘따'가 '세우얻따'로 발화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바꾼다(交換)'의 과거형 '바꾸얻따'와 비교할 수 있다. 이병근(1973)에서는 '세워', '베워' 등을 통해 활음의 [-모음성]을 지적하였다. 사실은 '아오이다(知)'와 같이 모음이 셋 연속으로 놓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통시적 관점으로는 모음 셋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오이다'는 현대국어에서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될 만하다.

23)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과 관련된 제약은 음소배열제약이라는 장(章)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활음목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급한다.

24) 문경지역어에서는 '인ˇ날'로도 나타난다. '인ˇ날'은 'yE'>'yi' 변화의 결과이다. 'yinnal'과 같은 발화도 꽤 많이 확인되지만 음운론적으로 'yi'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역시 대립쌍을 발견할 수 없다. 'yinnal'에서 'innal'로 변동하는 것은 음절구조제약 때문이다. 단어내부에서의 '에>이'는 문경지역어에서 가장 활발하고 영주지역어는 개신이 미치다 만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되지 않은 어형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빌'밍'(別名), 기'빌(奇別), 남'핀(夫), 물'낄'(波), 이'빌(離別), 피ˇ뼝(肺病), 찌ˆ비(燕), 띠(群, H_2), 사ˇ빈(事變), 이'미'(母), 피ˇ지(廢止), 히ˇ택(惠澤), 히ˆ저써(헤어졌어), 삔'치(펜치), 힝하'기(急) 등이 '에>이' 변화에 결과한 것이다. 울진지역어의 경우도 단어 내부에서의 모음 상승의 빈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많은 어형이 고음상승을 겪은 형태로 발화된다. 활용의 경우 '버'레(버리+아, 棄)', '올'레(올리+아, 引)' 등이 문경지역어와 다르다.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버'리', '올'리'로 나타난다.

왕(王, H_1), 월(月, H_2)

나. 헐'압'(血壓), 헝'아(兄), 게ˇ(契, 계), 호ˇ자(孝子), 비ˇ로(肥料), 차'포(票)[26], 후'가(休暇), 서'구'(油) // 까'자(菓子), 머^라꼬(뭐+이라고)

(14가)는 어두에서 활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며, (14나)는 음절 위치에 관계 없이 활음이 확인되지 않는 예이다. 요즈음 노년층에서도 매체의 영향으로 (14나)와 같이 활음 'y'가 앞서는 경우에는, 중부방언에서처럼 '효자', '비료' 등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지역어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활음이 실현될 수 있는데 대체로 활음에 선행하는 자음이 없어야 한다.

(15) 히'얀(稀罕), 머여'(先), 주ˇ요(主要), 우유'(乳),
데ˇ왕(大王), 이ˇ원(醫院), 병ˇ원(病院, 영주)/빙ˇ원(문경·울진)

그런데,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는 '가시니껴', '껴입꼬', '겨울', '집경(接境)'에서처럼 활음에 선행하는 자음이 있는 경우에도 활음이 제대로 실현되기도 한다. 특히 이런 현상은 영주지역어에서 상당히 실현 빈도가 높은데 다른 자음보다는 연구개음이 활음에 선행할 때가 일반적이다.[27]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은 활음이 선행하는 것과 활음이 후행하는 것으로 나뉜다. 활음이 선행하는 것은 다시 'y'계와 'w'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y'계는 (16)에서 확인되고, 'w'계는 (17)에서 확인된다.

(16) yE - 예주'루~예주'룩(차례로)
yə(영주)/yƎ(문경·울진) - 여'드레(八日), 여'자'(女)[28]
ya - 야ˇ(對答)
yu - 유'산(遺産)
yo - 요'구(療飢)

(17) wi - 위(胃, H_1)
wE - 웨'상(債務)
wə(영주)/wƎ(문경·울진) - 월(月, H_2), 이ˇ원(醫院), 병ˇ원(病院, 영주)/빙ˇ원(문경. 울진)
wa - 완두'(豆)

25) '오강'(요강)', '오세^(요사이)'는 '요'구(療飢)'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어형이라 할 수 있다.

26) 울진지역어에서는 '차'페'로도 나타난다. 원래의 어간에 덧붙은 것으로 이해되는 'i'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유형이 울진지역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27) 이는 안동지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경 화자들이 안동사람들을 '안동껑껑'이'라고 하는데, 아마 '껴'의 발음이 어려운 문경지역어의 음절구조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28) 울진지역어에서는 '예'자''로도 나타난다. 이는 'yə>e'의 변화가 아니라 'yə>ye'의 변화, 곧 전설성동화로 이해될 수 있다. 김성규(2003)에서도 동화로 파악한다.

다른 방언과 달리 y가 후행하는 'iy'는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이'로, 젊은층으로 갈수록 '으'로 발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18) 이'사(醫), 이저타'고(의젓하고), 이ˇ논(議論), 이지(依支, HL~L·HH), 이'자(椅子), 나'무집~나'메집(他家),

(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절 위치에 관계없이 'iy'가 실현되지 않지만, 음성형으로는 'nugiyk'EnE(溫)', 'nilgiy(늙은이)'에서처럼 [iy]가 나타난다. 물론 음운론적으로는 '-으이-(-으니-)', '그이'와 같이 2음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음성형 [iy]와 관련되어 보이는 '늘'기(늙은이, 김세환 2006)'와 같은 예는 이 세 지역어에서 실현되지 않지만, (19), (20)에서 알 수 있듯이 영주지역어의 몇몇 예는 다른 하위 방언권에서의 '늘'기'처럼 음절수가 감소되어 나타난다.

(19) 가. 하'는'#이도→하느니도→하느이도→하늬도→하'니'도[29]
나. 멍는'#이도→멍느니도→멍느이도→멍늬도→멍니'도

(20) 가. 하+느이→하느이→하늬→하'니'
나. 먹+느이→멍느이→멍늬→멍니'

(19)는 의존명사 '이'가 통합된 것이며, (20)은 연결어미 '-느니~-느이'가 통합된바, 비음탈락에 기인하여 음절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들 예들과 활용에서의 '가니더', '오니더', '오니껴', '가니껴' 등을 비교해 볼 때 비음 탈락의 환경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듯하다. 문제는 '갈라니껴~갈라이껴', '올라니껴~올라이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음이 탈락된 형태들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된 활음과 모음의 결합은 활음이 선행하는 것 9개가 존재한다. 이를 제시하면 (21)과 같다.

(21) yE, yə(영주)/yɜ(울진·문경), ya, yu, yo / wi, wE, wa, wə

지금까지 우리는 단어 내부에서 활음이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수의적인 것을 포함하더라도 yə(영주)/yɜ(울진/문경), yE, wa, wə뿐이다.[30] 다만, 울진지역어는 실현 환경은 좁지만 wE도 추가된다.[31] 이는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이+어도→여'도'(戴), 차+에→차'에~차'예(車, 茶)[32]

---

29) 용례로는 '마ˇ럴 그'러케 하'니'도 인'꼬', '잘멍니'넌 잘머^', '니ˇ가 그'이럴 하'니 차'라'리 니동세'이 하'능'게 낟ˇ따' 등을 들 수 있다.

30) 단어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구분하면서 활음과 관련한 음운론적 고찰 나아가 방언학적 고찰을 한 것은 이병근(1973)이 처음이다.

31) 이는 공시적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세'우(蝦)+에'는 '세'웨'로 실현되지 않고 '세'우에~세'우예'로 실현된다. '4.1.8. 활음화'에서 구체화된다.

오+아도→와'도'(來), 꾸+아도→꿔'도'~꺼'도'~꼬'도'(借)
cf. 고#우+에→고웨^(그#위에, 울진지역어)

우리는 지금까지 자음 목록, 유음 목록, 모음 목록, 활음 목록으로 나누어 음소 목록을 확정하였다. 이를 표로 보이면 (23)~(26)과 같다. 편의상 유음은 자음에 포함시켜 제시한다.

(23) 세 지역어 공통(자음과 유음 - 20)

조음방법 \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치경구개음[33]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 음	ㅂ p	ㄷ t		ㄱ k	ㆆ ʔ
		경 음	ㅃ p'	ㄸ t'		ㄲ k'	
		유기음	ㅍ p^h	ㅌ t^h		ㅋ k^h	
	마찰음	평 음		ㅅ s[34]			ㅎ h
		경 음		ㅆ s'			
	파찰음	평 음			ㅈ c		
		경 음			ㅉ c'		
		유기음			ㅊ c^h		
공명음	비 음		ㅁ m	ㄴ n		ㅇ ŋ	
	유 음			ㄹ l			

(24) 영주지역어의 7모음

32) 활음이 첨가되는 것을 '차+에→차에→차예'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는 모음연쇄에 의한 순수음운론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럴 경우, 형태소 경계에서 'yE'도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3) '경구개음' 앞 쪽의 조음위치를 보이기 위해 '치경구개음'이라는 용어를 쓴다.

34) 이익섭(1972가/1998:285-286), 김봉국(2002:12-13)에서는 강원도 방언을 대상으로 'ㅅ'을 'ㅈ, ㅉ, ㅊ'과 치경구개음 계열로 묶은 바 있다. 김봉국(2002)에서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ㅅ'이 'ㅈ' 계열과 전설모음화의 동화주로 묶이며, '-어/아' 종결어미의 선택과 '여→에' 축약 양상이 동일하며, 'ㅅ, ㅈ, ㅉ, ㅊ+yV'의 연쇄의 극심한 제약이 동일한 점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인호(2003)에서는 평안도 방언을 구사하는 화자의 말로부터 구개음화를 고찰하면서 자음 체계를 설정하였는데, 거기에서 'ㅅ'은 'ㅈ' 계열과 함께 '전설음', '설면음'(舌面音)으로 분류된 바 있다. 그러나 경북북부지역어의 경우는 '마셔'로의 발화는 가능하나, '밀쳐'로의 발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필자는 사실 조음 위치만을 놓고 볼 때 'ㅅ'은 물론 'ㄹ'까지도 후치경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북북부지역어를 대상으로 할 때 음운론적으로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더라도 문제가 없다. 여러 방언을 통해 국어음운론의 실체가 밝혀진다고 할 때, 이익섭(1972가), 김봉국(2002) 등의 논의는 여전히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서구어의 자음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다. 영어의 'l'은 국어의 'ㄹ'과는 조음 위치가 다르다. 영어의 'l'의 종성 조음 위치에서 한국어 '달라'를 발음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혀의 전후 위치 / 입술 모양 / 혀의 높이	전설		후설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i		ɨ	u
중모음	E		ə	o
저모음			a	

(25)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의 6모음

혀의 전후 위치 / 입술 모양 / 혀의 높이	전설		후설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i		Ǝ	u
중모음	E			o
저모음			a	

(26) 세 지역어 공통 - 2활음

전설 비원순 활음	후설 원순 활음
y	w

2.2. 성조소 목록

각 방언의 면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국어음운론의 본 모습이 밝혀질 수 있다면 성조론 또한 각 방언의 면밀한 고찰을 토대로 그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35] 어떤 연구자는 방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는 작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어떤 연구자는 한 지역어의 성조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전자와 같은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5) 신기상(1999)에 수록된 일련의 논의와 신기상(2002) 등은 후자의 입장으로 파악된다. 이들 논의에 제시된 여러 주제들은 방언성조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운과정과 관련한 성조변동, 성명(姓名)의 성조, 축약에 의한 성조변동, 'X하-' 용언의 성조 실현 등 한 방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허 웅(1954), 허 웅(1955) 이후 성조에 대한 연구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 그 실체가 꽤 많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나는 성조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조소 설정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표면성조를 이끌어내는 기술상의 문제이다.[36] 두 번째 문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성조소 목록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김영만(1997), 최명옥(1998가)에서 성조소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바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조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필자 또한 경북북부지역어의 의미 있는 몇몇 자료를 통해 성조소에 대한 그간의 견해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임석규(2003)에서 성조소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임석규(2003)에 제시된 내용을 보완하여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성조소 설정 방법론

필자가 성조소 설정을 위해 활용한 방법으로는 첫째, 올바른 최소대립쌍을 통해 성조소를 확정하는 것, 둘째, 설정된 성조소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소의 설정에서 최소대립쌍이 중요하게 기능하듯이 성조소의 설정에서도 최소대립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최소대립어를 통해서 성조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성조소 설정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38] 성조소를 결정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해 오던 방식은 '말(馬)', '말(斗)', '말(語)' 등의 단음절 최소대립어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마다 성조소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음절 최소대립어 외에, 2음절어 또는 3음절어 최소대립어를 제시하면서 성조소 설정 논의를 정밀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몇몇 성조 실현 양상을 성조소 설정에 실체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논의는 보다 큰 의의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조소 설정이 의의를 가지려면 방언 내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馬), 말(斗), 말(語) 세 단어의 음성만 듣고서는 결론 내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단어 경계에서의 성조변동, 음절축약에 의한 성조변동 등과 같은 방언 내적 증거를 고려할 때, 성조소 설정은 비로소 보다 합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말(斗)'의 기저성조를 'L'로 설정하고 그것을 다른 활용형 '뽀바도(LLL)', '자란데이(LLLL)'

---

36) 사실 성조 기술상의 견해차 또한 성조소의 설정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술상의 문제는 어간과 어미의 기저성조 설정 여부와 성조변동규칙 적용의 차이와 관계된다.

37) 이문규(1998)는 최명옥(1998가)에 대한 부분적인 반박논문의 성격을 띤다. 주로 합성어의 성조변동을 통해 '말(馬)'의 기저성조가 저조가 아님을 주장한다. 합성어의 성조변동이 상당히 규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불규칙한 것들도 많다. 공시적인 형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몇 합성어를 토대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듯하다.

38) 김정대(1998:335)에서는 창원지역어의 LM, MH에 대해서 단 하나의 대립쌍 '파이-(不好)', '파이-(被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파이-(被掘)'의 경우 창원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차균(1980:256)은 '파이이-'로 보고하고 있다.

등에까지 적용한 논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성환(1987), 이동화(1990) 등을 들 수 있는데 많은 논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임석규(2003:45-46), 임석규(2004나:69)에서 반증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성조소 설정이 방언 내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듯한 논의도 있다. 울진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이문규(1997:42-43)과 김차균(1997:409), 박숙희(2005:53)에서는 중세국어의 상성에 대응하는 어간 '곱-(麗)'류의 기저성조를 고장조로 파악하고 있다.[39] 그러나 단어 경계에서의 성조변동을 함께 고려한다면 음운론적으로는 고장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의 (27)은 울진지역어에서 보이는 '안+용언'의 성조 실현이며 (28)은 안동, 영주, 예천, 봉화지역어 등에서 보이는 '안+용언'의 성조 실현이다.

(27) 앙'곱따/암'뽑따/안잡'따
곱-(麗, H:)/뽑-(選, L)/잡-(捕, H)

(28) 앙'곱따/암'뽑따/안잡'따
곱-(麗, 상승조)/뽑-(選, L)/잡-(捕, H)
[단, (27),(28)에 제시된 활용 어간의 기저성조는 이문규(1997)을 따른 것이다.]

(27)과 (28)을 비교해 보면 '안+용언'의 성조 실현은 울진지역어에서나 다른 지역어(안동, 영주, 봉화, 예천)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0] 그렇다면 울진지역어에서의 '곱-'을 고장조라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문규(1997:38-63)에 따르면 (27)에 제시된 '안잡따'에서의 활용 어간 '잡-'의 기저성조는 고조이고, '앙곱따'에서의 활용 어간 '곱-'의 기저성조는 고장조이다. 같은 고조가 부사 '안'에 후행해 있는데도 '안'의 표면성조가 전자는 저조로, 후자는 고조로 나타난다. '곱-'의 기저성조를 고장조로 설정해서는 음운론적으로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없다. '곱-'을 최명옥(1990), 이기문 외(1990), 김주원(2000)에서처럼 상승조로, 필자처럼 저고복합조로 파악하면 울진지역어에서나 다른 지역어에서나 '안+용언'의 성조 실현은 완전히 동일해진다. 곧 고조를 기저성조로 하는 활용 어간이 뒤따를 때에는 '안'의 성조가 저조로 변동하고,[41] 그 외의 경우에는(저고복합조 또는 저조[42]) '안'의 성조가 그대로 고조로 실현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곱-'을 고장조로 설정하면 성조소도 두 하위방언권에서 달라지며, '안+용언'의 성조 실현도 두 하위 방언권에서 달라지게 된다. 이는 방언구획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39) '곱-(麗)'류를 상승조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김무식(1999:13~15)에 제시된 실험값으로 확인될 수 있다. 울진지역어에서와 동일한 음조실현을 보이는 삼척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봉국(1999:143~147), 최영미(2001:158~159)에서는 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곱-(麗)'류를 상승조로 파악하고 있다.

40) 같은 경북의 북부라도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경지역어에서는 '안'이 저조로만 실현된다.

41) 물론 하강조로 시작하는 활용 어간이 뒤따를 때에는 '안'은 저조로 실현된다. 하강조가 고조에서 시작하여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의 성조변동은 완전히 규칙적이라 할 수 있다. 곧 고조(필자의 H_1)와 하강조를 지닌 용언이 뒤따를 때에는 '안'은 저조로 변동한다는 것이다. '안+용언'의 성조 실현에 대해서는 大江孝男(1978:105~111), 이문규(1997:38~63), 임석규(1999:112~114), 김주원(2000:108~109)을 참고할 수 있다.

42) 이문규(1997)의 체계에 따른 것이다. 후술되는 것처럼 필자는 이를 L·H, H_2로 파악한다.

문제이다. 성조배열의 차이, 곧 L·HL(곱따, 울진지역어)과 L·HH(곱따, 다른 지역어)로 방언차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성조소의 차이와 '안+용언'에서의 성조 실현 차이로 방언차를 드러내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등어선의 값을 매기느냐 아니면 두 가지 기준으로 등어선의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 방언구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사 '안'의 성조 실현과 아울러 문경, 상주, 김천, 구미지역어 등에서 나타나는 '유리라카'지', '유리라카지'요' 등과 같이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penultimate position)에 고조가 놓이는 현상,[43] 영주지역어에 나타나는 '마시-(飮)>마세-'류의 재구조화 양상도 성조소 논의의 실체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사 검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조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말(馬), 말(斗), 말(語) 세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4] 여러 연구자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5]

'말(馬)/말(斗)'의 기저성조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 '말(馬)/말(斗)'의 기저성조를 '고조/저조'로 파악하는 견해(문효근 1974, 정연찬 1977, Ramsey 1978, 김영만 1986,[46] 신기상 1987, 김성환 1987, 이동화 1990, 이문규 1998나 등), '고조/중조'로 파악하는 견해(최현배 1937, 허웅 1954, 김차균 1980, 정원수 1997 등), '고조/고조'로 파악하는 견해(최명옥 1990[47],

---

43) 이러한 현상의 예는 김영만(1986:30), 이혁화(1994:51~52), 김주원(2000:108)에 제시되어 있다. Hyman(1975:204)에 의하면 폴란드어가, Katamba(1989:231)에 의하면 스와힐리어가 끝에서 둘째 음절(penultimate position)에 강세(stress)가 배당된다고 한다. 변광수 편(2003:533-588)에서는 폴란드어의 고정적인 강세에 대해, 공통슬라브어에서 자유이동형이었던 것이 언제 고정되었는지 불확실하다고 하였는데,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군에서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과 연관지을 수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그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폴란드어의 강세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문경지역어를 포함한 경북서부방언의 특이성조형 연구에 도움이 될 듯하다.

44) 물론 김차균(1980:28~30)에서는 가장 낮은 음조에서 가장 높은 음조까지를 1~15등급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성조형에 대해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음절수를 초월하여 L_1Mn과 같이 유형화한다(김차균 1977). 이러한 견해의 발단은 김영만(1966), 김영만(1972), 김영만(1974)에 제시되었다. 김차균(1977)에 제시된 L_1M_2 방식은 LMM, LMMM 등을 포함하는 간결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45) 방언성조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이동화(1986), 이상억(1990), 김영만(1992), 김주원(1994), 최명옥(1998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언어학계의 성조연구사로는 김차균(1991)을 참고할 수 있다. 성조 연구사는 이들 논의로 돌리고 본고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아울러 지면관계상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경우, 한 연구자의 한 논저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46) 김영만(1997:14)에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경남방언이나 경북방언에서의 '말(斗)'을 '중조(U)'로 파악한다. 최저조로 설정했던 경남방언의 '말(語)'에 대해서는 저조(w)로 파악한다.

47) '말(斗)'의 기저성조를 '중조'로 보지 않고, '고조'로 파악한 것은 최명옥(1990)이 처음일 것이다. 최명옥(1990)에는 '그림(HH), 그리미(HHL)' 등을 제시하여 '그림'의 기저성조가 LL이 아닌 HH인 것으로 보았으며, 김주원(2000)에서도 이러한 논지가 보인다. 정국(1980:160-161)에서는 기저성조를 조금 달리 표시하고 있으나 표면성조는 HH(마리←말+이, 斗)로 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말(馬)류'를 P(양극화 악센

이혁화 1994, 김주원 1995), '저조/고조'로 파악하는 견해(문곤섭 1986, 최명옥 1998가 등)가 그것이다.

이른바 상승조와 하강조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경북방언에서의 '말(語)'에 대해 그 기저성조를 독립된 성조소로 파악하는 경우(최명옥 1990, 이혁화 1994, 김주원 1995, 이문규 1998나, 최명옥 1999[48]), 저고복합조로 파악하는 경우(최명옥 1998가, 임석규 1999, 김세환 2005), L:으로 파악하는 경우(문효근 1974, 김영만 1986, 김성환 1987, 이동화 1990[49])로 나뉜다.[50] 또 '쌈(爭)'을 고저복합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높고 긴소리로 볼 것인가, '싸암(HL)' 두 음절로 해석할 것인가[51]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급적 방언 내적 근거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영주지역어의 것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는 경북방언 전체를 놓고 볼 때 특별한 제약이[52]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제약이 성조소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기왕에 보다 일반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신 두 지역어의 특별한 제약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해 그때 그때 보완할 것이다.

'말(斗)류'의 기저성조

단음절 최소대립어인 말(斗, 풀류[53]), 말(馬, 꽃류), 말(語, 별류) 대신 우선 2음절어로 된 최소대립어를 제시해 보자.[54]

트)로, '말(斗)류'를 E(수평화 악센트)로 파악하므로 '고조/고조'로 파악하는 견해에 포함할 수 있겠다. 이는 오히려 김주원(1991나)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1991나:601)에서는 악센트를 표시한 고조, 악센트를 표시하지 않은 고조로 구분하였다. 이는 임석규(1999), 김세환(2005)의 H_1, H_2와 유사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성조배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H_1, H_2를 구분한다.

48) '말(語)'의 성조를 상승조로 파악한 것은 최명옥(1990)이며, 이후 최명옥(1998)에서는 복합조로 파악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최명옥(1999)에서 상승조라 하였다.

49) 이동화(1990:34~35)에 제시된 'LL(감, 柿)'은 저장조와 동일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안동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이동화(1990)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주로 활용하는 자료가 경북북부지역어의 것이기 때문이다.

50)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는 장음을 잉여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변광수 편(2003:602-604)에서는 '세르보크로아티아語'에 대해 길이와 성조를 주자질로 하는 강세 체계라 기술하고 있다. 동남방언의 경우, 상승조와 하강조를 잉여적 장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세르보크로아티아語'처럼 성조와 길이 둘 다 대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의 성조 연구에서는 장음을 잉여적인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주장이 우세한 듯하다.

51) 하강조는 장태진(1960:81), 이동화(1990:34-35), 김주원(1994:139), 김영만(1997:20-21), 임석규(2003:57-61)에서 단음절로 파악되었다.

52) 문경지역어에는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 또는 고저복합조가 놓이는 제약, 울진지역어에는 저고복합조 다음에 저조가 놓이는 제약이 있다. 사실 영주지역어 자료 L·HH를 L·HL로 바꾸면 울진지역어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동해안방언을 제외한 다른 경북 방언에서의 '말만(言)'을 L·HH로 발화하지 않고 L·HL로 발화해보면 울진지역어의 '말만'과 동일해진다.

53) 편의를 위해 김영만(1986)을 비롯한 일련의 논의에서 사용된 용어를 제시한다. 김주원(2000:110)에는 '풀류'가 뻡틀형, '꽃류'가 봉우리형으로 명명되어 있다.

(29)[55] 가지(HH, 枝) 가지(HL, 種) 가지(LH, 茄)

(29)에 제시된 최소대립어는, '말(斗)'의 기저성조를 중조로 파악하는 김차균(2003)에 의지한다면 (30가)와 같이 될 것이며, 저조로 파악하는 이동화(1990)에 기댄다면 (30나)와 같이 될 것이다. (30가)는 '말(斗)'의 기저성조를 중조로 파악하는 경우이며 (30나)는 저조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30) 가. 가지(MM~HH[56], 枝) 가지(HM, 種) 가지(MH, 茄)
　　나. 가지(LL, 枝), 가지(HL, 種), 가지(LH, 茄)

(30가)의 M을 L로 대치하면 (30나)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김차균(1980), 김차균(2003) 등의 논의에 기댄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김차균(1980), 김차균(2003) 등의 성조 표기에서 저조가 등장하는 경우는 경남방언의 '사람(人)', '얻-(得)' 등과 같이 음장방언에서의 첫 음절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한편 (29)의 '가지(枝)'의 HH를 LL로 바꾼다면 (30나)와 동일해질 수 있다. 그러나 HH가 LL로 될 수 없다는 것은 (31)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31)에 제시된 자료는 타지역 사람이라면 좀처럼 흉내 내기 어려운 예들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발화를 한다면 전혀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세 지역어에서 모두 확인되나, 울진지역어의 경우 저고복합조 다음에는 저조가 놓이므로 (31라)의 경우는 '자란다(L·HLL)'로 실현된다.

(31)[57] 가. 자란다(LHH, 잘#한다)
　　나. 자란다(HHL, 자라고(尺)#한다)
　　다. 자란다(HLL, 자라고(睡)#한다, 長)
　　라. 자란다(L·HHL[58] 저#아이란다)

---

54) 표면성조를 (29)와 같이 표기하는 것은 정국(1980), 최명옥(1990), 이혁화(1994), 김주원(2000) 등 여러 논자들에게 채택되는 방식이다.

55) 정연찬(1976:21)에서 한국어는 진정한 성조 언어가 아님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한 이론적 소개와 선행 연구는 이상억(1978) 3장을 참조할 수 있다. Pike(1946:3-5)에 제시된 성조언어의 기본 특질보다는 McCawlay(1970:529)와 같은 좀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는 성조형 측면에서 상승조 또는 하강조로 인해 일본어보다는 성조언어적 특질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Pike(1946:14-15) 자신도 성조 언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조 언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56) 김차균(1997:419)에 따를 때, 정보초점이 놓이면 HH, 그렇지 않으면 MM이다. 이를 이문규(1997:45)에서는 HH와 LL로 표시한다. 정보초점과 관련된 논의는 김차균 교수의 일련의 논문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박숙희(2005)에까지 이어진다.

57) (31)에 제시된 자료가 최소대립어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논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한국어와 같이 어미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통사적 구성이 다르더라도 최소대립어가 될 수 있는 어형이 꽤 많다. 즉 발화되는 분절음은 동일하며 성조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면 (31가)와 (31나)도 최소대립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필자의 입장이다. 이를 옹호하는 논자들도 있으나 기존의 방식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유사대립쌍이라 칭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 자란다(L:HH[59], 부사 '잘'의 표현적 장음[60], 잘#한다)
바. 자란다(H·LLL, (실을) 자아내라고#한다)

앞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31가)와 (31나)에만 주목해 보기로 하자. '말(斗)'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파악하는 김성환(1987), 이동화(1990)에서는 '마리'의 표면성조를 'LL(필자는 HH)'로 파악하고, '말까지(斗)'도 'LLL(필자는 HHL)'로 파악한다. 표면성조를 이와 같이 표시한다면 당연히 (31가)와 (31나)는 'LLL'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HH-'를 모두 '-LL-'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31가)와 (31나)가 성조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31가)의 '잘#한다'의 의미를 (31나)처럼 HHL로 발화할 경우라든가, (31나)의 '자라고 한다'의 의미를 (31가)처럼 LHH로 발화한다면 청자들은 이 발화자를 당연히 타지역 사람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이는 (31가)와 (31나)의 표면성조가 LLL이 아니듯이 '말까지(斗)'의 표면성조도 LLL이 아니다. 김성환(1987), 이동화(1990)에서는 곡용형, 활용형에서 표면성조가 LL, LLL 등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그 어간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한다. (31가)와 (31나)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말까지'의 표면성조가 LLL이 아니라 HHL임이 명백하므로[61] '말(斗)'의 기저성조는 L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이문규(1998), 이문규(2002) 등의 논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斗)'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하면서도 이동화(1990)과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문규(1998), 이문규(2002) 등에서는 '말(斗, L)+에서(LL)'를 규칙 L^3→HHL로 설명한다. 곧 어절성조형 L^3가 성조형 실현 규칙에 의해 HHL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어절성조형이 L^4이면 HHLL이며 L^5이면 HHLLL로 도출된다고 파악한다. 이에 의하면 (31나)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31)의 예를 위해서는 또다른 규칙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잘푼다(解)', '잘뽑는다(選)'의 경우는 L^3, L^4가 각각 HHL, HHLL로 나타나지 않고 LHH, LHHL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임철수(林喆洙, LHH), 임석규(林錫圭, LHH) 등 성명에서 나타나는 성조형을 설명하기도 어렵다.[62] 특별한 성조형을 설명하기 위해 규칙의 수를 늘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다.[63] 그뿐만 아니라 '말(斗)'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하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58) 잠정적으로 L·H, H·L를 사용하여 표면성조를 표시한다. 여기에서 표면성조와 기저성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을 듯하다. 분절음운론에서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 음운규칙을 통해 표면형이 도출되듯이 어간과 어미의 기저성조가 통합하여 특정 성조변동규칙이 적용됨으로써 표면성조가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H(꽃)+HL(처럼) → LHL'에서 화살표 좌측이 기저성조이며 우측이 표면성조이다. 여기에서의 고조는 후술되는 'H_1'이다. 두 고조의 통합은 LH로 변동된다는 것이 성조변동규칙이다.

59) L:HH, LHL, LHH 등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성조방언의 자료일 경우 표현적 장음은 ':'로 표시한다.

60) 표현적 장음은 '꺼:멓-(黑)', '뜨시:하-(溫)', '듬:뿍(滿)' 등 상당히 많은 어형들에서 확인된다. 기존 논의에서는 '꺼:멓-'의 첫 음절을 상승조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석규(1999:79,117)에서도 '꺼멓-'과 부사 '잘'의 표현적 장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61) 표기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김차균(1980), 김영만(1986), 최명옥(1990), 김주원(1994), 이혁화(1994) 등 많은 논자들이 첫 두 음절이 셋째 음절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62) 신기상(1999:338~3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명의 경우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해당 방언권의 화자들은 대체로 동일한 성조형으로 발화한다. 김길수(LHH), 김병현(LL·HH), 김동길(LHL), 김동명(LLH)의 경우 각각 다른 성조형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화자들은 한자어의 음절배열에 대한 성조 직관을 가지는 듯하다. 유추의 틀을 찾기 어려울 뿐, 유추로 이해함이 좋을 듯하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이→마리(HH, 斗)', '말+도→말또(HH, 斗)', '말+하고→마라고(HHL, 斗)' 등과 같이 표면성조에서는 저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초점이 아니면 HH가 LL로 나타난다고 하지만(이문규 1997:45), 정보초점이 아닌 경우를 통해 기저성조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이상에서 '말(斗)'의 기저성조는 저조로 파악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말(斗)'의 기저성조는 고조인가 중조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다음은 김차균(2002가:27)에 제시된 안동지역어의 예이다.

(32) 가. 지게짝떼기(M_3HM = MMMHM)
나. 삼심만년(HM_3 = HMMM)

(32가)의 경우 넷째 음절이 가장 높다는 것, 또한 첫 음절부터 넷째 음절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만(1997:8), 김주원(2000:96) 등 대부분의 성조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듯하다. 반면 (32나)는 그 음이 계단식으로 하강하게 된다.

문경지역어의 다음 예를 검토해 보자. (33)은 김차균(2003)에 따라 표면성조를 표기한 것이다.

(33) 가. 그소리물르라고그레능가보구'먼($M_{12}HM$ = MMMMMMMMMMMMHM)
나. 영'더기라능고세서부터는(HM_{10} = HMMMMMMMMMM)
(그 소리 묻느라고 그러는가 보구먼/영덕이라는 곳에서부터는)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에 고조가 놓이는 (33가)는 13음절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12음절까지 모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하강하는 (33나)에서는 마지막 음절 곧 12번째 음절이 극도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L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음절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표면에 L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의 언어의식과도 맞지 않는다.

김차균(1980)을 따를 때 경남방언에는 고조, 중조, 저조가 모두 성조 표기에 등장하지만 경북방언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김차균(2003)에는 최종성조형(표면성조가 도출되기 이전의 성조형)이든 표면성조이든 저조는 보이지 않는다. 경남방언과의 통합기술도 필요하지만 경북방언만의 체계를 일단은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최소대립어를 통해서 성조소를 설정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경남방언으로 확대해 보자. '말(斗)'의 기저성조를 중조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의미차를 드러낼 수 있는 '말(馬)/말(斗)' 이외의 최소대립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람(MH, 風)과 사람

63) 이문규(1997:57~63)에서 논의한 대구지역어의 '안+용언'의 성조 실현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안잡더라'도, 안잡는갑습니'더'와 같이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penultimate)에 고조가 놓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불규칙적인 고조화가 일어난다든지, 고조화 규칙의 적용 영역이 매우 넓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부정부사 '안'의 기저성조를 고조로 설정하고 있는데 표면성조형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고조를 기저성조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LM, 人)은 분절음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최소대립어가 될 수 없다. 물론 MH와 LM의 음역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역과 성조는 마땅히 구분되어야 한다. (31)에서와 같은 최소대립어를 찾을 수 없다면 음운론적으로는 두 어형을 모두 LH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호도(胡桃, MH)', '호도(孝道, LM)'와 같은 최소대립어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중조를 설정해야 한다. 전자를 LM으로 발화한다거나 후자를 MH로 발화하는 경우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음운론적으로는 동일하게 파악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영만(1991:143~145)에서는 경남방언의 성조를 L과 H로만 기술한 Lee(1987)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만일 LM과 MH의 최소대립어를 제시한다면 성조소 M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김주원(2000:94)에서는 경남방언자료의 음성학적 실험을 토대로 M의 존재를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64)

지금까지 필자는 '말(斗)'의 기저성조가 저조나 중조가 아님을 논하였다. 저조나 중조가 아니라면 고조일 텐데, '말(馬)'의 기저성조를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

'말(馬)류'의 기저성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말(斗)'의 기저성조에 대해서는 고조, 중조 또는 저조 세 견해가 있는 반면, '말(馬)'의 기저성조에 대해서는 고조 또는 저조 두 견해만이 있다. 먼저 (34)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말(馬)'의 기저성조가 저조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34)에서는 첫 음절의 표면성조가 H와 L로 교체되고 (35)에서는 셋째 음절의 성조가 H와 L로 교체된다. 사실은 교체되는 성조 H와 L 중 무엇을 기저형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34)~(35)는 세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이다.

(34) 가. 마'리, 말'또, 마'런
잡'꼬, 잡'찌, 자'바
나. 말버'텀, 말꺼'지, 마란'테~마린'데, 말보담^도
잠는', 잡떤', 잡뜨'라, 작끄'든

(35) 가. 중감빠'이, 중감빵'도
나. 중감빵꺼'지, 중감빵보담^도

(34나)에 보이는 첫 음절 성조 L을 '말(馬)'의 기저성조로 설정할 경우, (34가)에 제시된 첫 음절 성조 H는 어간이 특정한 어미와 결합될 때 저조가 고조로 변동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어미가 무엇인가는 문제로 남는다. 문효근(1962/1974:28-29), 최명옥(1998가:35)에서는 어간이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와 통합될 경우 해당 어간은 저조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어간이 고조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말(馬)'의 곡용형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용언 '잡-(捕)'의 활용형들의 표면성조를 관찰해 보면 '2음절 이

64) 김주원(2000:95)에서는 '바람'과 '사람'은 성조형이 다른 것인데 어미가 통합되지 않고 어간 2음절로만 나타날 때에는 그 성조형이 변별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바람'의 첫 음절이 '사람'의 첫 음절에 비해 낮게 실현되기도 하며, '바람'이나 '사람' 모두 첫 음절이 낮고 둘째 음절이 높다는 점에서 둘 모두 LH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상의 자음어미'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65) (34나)의 '잠는', '잡띤''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이 단음절 어미와 통합될 때에도 어간 '잡-'의 성조는 저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4나)의 '말보담도(LLH·LL)'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말(馬)'의 성조가 저조로 실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말버'텀', '말꺼'지'에서와는 달리 어미 '-보담^도'의 첫 음절에 왜 고조가 놓이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66) 최명옥(1998가)의 논의는 사실 성조형 중심의 기술 태도와도 맞물려 있는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 보강도 필요해 보인다.

'말(馬)'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35)에 제시된 '중감빵'의 기저성조를 당연히 LLL로 설정해야 한다. 단음절 어간 '말(馬)'이 어미에 따라서 고조나 저조로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간 '중감빵'의 마지막 음절이 어미에 따라서 고조나 저조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35나)의 '중감빵꺼지(LLLHL)'에서는 둘째 음절이 첫째 음절보다 높고, 셋째 음절이 둘째 음절보다 높으며 넷째 음절이 셋째 음절보다 높다. 어떤 경우든지 즉 단독형이든 어미와의 통합형이든 그 어간 '중간방'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셋째 음절에 고조를 놓을 수밖에 없다. 말을 더듬는 경우 '중간방부터(LLLHL)'를 발화하려다가 3음절까지 발화하고 잠시 멈추었을 때, 멈춰진 3음절까지의 성조는 당연히 LLH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화자의 언어의식과 배치되는 'LLL'의 설정은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로 볼 때 '말(馬)'의 기저성조는 L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馬)'의 기저성조는 저조로 보는 관점과 고조로 보는 관점 둘로 나뉜다. 이상에서 '말(馬)'의 기저성조는 저조가 될 수 없음을 논하였으므로 그 기저성조는 고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말'의 기저성조를 잠정적으로 고조로 보아야 한다고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문제는 '말(馬)', '말(斗)'로 대표되는 두 고조가 다른 성분과 어울려 성조군을 형성할 때 성조변동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고조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36), (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말(馬), 말(斗)의 기저성조를 동일하게 고조로 보는 견해에 대해 결정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은 울진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성조 실현이다.67)

(36) 가. 뽁'꼬'(選, 뽀'바')　　　　작'꼬(捕, 자'바)
　　나. 암'뽁꼬　　　　　　　　안작'꼬

(37) 가. 소곰'+집' - 소곰찝'　　　중간'+방' - 중감빵'
　　나. 소곰'+물(H_2) - 소곰'물　　중간'+길(H_2) - 중강'낄
　　　cf. 소고'미, 지'비, 중가'이, 바'이, 무'리', 기'리'

(36가)의 '뽑-'과 '잡-'은 표면성조가 모두 고조로 실현되어 있다. 그런데 (36나)에서와 같이

65) 이는 '3.1.2.2 어미의 기조성조 설정 방법'에서 구체화된다.

66)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가 아니라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부여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임석규(1999:72-73), 임석규(2004가:90)를 참조할 수 있다.

67)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에 고조가 놓이는 제약으로 인해 (37가)의 예들이 LHL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부사 '안(H_1)[68]'과 활용형의 결합에서는 그 성조형이 다르게 실현되고 있다. '뽁꼬'에서의 성조형 HH는 '마리(斗)'에서의 성조형 HH와 동일하며, '작꼬(捕)'에서의 성조형 HL은 '마리(馬)'에서의 성조형 HL과 동일하다. 곧 전자는 'H_2'에 해당하고 후자는 'H_1'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고조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해서는 부사 '안'과 활용형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성조 실현을 올바로 설명하기 어렵다.

(37가)는 단어 경계에서 H_1과 H_1이 통합된 것이고, (37나)는 H_1과 H_2가 통합된 것이다. H_1과 H_2를 동일한 고조로 파악해서는 (37가)와 (37나)에 제시된 합성어의 성조가 달리 나타남을 설명할 수 없다.

필자는 이 두 고조를 H_1과 H_2로 구분하고자 한다.[69] 이런 구분은 LHL, LLH, HLL / HHL, LHH 등과 같은 성조배열제약과 관련된다. 즉 성조배열제약을 토대로 두 고조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H_1'은 하나의 성조군 내에 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H_2'는 하나의 기식군 내에서 항상 다른 고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말(馬)'과 '말(斗)'의 성조를 각각 고조로 파악하고 성조배열제약과 방언 내적 근거를 고려하여 전자를 'H_1', 후자를 'H_2'라고 명명하였다.[70]

우리는 앞 절에서 고조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문제는 경남방언은 단음절 곡용 어간이나 활용 어간의 경우 고조와 저조의 대립을 보이지만 경북방언은 고조와 저조의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방언에서 저조를 기저성조로 하는 어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사 '더', '좀' 등은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해야 한다.[71]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단음절 부사들은 대체로 저조로 실현된다.[72] '더자바(더#자'바, 捕)', '좀자바(좀#자'바)'는 모두 LHL로 실현되고, '더뽀바(더#뽀'바', 選)', '좀뽀바(좀#뽀'바')'는 LHH로 실현된다. 이로 볼 때 저조도 성조소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조의 문제

68) '안(H_1)'이 저조로 교체되는 경우는 어미의 기저성조에 있는 'H_1' 때문이다. 이는 김차균(1980)에서는 H_2 →MH로 김영만(1986)에서는 O→o/__O로 기술되어 있다. 이문규(1998)에서는 'H_2→LH'로 기술된다.

69) '마리(馬, HL)'와 '마리(斗, HH)'에서 첫 음절의 피치(pitch)가 음성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보인다. 김무식(1992:61), 김주원(2003:7)을 참조할 수 있다. 김주원(1991나:601)에서는, '말(馬)'은 강세를 둔 고조, '말(斗)'은 강세가 없는 고조라고 하였으나 김주원(1995)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조로 보게 되었다.

70) 여러 가지를 양보하여 H_2를 M으로 본다고 해도 기존의 논저에서 보이는 M과는 차이가 있다. 음성 등급을 고려하여 안동지역어의 성조를 연구한 김차균(2002가)를 토대로 한다면 한 성조군 내에도 셋 이상의 M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H_2는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오로지 둘만 놓일 수 있다.

71) 문경지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방언에서 부정부사 '안'의 기저성조는 저조로 설정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주, 봉화, 예천, 안동, 울진지역어에서는 '안'의 기저성조가 고조(H_1)이다. 물론 LH(버리, 麥)와 같은 어간을 통해서도 당연히 저조를 성조소로 설정할 수 있다.

72) 부사의 경우 '더도(HL)', '잘도~잘또(HL)'가 문제로 남아 있다. 부사가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고조로 변동한다는 비음운론적 제약을 둔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밥'또'(飯), 바'비', 바'벌', 바'번', 바'베'에서 보듯이 처격어미와 통합하는 대부분의 곡용 어간이 특별한 성조변동을 보인다. 이도 역시 비음운론적 제약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말(語)'의 성조는 저장조(문효근 1974, 정철 1980, 김영만 1986, 신기상 1987, 김성환 1987, 이동화 1990), 상승조(최명옥 1990, 이혁화 1994, 김주원 1995, 이문규 1998나, 최명옥 1999), 저고복합조(최명옥 1998, 임석규 1999, 김세환 2005)로 논의되어 왔다. 아래의 예를 통해 '말(語)'의 성조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38) 가. 자란다[L·HHL, 저 아이란다]
　　나. 자란다[L:HH, 부사 '잘'의 표현적 장음, 잘 한다]

'말(語)'의 성조를 저장조로 파악하는 이동화(1990)에서는 (38가)와 (38나)의 표면성조를 모두 'L:LL'로 파악한다. 이 또한 (38가)와 (38나)가 성조에 따라서 의미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표현적 장음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평탄하면서 길게 나타날 뿐 상승은 전혀 동반되지 않는다. 이에 성조방언에서의 장음 표시는 표현적인 장음에만 가능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R 또는 L·H로 제시해야 한다.[73] 이 때의 장음은 상승조나 하강조가 실현되면서 나타나는 잉여적인 것이다.

상승조를 저장조로 파악하는 경우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음장방언에서는 2음절 이하에서 장음이 단음으로 변동하는데 같은 장음임에도 불구하고 성조방언에서는 장음이 왜 단음으로 변동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39)는 2음절 이하에서도 상승조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39) 퍼당꼬[74](涵, LL·HH), 퍼다마도(LHLL) / 떠도고(�, LL·HH), 떠도라도(LHLL)
　　따둥꼬(琢, LL·HH), 따드머도(LHLL)
　　cf. 당꼬(涵, L·HH), 다마도(HLL)

단순히 성조방언에서의 장음이기 때문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장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해결책이 아니다. 성조형 LL·HH는 '자룬다(잘#운다)', '잘론다(잘#논다)' 등에서도 나타나고 '김세진', '신진식', '김병현' 등 성명(姓名)에서도 나타난다. 선행성분이 고조인 경우는 뒤에 상승조가 있더라도 그 상승조는 실현되지 않는다. 단, 선행성분이 저조로 실현된 경우에는 둘째 혹은 셋째 음절에서도 상승조가 실현된다. 이 또한 성조배열과 관계되는 것이다. 즉 성조배열이 LL·HH, LH·LL, LLL·HH, LLH·LL는 가능해도 HL·HH, HH·LL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곧 상승조나 하강조가 2음절 이하에 놓일 수 있는 것은 그 상승조나 하강조 앞이 모두 L인 경우이며, 이론상으로는 L이 상승조나 하강조 앞에 몇 음절 연속으로 나타나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방언 성조의 한 특징일 수 있다.[75]

---

73) L·H와 같이 점을 찍은 것은 단음절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74) 성조형으로 'LL·H-'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안+용언'의 성조 실현을 아래에 제시한다. 성조변동에 대해서는 5장을 참고할 수 있다('안'퍼당꼬:안퍼다'마도' / '안'당꼬:안다'마도')

75) 상승조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LRH, LLRH 등도 성조형으로 제시해야 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LRL, LLRL이 나타난다. 김영만(1986:28), 김주원(2000:96)에서는,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의 수는 '음절수+2'개

신기상(1999:42)에서는 저장과 저고복합조의 최소대립어를 제시하고 있다.

(40) 말(語): / 말(村)　　　　　감(柹): / 감(材)

신기상(1999)에서는 (40)에 제시된 두 대립어 중 전자를 저장조로, 후자를 저고복합조로 파악하고 있다. (40)과 같이 의미차를 드러낼 수 있는 최소대립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성조방언에서 당연히 저장조도 인정하고 저고복합조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신기상(1999:365)에 암시되어 있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본다.

> L:, L·H, H:, H·L조는 모두 2모라 음조이나 미세한 차이가 있다. L:, H:조는 1음절로 처리한 경우이고 L·H, H·L조는 1음절에서 2음절로 이행되는 과정이듯이 인식되는 경우이다. 마을(村, LH)~말(L·H), 다음(次, HL)~담(H·L) 등의 예가 그것인데 다분히 유동적이고 수의적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음절에서 2음절로 이행되는 과정인 듯하다'는 인식이다. 필자가 '2003 국어학회 집중 강좌'에서 해당 음성을 들어 본 결과 두 개의 음절임을 알 수 있었다. '마을'에서의 둘째 음절 '을'을 '알'로 대치해 놓은 것과 같았다.

(40)과 동일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영주지역어에서도 보인다. '누우(姉, LH)'[76]와 '누(弊, L·H)'의 음은 명확히 변별된다. 그러므로 전자는 복합조로 이해될 성질이 아니고 음절수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姉'의 의미를 지닌 것은 '누우' 2음절 LH로 파악해야 하고, (40)에 제시된 '말(村)'은 2음절 '마알(LH)'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0)에 제시된 예는 최소대립어가 될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38)을 통해 '말(語)'의 성조는 저장조가 될 수 없음을 검토해 보았다.[77] 이제 남은 문제는 '말(語)'의 기저성조가 상승조인가 복합조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최명옥(1998가:39-41)에서는 상승조를 저고복합조로 파악한 바 있다. '말(語)'이 경남방언에서는 저조로 실현되고, 함경방언에서는 고조로 실현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방언 외적 증거로도 충분히 저고복합조에 무게를 둘 수 있지만 방언 내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논의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필자의 입장에서는 내적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말(語)'을 상승조로 기술하는 것보다 복합조로 기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를 위해 (41)~

라고 하였다. 일찍이 김영만(1972:154~155)에서도 이와 같은 식의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LRH, LLRH 등의 성조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학문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밀해져야 한다. 단일어냐 복합어냐에 따라 성조형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현입장이다.

76) 이는 '누우(姉, HL)'로도 더러 실현되는데 또 다른 실현 '누(姉, H·L) / 누(臥', H·L)'와는 음이 명확히 구분된다. 단음절이냐 2음절이냐가 명확하다. 마찬가지로 '추'우'(寒)가 난'다''에서처럼 2음절 '추'우'' 또한 '추^', '추ˇ'와 명확히 구분된다.

77) '말(語)'을 저장조로 볼 경우에는 '말(語)'과 음성 실현이 동일한 '가:(邊)'도 저장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아이가'의 뜻인 고장조 '가:가'와 저장조 '가:가(邊)'가 대립쌍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대립쌍이 아니다. '가가(H·LL)', '가가(L·HH)'와 같이 1, 2음절이 모두 성조 대립을 보이기 때문이다.

(43)에서 영주지역어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41) 마리(語, L·HH) / 마리(斗, HH)

(41)에 제시된 '말(語)'과 '말(斗)'에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 H를 고려할 때, '말(斗)'의 기저성조를 H_2로 설정한 것과 같이 '말(語)'의 성조도 L·H_2로 설정할 수 있다. 저고복합조로 설정할 경우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승조 또는 고조는 또다른 고조를 요구한다'는 제약보다는 'H_2'는 또다른 고조(H_2)를 요구한다는 제약'이 간결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말(語)'을 저고복합조로 파악하면 성조형 HHH, L·HHH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高調不連三(김주원 1991나:602)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복합조로 파악하지 않고 L·H로 파악하면 L·HHH가 나타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성조소로 보는 것보다 복합조로 보는 것이 부정부사 '안'의 성조변동을 기술하는 데도 편리하다.

(42) 안'작뜨라, 안'싸드라, 안적뜨'라
cf. 안(H_1), 작˘뜨라(L·HHL, 小), 싸'드'라(HHL, 廉價), 적뜨'라(LHL, 記)

(43) 안'퍼담쩨, 안'시커메도, 안정는'다
cf. 퍼담˘쩨(LL·HH, 汲水), 시커메'도'(LLHH, 黑), 정는'다(LHL, 記)

(42)에서 '안'은 고조로 실현되기도 하고 저조로 실현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조로 실현될 때에는 후행성분의 성조에 HH가 있을 때이다. (43)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후행성분이 저조로 시작하더라도 HH가 뒤따른다면 '안'은 고조로 실현된다. 이러한 기술은 '안'이 고조로 실현되는 경우를 R이나 HH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보다 편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상승조를 복합조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아래에서는 하강조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상승조는[78] 두 음절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2음절 이하에서 짧아진다는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상승조와 하강조가 환경에 따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조와 하강조의 음절수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79]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강조의 음절수를 결정할 때 내성적 관찰에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강조의 변동 문제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음운론적 현상들을 실체적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승조와 하강조는 일견 다른 것처럼 보인다. '말(語)', '눈(雪)'과 같은 상승조는 2음절 이하에서 짧아지는데 반해, 쌈(爭), 감(喊), '맘(心)', '게미(H·LL)'와 같은 하강조는 2음절 이하에서도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자료는 그 견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

78) 일단은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상승조와 하강조란 용어로 계속 쓰기로 한다.

7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강조는 장태진(1960:81), 이동화(1990:34-35), 김주원(1994:139), 김영만(1997:20-21), 임석규(2003:57-61)에서 단음절로 파악되었다.

(44) 가. 그마리(HLL)　　cf. 그'(其, H_1), 말(語, 상승조)
　　 나. 그싸미(LH·LL)　cf. 쌈(爭, 하강조)

두 예를 통해서 (42가)의 상승조는 2음절 이하에서 짧아지고, (44나)의 하강조는 2음절 이하에서도 짧아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바까도(LH·LL)'와 같은 어형에서도 2음절 이하에서 하강조가 실현되므로 상승조와 하강조는 음성형은 대응되지만 음운론적으로는 판이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4가)와 (44나)의 차이는 관형사 '그'의 기저성조 H_1 때문에 표면성조가 달리 나타난 것이지, 상승조와 하강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80)]

(45)~(49)에 제시된 예는 임석규(2003), 임석규(2004가)에 제시된 예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하강조의 음절수는 분절음운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몇 예를 추가하여 논의를 보강하기로 한다.

(45)에 제시된 예는 영주지역어의 자료인데 하강조가 둘째 음절에서도 짧아지는 경우이다. (45)에서의 밑줄 부분은 하나의 성조군을 이룬다.

(45) 가. 창틈 세^세럴 께끄지 청소하제이.(창틈 사이사이를 깨끗이 청소하자.)
　　 나. 방금 오ˇ나넌 누ˇ집 자스기로.(방금 운 아이는 뉘 집 자식이니?)
　　 다. 실ˇ쎄가[81)] 인나.(쉴 사이가 있니.)
　　 라. 큰'아'가 안완니껴.(큰아들이 안 왔어요?)
　　 마. 이'마'미 다ˇ써거빠진다.(이 마음이 다 썩어 빠진다)
　　 바. 그마^미 오죽하까.(그 마음이 오죽 할까?)

방언형 '아(兒)', '세(間)', '맘(心)'이 단독형일 때에는 항상 하강조로 실현된다. 그러나 (45가)~(45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강조가 하나의 기식군에서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그 하강조는 실현되지 못한다. 다만 (45바)에서와 같이 하강조에 선행하는 성분의 성조가 'H_1'이면 하강조는 제 성조로 실현될 수 있다. 바로 지시관형사 '그'의 기저성조가 'H_1'이기 때문에 — 그가(HL), 그부터(LHL)를 통해 볼 때 '말(馬)'의 기저성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80)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앞 성분의 성조가 H_1인 경우, 뒤따르는 상승조와 H_2는 무조건 L로 변동되며, 만일 H_1 뒤에 H_1이나 하강조가 따르는 경우는 선행성분의 H_1이 저조로 변동된다. 전자가 (44가)의 경우이며 후자가 (44나)의 경우이다. '게미(H·LL)'에 지시관형사 '그(H_1)'를 통합할 때와 지시관형사 '이(H_2)' 또는 '저(H_2)'를 통합할 때에 각각의 표면성조가 달리 실현된다. 전자는 그게미(LH·LL), 후자는 이게미/저게미(HHL)로 실현된다. 결국 2음절 이하에서의 하강조 실현 여부는 상승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강조와 결합하는 선행성분의 성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세국어시기의 2음절이 1음절로 변화하면서 하강조로 바뀐 '벌-(得)', '쌀-(切)' '끌-(牽)' 등이 있다. 그러나 음절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두 하강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하강조, 그#아이)/자(상승조, 저#아이)/야(상승조, 이#아이)'에서의 성조 차이는 관형사 '이, 그, 저'의 기저성조 차이와 관련된다(이는 경남방언에서는 달리 나타난다). '이'와 '저'의 기저성조는 H_2임에 반해 '그'는 H_1이다. 적어도 북부지역어에서는, HH(이#아이 HHL, 이아 HH, 야 L·H)인 경우 음절수가 줄어들면서 상승조로 변하지만 그 이외의 환경(싸움 HL / 쌈 H·L, 마음 LH / 맘 H·L)에서는 음절수가 줄어들면서 하강조로 변한다.

81) '실^쎄'로도 나타난다.

뒤 성분의 하강조는 제 성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5장 성조변동규칙 참조). 우리는 그동안 '바까도(LH·LL, 換)', '밀레도(LH·LL, 被推)' 등 (45바)에서와 같이 하강조가 저조 뒤에서 실현될 때만을 주목하여 하강조와 상승조를 달리 파악하였다. 곧 하강조는 상승조와 달리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실현된다고 일반화하였던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하강조와 상승조는 모두 둘째 음절 이하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성조군이 형태소 경계를 지니든 단어 경계를 지니든 상승조와 하강조 앞 음절의 성조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승조와 하강조는 제 성조로 실현되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46), (47)을 통해서도 상승조와 하강조가 동일한 성조변동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의 예, 각각에 부사 '못(상승조)'을 그 앞에 결합시키면 그 기식군의 표면성조는 (47)과 같이 나타난다.

(46) 가. 산'다'(買)
　　나. 산ˇ다(生)
　　다. 싼'다'(包, 尿)
　　라. 싼^다(切)

(47) 가. 모ˇ싼다[82](買)
　　나. 모ˇ싼다(生)
　　다. 모ˇ싼다(包, 尿)
　　라. 모ˇ싼다[83](切)

(47가), (47나)에서는 둘째 음절에 경음화가 적용되어 결국 (47)에 제시된 네 자료의 분절음 배열은 같아진다. 물론 표면성조도 동일하다. 이것은 상승조와 하강조가 동일하게 파악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상승조를 단음절로 파악한 것과 평행하게 하강조도 단음절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자료 또한 하강조가 2음절이하에서 짧아지는 예이다.

(48) 가. 운마(LH·L), 아렌마(LLH·L)
　　나. 웅덩마(HLL), 한질마(HHL)

(49) 가. 중마(LH·L)
　　나. 상마(L·HL), 하마(L·HL)

(50) 가. 실레띠[84](LLH·L), 안동띠(LLH·L), 알람띠(LLH·L)

---

82) '못#싼다'의 통합을 '몯싼다'로 전사하기도 하지만 배주채(1989:99)의 견해처럼 'ㄷ-ㅆ'의 연쇄를 인정하지 않는다.

83) 화자들이 필자에게 세 가지가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 볼 정도로 화자들은 세 자료의 표면성조가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관찰자의 판단을 중시하기보다 언중의 인식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관찰자의 판단이 제보자의 인식과 같은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선례가 있다. 우리 국어에서 유성음화라는 것을 화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일본 학자들은 우리 국어에 유성음화 규칙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유성음화 규칙은 변이음규칙이지 음운규칙이 아니다.

나. 피끈띠(HHL), 골레띠(HHL), 오록띠(HLL), 디곌띠(L·HHL), 한실띠(L·HHL)

(51) 가. 한디(LH·L, 수박 한 덩이)
나. 두디(L·HH, 다섣띠(HLL), 열디(HH)

(52) 가. 주둥이(LHL)~주디(LH·L), 몽둥이(LHL)~몽디(LH·L)
나. 궁둥이(L·HHL)~궁디(L·HH), 문둥이(L·HHL)~문디(L·HH)

(53) 가. 먹띠^만(LH·LL, 먹더니만)
나. 뽑띠만(HHL, 選), 우디만(L·HHL, 泣), 싸디만(H·LLL, 썰더니만)

(49)는 김세환(2005)에서 가져온 청송지역어의 자료이며 나머지는 모두 영주지역어 자료이다. (48가), (49가)에서는 하강조가 실현되나, (48나), (49나)에서는 하강조가 평판조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50)~(53)에 제시된 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강조가 실현된 경우는 저조로 시작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4)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볼 때 하강조는 두 음절로 설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54)에 제시된 성조율동규칙, (55)에 제시된 재구조화된 어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54) 가. 유리라카'지(琉璃), 유리라카던'지, 유리라카지'요
나. 그세도모차마'여, 전자가이고인넝거지'여, 자란자피'요
cf. 그 사이도 못 참아, 겨눠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잘 안 잡혀요

(55) 자피'이고>자페'에고(被獲)

문경지역어를 포함한 경북서부방언에서는 저조로 시작하는 어간인 경우 어떤 어미와 통합하더라도 그 표면성조는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penultimate position)에 고조(또는 하강조)가 놓이게 된다. 물론 어간과 어미의 통합뿐만 아니라 한 성조군을 이루는 통합이라면 모두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앞서 제시된 (5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4가)는 어간과 어미의 통합이고 (54나)는 어절 경계를 넘어선 경우이다. (54나)의 '세^(間)'는 하강조로 실현되는데, 관형사 '그'와 통합하면서 율동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H_1'이 하강조 앞에서 저조로 교체되기 때문이다(5장의 저조화 규칙 참조). '세'를 두 음절로 본다면 (54나)에 제시된 것처럼 '세'가 단음절로 도출될 수는 없다. '전자가이고인넝거지'요'에서 '전자^' 또한 표면성조가 'LH·L'인데 율동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단음절 평판조로 교체된다. 하강조를 두 음절로 처리한다면 '그세에도모차마'여', '전자아가이고인넝거지'여'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84) 택호는 '실레떡'', '실레때'기', '실레뜨'기', '실레띠^'로 나타난다. '실레'는 이기문(1991:114-117)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실(谷)'과 '내(川)'가 합하여 된 말이다. '골'레'떡'이라는 택호도 참조할 만하다. 그런데 성조측면에서 '시^네'의 'L·HH'가 약간의 부담을 준다. '피끈'은 세조 즉위 후 금성대군의 난이 일어났을 때, 핏물이 내를 흐르다가 끊긴 곳이라 한다.

(55)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만일, 하강조를 2음절로 보면 '자란자피이요(잘#안#잡히이+아요, 不捕)'의 경우는 LLLLHL로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 '자란자피이요'는 넷째 음절에 하강조가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자란자피이요'가 아니라 '자란자피요'로 표기하고, 그 표면 성조는 'LLLH·LL'로 나타내야 한다. 단음절로 파악해야만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또는 하강조)가 놓이는 규칙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55)에 제시된 '잡-(把)'의 피동형[85] '자피-(LH·L)'에서 하강조를 두 음절로 파악하여 '잡히이-'로 보게 되면, 영주지역어에 나타나는 재구조화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이 지역어에서는 임석규(1999:27)에 제시한 대로 'Xi'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활용 어간이 'XE'로 재구조화되었다(마시-(飮)>마세-, 던지-(投)>던제-).[86] 이러한 재구조화를 고려할 때, 하강조를 두 음절로 파악하면 '잡-'의 피동사는 '자피에-'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강조를 두 음절로 표기한다고 해도 '자페에고'로 나타난다. 이 어려움은 하강조를 단음절로 파악할 때 해소될 수 있다. 곧 이 어간의 재구조화는 자피(LH·L)->자페(LH·L)-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87] 이렇게 본다면 성조방언에서 어간 '쌓-(積)'과 어미 '-아도'가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표면형은 '싸아도'가 아니라 '싸도'와 같이 두 음절로 나타내야 한다. 그 음운과정을 (56)에 제시하도록 한다.

(56) 쌓+아도 → 싸'아도 → 싸^도(積)
　　　　후음탈락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88]

지금까지 꽤 길게 하강조를 단음절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하강조를 독립된 성조소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승조를 두 성조소의 결합인 복합조로 파악하는 것이 성조 기술에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하강조도 복합조로 파악한다.[89] 상승조와 하강조는 성조변동에서의 양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의 입장에서 더 나아갈 수 없기에 기술의 편의를 추구하여 경북북부지역어에는 고조와 저조의 두 성조소가 확인된다고 결론 내린다.

---

85) 이상억(1980), 서정목(1981), 신기상(1993)에서는 사피동 접사의 성조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미'기-('먹-'의 사동사), 머키^-('먹-'의 피동사)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몇 어간의 경우는 수의적인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싱키^-(使履)~싱'키-, 미'기-(使食)~미기^-).

86) 3장에서 이는 수정될 것이다. '2음절 이상의 어간'이라는 표현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 음절수도 중요하지만 경계 요소도 중요함을 보일 것이다.

87)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맘(心, 하강조)+이'의 움라움트형 '메미' 또한 하강조를 두 음절로 설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김봉국(2004:48-49)에서는 중부방언의 움라우트가 된 '맴:(心)'형을 들어 '맘:'이 음운론적으로 이음절의 '매앰'이 아니라 일음절의 '맴:'으로 보았다. 이음절의 '마암'이라면 움라우트 되었을 때, '마앰이'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8) 서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배주채(1994:102)에서는 이런 음운과정을 '동모음축약'으로 파악하였다. 성조방언이라면 당연히 '동모음축약에 의한 성조축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89) 부정부사 '안'의 성조변동이라든가, 어절 내에서의 성조변동을 고려할 때 상승조와 하강조를 독립된 성조소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복합조로 파악하는 것이 성조배열제약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데에도 어려모로 유리하다.

(57) 성조소 목록 및 복합조 목록

<table>
<tr><th colspan="2">성조소 목록(2개)</th><th>복합조 목록(성조소간 결합)</th></tr>
<tr><td>고조</td><td>· H_1(성조배열고려:
HL, LH LHL 등)---'말(馬)'류
· H_2(성조배열고려:
HH, HHL, LHH 등)---'말(斗)'류</td><td rowspan="2">· H·L(고저복합조)---'말(村)'류

· L·H(저고복합조)---'말(語)'류</td></tr>
<tr><td>저조</td><td>· L---'더, 좀(多少)'류</td></tr>
</table>

3. 기저형

3.1. 기저형 설정 방법

음소 측면에서나 성조 측면에서나 기저형은 모든 교체형이 설명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하나의 기저형으로 모든 교체형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단일기저형이 설정되며 하나의 기저형으로 다른 교체형을 설명할 수 없다면 복합기저형이 설정된다. 아래에서는 분절음 층위와 성조 층위로 나누어서 기저형 설정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분절음 층위에서의 서술은 널리 알려진 방법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성조 층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단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3.1.1. 음소 층위

어간의 기저형 설정 방법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어미의 기저형 설정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자.

3.1.1.1. 어간의 기저형 설정 방법

(1)에 제시된 곡용형을 통해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보자.

(1) 암'만, 압'또, 아'피(前)

곡용형 '암만, 압또, 아피(前)'는 곡용 어간에 각각 곡용 어미 '-만, -도, -이'가 통합된 것이다. 이 경우 어간의 교체형은 '암, 압, 앞' 세 가지로 나타난다.[1] 어간 교체형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교체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저형이 되는 것이다. 먼저 '암'으로 다른 교체형 '압', '앞'을 설명해 보자. 기저형을 '암'으로 설정하면 어간과 어미의 통합은 '암+만', '암+도', '암+이'가 되어 각각은 '암만', '암도', '아미'로 실현된다. 이를 (1)과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도출형만 일치하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도출형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기저형을 '암'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에서의 두 번째 어간 교체형인 '압'으로 다른 교체형을 설명해 보자. 기저형을 '압'으로 설정하면 어간과 어미의 통합은 '압+만', '압+도', '압+이'가 되어 각각은 '암만', '압또', '아비'로 실현된다. 첫 번째에서는 비음화 규칙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경음화 규칙을 적용하여 올바른 표면형을 이끌어낼 수 있

1) '감˘만(柿), 감˘도, 가˘미'에서처럼 어간 '감˘'이 교체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어간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될 것이다. 이는 성조 층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만 마지막 통합은 부적격한 표면형 '아비'를 도출하게 되므로 역시 '압'은 (1)에 제시된 곡용형의 기저형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저형을 '앞'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교체형을 설명해 보자. 기저형을 '앞'으로 설정하면 어간과 어미의 통합은 '앞+만', '앞+도', '앞+이'가 되어 각각은 (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암만', '압또', '아피'로 실현된다. 첫 번째 도출에서는 평파열음화 규칙, 비음화 규칙을, 두 번째 활용형에서는 평파열음화 규칙, 경음화 규칙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체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결합은 교체를 보인 것이 아니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에 제시된 기저형은 '앞'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에서는 하나의 기저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기저형에 대해 서술해 보기로 한다.

(2) '가르'고', '가르'먼', '갈'라(分)'

'가르고', '가르먼', '갈라'는 각각 어간에 어미 '-고', '-먼', '-아'가 통합된 형태이다. 어간은 '가르'와 '갈르'로 교체된다. 교체형 '가르-'로는 (2)에 제시된 세 번째 표면형을 도출할 수 없다. '가르+아→가라'와 같이 '어간말 으 탈락' 규칙으로 인해 도출형은 '가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교체형 '갈르'로는 (2)에 제시된 첫 번째, 두 번째 활용형을 도출할 수 없다. '갈르+고'와 '갈르+먼'의 통합은 '갈르고'와 '갈르먼'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교체형으로도 다른 교체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들은 기저형을 둘로 설정해야 한다. 기저형 '가르-'는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통합되며, 기저형 '갈르-'는 모음어미와 통합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어간의 기저형은 3.2.1.에 열거될 것이다.

어간의 기저형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곡용 어간의 기저형을 정하는 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곡용 어간 중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2]

곡용 어간의 기저형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우리는 곡용 어간의 특이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단 우리는 (3가)에 제시된 어간의 기저형을 과연 '넋ㅆ'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3]

(3) 가. 넋ㅆ+하고→너카'고(魂)
　　나. 여덟+하고→*여덜파고(八)
　　cf. 밥+하고→바'파'고(飯)

(3나)에 제시된 비적격형 '*여덜파고'를 통해 볼 때, 곡용 어간은 단독형의 발화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될 수도 있다. (4)에 제시된 예 또한 곡용 어간의 기저형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2) 아래의 서술은 임석규(2004다)의 일부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3) '價'의 의미를 지닌 어간의 기저형을 '갑ㅆ'으로 설정하는 것은 송철의(1982:191)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기저형 설정은 어간의 이형태가 '갑ㅆ'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4) 가. 여덟+보다→*여덜뽀다　　cf. 여덟#헤→*여덜페(八年)
　　나. 여덟#게→여'덜께(八個), 여'덟#벵→여덜뼁(八瓶)

문제는 (4가)에서와 같이 폐쇄음 'ㅂ' 뒤에서도 어미의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저형을 '여덟'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3)에서의 기저형 '넋ㅆ'도 잘못일 수 있다. 그런데 (4나)에서는 후행요소의 자음이 경음으로 변동하였으니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4나)의 예에서도 기저형은 '여덟'이라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은 '열께(十個)', '열뺑(十瓶)'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4나)에서의 경음화는 'ㅂ'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4] 여전히 곡용 어간의 기저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

또 곡용 어간의 기저형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5)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5) 젖[5]+하고→저'타'고(乳) *저차고

(5)에서처럼 곡용 어간의 말자음이 'ㅈ'일 때가 문제이다. '젖+하고→저타고[6]'의 경우는, '밥+하고→바파고'에서처럼 '*저차고'로 도출되는 축약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평파열음화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곡용에서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송철의(1991:284), 배주채(2001:36)에 제시된, 체언은 어간을 단순화시키고 고정화시킴으로써 어간의 교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견해가[7]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8] 화자들은 '八'을 이미 '여덜'로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더리'라는 곡용형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9] 이

---

4) 김창섭(1994:67)에서는 '열께', '열끄루'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옰', '뭃' 등 'ㅎ' 말음의 화석화가 'ㅅ' 후치성의 기원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볼 때 '열께', '열끄루' 등에서의 경음화가 잘 이해될 수 있다. 고유어 계열의 수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에서는 후행하는 명사가 한자어든 고유어든, 후행하는 명사의 음절초 평음의 경음화는 수관형사의 말자음이 'ㄹ'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임석규 1999:41, 김세환 2005:20). 이것은 열뙤, 열싸람, 열짜루, 열끄루, 열뿐 / 열뜽급, 열쌍점, 열쭈기, 열께, 열뻬 / *한뙤, *한싸람, *한짜루, *한끄루, *한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는 '일쭈기(日週期), 일쎄기(一世紀), 일뜽급(一等級)'에서와 같이 후행성분의 어미초자음이 [+설정성] 자질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빡(一泊), *일꾹(一局)'에서와 같이 후행요소가 [-설정성] 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5) 울진지역어에서는 기저형이 '젇'으로 설정된다. 곡용형은 '저'도'(젇+오, 대격 통합형)', '저'지'', '저'데'로 나타난다. 이런 어형으로 '붇(筆, H_2)', '낟(鎌, H_2)'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3.2.1.1.에서 구체화된다.

6) (5)의 경우, 서남방언에서는 축약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다고'로 실현되는데, 둘째 음절의 초성 'ㄷ' 또한 곡용 어간의 특이성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평파열음화된 'ㄷ'이 어미초자음과 축약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7) 곡용 어간은 그 자립성으로 인해 교체형을 만들지 않으려는 결과, '불(火)+은'에서는 '으'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바보+이다'에서는 '이-'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8) 이형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은 무시되기 어려울 듯하나 사실 일부 예외가 확인되기도 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머리+에→머레'와 같이 곡용에서의 활음화가 발견되기도 한다. '머리가'와 '머레'를 비교해 보면 어간의 이형태가 확인된다. 곡용에서의 활음화는 최명옥(1982:109), 곽충구(1994가:147-150), 채옥자(1999:157), 김봉국(2002:123-128), 임석규(2004:77-79)를 참조할 수 있다.

러한 현상이 바로 어간을 단순화하여 교체형을 만들지 않으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실, 활용 어간과 달리 곡용 어간이 언어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10] 이것이 바로 곡용 어간의 특이성이다.

앞서 필자는 '넉ㅆ+도'의 통합에서 '넉ㅆ'이 과연 기저형이냐 하는 의문을 던졌다. 그것은 (5)의 경우 '젇+하고'의 통합이냐 '젖+하고'의 통합이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복합기저형을 체언에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곧 모음어미와의 통합에서는 기저형이 '젖', 자음어미와의 통합에서는 기저형이 '젇'이라고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많은 곡용 어간이 복합기저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간결한 기술이 아님에 틀림없다. 기저형은 '넉ㅆ', '젖', '여덟'과 같이 단일하게 설정하고 곡용 어간 특이성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현재 필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곡용 어간의 경우 사실은 자음어미와의 통합형은 기저형을 설정하는 데 부차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곡용 어간의 특이성으로 인해 자음어미와의 통합에서는 어간말음절에 'ㄱ,ㄴ,ㄷ,ㄹ,ㅁ,ㅂ,ㅇ'의 7자음만이 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곡용 어간 말음절의 음절구조제약이다. 이 때문에 '넉ㅆ+도'에서처럼 자음군어간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젖+하고'에서처럼 어간말자음이 평파열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어간에 따라서 그 음운과정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곧 어간 '넉ㅆ'과 '-도'의 결합은 자음군단순화(탈락)의 과정을 겪게 되고, 어간 '젖'과 '-도'의 통합은 당연히 어간말 평파열음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간말음절에서의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활용에서와 달리 규칙순의 문제도 크게 야기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상에서 곡용 어간인 경우 기저형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몇몇 자료를 통해 검토하면서 곡용 어간의 자립성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3.1.1.2. 어미의 기저형 설정 방법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6)에 제시된 곡용형에서 확인되는 어미의 기저형을 검토해 보자.

(6) 입'또'(口), 이'도'(齒)

곡용형 '입또, 이도'는 각각 어간 '입', '이'에 어미 '-도'가 통합된 것이다. 어미는 '-또'와 '-도'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기저형을 '-도'로 설정하지 않고 '-또'로 설정한다면 '이+또→이도'의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기저형을 '-도'로 설정한다면 '입+도→입또'의 과정은 폐쇄음 뒤에서

9) 이병근(1975:31-32), 강창석(1985:58-59), 송철의(1991:283) 등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곡용 어간과 활용 어간이 음운과정에서 차이가 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강창석(1985)의 결론은 '음운현상의 비음운론적 제약이라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제약이 관여하는 것은 이미 형태론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10) 송철의(1991:279)에서는 자립성이라는 것이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무언가 불충분함을 지적하였으나 필자는 기술의 편의상 자립성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의 경음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어미의 기저형은 당연히 '-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어미의 기저형도 복합기저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 곡용 어미 '-이'와 '-가'를 들 수 있다.

(7) 이'비'(口), 이'가'(齒)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어미가 교체된다. 즉 '이비'에서와 같이 폐음절 어간인 경우는 주격어미가 '-이'로 나타나고 '이가'에서와 같이 개음절 어간인 경우에는 주격어미가 '-가'로 실현된다. 교체형 '-이'를 통해서 후자를 설명할 수 없고 교체형 '-가'를 통해서 전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격어미는 당연히 기저형이 둘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어미의 기저형은 3.2.2.에서 열거될 것이다.

끝으로 매개모음어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하자.11) 충청도를 포함한 다른 방언권에서는 '꿈'과 대격의 '-을'이 통합할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韓成愚 1996:34). 그러나 '으'와 '어'의 구분이 있는 영주지역어에서조차 대격조사가 '-을/-를'이 아니고 '-얼/-럴'이기 때문에 원순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꾸물, 꾸'멀'(夢)). 다만 'ㅁ'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으로', '으면'과 통합할 때에는 '꾸'무'로(夢)', '수'무'먼(隱)'에서와 같이 원순모음화가 확인된다.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매개모음어미는 '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어(대격, 주제격 어미 계열)'와 '으(매개모음어미 계열)'의 차이에 의해 음운과정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으'와 '어'가 구분되지 않는 문경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도 '꾸'무'로', '수'무'먼'과 같은 원순모음화가 확인된다. 우리는 대격어미도 매개모음어미도 모두 '어'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음운론적 환경이라면 '꿈+얼'에서도 원순모음화가 확인되어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매개모음어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순모음화를 겪는 것은 매개모음어미일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매개모음어미가 아닐 것이다. '주굴떼(죽을 때)', '수물 떼(숨을 데)'에서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므로 관형사형 어미 또한 매개모음어미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비모음화 후 일어나는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식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거랑'(川)+으로'의 통합에서는 '거라^로'와 같이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나 '거랑+언12)→*거란^', '거랑+얼→*거랄^'과 같은 주제격, 대격어미와의 통합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에도 매개모음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음운과정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11) '으'가 삽입되는 음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으니'로 설정한 것은 필자가 알기로는 김완진(1972/1996:23-24)이 처음이며, 이 어미에 대한 연구사는 김경아(1990:91-92), 배주채(1993)를 참조할 수 있다. 배주채(1993)에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둘로 설정하는 등 연구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실 임석규(2002나)에서도 성조 관련 근거, 탈락제약 관련 근거 등을 통해 매개모음 어미의 기저형을 복수로 파악하였다.

12) 7모음을 보이는 영주지역어에서도 '-언', '-얼'은 '-은', '-을'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매개모음어미와 그렇지 않는 어미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필자는 임석규(2002나)에서 고찰한 대로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대격·주제격어미와는 달리 복합기저형으로 파악하려 한다. 주된 이유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단일한 '으(X)'로 설정할 경우, '불+으니→부ˇ니(吹)', '핥+는→할른'(舐)'의 음운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탈락규칙을 연이어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후자에도 탈락규칙을 연이어 적용하면 부적격형 '*하는'을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격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에는 탈락규칙을 연이어 적용하고 후자에는 탈락규칙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은 인위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ˇ먼(吹)'에서의 복합조를 설명하기 위해 '불+으먼'의 통합으로 이해한다면 설명이 쉽지 않다. '밟+으먼'에서의 '발'부먼(踏, cf. 발ˇ꼬)'을 고려해 볼 때, '불+으먼'의 통합은 '불ˇ먼'으로 나타나야 할 이유가 없다. 성조변동이 먼저냐, 분절음 탈락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다음과 같이 어간말음의 환경에 따라 어미가 선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어간 말음이 [-모음성](ㄹ 제외한 자음)인 경우, 어미 '으X(영주)/어X(문경·울진)'가 선택되고 [+모음성]인 경우, 어미 'X'가 선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대격·주제격어미는 단일기저형으로 파악한다.

3.1.2. 성조 층위

음소 층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되는 성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성조 층위의 기저형은 결정될 것이다.

3.1.2.1. 어간의 기저성조 설정 방법

어간의 기저성조를 설정하기 전에 우리는 영주지역어에서 실현되는 부정부사 '안'의 성조변동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안'의 성조변동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어간의 성조변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를 통해서 어간의 기저형은 물론 어미의 기저형까지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8)은 단어 경계를 두고 부정부사 '안'과 후행성분이 통합된 것인데 하나의 성조군을 이루고 있다.[13)]

(8) 안뽑꼬(HLL),[14)] 안자고(LHL), 안잠는다(LLHL)
cf. 뽑꼬(HH, 選), 자고(HL, 寢), 잠는다(LHL, 獲)

13) (8) 이하에 제시된 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영주지역어 자료를 활용한다.
14) 편의상 이하에서는 위치동화는 반영하지 않고 나타낸다.

(8)에서 '안'의 표면성조는 후행성분의 성조에 따라 H와 L로 교체된다. 기저성조를 H_1으로 설정하고 다른 교체 성조인 L을 설명하는 방안과 기저성조를 L로 설정하고 다른 교체 성조 H를 설명하는 방안이 있다. 기저성조를 L로 설정하게 되면 '안자고', '안잠는'에서는 기저성조가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된다. (8)의 첫 번째 어형에 대해서는 기저성조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H로 교체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사 '안'을 부사 '좀'으로 바꿔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부사 '좀'은 항상 저조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좀뽑꼬'는 HH 앞에서 고조로 교체되지 않는다. 곧 HLL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LHH로 실현되므로 부사 '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안'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할 경우에는 다시 '좀'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다른 장치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사 '안'의 기저성조를 H_1으로 설정하고[15] 저조화 규칙 두 가지로 (8)에 제시된 표면성조를 설명한다. 저조화 규칙 '$(L)H_1 \rightarrow (L)L / _(L)H_1(L)$'으로 인해 두 고조($H_1$)의 통합은 LH로 변동되므로 (8)의 '안자고(LHL)', '안잠는다(LLHL)'는 설명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저조화 규칙 '$H_2H_2 \rightarrow LL / (L)H_1_$'로 인해 (8)의 '안뽑꼬(HLL)'도 설명될 수 있다.[16]

(9)에서는 부정부사 '안'을 2음절 부사 '너무'로 대치해 보고자 한다.[17]

(9) 너무뽑꼬(LHLL), 너무자고(LLHL), 너무잠는다(LLLHL)
cf. 뽑꼬(HH, 選), 자고(HL, 寢), 잠는다(LHL, 獲)

(9)에 제시된 예를 통해 우리는 어간 '너무'의 성조가 LH와 LL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기저성조를 LH로 설정하고 저조화 규칙 두 가지로 (9)에 제시된 표면형의 성조를 설명할 수 있다. 저조화 규칙 '$(L)H_1 \rightarrow (L)L / _(L)H_1(L)$'으로 인해 LL로 변동되므로 (9)의 '너무자고(LLHL)', '너무잠는다(LLLHL)'는 설명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저조화 규칙 '$H_2H_2 \rightarrow LL / (L)H_1 _$'로 인해 (9)의 '너무뽑꼬(LHLL)'도 설명될 수 있다.

우리는 (8), (9)를 통해 선행성분의 성조가 교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기저성조를 (8)에서는 H_1, (9)에서는 LH_1로 설정해 보았다. 이에 선행성분의 기저성조형을 일반화한다면 바로 'H_1'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선행성분에 성조 교체를 보이는 3음절어가 통합된다면 그 기저성조는 LLH_1이 될 것이다.

(9)와 같은 성조 실현은 (10)에 제시된 성조군에서도 확인된다.

(10) 나무(LH)#책쌍(HH) → 나무책쌍(LHLL)
나무(LH)#상자(HL) → 나무상자(LLHL)
나무(LH)#문짝(LH) → 나무문짝(LLLH)

---

15) 사실 고조와 저조가 교체되어 나타나는 어형의 기저성조는 '말(馬)'류의 기저성조와 일치한다. '말'의 기저성조를 H_1으로 설정한 것과 같이 '안'의 기저성조 또한 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

16) 제시된 저조화 규칙 두 가지는 5장에서 약간 변형이 되는데 그 이유는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17) '너무'와 통합한 '너무뽑꼬'는 LHLL로 확인된다. 그런데 더러 LLHH도 확인된다. '너무싸고(廉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LHLL이 보다 일반적인 듯하다. '너무'의 성조와 관련된 특이성인 듯한다.

(10)에서 선행성분 '나무'의 성조는 LH, HL로 교체됨을 알 수 있다. '나무책쌍(LHLL)'은 '너무뽑꼬(LHLL)'와 그 유형이 일치하고 '나무상자(LLHL)'와 '나무문짝(LLLH)'은 각각 '너무자고(LLHL)', '너무잠는다(LLLHL)'와 그 유형이 일치한다. 어간 '나무'의 교체형 LH, HL은 어간의 기저성조를 LH로 설정할 때, (9)에서처럼 저조화 규칙 두 가지로 설명된다.

이제는 선행성분의 성조가 교체되지 않은 경우를 검토해 보자.

(11) 가. 중먹꼬(HHL, 죽(粥)#먹꼬), 중멍는다(HHLL, 죽#멍는다),
나. 감먹꼬(L·HHL, 감(柿)#먹꼬), 감멍는다(L·HHLL, 감#멍는다)
다. 낼먹꼬(H·LLL, 내일(名日)#먹꼬), 낼멍는다(H·LLLL, 내일#멍는다)
cf. 먹꼬(HL, 食), 멍는다(LHL), 주기(HH), 가미(L·HH), 낼또(H·LL)

(11가)에 제시된 예의 표면성조는 HHL(L)이다. 후행성분의 성조 HL, LHL에 관계 없이 선행성분의 성조는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 첫째 음절, 둘째 음절에 모두 고조가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조배열 HH에서 H는 H_2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간 선행성분 '죽'의 성조는 H_2로 확정될 수 있다. (11나)에서의 표면성조는 L·HHL(L)이다. (11가)에서와 같이 후행성분의 성조 HL, LHL에 관계 없이 선행성분의 성조는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 첫째 음절은 항상 L·H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체를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기저성조는 결정된다. 따라서 '감'의 기저성조는 L·H가 되는 것이다. (11다)에 제시된 어형의 표면성조는 H·LL(L)이다. (11가), (11나)에서와 같이 후행성분의 성조 HL, LHL에 관계없이 선행성분의 성조는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 첫째 음절 H·L이 교체를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교체를 보이지 않는 그것을 기저성조로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낼'의 기저성조는 H·L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12)와 같다.

(12) A+B의 성조변동에서
가. A의 말음절이 고조와 저조로 교체되면 A의 기저성조는 'H_1'으로 끝난다.
나. A의 표면성조가 교체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A의 기저성조가 된다.

(12)를 토대로 다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A+B에서 A는 어간, B는 어미가 된다. 편의상 곡용 어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본다. (13)에 제시된 곡용형의 표면성조를 통해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보자.

(13) 가. 꽁부텀(LHL), 꽁꺼짐(LHL, 稚)
나. 꽁이(HL), 꽁도(HL)

(1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간 '꽁'의 성조는 어미에 따라 각각 L과 H로 교체된다. (12가)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나면 A의 기저성조는 H_1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꽁'은 단음절 어간이므로 그 기저성조는 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18]

18) '2.2. 성조소 목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14) 가. 감제부터(LLHL), 감제꺼짐(LLHL, 苫)
나. 감제가(LHL), 감제도(LHL)

(1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간 '감제-'의 성조는 어미에 따라 각각 LL과 LH로 교체된다. (12가)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나면 A의 기저성조는 H_1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제'는 2음절 어간이므로 그 기저성조는 L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

(15) 가. 국씨부터(HLLL), 국씨꺼짐(HLLL, 麪)
나. 국씨가(HLL), 국씨도(HLL)

(1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간 '국씨'의 성조는 어미에 관계 없이 HL로만 실현된다. (12나)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면 교체되지 않는 그 성조가 바로 기저성조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국씨'의 기저성조는 HL로 설정될 수 있다.

(16) 적부터(HHL), 적꺼정(HHL), 저기(HH), 적또(HH, 煎)
잔체부터(HHL), 잔체꺼정(HHL), 잔체가(HHL), 잔체도(HHL, 宴)
첨부터(L·HHL), 첨꺼정(L·HHL), 처미(L·HH), 첨도(L·HH, 初)
가부터(H·LLL), 가꺼정(H·LLL), 가가(H·LL), 가도(H·LL, 厥兒)

(16)에 제시된 어간 '적'과 '잔체', '첨', '가'의 성조는 어미에 관계 없이 각각 H, HH, L·H, H·L로만 실현된다. (12나)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면 교체되지 않는 그 성조가 바로 기저성조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어간 '적', '잔체', '첨', '가'의 기저성조는 각각 H_2, HH, L·H, H·L로 설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어간의 기저성조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과연 곡용 어간 단독형의 성조는 기저성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3)~(16)을 통해 설정한 기저성조는 (17)에, 그 단독형은 (18)에 제시해 본다.

(17) 가. 감제(LH), 국씨(HL), 잔체(HH), 첨(L·H), 가(H·L)
나. 꽁(H_1), 적(H_2)

(18) 가. 감제(LH), 국씨(HL), 잔체(HH), 첨(L·H), 가(H·L)
나. 꽁(?), 적(?)

(17가)와 (18가)는 완전히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간이 2음절인 경우 단독형의 성조가 바로 기저성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간이 단음절인 경우는 두 부류로 나뉜다. 복합조인 경우는 단독형이 기저성조가 될 수 있고, 복합조가 아닌 경우는 단독형으로 기저성조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Pike(1948: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성조는 상대적인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17나), (18나)의 경우가 상대적 인식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 높이를 인식하기 위해 반드시 어미와의 통합을 통해 기저성조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곡용 어간의 기저성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활용 어간의 경우도 검토해 보자. 기저성조를 설정하는 방법이 차이가 없기에 몇 어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19) 가. 망는(LH), 막뜨라(LH, 防)
나. 막꼬(HL), 마가(HL), 마그까(HLL)

(19)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간 '막-(防)'의 성조는 어미에 따라 각각 L과 H로 교체된다. (12가)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나면 A의 기저성조는 고조(H_1)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막-'은 단음절 어간이므로 그 기저성조는 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 가. 처방는(LLH), 처박뜬동(LLHL, 覆)
나. 처박꼬(LHL), 처바가(LHL), 처바그까(LHLL)

(2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간 '처박-'의 성조는 어미에 따라 각각 LL과 LH로 교체된다. (12가)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나면 A의 기저성조는 고조(H_1)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박-'은 2음절 어간이므로 그 기저성조는 L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

(21) 뽑는(HH), 뽑뜨라(HHL), 뽑찌(HH), 뽀바도(HHL, 選)
지네는(HHL), 지네드라(HHL), 지네지(HHL), 지네도(HHL, 過, 奉祭)

(21)에 제시된 어간 '뽑-'과 '지네-'의 성조는 어미에 관계 없이 각각 H, HH로만 실현된다. (12나)에서 A의 성조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면 교체되지 않는 그 성조가 바로 기저성조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어간 '뽑-', '지네-'의 기저성조는 각각 H_2, HH로 설정할 수 있다.

곡용 어간에서와 달리 활용 어간에는 기저성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바로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의 성조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는 음장방언에서의 단음화에 대당한다.

(22) 가. 저근(L·HH), 적뜨라(L·HHL), 적찌(L·HH), 저거도(L·HHL)
나. 운는(L·HH), 욷뜨라(L·HHL), 욷찌(L·HH), 우서도(HLL)

(22가)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어미에 관계 없이 L·H로만 실현되므로 기저성조를 저고복합조(L·H)로 설정할 수 있다. 반면 (22나)의 마지막 활용형은 그 앞 세 활용형의 표면성조와 달리 첫 음절이 고조로 실현되어 있다. 성조배열 HLL을 보면 그 고조는 H_1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조의 고조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성조변동규칙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그 기저성조는 L·H로 설정되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는 어간의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예측될 수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김성규(1987:71-74), 김성규(1988:35)의 제안대로 이를 성조 차이를 보이는 복합기저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즉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의 기저성조는 저고복합조(L·H)로, 모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의 기저성조는 H_1으로 설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어간의 기저성조 설정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설정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어간과 어미의 통합에서 어간에 해당하는 표면성조가 교체를 보이면 그 어간의 기저성조는 L_0H_1이며, 어간의 표면 성조가 교체를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 어간의 기저성조가 된다. 교체를 보이지 않는 단음절 어간의 H는 H_2라고 할 수 있다.

3.1.2.2. 어미의 기저성조 설정 방법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고[19] 이어서 어미의 기저성조 설정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기로 한다.[20]

(23) 가. 마리(HL), 말또(HL, 마런(HL, 馬)
잡찌(HL), 작꼬(HL), 자바(HL, 捕獲)
나. 말버텀(LHL), 말꺼지(LHL), 말한테~말인데(LHL), 말보담^도(LLH·LL)
잡뜨라(LHL), 잡끄든(LHL), 잡는(LH), 잡떤(LH),

여러 논자들은 (23가)와 (23나)의 성조변동을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와 통합될 경우 해당 어간이 저조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어간이 고조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21] 그러나 '말(馬)'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용언, 곧 기저성조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활용 어간 '잡-(捕)'과 어미가 통합한 활용형들의 표면성조를 관찰하면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라는 조건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23나)의 '잡는', 잡떤'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이 단음절 어미와 통합될 때에도 어간 '잡-'의 성조는 저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3나)의 '말보담도(LLH·LL)'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말(馬)'의 성조가 저조로 실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말버텀(LHL)', '말꺼지(LHL)'에서와는 달리, 어미 '-보담도'의 첫 음절에 고조가 놓이

19) 임석규(2004나)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20) 서론에서 언급한바, 그동안의 성조 연구는 어미의 기저성조를 인정하는 논의와 어미의 성조는 어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어미의 기저성조를 인정하지 않는 논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에는 김차균(1977/80), 김성환(1987), 이동화(1990), 정원수(1994), 이문규(1998), 임석규(1999), 김세환(2005), 박숙희(2005) 등이 포함되며, 후자로는 문효근(1962), 정연찬(1977), 조현숙(1985), 이혁화(1994) 등이 포함된다.

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북부의 봉화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조현숙(1985:32), 경북서부의 김천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이혁화(1994:31)에서도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허웅(1954:485)에 몇몇 어미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견해는 허웅(1954)에서 처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효근(1962/1974:28~29)에서는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라는 용어가 처음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견해는 최명옥(1998:35)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력된 바 있다. 김봉국(1998:45-46)은 대부분의 어미에는 기저성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음절 어미 몇몇에는 기저성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부여해야 함이 설득력을 갖는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문경지역어를 포함한 경북서부방언의 특별한 예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어에서는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군인 경우 '정지버터(LLHL, 廚)', '정지버터도(LLLHL)', '정지버터라도(LLLLHL)'에서처럼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penultimate position)에 고조(또는 고저복합조)가 놓이게 된다. 활용형의 경우, 단음절 어미인 어미 '-넌(는)', '-던(던, 든)'의 기저성조를 'H_1'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막편(LH, 防)', '망넌(LH)'의 표면성조를 설명하기 어려워짐은 물론, 망넌거도(LLHL, 막넌(防)#거도)', '망넌놈도(LLHL)'에서처럼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에 고조가 놓이는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넌거도', '-넌놈도' 전체를 2음절 이상의 자음어미 통합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저조화 규칙 '$(L)H_1 \rightarrow (L)L / _(L)H_1(L)$'으로 인해 두 고조($H_1$)의 통합이 LH로 변동되므로 '망는-'은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군이 된다. 그래서 '막편', '망넌'은 물론 '망넌거도(LLHL)', '망넌놈도(LLHL)'는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게 된다.

지금까지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부여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어미의 기저성조 설정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주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안'의 성조변동 또한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안'과 후행성분이 결합할 때의 성조변동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성조변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는 이를 통해서 어간의 기저성조를 설정해 보았고, 여기에서는 어미의 기저성조를 설정해 보기로 한다.

(24) 안뽑꼬(HLL), 안자고(LHL), 안잠는다(LLHL)
cf. 뽑꼬(HH, 選), 자고(HL, 寢), 잠는다(LHL, 獲)

우리는 앞 절에서 '안'의 성조를 고조(H_1)로 설정한 바 있다. '안'이 표면에서 고조와 저조로 교체되는 것으로 기저성조 H_1의 설정이 가능했다. 여기에서는 부사 '안'이 어느 환경에서 고조로 실현되고 어느 환경에서 저조로 실현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서 2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안뽑꼬(HLL)'에서 '안'이 고조로 실현되는 이유는 후행성분의 성조가 HH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H가 둘 나란히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조는 바로 H_2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이 고조로 실현될 때에는 '안'에 후행하는 성분의 성조에 H_2가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안자고(LHL)', '안잠는다(LLHL)'에서는 '안'이 저조로 실현된다. '안'에 후행하는 성분의 성조는 HL 또는 LH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L, LHL과 같은 성조 배열에서의 고조는 바로 'H_1'이다. 그러므로 '안'이 저조로 실현되는 경우는 후행성분의 성조에 H_1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를 후행성분이 단음절인 경우에까지 적용해 보자.

(25) 가. 앙가(HL)　　cf. 앙가도(HLL)
나. 앙가고(LHL)

(25가)에서는 '안'이 고조로 실현되어 있으며 (25나)에서는 '안'이 저조로 실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후행성분의 성조를 짐작할 수 있다. (25가)의 후행성분에는 H_2가 존재해야 하고 (25나)의 후행성분에는 H_1이 존재해야 한다. (25가)의 후행성분에 H_2가 존재한다는 것은 '앙가'에서의 '가'가 H_2라는 뜻이 된다. 사실 (25가)에 제시된 후행성분의 첫 음절은 분절음 차원에서는 같은 것, 즉 어간말모음이 탈락된 형태 혹은 그 일부이다. 그러므로 '가'가 H_2라면 당연히 '가도'는 H_2H_2일 것이다. 반면 (25나)의 후행성분에는 H_1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HL이 되어야 한다. LH가 되어서는 H_1과 LH가 통합할 때 LHL로 도출되지 않고 LLH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선행성분이 2음절인 부사로 논의를 확대해 보자.

(26) 너무뽁꼬(LHLL), 너무자고(LLHL), 너무잠는다(LLLHL)
cf. 뽁꼬(HH, 選), 자고(HL, 寢), 잠는다(LHL, 獲)

우리는 앞 절에서 '너무'의 성조를 'LH_1'으로 설정한 바 있다. '너무'의 둘째 음절이 표면에서 고조와 저조로 교체되는 것으로 기저성조 'LH_1'의 설정이 가능했다.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너무뽁꼬(LHLL)'에서 '너무'가 고조로 실현되는 이유는 후행성분에 'H_2'가 있기 때문이며, '너무'가 LL로 실현되는 '너무자고(LLHL)', '너무잠는다(LLLHL)'에서는 후행성분에 H_1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선행성분이 단음절이든, 2음절이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 성분의 성조가 교체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7) 중먹꼬(HHL, 粥#먹꼬), 중멍는다(HHLLL, 죽#멍는다),
cf. 먹꼬(HL, 食), 멍는다(LHL)

(27)에 제시된 예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교체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앞 성분의 기저성조는 H_2로 설정할 수 있었다. 후행성분의 표면성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먹꼬(HHL)', '중먹는다(HHLL)' 두 예에서 둘째, 셋째 음절 성조는 동일하게 HL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후행성분의 성조가 HL과 LHL임을 상기한다면, 앞 성분의 성조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후행성분의 성조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곡용형과 활용형에 적용할 경우, 어간의 성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패러다임에서는 어미의 성조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간의 성조교체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어미의 기저성조를 설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A+B의 성조변동에서,
B의 성조는 A의 말음절이 고조와 저조로 교체될 경우에 한해 확인할 수 있다.
A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날 때,
가. A의 말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면 통합된 B에는 H_2가 존재한다.

나. A의 말음절이 저조로 실현되면 통합된 B에는 H_1이 존재한다.

이제 (28)의 A를 어간으로, B를 어미로 바꾸어 제시해 보자. 이러한 방식은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도 활용된 바 있다.

(29) 어미의 성조는 어간의 말음절이 고조와 저조로 교체될 경우에 한해 확인할 수 있다.
어간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날 때,
가. 어간의 말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면 통합된 어미에는 H_2가 존재한다.
나. 어간의 말음절이 저조로 실현되면 통합된 어미에는 H_1이 존재한다.

이제 (29)를 활용하여 어미의 기저성조를 설정해 보자.

(30) 가. 마런(HL), 마리(HL), 말또(HL, 馬)
나. 말버텀(LHL), 말꺼지(LHL), 말보담도(LLH·LL)

(31) 가. 막꼬(HL), 막쩨(HL), 마가(HL, 防)
나. 망는(LH), 막뗜(LH), 막끄듣(LHL)

(30), (31)에 제시된 '말(馬)', '막-(防)' 두 어간의 표면성조는 L, H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30가), (31가)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고조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29가)에 의해 후행성분인 어미의 기저성조는 모두 H_2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곡용 어미 '-언', '-이', '-도'의 기저성조는 자동적으로 H_2로 설정되며, 활용 어미 '-고', '-제', '-아' 또한 기저성조를 H_2로 확정할 수 있다. 반면 (30나), (31나)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저조로 실현되어 있으므로 (29나)에 의해 후행성분인 어미의 기저성조에는 H_1이 존재해야 한다. 즉 곡용 어미 '-버텀', '-꺼짐', '-보담도'와 활용 어미 '-는', '-던', '-그듣'의 기저성조에는 H_1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표면형을 살펴볼 때 고조가 놓여 있는 음절은 '-버텀', '-꺼짐', '-는', '-던', '-그듣'의 첫 음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버텀', '-꺼짐', '-그듣'은 모두 HL로 설정될 수 있으며, '-는', '-던'은 H_1으로 설정될 수 있다. 문제는 '-보담도'의 경우이다. '말보담도(LLH·LL)'에서는 음절 '담'에 H·L이 놓여 있다. '말보담도(LLH·LL)'의 둘째 음절 '보'에 고조가 놓인다면 당연히 이 어미의 기저성조는 HLL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마지막 음절 '도'에 고조가 놓인다면 '-보담도'의 기저성조는 LLH가 될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보담도'의 둘째 음절 '담'에 H·L이 놓여 있다면 LH·LL 자체가 바로 기저성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기저성조를 LH·LL로 설정하지 않으면 '말보담도'의 표면성조 LLH·LL을 성조변동규칙으로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정한 기저형 '-버텀'을 통해서 '말버텀(LHL, 馬)', '죽뻐텀(HHL, 粥)'에서 확인되는 어미의 성조 교체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말버텀(LHL)', '죽뻐텀(HHL)'의 표면성조에서 '-버텀'은 HL과 HL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위에서 우리는 '-버텀'의 기저성조를 HL로, '말(馬)'의 기저성조를 'H_1'으로, '죽(粥)'의 기저성조를 H_2로 확정하였다. 이를 이용해 어미 성조의 교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저조화 규칙 '$(L)H_1 \rightarrow (L)L / __ (L)H_1(L)$'으로 인해 두 고조($H_1$)의

통합은 LH로 변동되므로 '말버텀'에서의 '-버텀'의 기저성조 HL은—물론 설정한 기저성조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었으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설명될 수 있다. 반면 어간 H_2 뒤에서의 고조화 규칙 '$H_1 \rightarrow H_2/H_2$_'로 인해 '죽빼텀(HHL)도 설명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여러 어미에 적용해 보자.

(32) 말(馬)

가. 말한테(LHL), 말꺼짐(LHL), 말메치(LHL), 말메둥(LHL), 말처럼(LHL), 말버터(LHL), 말메로(LH·LL), 말보담도(LLH·LL), 말하고(LHL)

나. 말또(HL), 마런(HL), 마럴(HL), 마리(HL), 마리사(HLL), 마레(HL)

(33) 막-(防)

가. 망는데이(LHLL), 막뜬동(LHL), 막끄레이(LHLL), 막씨더(LHL), 망니더(LHL), 막끼다(LHL). 망니껴(LHL)

나. 막께(HL), 막노(HL), 막쩨(HL), 막꼬(HL), 마가도(HLL), 마간따(HLL), 마그먼(HLL), 마그이께네(HLLLL), 마그신다(HLLL), 마글라이껴(HLLLL)

(32)를 통해 우리는 (32가)는 어간이 저조로 교체된 경우이고, (32나)는 어간이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용 패러다임 (33가)와 (33나)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간이 L로 교체된 경우는 어간에 해당하는 곡용형, 활용형의 첫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조가 그대로 어미의 기저성조가 된다. 그래서 (32가), (33가)에 제시된 어미 '-한테, -꺼짐, -메치, -메로'의 기저성조는 'HL, HL, HL, H·LL'로 설정되고 '-는데이, -든동'의 기저성조는 'HLL, HL'으로 설정된다. 반면, (32나), (33나)에서처럼 어간이 고조로 실현된 경우, 어간에 후행하는 어미의 기저성조에는 모두 H_2가 존재해야 한다. 'H_2가 존재하는 성조형은 H_2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어미의 기저성조는 HHL_0이 되는 것이다.[22] 그래서 곡용 어미 '-이사', 활용 어미 '-을라이껴'는 각각 HH, HHLL을 기저성조로 확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어미의 기저성조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미의 성조는 어간의 말음절이 고조와 저조로 교체될 경우에 한해 확인할 수 있고 어간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성조배열제약으로 인해 어미의 성조는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간의 성조가 교체되어 나타날 때, 어간의 말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면 통합된 어미의 기저성조는 H_2로 시작하게 되며, 어간의 말음절이 저조로 실현되면 통합된 어미의 기저성조는 어간의 음절에 놓인 성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자체—여기에는 H_1이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

22)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한 성조군 또는 2음절 이상 어형의 기저형은 L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좀', '더' 등은 기저성조가 L인데 이는 단음절 어간이다. 또 '-을라이껴'의 기저성조를 LHHL로 설정한다고 해도 반박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성조 패턴을 따른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3.2.1. 어간의 기저형

3.2.1.1. 곡용 어간의 기저형

아래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을 지역어에 따라 음절별 성조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제시된 기저형 중에서 공시적 규칙과 관련지을 수 있는 어간의 재구조화 나아가 복합기저형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A//B//C'로 제시된 것은 A가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어형이며, B와 C는 차례로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어형이다. '등'급'(等級)'으로 제시된 어형은 영주지역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역어에서는 '덩'겁''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복잡한 것을 피하려는 필자 나름의 조치이다. 곡용 어간에는 편의상 부사도 포함시켜 제시하기로 한다.

① 1음절 곡용 어간

H_1

갉(粉)~가리'[23], 건(劵)//곤//군, 게(擲柶), 국(麴), 군(軍), 궁(宮), 그(其, 관형사, 대명사), 꼰(고누), 겉(表), 금(金), 꽁(雉), 꽃(花)∽끝[24]//꽃∽끝//끝, 나(我)~나ˇ~네~네(H_2),[25] 네(我, 관형사), 낯(面)∽낱//낯∽낱//낱, 낱(個), 너(汝)~니ˇ, 넉ㅆ(魂), 네(腦)~네ˇ, 닭(鷄)~달~닥//달~닭~달구'//닭~달~다'리~다리'~달'기~달'구, 독(缸), 등(燈, 背), 땅(地), 떼(擲柶)//떼//띠, 뚝(堤防), 말(馬), 몰(處, 村)//몰//몰~물~멀, 베(船[26], 梨), 모(苗, 擲柶), 목(亢), 목ㅆ(割當), 문(門), 밑(下), 방(房), 밫(田)∽밭//밫∽밭//밭, 뺀(本), 뽕(桑),[27] 북(鼓), 분(回)//본//분, 빙(甁)//벵//빙, 빚(債)[28]//빚//빋, 산(山), 선(先, 線), 삼(蔘), 상(床), 솥(鼎)∽솥//솥∽솥//솥, 술(酒), 숯(炭)∽숱~수꺼'멍//숯∽숱~수껑'//숱~수'꾸~수껑'[29], 싹(芽), 싹ㅆ//싹ㅆ//싹(價), 씨(種), 앞(前), 연(鳶), 영(零), 옆(側), 요(衾), 위(胃), 윷(擲柶)~윷ˇ∽윹~윹ˇ//윷~윷ˇ∽윹~윹ˇ//윹~윹ˇ,

---

23) '갉(粉)', '잙(袋, 柄)' 등은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된다.

24) 처격어미는 어간 '끝'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패러다임 '꼬'터넌', '꼬'치', '꼬'테'처럼 주격어미(계사 포함)와 통합하는 경우일 때만 'ㅊ'이 실현되는 경우는 일단 구개음화 규칙을 공시적으로 인정하여 단일기저형으로 처리한다.

25) 복합조로 실현되는 경우로는 '난ˇ도(我)', '나ˇ도' 등이 있다. 물론 '나'도'와 같은 곡용형도 실현된다. '네'넌'과 '나'가'는 이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기저형을 '네'로 설정할 수 있는 곡용형이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 '네'가'', '네'도'', '네'만'', '네'럴'', '네버'터', '네꺼'지', '네만'치' 등이 있다. 물론 중부방언에서처럼 '나X' 곡용형도 나타나지만 '네X'에서의 표면성조와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나버'터', '나꺼'지', '나만'치'에서는 성조가 동일하나 '나'도', '나'만', '나'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2인칭인 경우는 '니ˇ가', '니ˇ도', '니ˇ만', '니ˇ럴' 등이 '니'도', '니'만', '니'럴'보다 실현빈도가 높다. 2음절 이상의 곡용어미가 통합할 때에는, '니ˇ버터'와 같은 곡용형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니버'터', '니꺼'지', '니만'치' 등이 보다 일반적인 곡용형이다.

26) 울진지역어에서는 'H_2'로 실현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베'타'는고더너(배타는 곳은)', '베'타'씨이(베탔으니)' 등이 그 예이다.

27) '뽕'이라는 어형을 실제로는 듣지 못했는데 '뽕'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했다.

28)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비'시', '비'치'이라는 어형도 더러 확인되는데, 이는 '젖(乳)'과도 관련성이 있다. '저'시'', '저'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발화가 아니다. 그러나 대격어미가 통합할 때 '저철'이라고 하는 경우는 들을 수 없었다.

29) 처격어미와의 통합에서는 '수'테'로도 실현된다.

은(銀), 잙~자리'[袋, 柄, ~잘(울)], 장(張), 장(市場), 저(吾)~지ˇ[30], 전(前), 점(卜), 정(情), 종(鍾), 젗(傍)∽젙//젗∽젙//젙, 집(舍),[31] 차(茶, 車), 창(矛, 窓), 칸(區), 콩(豆), 털(毛)~터'리, 파(派), 팔(腕), 포(肉脯),[32] 풍(화투楓), 할(矢), 힝~싱(兄)[33]//형(兄)~헝//형~헝, 흉(罵)~숭, 헐(土)~헑~헉//흘~흙//헑~헐~허'리~허리'

H₂

간(鹹)[34], 광ˇ(光)//간//간(H_1), 걸(윷), 골(頭), 곱(倍), 곳(處)//곳//곧, 급(級), 건//곤//군(卷),[35] 겁(怯), 금(線, 價), 기(耳, 氣), 꼴(草), 꿈(夢), 끚(末)∽끝//끚∽끝//끝, 끈(繩), 끼(策)//께//께, 나(年齒)~나'이', 날(日), 남(他人)~다리^, 낮(晝),[36] 논(沓), 농(欌), 눈(目), 눔(者)~놈,[37] 달(月), 담(墻), 덕(德), 득(得), 데(升), 독(樽), 돌[週期, ~돌ˇ(문·영)], 딴(他), 딸(女兒), 땀(汗), 땅(地), 떡(餠), 때(時, 塵), 뜻(志), 뜸(晩), 띠(花鬪), 띠(群)//떼//띠, 말(斗), 맛(味), 먹(墨), 못(釘)//못//몯, 몸(體), 말(斗), 물(水),[38] 밍(名, 단위)//멩//밍, 및(何)//몣//및, 발(足), 밤(夜), 밥(飯), 벗(友)//벗//벋, 베(腹), 붓//붓//붇(筆), 볼//볼//뽈(버선볼), 봄(春), 불(火), 붓(筆), 비(布)//베//베, 비(빗자루), 비(雨), 빅(壁)//벡//벡~벼빡', 빗(梳), 빛(光)//빛//빝, 빰(뺨), 빌(別)//벨//빌, 뻬(骨)//뼤//뼤~뼤, 살(膚), 삼(布), 색(色), 세(牛)~소[~세ˇ~소ˇ(문)], 손(手), 술(匙), 신(履)~신'발', 쌀(米), 쌈(쌈밥), 약(藥), 역(驛), 열(十), 옷(衣), 업(業), 읍(邑), 이(齒, 머릿니), 입(口), 요/이/저(관형사), 자(尺), 잠(寢), 제(嶺, 灰), 적(敵), 적(煎)~찌짐'~부침'게[~부치게(영)],[39] 절(拜), 절(簪, 寺), 점(點), 젗(乳)//젗//젇, 죽(粥), 줄(線), 지(鼠), 질(道), 짐(擔), 짚(稈), 찌(線)~기'림'~금, 체(집, 단위), 치(箕)//체//치, 찰//찰//차'리'(鞭, 단위), 책[冊, ~착[40](울)], 철(年齒), 칠(塗), 칼(刀), 총(銃), 춤(液, 舞), 칼(刀), 코(鼻), 키(身長), 터(基) 텍(顎), 통(箱), 톱(鋸), 틀(機, 型), 틈(隙), 티(瑕), 파(菜蔬),[41] 퐃(豆)∽퐅//퐃∽퐅//퐅, 팔(八), 포(表), 풀(草), 피(血), 시(舌)~싯바'닥//혀~헤~시//세~시~싯바'닥, 헤(陽), 힘(力)~심

L·H

가(邊), 감(柿, 感), 강(江), 강[光, ~간(H_2, 영/울)], 게(犬, 契, 蟹), 골(疇, 谷), 공(球), 귤,[42]

---

30) '지ˇ가'가 고형인 듯한데, 중부방언에 대당하는 '제ˇ가'보다는 '저'가'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 특징이다.

31)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는 처격어미 통합형이 '지'비'로 나타난다. 특히 울진지역어에서는 '미'티(底)'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반면 영주지역어는 '지'베', '미'테'로만 나타난다.

32) 울진지역어에서는 '밍테포'이'라는 어형도 확인되었다.

33) 문경에서는 '히'아~시'아'로 발화하는 사람도 있다.

34) 요즘의 '반'찬'에 해당한다.

35) 수사가 통합한 예로 '한건'//한곤'//한군''을 들 수 있다.

36) 처격 통합형은 '낮에^'로도 발화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보메^', '바메^' 등이 있다.

37) 울진지역어에서는 관형어가 통합될 때, '거'넘'으로도 실현된다.

38) 처격어미와 통합한 '무레'는 HH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다. 반면, '입(口)', '손(手)' 등 나머지 어간들은 HL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다.

39) 이에 해당하는 세 지역어에서의 고형은 '적'이다.

40) 울진지역어의 '착(H_2)'은 이남의 하위방언권에서 확인되는 '학'쌍'(學生)', '동상'(同生)', '선상'(先生)'과 같은 유형이다. 합성어의 예 '착꺼풀'(標紙)'도 확인된다.

41) 문경에서는 '파ˇ'로도 실현된다.

고얌(小柿)//김ˇ//꼬양[43], 끔[껌, ~껌(H_1, 울), 꿀(蜜), 나(我)~나(H_1)~네(H_1)~네(H_2), 눈(雪), 니(汝)~니(H_1), 덜(부사), 덜(野), 데(代), 돈(錢), 돍(石)~돌, 둘(二), 디(後),[44] 딸ˇ(莓)~따ˇ리, 말(言), 명(木花), 메(鳶), 멘(가장), 멩(똑같이), 못(부사)//'못'∽'모~못'//'못'∽'모~못',[45] 미(墓, ~모(울)], 미(米), 민(面)//면//민, 밍(命)//명//밍, 반(半), 밤(栗), 뱀(蛇)~베얌//뱀~베ˇ미//뱀~베ˇ미, 벌(蜂)~버ˇ리, 베(倍), 빌//별//빌(星), 빙(病)//병//빙, 뺌//뼘//뽐(뼘), 선(先), 설(元旦), 섬(島), 세(鳥), 속(裏), 솔(솔질),[46] 솔(松),[47] 수(數), 숨(息), 시(市), 실(絲), 썽(姓氏, 逆情), 성(城), 에(焦思), 염(殮), 야(대답), 야(이#아이), 양(量), 위(참외), 물위[瓜, ~웨(울)], 웨(何), 온(全), 옻(梱)~옻(H_1)∽윹~윹(H_1)//옻~옻(H_1)∽윹~윹(H_1)//윹~윹(H_1), 일(事), 자(저#아이), 장(腸, 醬), 중(僧), 자기//자기//자게(自己), 지(自己, 오이지), 지~저(H_1), 지(罪)//제//지, 질(最, 質), 짐(蒸氣, 海苔, 雜草), 알'밤'(栗)//찰//찰, 참[間食, ~세(H_1~H·L, 문)], 첨(初), 촌(鄕), 탈(障碍), 하(逆情), 품사'람//품'꾼'//놈(놉), 핀(偏)//펜//핀, 페[(肺)~피(문·울)], 히(膾)~헤~히ˇ꼬기//헤//헤, 히//헤//헤(화투)

H·L

가(彼兒), 갉(秋)~가알', 감(質), 거(거기), 겲~젊(冬), 고(거기), 꼴(몰골), 넬[來日, ~네^리(울)], 담(次), 마실'(村)//마실'~마//말~마실', 맘(心), 머[何, ~모(울)], 벅^[廚, ~부억~부옥~부석~부식~부숙~부엌~정지(울)], 벨(鐘), 쌈[爭, ~싸'암(울)], 세(間), 셈(妬), 아(兒), 여[여기, ~예(울)], 요(요기), 우^(上)~우'에,[48] 펜(筆)

② 2음절 곡용 어간

HL

가녀(干涉)//가예//가예, 가메(旋毛), 가메(鼎), 가세(剪)~가시'게~가이, 가수(歌手)//가^쑤//카^수~까^수, 가심(胸)~가'시미, 가웃(半)//가웃//가우지, 가지(種), 각씨//각'씨'//각씨, 간사(姦)[49], 간섭(干涉), 갈비(肋), 거울(鏡)~밍ˇ경//거울~밍ˇ경//거울~밍ˇ경, 거진(汔), 게랄(卵)~달갈~달갈', 게장(係長), 겡ˇ게(接境)~경기//경ˇ게//깅ˇ기~깅ˇ게~경ˇ기~경기~경지~경기', 경첩(摺鐵)//경첩//경칩, 고기(肉), 고모(姑母)//고모//고메,[50] 곡'썩'(穀食)//곡쓱//곡'썩', 공일~고일(休日), 공책(空冊), 가자(菓子)~까자, 구걸(求乞), 구분[區分, ~구불[51]~구벨(울)], 구술

---

42) 문경에서는 '귤^'로도 발화된다.

43) 울진에서는 '고욤나무'를 '꼬'양'남', '기ˇ남'이라고 한다.

44) 이 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통합하면 '디ˇ우로'로 나타난다. 이는 중세국어의 '뒤ㅎ'에 기인한 것이다.

45) '못'으로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잘'모시', '잘'모설'을 근거로 하여 음절말자음 'ㅅ'을 설정하였다.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모(L·H)~못'∽'못(L·H)'은 이 부사의 후행성분의 첫 음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후행성분이 모음이나, /h/로 시작할 때에 부사 '몯'은 '모'로도 – 모ˇ여고(開)~몬ˇ녀고, 모ˇ여(戴)~몬ˇ녀, 모ˇ아라바(못 알아보다)~모ˇ다라바, 모ˇ헤(爲)~모ˇ테, 모ˇ이나(戴)~모ˇ디나 – 나타난다.

46) 울진지역어에서는 '솔ˇ질'을 '소ˇ질'이라고도 한다.

47) 울진지역어에서는 '소나무가지'를 '솔까'지'라고 한다.

48) 어간 '우'에'는 '우'에가', '우'에럴' 등에서 확인된다.

49) 관련되는 어사로는 울진지역어의 '간'사쟁이', 영주지역어의 '간ˇ세이'가 있다.

50) 이러한 방언형에 대한 해석은 최전승(1983), 임석규(2002가)를 참조할 수 있다.

(珠), 구힉(區劃)/구헥//구힉, 금방(今)~금방', 국씨(麵), 그륵~그륵ㅆ[器, ~거럭씨~걸씨(울)], 그리(부사), 글떼(그럴#때), 기도(祈禱)//기도//기두, 기떼(旗), 기름(油), 기빌(寄別)//기벨//기빌, 기사(技士), 기양(그냥), 기억(記憶), 기헥(計劃)//게헥//기헥, 기리(長), 까닥~까달~까닭[因, ~까'락(울)], 까시(蒂), 깍찌(皮), 깡통(鐵筒), 꼬지(串)~꼬치, 꼬치(繭)~고치, 꼴갑(꼴불견),[52] 꽁지(尾), 꾸리(紗束), 나락(禾), 나민(麵)~나˘민~나민'//나멘~나˘멘~나멘'//나민~나˘민~나민', 나비(蝶), 나흘(四日), 남부(南部), 남자(男), 남펀(夫)//남펜//남펀, 네일(明日)~넬^, 너메(너머), 네이~나세'이[(薺, ~나수(울)], 노레(歌), 노릇(役割), 노피(高), 농사[農事, ~농세(울)], 농지(農地), 농협[農協, ~노협(영·울)], 다섯(五), 단골(頻客), 다쎄(五日), 당숙(五寸叔), 데파(菜蔬), 더러(부사), 데구(지명), 데구(魚), 도시(都市), 도움(助力), 동갑(同甲), 동무(友), 동헤(東海), 두골(頭), 둘레(圍), 들쌀(騷亂), 딩기(등겨)~딩지~당가리'~당가'리//뎅가'리~당가'리~당갊'//당가'리, 떼기(宅號), 뚜께(厚), 마구(부사), 마늘(葫), 마지(伯), 만날(每)~만날'~멘날~멘날', 말판(擲柶), 망치(槌), 머도~모도(諸), 머리(頭), 모이~모시~모시'~모이'(餌), 모양(模樣)~모냥,[53] 무식(無識), 무신(何)//무순//무순, 문경(聞慶), 물팍[膝, ~무룹'~무릅'~무뤂'(문)], 미널(子婦)//메누리//미널, 미주(豉)//메주//미주, 미칠(何日)//메칠//미칠, 밍절(名節)//멩절//밍질, 밍테(明太)//멩테//멩테, 바다[海, ~바당(울)[54]], 바리(鑑箔), 바리~마리(마리), 바우[巖, ~방구(영/울)], 반닐[밭일, ~바딜(영/울)], 반지[斑指, ~반'자'(영), ~반제(울)], 반찬(飯饌)~간(H_2), 밥통(밥통), 방아~방예~방아'//방아'~방예'~바^//방아'~바아, 방울(實, 한#방울), 버릇(習慣)//버릇//벌씨~버럿~버어시, 벌레(蟲)~벌거'지, 빈소~정낭'//벤소~정낭'//빈소~정낭', 비누[비누, ~비노(영)], 비누(風屑)~지기'미//비늘//지기'미[55], 비듬(菜), 비실(鷄冠)//베실//비설~비실, 비설(官)[56]//베슬//비설~비실(官), 빈달((傾斜地)~빈달'//벤달~빈달~비얄//빈달~빈탈~비얄, 사가'(沙果)//사가//사가, 사돈(查頓), 사리(擲柶), 사우(壻), 사흘(三日), 산소[墓, ~산'수(문·울)], 삼십(三十), 상꼴(山村),[57] 상초[58][菜, ~산초(울)], 세참(間食)~세(H_1)~세^참~세^//참˘//참˘, 서른(三十), 서방[夫, ~서방'(영)], 선날(少), 선비(士)//선비//선베, 세끼(子), 세우(蝦), 소동(騷動), 소리(音), 손녀(孫女), 손님(客), 손뼉(拍手), 손주~손자[孫, ~손지~손제(울)], 송이[한#송이, ~소이(영·울)], 수리(改), 수술(手術), 순경[巡警, ~순'겡(울)], 술깝ㅆ(酒價), 숭냥(熟冷)//숭늉//숭이~숭'잉이~숭잉, 시계(時計), 시꼿(鐵類)//쎄꼿//시꼴~세꼴, 신식(新式)[59],

---

51) '구불'은 '구분'과 '구벨'의 혼효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52) '꼴갑ㅆ'과 같이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기저형은 설정되기 어렵다. '꼴까바', '꼴까비야' 등을 고려하며 기저형은 '꼴갑'으로 설정된다.

53) 전자는 '생김새'를 뜻하는 보통명사에 주로 쓰이는 듯하고 후자는 'X할모냥', '그모냥'과 같은 구성에서 많이 쓰이는 듯하다.

54) 제주방언에도 '바당'이 확인된다. 주로 'ㅎ' 말음과 관련시킨다. 전남방언의 '우:들'도 울진지역어(우^들)에서 확인되는바, 모두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들 수 있다.

55) 울진에서는 '벼루'를 '비'누'라고도 한다.

56)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는 '명주'설(絹紗)', '음˘석(飮食)', '자'석'(子息)', '숙'직'실(宿直室)' 등이 있는데, 이는 '으'와 '어'가 대립되지 않는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 쉽게 확인된다. '하걸'레(하기에, 문경)'도 이런 유형이며, '생간'(生前, 문경·울진)', '지'네(前에, 이하 울진)', '지낙'(夕)', '먼지(先)'는 그것이 역으로 적용된 것이다.

57) 화자들이 '산'과 '골'로 분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간은 교체를 보이지 않고 항상 '상꼴'로 실현되므로 본고에서는 기저형을 '상꼴'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노피-(높이-)', '머키-(먹히-)' 등의 사피동 어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8) 울진지역어의 '상'초~산'초'는 '초상'을 뜻하는 '상'세~산'세'의 대응과도 같다.

실강(架)//실강~실겅'//실강, 싸움(戰), 쌀통(쌀통), 쌍놈~쌍눔(쌍놈), 아까(前)//아까^//아까^, 아네(婦), 아들(子), 아레(下), 아범[夫, 아빔(영)], 아주(未)~안주~안죽, 양녁(陽曆), 양달(陽地)~양지, 양발(양말), 어께(肩), 어느(何), 어데(何處)~오데[60]//어데//오데~어데, 어름(氷), 어지(昨日)//어제//어제, 어촌, 여게[여기, 여거(울)], 여간(旅館), 여덟(八)~여덜, 여럿(多), 여릏[十日, ~여흘(영)], 여름(夏), 여섯(六), 연'에(부사), 열락(連絡), 연못(池), 영게(煙)//영기//영게, 오곰(오금)//오고미//오고미, 오눌~오늘[今日, ~오네(울)], 오레(舊), 오레(今年)~올게//올레~올게//올레~올게, 왕기(왕겨)~왕제//싱게//싱게~세^쩨~세^쩌, 욜로~욜'로'[요리로, ~욜'리'(울)],[61] 용서(容恕)//용사//용사, 우떼(祖上), 우통(上衣), 위염[危險, ~우험(영)], 으네(恩惠), 음달[陰地, ~웅달'(울)], 음녁(陰曆), 이간(離間), 이거'[此, ~이'거(울)], 이름[名, ~이럼(울)], 이메(額)//이메//이막~이메~이'마이~이마빠'구, 이물(人物)//인물//이물, 이밥~쌀'밥', 이복(依), 이불(寢具)//이울//이불, 이빌(離別)//이별//이빌, 이슬(露), 이웃(隣), 이자(椅子), 이틀(二日), 일곱(七), 일로(이리로), 일찍[早, ~일칙(울)], 자리(位), 자주(頻), 잔네[62](자네네), 잠말(잔소리), 잘못(誤)//잘못//잘못~잠못~잘뭇~잠뭇, 장날(五日場), 장부(帳簿), 장석(摺鐵), 장소(場所), 장에(障碍), 제산(財産), 전념(傳染)//전념//절렴, 전부(全部), 전지(田地), 절로(저절로), 제목(題目), 제북(제법)//제북'//제북, 조구(石魚), 조끼(胴衣)//조께~쪼께//조끼, 조밥(粟飯), 조일(終日)[63], 조합(組合, 綜合), 존데(尊待), 좁쌀(粟), 종우(紙)//조우//조오~조우~조이~조오, 지게(지게), 지름(油), 지섹(本色), 지역(懲役), 짐닐[집일, ~지빌(영·울)], 지반(家內), 집체(舍屋), 짜꾸(鈥), 짠지(김치),[64] 쪽파(쪽파), 찍께(벼훑이), 찍게(집게), 차이(差異), 차포[車票, ~차페(울)], 참물(茶), 창고[65][倉庫, ~창꼬(문)], 창쌀(창살), 처막(檐)//처메//처메, 처자(妻子), 천지(天地), 청소(淸掃)//청소//청수, 총기(聰氣), 추지(胡桃)//추자//추자, 충북(忠北), 친구(友), 커리(켤레), 터리(毛)~털(H_1)~터리'기//터리~털(H_1)~터레'기//터리~털(H_1)~터리'기, 통과(通過), 투포(投票), 포장(包裝), 하널(天)//하날//하눌, 하도(多, 부사), 하메(已, 부사), 하살(矢), 한나(一), 한밍(一名)/한멩/한밍, 항기(春), 헹실[行實, ~헹사(영·울)], 헹정(行政), 헝님[兄, ~성님(문·울)], 헝아(兄)~히아~시아//헝아//헝아, 헝제(兄弟), 호역[紅疫, ~홍진'(문·울)], 혼자~혼차[單身, ~혼지(울)], 홍시(軟柿)//홍수//홍실~홍시, 후지(休紙), 흉물~흉물(凶物)~숭물, 흉터(鈥)~숭터~흉터//흉터~흉터//흉터~숭터~흉터, 흐칼(흙손)//흘칼//허리'칼, 히안(稀罕)

LH

가난(貧), 가만~가마(부사), 가죽(革), 가지(茄子), 감빵(監獄), 감자[薯, ~감제(영·울)], 거름[肥, ~걸금(영·울)], 겡비(警備)//경비//겡비, 겡빈(江邊)//겡벤//겡빈, 고마~고만(부사), 고치(唐椒)~꼬치, 고항(空港), 골짝(溪谷)~골짜'기, 공부(工夫), 공비(共匪), 고원(公園), 공장(工場),

---

59) 문경에서는 '신'성소리'라고 발화하는 것을 몇 번 들을 수 있었다.

60) 향격어미와 통합할 때 문경지역어에서는 '어'두로'로도 실현된다.

61) '욜로'를 비롯하여 뒤에 열거된 '일로(이리로)', '그우(그 위)' 등은 기저형 목록에서 빠져야 할 것이지만 성조 연구자를 위해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둔다. 목록에는 사실 이러한 성격을 띠는 형태들이 많음도 인정한다.

62) '자네'네'가 줄어서 '잔'네'로 된 것이다. '너네'', '아제'네'에서 접사 '-네'를 확인할 수 있다.

63) 문경에서는 자연발화에서 '하루청일'또'가 2회 등장했다.

64) '김'치', '짐'치'라는 말도 세 지역어에서 통용된다. 사실 필자가 영주에서 자랄 때에는 '김'치' 혹은 '짐'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듯했다. 울진에서는 '김치'를 '샘~시'라고도 한다.

65) '은행 창구'도 '창'고'로 실현된다.

공중(空), 공짜(無料), 구멍~구녕~구영[穴, ~궁기'(울)][66], 구인(軍人), 군디(鞦韆)//군디//궁구, 궁중(宮中), 그거(其)∽그기//그거∽그게//그거∽그게, 그늘(陰), 금방~금'방[今, ~곰방(문)], 끄름(焦)~끄시름'~꺼멍[~끄시'름(문)], 기차(汽車), 기칙(기척), 꺼풀(皮), 나물(菜), 나민(麵)~나ˇ민~나'민//나멘~나ˇ멘~나'멘//나민~나ˇ민~나'민, 낭구(木)~낡~낭ㅋ//나무~낡//낭기~낡~낭구[67], 네인(來年), 네헤[내것, ~네게(울)], 다리(足), 다항(唐慌), 단추(단추)~단초, 단술(食醯)//감'주//감'주, 당신(當身), 당초(부사), 덤불[榛蕪, ~텀불(울)], 데번(單番, 부사), 데빡(酒 관련 단위), 도랑[渠, ~도ˇ랑(문)], 도로[逆, ~도리(문·울)~도루(울)], 도둑(賊)[68], 동상[弟, ~동생~동생'이[69](울)], 둘게(煎餠, 단위)~둘기//둘게//분디'기, 떼문(이유), 뜸물(뜨물), 마당(場), 마리[마루, ~마로(문)], 마실(村)[70], 마음(心), 마칸(諸)~마캉//마카//마카, 막차(終車), 만날(每日)~만'날~멘날~멘'날, 먼지(先)~머이//머여//머여~머이~먼지,[71] 멍석(風席), 모이(餌)~모시~모'이~모'시, 모자(帽子), 모중(某種), 무꾸[植物, ~무수(문·울)], 무'니(紋)//무'니~문체//무노, 무네(文魚), 문지(塵), 물'팍[膝, ~무뤂~무룹~무릅(문)], 미영[목화, ~명(H_1)~며엉(울)], 미뇨(民謠), 밀깕[糆粉, ~미깕(울)], 밉쌀(米)//멥쌀//밉쌀, 바로[直, ~바루~바리(울)], 바깥[外, ~베껕(울)], 바짝(부사), 바침(終聲), 발목(跗節), 발툽(발톱), 방깐(碓所), 방아(碓)~방'예~방'아//방아~방예~바^//방아~바'아, 방위~방이[민방위, ~바우~방우(영)], 버노(番號), 버리(麥), 버선(襪)//보신//보선, 벌써[已, ~발쎄(문)], 보간(保管), 복쌍[桃, ~복상[72](울)], 부루(萵)~상'초, 부산(지명), 부처(佛), 비게(脂), 비네[簪, ~비너(문)], 비짜'리(掃)//비짜리'~비짜//비짤~비짜, 비틀(機)~비털//베틀//비털, 빈데(蟲), 사기(詐欺), 사냥(獵), 사랑(愛, 사랑채), 사어(魚), 살림(家), 상데(相對), 세북(曉)//세복//세북, 생젠[生前, ~생긴(문·울)], 생닭[生鷄, ~생닥(문)], 생삼(生蔘), 생선(魚), 서답[濯, ~세답(울)], 서로(相), 선'반(架)~선반, 선생(先生), 세멘(시멘트)~쎄멘, 시'죽통(槽)//세죽'통~세'죽통//시통, 소굼[鹽, ~소곰(영)], 소깝[松, ~(솔)검'불(울)], 속세(苦菜), 손뜽[手背, ~손뜩(울)],[73] 송진(松津), 수꾸(唐黍), 순사(巡使), 술찝(酒店),

66) 첫 음절이 경음화된 형태도 발화된다.

67) 울진지역에서 열거식 질문법으로 '사가남'(사과나무)', '게꿑남'(철쭉)', '호두남'', '메'시리남~메시'리남(매실나무)', '복사남'(복숭아나무)'을 얻을 수 있었다. '복사남''의 둘째 음절은 평음인데, 이런 경향은 문경, 영주지역어에 비해 울진지역어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폐쇄 후 [유기성]을 보다 강하게 하여 파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각'시(妻)', '곡'석'(穀食)' 등과 같은 폐쇄음과 ㅅ의 연쇄, '몰'살'(沒殺)', '물'살(波)'등과 같은 'ㄹ'과 'ㅅ'의 연쇄'에서 확인된다.

68) 영주지역어에서는 '도둑'에 접미사 '-놈'이 통합되면 '도동'놈'과 같은 어형이 확인된다. 울진의 농촌에서는 '도디기지(도뒥+이지)'와 같은 움라우트된 어형도 확인된다.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무'로'#삐'리-(물을 뿌리-)', 잉기-(遷) 등 움라우트된 어형도 확인된다. '울^씩기(식기)#삐'이제(우리 식구뿐이지)'처럼 개재자음이 'ㄴ'인 경우에도 움라우트가 적용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69) 울진에서는 '동생'이보고(동생에게)'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70) 영주에서는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형태이다. '마^', '마을'' 형태가 더 활발하게 실현된다.

71) '먼지~머이'에서는 'ㅈ'과 'Ø'와의 대응이 보인다. '가지고'에 대당하는 '가이'고(문경)', '자전거', '비슷-(似)'에 대당하는 '자영'게(울진)', '비읏'-', '아저씨'에 대당하는 '아이'씨(문·울)', 아여'씨(영) 등에서도 확인된다. 아이들의 말, '화양실(화장실)', '가예요(가세요)', '오예요(오세요)' 등을 같은 유형에 넣을 수도 있겠다.

72) '물'살'(膿, 문·울)'에서도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73) '손뜽:손뜩'의 대응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예들이 꽤 많다. 아래에 제시된 예는 그간 보고된 동남방언의 자료들이다. 'ㅁ;ㅂ', 'ㄴ;ㄷ', 'ㅇ;ㄱ'의 관계는 사실 모든 자질이 같고 비음성이라는 자질만 다르다. ㅁ:ㅂ 대응이 압도적으로 많다. 'ㅇ:ㄱ'은 종성에서 대응되는 어형이 많은 듯하다.

시간(時), 시^미(髮)~세^미~시엄'~심^//시^미~세^미//시엄'~시^미~세^미, 시장(飢), 시조(時調), 시컨(부사), 실쩍(부사), 심장(心腸), 싸리(木), 쓰봉(바지), 아제(친척), 아직[朝, ~아칙(문·울)], 안동(지명), 안정(安定), 압싼(前山), 양식[糧食, ~양슥(영), ~양석(문·울)], 어서(부사), 언덕(丘), 언만(웬만하면)//웬만//웬만, 얼굴[顔, ~얼구리(문·울)], 얼러~얼런(부사), 여께'이(狐)~예께'이//야께'이~야까'이[74]//여후(大)~여호~야께'이(小)~예께'이, 연신(부사)[75], 연장(道具), 연휴[76]~여뉴(年休), 열메(實), 영주(지명), 오본(今次)//오본//오분, 오짐(小便~오줌[~오좀(문)], 우리(吾等), 우빵(윗房), 우유(牛乳), 울따'리(女)//울타'리//울딸~울탈, 유리(琉璃), 이거(此)∽이기//이거∽이게//이거∽이게,[77] 이짝(이쪽)~이짜^, 인간(人間), 인구(人口), 인제(今)//인제//인차, 입쑬[脣, ~입수'리(울)], 자갈(礫)//자갈~자갉//자'갈~자가'리~자갉, 자꾸[續, ~자꼬(영)~자'꾸(울)], 자네(汝), 장깐(暫時), 장치(裝置), 제물(양잿물), 저역(夕)//저역//저낙~지낙~저녁~지녁~지녁,[78] 절구(臼), 정도(程度), 정신(正信), 정지(廚房), 제미(興味), 주먹[拳, ~주묵(울)], 주사(注射), 주앙(中央), 중간(中), 지붕(屋蓋)~지봉//지붕~지붕ㄱ//지붕~지붕ㄱ, 지슭(谷), 짐승(獸), 쪼끔(조금), 찌짐[煎餠, ~적(H_2)], 차비(車費), 찰밥(五穀飯), 창문(窓), 챙피(창피), 처가(妻家), 천장(천장), 철뚝(鐵路), 첨방(防), 청춘(青春), 초상(初喪), 추석(秋夕), 치마[裳, ~치메(영·울)], 친정(親庭), 큰질(大路), 큰집(伯家), 토비(堆肥)~티비//테비//티ˇ비~테ˇ춤~테'춤, 통시(便所)~정낭, 투기(妬忌), 팥쭉(冬至粥), 풍노(冶爐), 하나(一), 하단(花壇), 하루(一日)//하로//하리~할'루~하레, 하토(花鬪), 한본(一回)//한본//한분, 한짝(한쪽)~한쪽, 항금(黃金), 항지[지명, ~항기(영)], 행펜[形便, ~힝핀(문·울)], 호강(便安), 호박(확), 호닌[結婚, ~호인(영)], 훌쩝, 홍제(橫財)

HH

가지(枝), 걱쩡(憂,) 게론(結婚)//게론//기론, 결싸(決死), 고룸(炎症), 고상[苦生, ~고성(울)], 고얌(小柿)//김ˇ//꼬양, 고집(固執), 고향(鄕), 곡썩(穀食)//곡'쓱//곡썩, 곧꿏//곧꿏//곧끌[79], 골미(골무), 갈씨(恝視)//괄쎄//괄쎄, 구룸(雲), 구카(菊花), 구케(國會), 국꾼(國軍), 궁문(國文), 그림(畵, 線)~기림, 그물(網), 글씨(書), 글짜(字), 기겁(氣怯), 기게(機械), 나이(年齡)~나(H_2), 낟차

'ㅁ;ㅂ'의 예 - 게글밧-:게글맞-, 깜짜밧-:깜짜맞-, 나막신-나박신, 나막김치-나박김치, 허물-허불, 마리:바리, 가르마:가름베, 멕찌:벡찌(괜히), 대꼬마리:대꼬바리, 그나물에:그나불에, 몸써리, 몸싸리:몹써리, 헤꿈하-:헤꼬파-

'ㄴ;ㄷ'의 대응 - 그네:군디, 건너-:건디-, 누더기:두더기, 몬:몯(부정부사)

'ㅇ;ㄱ'의 대응 - 이망:이막, 병아리:삐가리 몽침:목침, 겨드랑:제드락, 구멍:구녁

74) '여까'이'는 '여우 같은 여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75) 문경에서는 '주'장''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76) 비음 또는 유음이나 모음 뒤에서는 'ㅎ'이 발화되는 빈도가 높다.

77) '이게''와 '이기''는 어미 '-이X'와 통합되는 이형태이다. 세 지역에서는 '이기'라(문경)', '이거'라(영주)', '이게'라(울진)'가 일반적인 발화이다. 영주에서는 '이게'라'로 실현될 때도 있지만 '이기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세 지역어에서는 '이거'시', '이거'설'은 거의 실현되지 않지만 – 문경지역어에서는 더러 등장함 – '이거'또'와 같은 형태는 실현된다. 이러한 복합기저형은 그것, 저것, 요것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성조가 모두 다른 '이거'', '이'거', '이'거''가 실현되는데 '이거''의 발화 빈도가 가장 높다.

78) 이는 처격어미가 통합되면 '저여^'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보^(영)', '세부^(문·울)', '집꾸서^(공통)' 등과 같은 유형이다.

79) 세 지역어에서 공히 '곧'꼬'지'도 확인된다. 그런데 '處'를 뜻하는 명사는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에서는 '곳', 울진지역어에서는 '곧'이다.

(낮차), 날짜(日), 노굼[錄音, ~노곰(문)], 논닐(논농사)~노닐, 누(誰)(H_2)∽누구[80], 눔물(淚), 늑떼(늑대)[81], 단지[缸, ~단지'(문·울)], 답뻰(答辯), 따로(別個), 땅거(다른 것), 딴데(다른#곳), 땀말(다른#말), 딸레(딸네), 땅속(地中), 만세(萬歲), 머구(蚊)//머구//모'구'~모ˇ구~모ˇ게이~모게'이, 멸쫑(滅種), 모카(木花), 물건(物件)//물겐//물겐~물긴, 물략(물약), 밀감(蜜柑)[82], 바밀(밤일)~밤닐, 박싸(博士), 박찌(蝙蝠), 발긴(發見)//발겐//발긴, 발딸(發達), 발뼝(病名)//발뼝//발삥, 발쩐(發展), 밤낮(晝夜), 밤젤(夜行), 밤참(夜食), 벌충(罰充), 벙게(電), 복판(中央), 본세(本來), 부모(父母), 부정(不正), 부형(學父兄), 불핀(不便)//불펜//불핀, 비락(雷)//베락//비락, 빅짱(壁欌)//벡짱//빅짱, 빅찌(壁紙)//벡찌//빅찌, 빌꼴(作態)//벨꼴//빌꼴, 빌로(些少)//벨로//빌로, 빌릴(별일)//벨릴//빌릴, 빌밍(別名)//벨명//빌밍, 세득~세덱[葵, ~세데기(영)], 세로[新,~세리(울)], 세집(新屋), 세차(新車), 생각(思), 서구(油), 세끼(索), 색깔(色)~색'까'리, 소메[(袖), ~수메(문)], 소케(솜)~솜ˇ//소케~소게~솜ˇ//소게~솜ˇ(솜), 손끝(손끝), 손떼(塵), 손발(手足), 수저[飯匕, ~수제(울)], 수포(手票)~수'포, 슥깐(習慣), 시물(二十), 시방(今), 시월(歲月), 시집(媤)~시ˇ집, 시험(試驗), 식꾸[食口, ~식끼(울)], 싱냥(食糧), 식땅(食堂), 심발(신발), 실가(果實), 실쏙(實速), 실쩨(實際), 아기(兒)~에기, 아빠(父), 알략(丸), 알밤[栗, ~찰ˇ(영·울)], 암빵(閨房), 약꾹(藥局), 약빵(藥房), 약쑬(藥酒), 억찌[倔, ~억지'(문)], 엄마(母), 얼메(幾何)~엄메//얼메~울메//얼'메~울'메~엄'메~움'메, 여자[女, ~예자(울)], 역싸(歷史), 열뚤(十二), 올케(올케), 올키(진짜)//오케//오케, 요리(요쪽), 울싼(지명), 울찐(지명), 월급(月給), 월레(本來), 육찌(陸地), 육체(身體), 일행(日行), 이리(이쪽), 이빨(牙), 이짝(이쪽)~이짜~이쪽, 일기(日氣), 일반(一般), 일분(日本)~일분'~일번~일번'//일'본'~일본'//일'본'~일본', 일정(日政, 日程), 일쩔(一切), 임맛(口味), 자기(自己)~자게//자기//자게, 자녀(子女), 자석(子息)~자식//자식~자슥//자석~자식, 자손(子孫), 자유(自由), 잔체[宴, ~잔차(문)], 장년(昨年), 저봇(複, 겹옷), 저짜(저쪽)~저짝, 적쑤(鐵灸)//적쎄//적쎄, 절찝(寺), 점찝(占), 조럽(卒業), 조상(祖上), 조카[姪~조케(울)], 지난(過去, 관형사), 지랄(속어), 지방(地方), 직업(職業), 직짱(職場), 지켕(直行), 질문[質問, ~질목(문)], 질부(姪婦), 징멩, 찬물(冷水), 찬밥(冷飯), 췍쌍(冊床), 칠기(漆器)//칠'기//칠기~치리, 칠씹(七十), 치(箕)~키//치~키//칭이, 칼치(갈치), 테산(泰山), 토깽'이(兎)//토깽'이//티끼, 토지(土地), 특쑤(特秀), 판단(判斷), 팔씹(八十), 팔자(運數), 포시(標示), 포준(標準), 폭격(爆擊), 품싹(賃金), 하'이'꼬//학쪼//학쪼, 학껵(合格), 학쌍(學生)[~학쌩(울)[83]], 한참(한동안), 한창(旺盛), 할메[祖母, ~함메(울)], 할베(祖父), 항문(學文), 허랍(血壓), 혈관(血管), 헐멕(血脈), 헵뼡(陽)∽헵빛//헵뼡∽헵뼻//헵뼡, 헵빛(日光)//헵빛//헵뼡, 협동(協同),[84] 흑판(漆板)

---

80) 주격어미와 결합할 때 '누(H_2)'가 선택된다. '누'가', 누'구'지, 누'구'도, 누'구'라꼬, 누'구'럴(문·영)/누구로(울), 누'구'넌(문·영)/누'구'노(울)', 울진에서는 '누'귀'라꼬, 누'귀'지'도 확인된다. 문경이나 울진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영주지역어에서는 '누ˇ라꼬, 누ˇ지'와 같은 형태도 사용된다. 영주 최남단인 문수면 제보자에게서는 '누'가'라꼬(누구라고), 누'가'로(누구냐)'와 같은 형태도 확인하였는데 이는 영주지역어의 일반적인 곡용형은 아니다. 한편 영주지역어에서는 '누ˇ럴(누구를)', '누ˇ로(누구냐)' 등도 발화되지만 '누ˇ가', '누ˇ넌' 등은 패러다임의 공백인 듯하다.

81) 울진의 농촌 제보자는 '널'떼''라고도 했다.

82) '밀'감''은 안 쓰던 말이라고 한다. 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신어로 이해될 수 있다.

83) '학'쌍'~학'쌩'', '용'사~용'서', '쓰임'사', '손'지~손'주~손'제', '고모~고메'와 같은 형태도 울진지역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실현된다. '학'쌍'~학'쌩''은 움라우트와 관련된 재구조화로서 중화된 모음 'E'에 결과한 것이며, '용'사~용'서'는 어미 '이X'와의 통합형이 화석형으로 남은 것인바 역시 중화된 모음 'E'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임석규 2002가).

84) 울진 농촌 제보자는 '십'똥''이라고도 했다.

L·HH(문경/영주), L·HL(울진)

가게(店), 가메[轎, ~가'메(울진)], 가세(邊), 가일(實果), 가지[諸, ~가제(울)], 각주(별안간)//각주//각제, 감사(監査), 강기(感氣), 강사(講師), 거리(街), 거북(苦), 건네(건너편), 건물(建物), 결쌍(책걸상), 게물(怪物), 게집(女)~기집~지집, 겡게(接境)~경'기//경게//깅기~깅게~경기~경'기~경'지~경기', 겡이(괭이)//강이//겡이, 경주(競走), 고장(故障), 고지(高地), 골방(샛방), 공동(共同), 공출(供出), 교사(敎師), 군민(郡民), 굼불(火), 궁디(엉덩이)~군디, 구경(觀覽)//구경//귀경[85], 근동(近洞), 기산(計算)//게산//기산, 기운(血氣), 기짝(櫃)//게짝//기짝, 까치(鵲), 꼭깜(곶감), 꼬지(末)~끌찌~꼬데'이~끄'트베기//꼬지~끌찌//끌찌~꼬찌, 꽁치[貢魚, ~공치(울)], 난리(亂離), 네금(냄새)//네금//넴세~네^미, 네주(後)~네중~넨주~넨중~넹중~나주~나중~난주~난중~낭중, 네복(內服), 넨물(川), 노인(老)~노'인', 담베(담배), 데강(略), 데결[大闕, ~데골(영·울)], 데기(대게), 데단(劇), 데답(對答), 데문(大門), 데추(棗), 데충(略), 데피(待避), 데집[皿, ~데지'비(울)[86]], 도랑(渠)~도랑'//도랑'//도랑', 도포(道袍), 돌쪽(樞)//돌쩌구//돌쩌구~돌쭉, 동냥(洞糧), 동네(洞), 뒤깐(便所), 뒤빵, 디기~디(:)기[87][부사, ~디기'(문)], 딘밥(된밥), 따리(苺)~딸ˇ, 마구(廐), 말문(말문), 말씀(言), 말씨(말씨), 말투(말투), 메일(每日), 모욕(浴), 모자(母子), 무용(舞踊), 문디(癩), 문제(問題), 물레(紡車), 미터(묘터), 민도(面刀)//멘도//민도, 밀창(밀창), 밍경(鏡)~거'울//밍경~거'울//밍경~거'울, 바보(愚), 반데(反對), 방구~빵구(방귀), 방죽(방죽), 방학(放學), 버리(蜂), 벌통(蜂箱), 베얌(蛇)//베미//베미, 보초(步哨), 보통(普通), 볼릴(用務), 볼펜[筆記具, ~골펜(문·울)[88]], 부근(近處), 부예(부아), 부자(富者)//부자//부제, 부탄(부탄), 부페(부페)//부페//비페, 분홍(粉紅), 비게(枕)//비게~비^게//비게~비'게(枕), 비로[肥料, ~비루(문·울)], 비율(比率), 비통(悲痛), 빈넙(빈입), 빈집(빈집), 빌밍(別名)~빌'밍'//벨'명'~베'로'//빌'밍', 빙신(病身), 사람(人), 사방(四方), 사촌(四寸)//사촌//사춘, 산적(散炙), 상방~사랑방'[舍廊房, ~사랑'방(문)], 서숙(粟), 서울(京), 서이(三), 성냥[성냥, ~성양(울)], 성모(省墓), 성질(性質), 셈(泉)//셈//세미, 소문(所聞), 소암(效驗), 소원(所願), 소네(損害), 수고(愁苦), 수박(園頭), 시골(鄕), 시네(市內), 시비(拜)//세베//세베, 세알(새알심)~셍알//세알~셍알~세'알'~셍'알'//세알~셍알~세'알~셍'알, 시상(施賞)~시'상', 시수(洗手)//세수//세수, 시장(市場), 시집(結婚), 신체[屍, ~시치(문)], 쎄기(强)//쎄게//쎄게, 아군(我軍), 아레(그저께), 아무(某), 안경(眼鏡), 알로(下), 앙게(霧), 야단(騷亂), 야학(夜學), 양반(兩班), 예기(話), 어런(丈),[89] 언문[言文, ~어문(문)], 언제, 얼메나[부사, ~언메나(문)~얼ˇ메나(울)], 영감(令監), 예천(지명), 오연(午年), 요금(料金), 요령(要領), 우수(節氣), 운제(언제), 웬널(웬일), 유리(有利), 유밍(有名)//유멩//유밍, 유월(六月), 음식[飮食, ~음석(문·울)], 이가(外家)//위가//웨가~웨게~위가, 이국(外國)~위국~웨국//웨국//웨국~이국, 이상(異常), 이장(里長), 임금(王), 임자(妻), 자석[坐席, ~자식(울)], 장갑(掌匣), 장게(丈家), 장기[碁, ~장구(문)], 장깡(醬間)~장ˇ꾸방//장깐~장ˇ독떼//장뚝~장ˇ똑떼, 장농(欌籠), 장모(丈母), 장물[간장, ~지랑'물(울진)], 장사(장사꾼, 力士)

---

85) 울진에서는 수의적이지만 음성적으로 단모음이 발화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유형으로는 '위ˇ국~외ˇ국', '외ˇ가' 등이 있다.

86) 문경에서는 '데ˇ집'이 '待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

87) 복합조로 실현되기도 하고 표현적 장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는 표현적 장음을 표시한 것이다.

88) 이러한 'p>k'의 교체는 여러 방언형에서 확인된다. '수제비>수지'기(울진)'도 그 한 예이다. 역방향의 교체도 확인되는데 영주지역어에서는 '서ˇ군(남의 사위를 높여 이르는 말)'을 '서ˇ분'이라고도 한다.

89) 영주지역어에서도 '어른'이 아니라 '어런'이다. 2음절 이하에서의 i와 ə가 혼란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이해된다. 즉 그 대립이 첫 음절에 비해 2음절 이하에서는 약하다는 것이다.

~장수, 저나(電話). 전기(電氣), 전투(戰鬪), 점빵(店), 점슴(點心),[90] 정답(正答), 제일(最高)~질ˇ, 조심(操心), 조장(敎長)~교'이'장//교장//교장, 조창(造淸), 종조(宗祖), 주인[主人, ~진ˇ(문·영)], 지물(고름)//진물//진물, 지사[祭祀, ~지세(울진)], 지송(罪悚)//제송//지송, 지신(鬼)//기신//구신~구'이'신, 지사[祭, ~지세], 지쌍(祭床)//제쌍//지쌍, 진지[飯, ~긴지(문경)], 체고(最高), 촌쑤(寸數), 타락(墮落), 탄뿔(연탄불), 테직[退職, ~티직(울진)], 통합(統合), 파리(蠅)~파'리', 피란(避難), 피지(止, 廢紙)//페지//피지, 피품(廢品)//페품//피품, 핀지(便紙)//편지//핀지, 하냑(漢藥), 하리[爐, ~하루(울)], 하문(漢文)//한문//하문, 하제(火災), 항구(港口), 항시(常), 헤간(會館), 헤방(解放), 헤사(會社), 헤이(會議), 헤장(會長), 호박(채소), 후헤(後悔), 히텍(惠澤)

H·LL
거지~걸비'이//거지~걸베'이//거지~걸비'이, 가'수(歌手)//가'수~가쑤//카수~까수, 게미(개미), 까스(油), 노트(空冊)[91], 데지(豚), 메미(蟬), 버리(職業), 세꿀(지명), 시미(髮)~세미[92], 빵구~빵'구~빵'꾸(穴), 빼쓰[승합차, ~빠쑤(문)], 아들(兒等), 지비(燕)//제비//찌비~지비, 커피(咖)

LL·H[93]
그후(그 후), 그뒤(그 뒤) cf. 그'말

LH·L
그우(그 위), 네헤(내것), 아까(前)//아까^//아까^, 인제, 오세(요사이), 한테(한꺼번에), 언나~얼라~어린아^[兒, ~알라(영·울)], 혼차~혼'차(혼자), 흘띠[흙덩이, ~헐띵'이(울)], 그우(上部)[94]

어간 기저형의 세부 검토

아래에서는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복합기저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부 재구조화된 어간들도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먼저 (34)에 제시된 자료를 보기로 한다.

(34) 가. 꼬칠~꼬털, 꼬치, 꼬천~꼬턴, 꼬체~꼬테, 꼳만, 꼳또
바칠~바털, 바치, 바천~바턴, 바테, 반만, 받또(이상 HL)
나. 꼬토, 꼬치, 꼬터너~꼬터노, 꼬테, 꼳만, 꼳또
바토, 바치, 바터넌~바터노, 바테, 반만, 받또(이상 HL)

---

90) 영주지역어에서는 '점심때'를 '저엉때'', '저녁때'를 '저억때''라고도 한다.
91) 일본어의 영향인지 울진지역어에서는 '노^또'로 나타나기도 한다.
92) 경음화한 형태도 등장한다. 한편, 최근, '수염'의 방언형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은 이상신(1998:66-67)을 참조할 수 있다.
93) 어간의 예가 확인되지 않아 편의상 성조군에서의 예를 제시한다.
94) '그우^'는 하나의 성조군을 형성할 경우에 확인된다.

(34가)는 문경, 영주지역어의 자료이다. 곡용패러다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경과 영주지역어에서는 당연히 '꽃'/'끝', '밫'/'밭'을 둘 다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한다. 처격어미가 결합된 경우는 '꼬테'가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끝'으로 모든 이형태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곡용형 '꼬칠', '꼬천'은 기저형 '끝'으로 도출할 수가 없다. '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주격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밫+이'의 결합이냐 '밭+이'의 결합이냐에 따라 구개음화 규칙의 공시성은 결정된다. 필자는 어렸을 적 아랫마을을 들를 때 '헌모테 간다'고 하였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헌모치라면'으로 시작하는 말을 건넨 적이 있다. 이를 보면 화자들은 구개음화 규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 규칙을 인정한다 해도 '꼬칠~꼬털', '꼬천~꼬턴' 등을 통해 볼 때 여전히 (34가)에 제시된 어간은 복합기저형을 갖는 어간임에 틀림없다. 반면 (34나)의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큰 무리 없이 단일 기저형 '끝'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이X'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는 구개음화 규칙을 인정하여야 한다.[95] 문경·영주지역어와 달리 울진지역어의 경우, 어간과 대격어미가 통합할 때 '유'토(윷), 나'토(낮), 수'토~수'꾸도(숯), 헤'삐'토(햇빛), 헤'삐'토(햇볕), 며'토'(몇)'와 같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ㅌ'말음을 가진 단일 어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ㅊ' 말음 어간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나 'ㅈ' 말음 어간은 '이웆(隣)', '낮(晝)' 등이 확인된다.

(35)는 중부방언의 'ㅅ' 말음 어간에 대당하는 어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35가)는 문경·영주지역어의 예이며, (35나)는 울진지역어의 예이다. 문경·영주지역어에서는 중부방언의 어간과 동일하나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이들이 'ㄷ' 말음으로 실현된다.

(35) 가. 모'설', 모'시', 모'세, 몯'또'(釘)　　그고'설, 그고'시, 그고'세, 그곧'또(所)
　　　　부'설', 부'시', 부'세, 붇'또'(筆)
　　나. 모'도', 모'지'가, 모'데, 몯'또'　　그고'도, 그고'지가, 그고'데, 그곧'또
　　　　부'도', 부'지'가, 부'데, 붇'또'

(35나)에 제시된 울진지역어에서의 'ㄷ' 말음 어간은 대체로 중세국어의 흔적이라고 볼 만한 것이 꽤 확인된다. 중부방언에서의 '빗(債務)', '젓(乳)', '낫(鈔)', '갓(笠, 이상 H_2)' 등이 울진지역어에서는 '빋', '젇', '낟', '갇' 등으로 나타난다.[96] 그렇다고 울진지역어에서 'ㅅ' 말음 어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6)은 울진지역어에서 'ㅅ'말음 어간을 보인 것이다. 그 밖에도 '연'못(池), 버'릇(習)~벌^씨, 옷(衣), 짓(貌), 맛(味), 젓(醢), 엿(糖), 빗(梳, 이상 H_2)' 등을 확인할 수 있다.

95) 물론 대표적인 패러다임 '밭'을 기준형으로 하여, 그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영주지역어의 경우 소위 '르' 변칙 용언의 패러다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런 것을 '선호하는 패러다임(임석규 2004나:8-9)' 또는 '일반화된 패러다임'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화자들은 '르' 변칙이 아닌 용언까지 '르' 변칙 용언으로 발화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트르-(誤)', '드르-(房門)'인바, '트르고/드르고', '틀러/들러', '트르니/드르니'와 같은 활용형이 확인된다.

96) 영주지역어에서도 이따금 '나'지'(낫+이)', '모'지'(못+이)'라는 형태를 들을 수 있다. 이는 영주지역어만을 대상으로 할 때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울진지역어를 조사하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나시', '모시'보다는 '나지', '모지'가 고형일 수 있다는 것이다.

(36) 가. 모시, 모설, 몯또(池)　　　　　오시, 오설, 옫또(衣, 이상 HH)
잘모시, 잘모설, 잘몯또(誤, 이상 HLL)
나. 모시, 모소, 몯또　　　　　오시, 오소, 오또(이상 HH)
잠무시, 잠무소, 잠묻또(이상 HLL)

중세국어 당시에도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던 '구무(穴)', '나모(木)' 등의 대응형은 세 지역어에서도 역시 비자동적 교체를 보인다.97) 모두 복합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37) 가. 구무', 궁'기, 궁'기레, 궁'걸, 궁'게, 궁'건, 구무하'고
나무'~낭구'98), 낭'기, 낭'걸, 낭'게, 낭'건, 나무하'고~낭구하'고
나. 자리'~자루', 잘'기, 잘'걸, 잘'게, 잘'건(袋)//가리'~가루', 갈'기, 갈'걸, 갈'게, 갈'건(粉)

(37가)에서는 중세국어처럼 명사 말음에 'ㄱ'이 확인되나, (37나)에서는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곡용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울진지역어의 경우에는 단독형 '나무'가 '낭지', '남(H_1)'99)으로 발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낭지'의 경우가 특이하다. 우선 2음절 이하에서 'ㄱ'이 구개음화된 것이 특이하고, 주격이나 계사와 통합된 형태에서 어간을 재분석한 것이 특이하다.100) 이런 재분석에 결과한 어간으로는 '노'끌씨'를 들 수 있다.

(38) 가. 낭'기레, 낭'지레
나. 노'끌'씨레101)(놋그릇), 노'끌'씨도

'낭ㄱ+이(레)'를 화자들이 '낭기~낭지+이레'로 재분석한 결과이며, '노끌ㅆ+이(레)' 또한 '노

---

97) 물론 비자동적교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격어미와의 통합형 '흐키~흐리~흘기',//'다키~다리~달기~달구가'를 통해서, 하나의 지시물에 여러 어간이 쓰일 수 있음을 세 지역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옥(1992)에서는 동남 방언 중 경상북도는 <청송>을 포함한 <경주, 청도, 영일, 청송, 영천, 군위, 칠곡>과 <선산>의 동부 지역에서는 대부분 'ㄹㄱ' 곡용 어간이 'ㄹ'로 단순화되어 '달'로 실현된다고 하였고, 경북서부지역어에서는 '닭'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는데,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에서는 '닭' 이외에 '달', '다리', '달기' 등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영주지역어의 경우 '흙', '닭'은 주방언형이 아니다.

98)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낭구'보다는 '나무'가 일반적인 어형이다. 이기문(1972가:203)에서는 중부방언이 근대국어에 이르러 'ㅗ>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했다. 경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최명옥(1982:38-39)에서는 비어두음절의 'ㅗ>ㅜ'의 변화에 대해 보고한 바 있는데, 경주지역어는 중부방언에서 'ㅗ>ㅜ'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어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입은 것으로 보아 이 변화가 경주지역어에는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비어두음절에서의 모음상승은 울진지역어에서 쉽게 확인된다. 단, '쏘->쑤-(射, H_2)'와 같은 단음절 활용 어간에서의 'ㅗ>ㅜ' 변화는 경주지역어에 비해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지 않다.

99) '호두'남', '메시'리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00) 특히 재분석과 유추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Hopper & Traugott(1993:40-62)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문법화의 두 기제로 재분석과 유추를 제시하고 있는바, 불명추론(abdution)에 기반하는 재분석(reanalysis)이 통합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일반화(generalization)에 기반하는 유추(analogy)는 계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문법화의 단계로 재분석을 염두에 둔 논의로는 이승욱(2001:274)을 들 수 있다.

101) 영주지역어에서는 '그륵ㅆ'이 기저형이다. '그'륵, 그'륵씨레, 그'륵또' 등으로 발화된다.

끌씨+이(레)'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38)에서 화자들은 공시적인 규칙인 계사 탈락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어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재분석은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 이름, 퀘니지'라는 발화를 듣고 그 사람의 이름을 되묻는 경우, 필자가 실험해 본 결과,[102] '퀜', '퀘니', '퀘니지' 세 가지 대답이 모두 가능했다. 화자들은 '그 사람 이름, 퀘니지'라는 발화에서의 '퀘니지'를 '퀜+이지' 또는 '퀘니+이지'로 분석할 수도 있고, '퀘니지'를 어간 자체로 인식할 수도 있다. 마지막의 경우는 '그 사람 이름, 이영석'과 같은 계열이라 생각하면 된다. 특히 '퀘니+이지'로의 분석은 화자들의 무한한 언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재분석과 관련하여 좀더 상세히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재구조화는 기저형의 변화를 말하는데 기저형은 음운 변화, 규칙 적용은 물론,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변화를 겪게 된다. (38)에서 보인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는 심리적 요인과 규칙의 적용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라 할 만하다. (38)에서 보인 어간의 확장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103] 다음은 울진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재구조화이다.

(39) 가. 주름싸련, 주름쌀또, 주름싸리, 주름싸리고, 주름싸리야 [이상 LHLL(L)]
　　나. 주름싸리넌, 주름싸리도, 주름싸리가, 주름싸리고, 주름싸리야 [이상 LHLLL]

(39가)에서 (39나)로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재분석(metanalysis, reanalysis)이라는 방법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다.[104] 임석규(2002가:323-32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사 혹은 주격어미를 포함한 어미 '이X'와 어간의 통합형을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39나)와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중세국어의 '풀>ᄑᆞ리', '털>터리' 등에서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변화는 어간에 대한 재분석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는 '물팍(膝)>물파기'를 들 수 있다.

(40) 가. 물파기, 물파기지, 물파기고, 물파기니, 물파게, 물팍또, 물파걸, 물파건[이상 HLL(L)]
　　나. 물파기가, 물파기지, 물파기고, 물파기니, 물파게, 물파기도, 물파기럴, 물파기넌
　　　[이상 HLL(L)]

102) 대중매체에서 접한 것을 응용한 실험이었다.

103) 어간의 확장과 축소에 관한 서술은 임석규(2002가)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와서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104) 재분석에 대해서는 김 현(2001), 김 현(200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허웅(1965/1995:568), 강창석(1985:52)를 포함한 몇몇 논저들에서도 화자들이 새로운 어간을 인식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제시하였다. 장윤희(2002)에서도 재분석의 방법이 지지된 바 있다. 특히 김 현(2002:785-789), 김 현(2003:106-109)에서는 재분석을 유추와 구별하고 있으며 불명추론(abduction)에 기반을 두는 재분석에는 공시적 규칙들이 관여함을 논의하였다. 불명추론, 연역추론, 귀납추론에 대해서는 하퍼·트로고트(1993:39-40)에 간단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 앤더슨(H. Anderson)(1973:775-776)과 안틸라(R. Anttila)(1972:196-200)도 참조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어간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명옥(1993), 곽충구(1994나), 곽충구(2000), 김 현(2001), 장윤희(2002), 임석규(2002가), 임석규(2004나), 소신애(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영주지역어에서는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팍~물파기'라는 방언형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언형이 공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들은 자신이 발화하는 일부 어형을 통해서 해당 어형의 어간이 무엇인지 재분석해 낼 수 있다. 곡용형 '물파기, 물파기지, 물파기고, 물파기니'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어간이 확장된 '물파기'라는 새로운 어간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물파기'에 '-이지/이고/이니'를 통합시켜도 패러다임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분석을 통해 마침내 (40나)와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이다.

재분석을 통해 어간이 확장된 울진지역어의 예로는[105] '물파기'를 비롯하여 '터리'기(터럭), 터'리(털), 버˘리(벌), 칠'기'(칡), 이'드리미(여드름), 트리'미(트림), 가'시미(가슴), 사바'리(사발), 주바'리(주발), 빼˘미(뺨)' 등을 들 수 있다.[106]

재분석을 통해 어간이 축소된 경우도 눈에 띈다. 다음은 영주와 울진지역어의 자료이다.

(41) 가. 주막꺼리고, 주막꺼리지, 주막꺼리야, 주막꺼레, 주막꺼리넌, 주막꺼리로, 주막꺼리도
　　 나. 주막꺼리고, 주막꺼리지, 주막꺼리야, 주막꺼레, 주막꺼런, 주막껄로, 주막껄또

(41가)에 제시된 곡용형을 토대로 언중들은 '주막꺼리+이고/이지/이야'를 '주막껄+이고/이지/이야'로 재분석하여 어간이 축소된 새로운 어간 '주막껄'을 도출해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재분석한 어간 '주막껄'을 통해서 화자들은 처격어미와의 통합형(주막껄+에→주막꺼레)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주막꺼레'는 '물파게'에서와 같이 곡용에서의 활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재분석을 통해서 어간이 축소된 울진지역어의 예로는[107] '데지울'(돼지우리), 누덕'(누더기), 두루막'(두루마기), 미틀'(미투리), 꾸럼'(꾸러미), 울딸'(울타리), 두'두럭(두드러기), 돌˘쭉, 돌˘쩍(돌쩌귀), 찰˘(차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필자는 임석규(2002가)에서 '동'세(同壻)', '치메'(裳)' 등을 (41)과 같은 재구조화 유형(계사를 포함한 '이X' 형태가 굳어짐)에 포함시킨 바가 있다. '그게'(그것이)', '이게'(이것이)' 등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확인되는데 小倉進平(1944:312-314)에서는 이에 대해 함경남도와 황해도 일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i'가 어떤 요소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숭녕(1967:370-371)에서는 개재된 '-i'를 접미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부방언의 'N+i'의 형태들은 남부방언의 방언형들이 중부방언에 침투한 결과라고 하였다. 사실, '동세'류를 주격어미와 관련시켜 논의한 예들이 있지만[108] 필자는 계사와의 통합형이 오히려

---

105)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다섯 번째 '이'드리미'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이드레미'까지에 덧붙여 '망˘고리(망월)', '쭈굴'싸리(주름살)', '베˘미(뱀)'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울진지역어에 활발히 나타나는 이유는 주격어미의 '이형태' '-이가'와 관련 있는 듯하다. '-이가'는 '데˘통녀이가', '구'케'이워이가', '빙˘워이가', '골˘페이가(볼펜)' 등 역사가 오래지 않은 어휘에서도 확인된다. 어간의 확대 현상은 문경지역어에서는 소수가 확인된다. 서쪽으로 갈수록 이런 유형의 재구조화가 약해진 듯하다.

106) Ramstedt(1939:39-40)에서는 '호랑이', '얼고리(얼굴)' 등에 대해 '-i'는 단어의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가 어떤 요소인지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주격어미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천시권(1973:153-154)에서도 '가시미가(가슴)', '시이미가(수염)' 등의 어형은 주격어미가 중복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07) 영주지역어와 문경지역어에서는 마지막 두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8) 河野六郎(1945:209-211)에서 '노리, 놀기(노루)', '가리, 갈기(가루)' 등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주격어미

더 강력한 힘을 지님을 언급한 바 있다. 계사의 패러다임이 언어생활에 상당히 많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대명사 곡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세 지역어 모두 재구조화의 경향은 동일하다. 대표로 울진지역어 자료를 제시한다.

(42) 가. 나ˇ로(나를) 나ˇ너, 나ˇ도~난ˇ도, 네가, 날ˇ보고
나. 니ˇ로(너를), 니ˇ너, 니ˇ도, 니ˇ가
다. 지ˇ로(저를), 지ˇ너, 지ˇ도, 지ˇ가
cf. 자'게'로, 자'게'너, 자'게'도, 자'게'가(자기가)

'너>니ˇ', '저>지ˇ'에서의 복합성조는 주격이나 계사 '이'가 통합한 어형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1인칭에서의 저고복합조이다. 이는 다른 대명사에 유추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영주지역어에서는 '저가', '저넌', '저도'와 같은 패러다임도 등장하는데 이는 젊은층에서 주로 확인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자기>자게'로의 재구조화가 특이한데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e>i 변화가 역으로 적용된 결과이다.[109)]

3.2.1.2. 활용 어간의 기저형

곡용 어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고 기저형 중에서 공시적 규칙과 어느 정도 관련지을 수 있는 어간의 재구조화 또는 복합기저형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을 지역어에 따라 음절별 성조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제시된 기저형 중에서 공시적 규칙과 관련지을 수 있는 어간의 재구조화 또는 복합기저형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A//B//C'로 제시된 것은 A가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어형이며, B와 C는 차례로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어형이다. '느'리-(緩)'로 제시된 어형은 영주지역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역어에서는 '너'리-'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복잡함을 피하려는 필자 나름의 조치이다.

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남방언을 검토한 최학근(1976나:22-23)에서도 '가매, 도매, 방애' 등에 대해서 주격어미 '-이'의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곽충구(1994가:76-83)에서는 개재된 '-i'를 한정첨사(限定添辭)로 파악하면서, <露韓小辭典>의 편찬자들은 '-i' 주격어미 관련설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듯하다. 이상규(1983:131-141)에서는 '동세'류의 '-i'는 기원적으로 주격어미 '-i'가 어간말음화한 것으로 파악하며, 서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기세관(1985:230-232)에서도 '가매(가마), 방애(방아)' 등과 '고등에(고등어), 문에(문어)' 등에 대해 주격어미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와 다른 점은 계사의 통합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09) '가ˇ지>가ˇ제(全部)' 또한 '자'기'>자'게''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주지역어에서는 '손톱깍'게(具)', '조'께(조끼)'라는 어형이 확인된다. 이를 '자기>자게'의 재구조화와 관련지을 수 있다. 다만 '손톱깍'게'는 '덮'게', '마'게' 등에서와 같이 파생접사로 '-게'를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① 1음절 활용 어간

H_1

깎-(削), 갈-(換), 갚-(報), 겪-(經驗)~젺-, 곧-(直), 굳-(硬),[110] 굽-(曲), 긇-(그렇다), 긁-~끍-(騷), 깎-(削), 꽝-~꿓-(煎), 게-(整), 꽇-[索, ~꽝-(영)], 꺾-(折), 검-(黑)~껌-,[111] 께-(破)~께^-, 꼽-(挿), 끊-(斷), 끍-(搔), 끼-(絲, 屁), 날-(飛),[112] 낡-(朽), 녹-(溶), 낮-(底), 녹-(溶), 놓-(放), 놓-(産)~낳-, 누ㅎ-(臥), 늙-(老), 늦-(晩), 닫-(閉), 달-(甘), 들-(擧), 듣ㅎ-(聽)[113], 덮-(蓋), 데-(化, 斗),[114] 들-(擧), 딲-(淨), 땋(隨)-, 띠-(躍), 막-(防), 말-(捲), 맑-(淸), 맡-(任), 맞(正, 打), 메-(結, 耕), 멪-(結), 멥-(辛)~메'우-, 먹-(食)∽머^-,[115] 뫃-(集), 묶-(束), 묻-(埋), 물-(咬), 믿-(信), 밉-(憎)~미'우-, 박-(突), 받-(受), 밝-(明), 밭-(濾過), 벗-(脫), 베-(染), 붉-(紅), 붊-(~불부'-~불법'-)(先望)//부럽'-∽부러'우-//붊-(~불'부-~불법'-),[116] 붙-(着), 비-(紗束), 볶-(炒), 뽑-(選), 붕-(腫, 注)~붕-[117], 빗-(梳)~빗-, 숭ㄱ-(植)∽숭구'-, 삭-[衰, ~싹-(울)], 쌓-(積), 썩-(朽), 섞-(混), 쏙-(詐), 쏟-(注), 씩-(寒), 씹-(哈), 싶-[願, ~'숩-∽수우-'~'십-∽시우-'(영)], 씽-(洗)//씽-∽씽-//씩-~씪-, 앉-(坐),[118] 앓-(痛), 얹-[置, ~'언지'-∽얹

---

110) 제시된 뜻 외에 울진지역어에서는 '바'리가 군는'다'. '바'리가 구'더'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파도가 치-'라는 뜻이다.

111) 영주지역어에서는 '검ˇ-', 울진지역어에서는 '깜(H_1)-'으로도 확인된다.

112) 울진지역어에서는 '날'라서'라는 활용형도 보인다.

113) 울진지역어에서는 '딛'꼬'로도 발화된다.

114) 울진의 농촌에서는 '딘'다', '몯ˇ띠-(못되-, 惡)'가 확인된다. '斗'의 뜻일 때는 '데(L·H)-'로도 실현된다.

115) 어미 '-아(X)'와 통합할 때에는 '머^도', '머^라'와 같이 어간 '머^-'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머거(X)-문경·영주', '머가(X)-울진'로 실현되기도 한다.

116) 물리적 거리를 볼 때 이상하게도 울진지역어와 문경지역어는 형태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특히 두 지역어에 비해 영주지역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어형들을 제시해 본다. ① '찹'데', '차'바'라', '게루바', '나'사야', '지'서야'와 같은 정칙활용이 더러 확인된다는 점, ② '-아서'에 대당하는 형태 '맡'아#가^'와 '-는가 보-'에 대당하는 '-는갑-', '-라#하-'에 대당하는 '-라카-' 등이 두 지역어에서 확인된다는 점 ③ '잉'기-(옮기-)', '사ˇ레미(사람+이)', '킹'이(콩+이)' 등의 움라우트가 두 지역어에서 다소 확인된다는 점, ④ '부럽-'에 대당하는 어간, '불'법-', '붊-'이 확인된다는 점, ⑤ '성아', '성님'과 같은 구개음화가 확인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편, 문경지역어에서는 서남방언의 형태 '강'께', '거'시기'의 발화빈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카고'와 같은 발화는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언급이 필요할 듯하다.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라그'고', '-라그'이께네', '-라그'러'와 같이 인용동사로 '글(H_1)-'을 사용한다. 'ㄹ' 말음 용언이 '깔'고'~까'고'(伸)'와 같이 수의성을 보이는데 반해 '-라글'고, -라글'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카-'와 '-라글-'의 차이는 사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머^라카노~머라카'노'와 '머^라그노'의 차이와 일치한다. 그런데 패러다임 '카-'는 패러다임 '하-'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글-'은 사정이 다르다. 이것이 김천지역어에서는 'ㄷ' 변칙동사의 패러다임(귿'꼬, 귿'찌, 그'르마, 그'를란지, 그'러, 그'러도, 편의상 'ᴈ'를 '으'로 제시)으로 나타난다(이혁화 2006:1190). 한편, 하나의 성조군에서 '전두하'이라그레~전두하'이라그러'처럼 나타나는바, 전자의 기저형은 '그레-'이며 후자의 기저형은 '글-'이므로 구성이 원래부터 다른 것이었다. 영주와 동일 방언권으로 인식되는 안동에서는 '카-'로의 발화도 확인되는 점이 특이하다. 안동이 다른 방언권과도 접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117) 문경지역어에서는 '살이 부어 오르-'의 의미로 '불'키-'가 쓰이기도 한다.

118)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는 '안지'고', '안지'이', '안지'먼' '안'자' 등의 활용형도 등장하는데 이때의 기저형은 '안지'-∽앉(H_1)-'이다. 영주지역어에서 수의적으로 확인되는 '안'저'는 접촉에 의한 것일 확률이

(H_1)-'(영·울)[119]], 얽-(結), 업-(負), 엎-[顚覆, ~어푸-(울)], 엮-(織), 옇-(入), 익-(熟), 읽-~이르-(讀), 잃-(失), 입-(着用), 있-(有)∽이쓰'-, 잊-(忘), 잡-(執), 짱-[織, ~잣-(울)], 적-(書), 접-(摺), 젖-(潤), 죽-(死), 줏-[拾, ~쫑-~쫑-(울)], 질-[軟, 길-(문)[120]], 집-(拾), 짚-(짚다), 찧-(穀食), 짧-(短), 쫓-(追), 찍-(撮影), 찝-(집게), 쩡-(鱇),[121] 티-(反), 피-(開, 伸), 훑-~훑ˇ-(看), 핥-[舐, ~헐-(舐)~헐ˇ-(문·울)], 흩-(散)

중세국어 후의적 성조의 대응형: 가-(去), 나-(生, 出), 누-(泄), 두-(置), 보-(見), 사-(買), 스-(立)~서-(立), 오-(來), 이-(戴), 자-(寢), 주-(與), 저-(負, 沒, 落)//지-//지-, 하-(爲)∽해ˇ-[122]

H_2

갈-∽갈ˇ-(磨, 播), 같-(如)∽가'테'-,[123] 기-(匍)~기^~기(H_1)-, 까-(孵), 깔-(이불), 깜-(洗髮, 廢眼), 꼬-(다리), 꼬-~꽁'-[綱, 煎, ~까-~깡-(영)], 께-(覺), 꾸-(借),[124] 끄-(消), 끄~꾸-(夢), 늘-(彈力), 달-(掛), 들-(流入, 費, 歲, 斷), 따-(收, 錢), 뜯-(除草), 뜨-[碁 ~띠(H_1, 울)], 뜨-(浮, 醱), 띠-(除), 몰-(集, 運轉)[125], 비-(切, 枕)~비(H_1)-, 빨-(濯), 뻬-(減), 뽑-(選), 세-(漏), 싫-(嫌), 싸-(尿, 包, 廉), 싸-~쏘-[射, ~쑤-[126](울)], 쓰-~씨-(書, 苦, 用, 火, 粥), 씰-(掃), 세-(漏, 黎明), 욿-, 짜-(鹽, 織), 쩌//찌-//찌-(蒸, 着用), 차-(蹴, 寒, 滿), 참-(忍), 찾-(索)[127], 춥∽추'우'-(寒), 처-//치-//치-(打, 舞, 孵化), 케-(采, 火), 크-(大), 타-(乘, 火, 分, 焚), 틀-(傳), 파-(堀), 팔-(賣), 푸-(汲), 풀-(解), 페-(打), 품-(含), 피(花)-~피(H_1)-

L·H

높다. '안지'-'로의 단일화에 의한 것이라면 표면성조가 'HL(안자)'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119) '안지'-'와는 달리 '언지'-'의 경우는 활용형 '언지'지'도 확인되는데, 기저형 '언지'-'는 자음어미 혹은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며, 기저형 '얹(H_1)-'은 모음어미와 통합한다. 분절음의 환경만을 고려한다면 단일 기저형 '언지-'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언지지(LHL)', '언저(HL)'와 같은 활용형의 표면성조를 고려하면 복합기저형으로 처리해야 한다. 문경지역어에서도 '언절'때(얹을 때)'가 발화되었지만 패러다임으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언저'-'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얹->언지->언저-'와 같은 재구조화를 겪었을 텐데 이러한 재구조화는 '지->저-', '치->처-'와 동일한 유형일 것이다.

120) '직지사>직'기'사(김천)'도 과도교정의 예로 참조할 만하다. 문경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민원식(1982:52)에서는 '기ˇ무시-(寢)', '긴ˇ지-(飯)', '길ˇ-(長)' 등의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 오히려 경북서부방언에서 이러한 교체가 많은 듯하다.

121) 울진지역어에서는 '저'서라'도 확인된다.

122) 문경지역어에서는 더러 '해'고'라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충청도와의 접촉으로 이해할 만하다.

123) 후자는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어간이다. 이는 '똑같(LH_2)-~똑까'테'-'에도 적용된다.

124) 세 지역어에서 모음어미 통합형은 '꺼(X)'~'꼬(X)'로도 실현된다. 후자는 'wə>o'로 이해된다. 한편, 이와 다른 유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울진지역어에서는 '拾'에 대당하는 어간에 모음어미가 통합할 경우 '주^도', '쪼^도'로도 실현된다. 후자는 '쑤'고'', '쏘'도''와 같이 어간에 '우' 모음이 개재된 경우라는 공통점이 있다.

125) '몰ˇ고, 모'라' 형태는 '운전하-'의 의미를 지닌 경우에 발화되는데 이는 '감ˇ꼬(捲)', '가'마'에서처럼 유동적 상성형 어간에 유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26) 울진지역어에서는 '쑤-'가 일반적이다. '쏻'다'(←쑤+았/었+다)'에서 실현되는 음운현상은 '꿩'~'꽁'과 관련될 것이다.

127) 발화실수일 가능성이 높으나 울진의 농촌에서는 '차'서'' 형태도 실현되었다.

① 고정적 상성의 대응형: 얻-(得), 곱-(美)~고ˇ우-, 굵-(太), 많-(多)~마ˇ네-, 숩-∽수ˇ우-(易),[128] 업ㅆ-[無, ~읍ㅆ-(울)][129], 작-(小), 적-(少), 좋-(好), 떫-[澁, ~텗-(영)]

② 유동적 상성의 대응형

(L·HH∽<u>HL</u>): 감-(絲), 걸ㆆ-(步), 걸-(掛), 곪-(腫), 굶-(飢), 길-(長)~질-~찔-, 께-(覺)~께(H_2)-, 꾸ㆆ-(炙). 긍-(劃)~기'리'-, 남-(餘), 낭-(癒),[130] 네-(出), 널-(燥)//널-//열-,[131] 넘-(超), 놀-(遊), 눌ㆆ-(焦), 주-(H_1)~달-(與), 달-(焦), 닮-(似)//닮-//담ㅁ-, 담-(장, 김치), 담-(물건)//담-//담ㅁ-, 덥-∽더우-, 돌-(回), 디-(困, 火傷, 硬), 떨-(兢, 落), 뚫-[貫, ~뚧-(문·울)], 뜰ㆆ(落), 떠-(除去)~띠-(H_2), 말-∽마-(勿), 멀-(遠), 메-(김매다), 물ㆆ-(問), 미(擔, 목이 메이다), 밀-(推), 밟-(踏), 벧-(唾), 불-(吹), 붕-(注), 비-(空)~비(H_2)-, 빌-(祈), 비-(실꾸리), 뺏-(奪), 빼-(減), 살-(生), 삼-(看做), 삶-(蒸)~쌂-//삶-~쌂-//삼ㅁ-(蒸)~쌈ㅁ-, 설-(낯), 솔-(峽), 세-(黎明, 漏), 시-(休, 老, 饐, 喉, 數, 名節), 시-(强)~씨-, 신-(履), 실ㆆ-(載), 심-(植)~숭ㄱ(H_1)-∽숭구'-(植), 알-(知), 안-(包), 열-(開), 울-(泣), 웃-(笑), 잇-~이숭'-(繼), 일-(起), 장-[織, ~잣-(문)], 젊-(少)//젊-//점ㅁ-, 정-[漕, ~젓-(문·울)], 줄-(減)~쭐-, 중-[拾, ~줏-(문)], 지-(握), 짓-(吠)~징-, 징-(作)[132], 쩨-(裂, 照), 키-(切)~키-(H_2), 털-(掃), 피-(伸, 花), 핥-[舐, ~핥-(문·울)], 홅-(看)

(L·HH∽HH)[133]: 갈-(播, 耕), 감-(洗)~깜-, 숨-(隱)~, 몰-(運轉)[134]

H·L

① 고정적 고저복합조: 끌-[牽, ㄲㆆ-[135]~끌ㆆ-(영·울)], 벌-(得)//벌-//버^리-, 썰-(切)//쌀-//써'리-~썽글'-~쌍글'-~쌀-

② 유동적 고저복합조[136]: 미-(목이), 비-(空, 切, 보이-[137]), 시-(休息, 算, 元旦, 老), 기-(匍), 피-(꽃), 게-(이불), 께-(破), 이-(지붕), 피-(이불, 담배), 끼-(貫, 방귀), 네-(길, 돈), 데-

---

128) 울진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숨ˇ는데(易)'와 같이 형용사에 '-는데'가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히 울진지역어에서 꽤 많이 등장하는데 '존ˇ는데(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아이들의 언어습득에서도 확인된다.

129) '업써'보다는 '업서'와 같이 폐쇄음 뒤에서 'ㅅ'이 평음으로 발화되는 경향이 높다. 한편, 문경과 영주지역어에서는 '없-'이 확인된다. '업ˇ써'가 '어ˇ써'로도 실현되는 것이 그 예이다. 울진에서는 '옵ˇ나', '옵^다꼬' 형태도 확인된다.

130) 울진에서는 '나'사'로도 실현된다.

131) 울진지역어에는 '야푸'고', '나푸'고(淺)'도 확인된다. 경주지역어에서 보이는 '약'떼':낙타'도 '열ˇ-:널ˇ-'과 같은 유형이다.

132) 울진지역어에서는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전^다'와 같이 활음화된 어형도 확인된다. 문경지역어에서는 기저형을 '징-'으로 설정할 수 있는 활용형 '지ˇ코', '지ˇ치'도 확인되는데 이는 경음과 유기음이 음절초에서 수의적으로 혼용되는 것과 관계되는 듯하다. 이러한 예들로는 '용납찌:용납치', '씨꼬:씨코' 등이 있다.

133) 이런 유형의 성조 교체는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다. 성조 측면에서의 재구조화로 이해될 수 있다. 원래는 H_2 어간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합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134) '모라'는 HL이 일반적이나 HH로도 실현된다. 제시된 어간들은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HHL_0'패턴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5) 'ㄲ^라', 'ㄲ^꼬'를 참조할 수 있다.

136) 유동적 상성에 대응하는 어간 이형태는 공시적 규칙 포착이 어려운 반면, 이들 어간에서의 규칙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전자는 복합기저형으로, 후자는 단일기저형으로 파악한다. (48)의 예를 통해 구체화된다.

137) '보이-'의 뜻인 경우는 '비이^-~비키^-'로도 실현된다.

(接觸), 떼-(火), 띠-(躍), 베-(染色), 메-(結), 피-(담배), 지-(握), 쎄-(쐬다), 제-(測定), 쩨-[照, ~찌-(울)], 찌-(안개),

② 2음절 활용 어간

HL

가리-[밤낮·얼굴, ~게'리-(울)], 거치(經遊)-[138], 게룹-(가렵-)//게룹'-//게룹-[139], 건지-(榜)~낀지-, 곤치-(更), 공치-(헛되다), 구피-(曲), 그렇-(然), 그러~그레-(然),[140] 꺼리-(忌), 끼리-(湯), 끼우-(誘)~꼬숭'~꼬숭-~꼬시~꼬수-//꼬숭'-//꼬시-~꼬우-~꼬시'구-, 네룹-(尿)~네룹'-//네룹'-~메룹'-//네룹-~메룹-, 네리-(下), 넹기-(倒)~닝기-//넹기-~넹게-~넝구^~넝궇'-//넹기-~닝기-~넝구-~넹구-~네무-, 노기-(熔), 놀리-(弄), 누키-(使尿)~누이-//누이^-//누키^-, 누피-(使臥)//누피-~누피^~누이^-~누이-//누비-~누비^-~누피^-, 눌리-(壓), 느리-(緩)~니리-//느리-//느리-~니리-, 널쩌-(落)//널찌-//널찌-, 다치-(傷), 달리-(走), 더디-(晩), 데리-(다림질)//다리-//데리-, 디루-(데리다)~디루'-//데루'-//디루-~디루'-, 디우-(溫)~디피-//데우-//디우-~디피-, 도우-(協)[141], 돌리-(回), 동이-(束), 둥글-(圓), 들리-(訪問), 디디-(踏), 따듬-(琢)//따듬-~따듬'~따듬ˇ//따듬'-~따듬ˇ-, 따르-(隨)[142]∽따르'-[~땋-(영·울)], 떼리-(煎)~따리-//따리-//떼리-~따리-, 떼리-(打), 뗑기-(引), 떤지-(投), 띠끼-(落), 띠우-(醱酵), 마시-(飮), 만네-(會), 만지-[撫, ~만치-(문)], 망치-(亡), 말기-(離)~말리-, 말리-(乾)~말룽'-, 멘끼-(託), 무섭-(畏)//무숩'-//무섭-~무숩-[143], 문치-(鹽), 물리-(退), 뭉치-(團合), 미기-[飼, ~미기^-(영·울)], 미치-(狂)[144], 베우-(學), 버리-(棄), 부치-(附), 비비-(刮), 비싸-[高價, ~비사(울)], 빌리-(借)[145], 다치-(傷), 삐지-(切), 삐치-(토라지다)~삐저-~삐^저-//삐지-~삐^지-//삐치-~삐지-, 삑끼-(脫)~빅끼-//빽끼-~벡끼-//빽끼-~벡끼-, 살리-(生), 세기(交)~사기-//사기-//살구-, 셍기-(生)~셍그-[146], 설치-(傲慢), 시리-(寒), 시우-(停)//서우-//시우-~서우-, 싱기(履)-~싱키-//싱기-~싱끼^-//싱키-, 싸우-(鬪), 쏘기-(詐), 쑤시-(痛), 씨기-(使)~씨키-[~씨기'-(영·울)], 아물-(完), 아숩-(哀惜)∽아'수우-//아숩'-∽아수'우-//아숩-∽아'수우-,[147] 안치-(쌀), 야물-(固), 어둡-(暗)//어둡'-//어둡-~어둡'-, 어럽-(難)//에룹-//이룹-

---

138) 울진지역어에서는 '걸ˇ치-'가 실현되기도 한다.

139) 단일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있는 예가 울진지역어에서는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좀더 확인되는 편이다. '게'루바(가렵다)', '고ˇ바(麗)'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0) 울진지역어에서는 '기'레고', 영주지역어에서는 '그레ˇ고'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141) 소위 'ㅂ' 불규칙동사 중에서 '돕ˇ-∽도'우-'가 '도'우-'로 단일화되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142)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이다.

143)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무'순기(무서운 것이)'는 음운과정의 측면에서 중부방언의 '춘데(추운데)'에 대응된다. 동일모음 'u-u'는 결과적으로 'u'로 실현되어 있는데 울진지역어는 성조방언이기에 축약에 의해 형성된 복합조가 성조배열제약으로 인해 단일모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음장방언에서는 다른 설명이 요구될 것이다.

144) 울진에서는 '밀ˇ치-(推)'라는 뜻도 가진다.

145) 영주지역어에서는 '비르고, 비르니, 비른, 빌러'와 같이 '르' 변칙 활용을 하는 패러다임은 물론, '빌레고, 빌레니, 빌렌, 빌레'와 같은 규칙적 패러다임도 확인된다.

146) 모음어미가 통합될 때에는 '셍'기-',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가 통합할 때에는 '셍그'-'이다. 같은 유형으로는 '뎅기'-∽뎅그'-'가 있는데,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는 기저성조를 달리 설정할 수 있는 활용형 '뎅'그고', '뎅'그지'도 나타난다.

147) 아래에 제시된 '어둡-', '어럽-' 등은 소위 'ㅂ' 불규칙 용언이라 불리는 것들인데, 편의상 그 이하에서

~어룹-~어럽-, 어리-(幼), 억씨-[韌, 억시ˇ-(영)], 올리-(上), 우기-(附會), 욱끼-(笑), 이기-(勝), 이우-(지붕, 結), 이우-(暗記)//에우-//이우-~웨^-, 이키-(習), 잉기-(移)//옹기-//잉기-, 자라-(成長), 저리-(鹽), 제리-(癤)~저리-, 전디-(克), 접치-(筋違), 제키-[책장을 넘기다, 제끼-(문)], 조지-(그르치다), 주기-[殺, 지기-(울)], 주끼-(談)~지끼-//주끼-//주끼-~지끼-, 지기-(責), 쫑글-(琢)//쫑-(H1)~쨩-(H1)//꼬들-~쫑-(H1), 찌지-(湯), 지키-(保), 쩌우-(가락지)//찌우-//찌우-, 체리-(밥상), 추리-(選), 치우-[棄, ~추우-(울)], 키우-(養育), 테우-(焦), 틀리-[謬, ~틀리^-~틀링'-(영)], 텡기-(彈), 피우-(게으름), 할비-(掘)~홀비-~호비-~홀키-//호비-~하비-//호비-~하비-, 홀리-(誘), 휘우-(傴)//후우-//휘우-, 홈치-(竊)

LH

가두^-~가둥-(囚), 갈치^-[敎, ~갈칭'-(울)], 감추^-(隱)~감충-,148) '게않-(괜찮다)∽게아네'~'겐찮-∽겐차네',149) 건들-(接觸)~건디'리-[~건디'레(영)],150) 걸리^-[逍遙, ~걸링-(울)], 길구^-~길궁-(長)~질구^-~질궁-~기루^-~기룽-, 까놓-(索), 까불-(箕, 輕), 깐지^-(整)~깐주'이-~깐종'이-~깐중'이-//깐종'이-~깐중'이-~깜중'이-151)//간중-~가충-~간주^-~가충-, 꺼놓-(消), 게굽-(輕)//가벱-~헤꼬파'-~헤굽-//게접-~헤꿈하'-, 꼬시-(香), 꼬잡-(爪), 꾸시-(구수하다), 나딕-(親)~나익~난닉-, 나앉-(나앉다), 네놓(放)~네^놓-, 당궁-(浸)~당구^-, 뎅기-(往來)~뎅그-, 둔넣-(臥)~둔눕-, 뒤집-[反, ~뒤'집-(문)], 디랂-(들어앉다), 따스-(暖)~따시-, 떠들-(搖亂), 똑같-(同, LH2)~똑까'테'-, 뜨수^-(데우다)~뜨숭-, 뜨스(暖)~뜨시-, 말'리-(乾)~말룽-~말루^-, 마싰-(味), 멩글-(造)~멘들-, 바꾸^-(易)~바꿍-, 바랑-(望)~바렝-, 받뜰-(奉), 받추^-(支撑)~받충-, 발구^-(正)~발궁-,152) 베룽-(망치다), 붇뜰-(操), 붇짭-(操)~뿥짭-, 빠충-//빠중-//빠중-(빠트리-), 뻬물-(啥), 뿌수^-(碎)~뿌숭-, 사놓-(사놓다), 사먹-(사먹다), 사쿵-(酵), 싶-(望, H1)//시푸-~시우~수우-//시푸-, 싸놓-(包), 싸먹-(싸먹다), 써놓-(써놓다), 써먹-(써먹다), 씩쿠^-(冷)~씩쿵-, 아니-(否)~아이-, 안추^-(坐)~안충-, 알구^-(告)~알궁-, 이숭-(連)~이수^-153), 잡쑤^-(食)~잡쑹-~잡쑹-154), 장궁-(鎖)~장구^-155), 전중-(射)~

는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48) '감추^-'는 구형이고, '감충'-'이 신형이다 – 이런 유형은 구형 어간 2음절에 모음 'u'나 'E'가 개재된 경우, 그리고 그 성조가 복합조인 경우가 지배적이다. –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견해는 최명옥(1979:18-19)에 처음 제시되어 있다. 기저의 장음(필자의 복합조)이 삭제됨과 동시에 'ㅎ'이 삽입되어 어간 '감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김현(2001:93-96)에서는 화자들의 재분석으로 파악한다. 구형 어간 '감추^-'가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활음화, 활음탈락의 과정을 거쳐 '감차^'로 실현되는데, 이 활용형 '감차^'를 통해 여러 어간들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분석해 낼 수 있는 기저형으로는 '감차^-', '감추^'-', '감초^'-', '감충-', '감충-' 등 여러 가지가 상정될 수 있겠으나, 해당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공시적인 음운 과정들을 고려하여 재분석된 어간이 화자들에게 일반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재분석에 대해서는 필자도 임석규(2004나)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감추^-', '갈치^-' 등에서 확인되는 2음절 위치의 고저복합조는 문경지역어에서 수의적으로 고조로 실현되기도 함을 언급해 둔다.

149) '게아'네', '겐차'네'는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으로 '하-∽해-' 유형에 속한다.

150) 세 지역어에서 2음절 어간 '건들-'보다 3음절 어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그 피동형은 '건들리^-~건틀리^-[~건들레^-~건틀레^-(영)]'로 실현된다.

151) '깜중'이-'는 '(화투, 카드 등을) 간추려 정리하다'는 뜻이다. 영주지역어의 '깜중이-'는 '깐중이-~깐중이-'로도 나타나는바, 'ㄴ'과 'ㅁ'이 대응이 특이하다. 중세국어의 '간초-'는 '감추-'로 변했는데 여기서도 'ㅁ'과 'ㄴ'의 대응이 확인된다. '머추->먼추->멈추-'의 변화도 이 대응과 관련시킬 수 있겠다.

152) 영주지역어에서는 '발쿠^-~발쿵'-' 유형도 확인된다.

153)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이꿍'-'도 확인되는데, 울진지역어 자연발화에서는 성조형이 다른 '이'꾸-'도

전주^-, 쩌입-(複), 찡궇-(挿)~낑궇--찡구^--낑구^-, 파놓-(掘), 퍼먹-(퍼먹다), 퍼줗-(傳)~퍼주^-, 퍼붕-(瀉), 피놓-(展), 헤놓-(해놓다), 헤입-(만들어 입다)

후의적 성조의 대응형 : 가보-(가보다) 나가-(나가다), 나두-(放)~네두--나뚜--네뚜--넵뚜-[156]~납뚜-, 나서-(出), 나오-(出), 드로(入)~디로-[157], 디가-(入)~드가-, 따주-(摘), 떠나-(離), 떠주-(떠주다), 바가-(봐가다), 앞서-(前), 인나-(起)[158]~일라-, 잘하-(잘하다), 케보-(켜보다)~써보-,[159] 펴오-(펴오다), 헤보-(해보다), 헤주-(해주다), 덧나-(덧나다)

·노랗(LH_1~LH_2)-(黃)∽노라(LH_1)∽노레(LH_2~LH_1),[160] 허옇-(白)~하얗-[161], 꺼멍-(黑), 퍼렁-(碧), 빨강-(赤)[162]

·고푸'-(飢)∽고'프-[163], 기뿌-(歡), 나뿌-(惡), 노푸-(高)[164], 바뿌-(忙), 슬푸-(悲), 아푸-(痛), 야푸-(淺)//야푸-//야푸~나푸 cf. 지푸-(深)[165]

·가르-(分)∽갈'르-, 거르-(거르다), 너르-(廣), 다르-(異), 두르-(圍), 마르-(乾), 모르-(不知),[166] 무르-(軟), 바르-(正), 부르-(呼), 빠르-(速), 오르(染)-, 이르-(讀), 짜르-(短), 짜르-(切),

---

확인할 수 있었다.

154) '잡숭-'형이 우세하다.

155) 영주지역어에서는 '창궁-'형이 확인되고 울진지역어에서는 활용형 '장'가라'가 확인된다.

156) '넵뚜'-', '내뚜'-'는 '내버려두-'의 음절축소형일 텐데, '놓아두-'의 의미가 강할 뿐 '버리-'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57) 울진과 영주지역어에서는 '두로-', 울진지역어에서는 '도로-'도 확인된다.

158) 김성규(2001:82)에는 '인나(일어나)', '인내(이리내)', '얼루(어디루)', '연다(여기다)' 등의 예에 대해 줄어든 음절수의 보상을 위해 다음 음절의 자음이 복사되는 현상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중부방언이 아닌 동남방언에서는 '인나-~일라-'가 비통사적 합성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에 음절수의 보상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될 듯하다.

159) 주위를 환하게 밝힌다는 의미일 때만 '써보-'가 사용되고, 라디오 혹은 TV와 같은 가전제품을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케보-'가 사용된다.

160) 이러한 세 가지 기저형은 최명옥(1988)에 처음 제시되어 있다. '노랗-'은 자음어미와 통합하며, '노라-'는 매개모음어미와, '노레-'는 모음어미와 통합한다. '하얗-' 이하, 다른 색채 형용사의 기저형은 '노랗-∽노라-∽노레-'에 준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161) 울진지역어에서는 '하잏'-', '허잏'-'도 확인된다.

162) 색채 형용사의 3음절, 4음절 활용형은 LHL, LHLL형이 우세하나 더러는 LHH, LHHL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모음어미와의 통합형 '노레도', '발게도' 등이 LHH로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조 측면에서 단일기저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평준화 과정과 관련이 있겠다.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는 3음절 어형의 표면성조가 'LHL(노라코)'인 것과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형의 표면성조가 'LHH(노레도)'인 것이 성조 측면에서 평준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163) 성조의 측면에서도 두 어간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아울러 '기뿌-' 이하는 편의상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만을 제시한다. 이하 '가르'-∽갈'르-'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제시한다. 두 경우 모두 두 번째 제시된 기저형이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이다.

164) 울진지역어에서는 '너푸'-'도 확인된다. 그런데 중립모음인 '우'의 경우를 생각해볼 때, '너'파'는 일반적인 모음어미의 교체 규칙에 위배된다. 1음절에 음성모음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너'퍼'로 실현되어야 마땅하다. '노푸고~너푸고'의 수의성은 표면형만으로는 비원순모음화로도 파악될 수 있겠으나 입력부의 환경은 비원순모음화의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다. '어'와 '오'의 조음위치의 유사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울진지역어에서는 '어'와 '오'의 조음위치가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너(여기는)~여기노'의 수의적 실현을 보아도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165) 후술하겠지만 울진지역어에서는 이들 유형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찌르-(刺), 흐르-(流),

·뚜껍-(重)∽뚜꺼'우-,[167] 무'섭-[恐,~무숩'-(영·울)], 무굽-(重)~무겁-, 아깝-[哀惜, ~아꼽-(울)], 정답-(정답다),

HH

가늘-(細), 가물-(旱), 그리-(畵)~기리-, 그파-(速), 게룹-(苦)//게룹-~고룹-//게룹-~고룹-~기룹-,[168] 기찮-(귀찮다)∽기'차'네-[169], 깔리-(尿), 꾸미-[裝飾, ~꾸미^(영)], 나들-(年齒), 디리-(染色, 入, 膳), 드물-(頻度), 뚜굽-(溫), 멋지-(멋지다), 빠저-(脫)~빠ˇ저//빠지-//빠지-, 방갑-(반갑다), 불땀-(불을 담다), 비오-(비가 오다), 쌈싸-(쌈을 싸다), 씨굽-(苦), 어쩌-(어쩌다)~우예-~우쩨-, 이렇-∽이러-∽이레(이렇다),[170] 이러-(이러다)~이레-, 요러-~요레-(요러다),[171] 이룹-(孤)~웨룹-//웨룹-//위룹-, 저렇-∽저러-∽저레(저렇다), 저러-(저러다)~저레-, 지네-(祭, 過), 차굽-(寒), 찰지-(차지다)~차지-, 터저-(爆發)//터지-//터지-, 타쓰-(용돈)~타쓰(LH_2)-, 헤지-(落照), 히메-(彷徨)

L·HH(문경/영주), L·HL(울진)

건네(涉)~건니-//건네-//건네-, 걸치-(着用), 게시-(有), 고맙-(感謝)∽고ˇ마우-, 고약-(惡), 기하-(貴), 놀레-(驚), 지데-(依支), 더럽-(汚)//더룹-//더럽-,[172] 띠먹-(떼어먹다), 못나-(醜), 못데-(惡), 미시-(奉)~메시-//모시-~메시-//모시-~메시-, 밀치-(推), 벌리-(列), 서럽-(哀)//서룹~//서럽-, 시지-(老), 업쎄-(無), 연하-(軟), 우숩-(笑), 이쁘-(美), 탈나-(亡), 탈치-[觸, ~탈시-(영)], 헤룹-(害)

H·LL[173]

께지-(破), 널쩌-(落)~널'쩌-//널찌-~널'찌-//네찌-~너찌-~널찌-~널'찌-, 벌^-(得)//

---

166) 울진지역어에서는 '모'리-', 문경지역어에서는 '모리'-'가 일반적이다. 한편, 제시된 여러 동사들은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는 '가리-', '모리-', '오리-' 등과 같이 'X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주지역어에서는 대부분 '가르-', '모르-', '오르-' 등과 같이 'X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배적이다.

167) 소위 'ㅂ' 변칙동사류의 기저형을 제시한 것이다. 후자가 모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기저형인데 'tuk'əw-' 대신 '두꺼'우-'를 기저형으로 설정하더라도 동남방언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Xu'로 끝나는 어간인 경우 모음어미는 '아'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무섭-' 이하는 '뚜껍'-∽뚜꺼'우-'와 동일한 유형이므로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경우만을 기저형으로 제시한다.

168) 이하에서는 편의상 자음어미와의 통합하는 경우를 대표로 제시한다. 원래는 '게'룹'-(苦)∽게'루'우-'로 제시되어야 한다.

169) '기'차'네'는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이다.

170) '이'렇'-'과 '저'렇'-', '요'렇'-'의 성조 패턴과 '그'렇-(그'렇-∽그'러-∽그'레)'의 성조 패턴은 다르다. 이는 지시관형사의 기저성조 차이와 관계있다. '이', '저', '요'의 기저성조는 'H_2'이고 '그'의 기저성조는 'H_1'이다. 특이한 것은 '이거', '저거', '요거', '그거(이상 LH)'의 기저성조가 지시관형사의 기저성조와 패턴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171) 활용형 '이'레'고', '이'레'지', '저'레'고', '저'레'지' 등을 고려할 때, 기저형 '이'레'-', '저'레'-'는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을 기준형으로 하여 재구조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2) 이하에서는 편의상 자음어미와의 통합하는 경우를 대표로 제시한다. 원래는 '더ˇ룹-∽더ˇ루우-'로 제시되어야 한다.

173) '킬#나-~클#나-', '자#먹-', '네#빼-' 등은 하나의 성조군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어간이 어미 '-고'와 통합할 때는 'H·L#HL'로 실현된다.

벌^-//버^리-, 썰^-(斷)//쌀^-//써^리-~썽'글-~썽글^-, 테나-(生), 히저-~히'어저-(離, 白)//헤지-~히지-//히지-

LL·H

그레-(그러다)~그'레-, 께닫-(覺)//께달ㆆ-//께달ㆆ-,[174] 네밀-(示), 데묻-(되묻다), 디밀-(들이밀다), 떠돌-(彷)[175], 떠밀-[推, ~떼밀ˇ-(울)], 떠붕-(注), 퍼주-∽퍼다-(퍼다오), 퍼담-(퍼담다), 헤신-(만들어 신다), 훌쌈-(浦)//후삼-//후삼-

LH·L

갈리-(岐),[176] 갈치-[敎, ~갈칭'-(울)], 강키-(감기다)~강끼-//강끼-//강키-~강캉-, 걸리-[逍遙, ~걸링'-(울)], 거치-(구름) 꺼네-[꺼내다, ~끄네-(영)], 께이-(覺), 꾸이-(被夢), 꼬메-(縫)~꾸메-, 꼬피-(挿), 끈키-(斷), 길리-(劃), 깔리-(展), 꼬이-(索), 나데-[까불다, ~나뎅'-(영)], 날리-(漂白), 달리-(貫), 디이-(火傷)~디ˇ-~디^-, 따리-(속하다, ~따링'-(울)], 따저-(抗議)//따지-//따지-, 떨리-(兢), 담끼-(담기다), 당구-(술)~당궁'-, 들리-(上), 미키-(穴)//메키-//미키-, 모이-(集), 문데-(撫)~문뎅'-, 무치-(埋), 물리-(厭), 뭉게-(亡), 밀리-(停滯), 베기-(不便), 베베-[벼베다, ~비비^-(문)], 바레-(漂白), 바키-(衝突)~바치-, 보네-(送)~보넹'-, 비치-(光), 비이-(斷), 뻗치-(直), 뺵끼-[奪, ~삑끼-(문)], 뿌수-(壞)//뿌수-~빠숭'-~빠수-//뿌시-, 속끼-(噴, 上)[177], 써기-(混), 쌍끼-(삶기다), 쏘데-(彷徨), 쓰이-(書), 씨이-(用), 뿔게-~뿌게-~뿔겡'-[折, ~뿌'게-(문)], 언치-(置, 滯), 열리-(實), 울리-(鳴, 音), 일구-(땅, 말썽)~일궁'-, 일키-(起)//이르키-//이르키-, 일키-(書), 이피-(衣), 장기-(閉), 자레-(觸), 자피-(捕), 저키-(書), 절리-(亢), 졸리-(寢), 질리-(厭), 지피-(고름), 지푸-(불), 짜메-[結, ~쩌매-(문)], 짜게-(分)~짜겡'-~쪼게-~쪼겡'-, 쩍끼-(逃)//쪽끼-//쪽끼-, 체이-(자물쇠), 칭기-(負傷), 켕기-(속), 팔리-(賣), 풀리-(解)

어간 기저형의 세부 검토

아래에서는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복합기저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일부 재구조화된 어간들도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43)에 제시된 어간 유형에 대한 기저형 설정이 문제된다.

(43) 문경·영주/울진

174) 이하 모든 저고복합조는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고조로 실현되므로 이들은 유동적 상성형에 대응하는 어간이다.

175) 울진지역어에서는 성조형이 다른 '떠'돌'-'도 확인된다.

176) 문경지역어에서는 제시된 많은 어간이 'LH-'~'LH·L-'처럼 두 가지 성조 패턴을 보인다. 그 중 전자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다.

177) 울진지역어에서는 '속낑'-'처럼 어간말자음 'ㆆ'이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 이런 유형으로는 '걸링'-', '써낑'-', '떨링'-', '비칭'-' 등이 있다. 울진지역어보다는 그 경향성이 높지 않으나 문경, 영주지역어에서도 '문뎅'-', '보넹'-' 등이 확인된다.

가. 기뿌'고(喜), 기뿌'먼, 기'뻐도 ; 지푸'고(深), 지푸'먼, 지'퍼도/지'파도
나. 심ˇ찌~숨ˇ찌 시무'먼~수무'먼(植), 시'머도~수'머도[178]
다. 노푸'고(高), 노푸'먼, 노'파도
라. 야푸'고(淺), 야푸'먼, 야'파도
  cf. 울진 수의적 형태: 너푸'고, 너푸'먼, 너'파도(高) ; 나푸'고(淺), 나푸'먼, 나'파도(淺)[179]

(43가)의 '기뿌고'와 같은 활용형에서는 그 기저형이 '기뿌-'인지 '기쁘-'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단일기저형 '기쁘-'로 설정한다면 자음어미와의 통합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순모음화를 형태소 내부에서 인정해야 하는데 형태소 내부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규칙은 통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만하다.

'기뿌-'가 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 세 지역어 모두에서 '우'로 끝난 2음절 어간에서는 어미 '-아'가 교체되지 않고 '아'로 나타나므로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에서의 기저형은 '기뿌-'가 될 수 없다. 즉 '기뿌-'가 기저형이라면 '기뿌-'와 어미 '-아도'가 결합할 경우 그 표면형은 '기'빠도'로 나타나게 되므로,[180] '기뿌-'는 타당한 기저형이 아니다. 한편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 '기뿌고'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43가)에 제시된 어형은 복합기저형을 갖는 어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은 '기뿌-',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은 '기쁘-'라고 볼 수 있다. 성조까지를 고려하면 '기뿌'-∽기'쁘-'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181] '지푸'고, 지'퍼도'의 경우(문경·영주)도 '지푸'-∽지'프-'로 기저형이 설정될 것이다.

(43나)에 제시된 예에서 자음어미와의 통합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뿌'-∽기'쁘-'와 동일 유형으로 파악하여 '시무'-∽시'므-', '수무'-∽수'므-'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음어미와의 통합형을 고려한다면 기저형은 '시무'-∽심ˇ-∽심(H_1)-'~'수무'-∽숨ˇ-∽숨(H_1)-'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복합기저형 각각은 차례대로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기저형,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기저형,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기저형이다.

문제는 울진지역어의 경우 '지푸'고, 지'파도, 지푸'이까네'와 같은 활용형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기저형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단일기저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생각해 보자. 기저형을 '짚-'으로 설정하게 되면 활용형 '지푸'고'를 도출할 수 없게 된다.

---

178) 사실 세 지역어에서는 '시무'-', '수무'-'를 비롯하여, '심ˇ-~숨ˇ-'∽'심(H_1)-숨(H_1)-', (45)~(46)에 제시된 '숭구'-∽숭ㄱ(H_1)-'도 확인된다.

179) '야푸-'와 '나푸-'의 대응은 '열-'과 '널-(빨래 ~)'의 대응과 같다. 서남방언의 '(문을) 널-(開)', 경주지역어에서의 '약떼(낙타)'에서도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80) '지'파도'는 이전 시기의 어간 '깊->짚-'과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다.

181) 유사대립쌍 '써^부고(배구의 서브)':'써^부고(썰어버리고)'를 통해 볼 때, 순음 아래의 '으'는 표면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기저형으로 '기'쁘-'(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경우)가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배주채(1994/1998:103-105)에서는 이러한 경우, 기저형을 '프-'로 설정하여 원순모음화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어에서는 2음절 이상의 어간 중에는 '으'로 끝나는 것이 잘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필자는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을 '기'뻐-'로 파악할 가능성도 열어둔다. 그러면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은 '기뿌'-',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기저형은 '기'뻐-'라고 볼 수 있다. (43)에 제시된 자료는 모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만일 기저형을 '지푸'-'로 설정하게 되면 자음어미가 통합한 '지푸'고', 매개모음어미가 통합한 '지푸'이까네'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모음어미가 통합한 '지'파도'는 '우'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의 모음어미는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므로 '지파도'도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단일한 기저형 '지푸-'로 설정함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성조를 고려한다면 단일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없다. 자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가 통합한 '지푸'고', '지푸'먼'에서는 어간 부분에 해당하는 첫 두 음절의 성조는 LH이다. 반면 모음어미가 통합할 때에는 지퍼도(HLL)로 실현된다. 울진지역어에서 LH를 기저성조로 하는 어간이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성조변동을 겪는 경우는 없다. 이는 '멩그'고', '멩그'라도', '멩그'이까네'와 '베'우고', '베'와도', '베'우이까네'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자는 어간 부분의 성조가 LH이고 후자는 어간 부분의 성조가 HL이다. 따라서 성조를 고려할 때 기저형은 자음어미 또는 매개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지푸(LH)-,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짚(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지프-'로 설정해서는 활용형 '지파도'를 도출할 수 없다. 울진지역어의 '너푸'고, 너푸'먼, 너'파도(高)'의 경우 또한 '지푸'고, 지푸'먼, 지'파도(深)'에서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기저형을 '너'프-'로 설정하면 비적격형 '너'퍼도'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43다)와 (43라)의 '노푸'고, 노푸'먼, 노'파도(高)', '야푸'고, 야푸'먼, 야'파(淺)' 등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기뿌'-(喜)∽기'쁘-', '아푸'-(痛)∽아'프-'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도 문제가 없다. 어미 '아(X)'는 소위 중립모음을 넘어서 교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울진지역어의 '나푸'-(淺)∽나'프-'도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182]

그렇다면 울진지역어에서는 기저형으로 '기뿌-∽기ㅃ-'을 설정할 수 없는가? 기저형을 '기뿌-∽기ㅃ-'와 같이 설정하게 되면 울진지역어의 경우 폐음절 어간에서는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실현되므로 그 때의 표면형은 '기'빠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기'뻐도'만 확인될 뿐이다.

다음으로는 '汲'에 대당하는 어형의 기저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44)	영주·울진	문경
	푸'고'(汲), 푸'먼', 퍼'도', 퍼'서'	퍼'고', 퍼'만', 퍼'도', 퍼'서'

용언 '푸-(汲)'의 활용형 '푸고, 푸먼, 퍼도, 퍼서(汲)'를 통해 볼 때, 동남방언의 경우는 대체로 '푸-'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해도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인다. 활음과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풔'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푸-'에서 '퍼도'가 도출된다면 'wə→ə'의 활음 탈락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어간의 기저형을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는 '푸-',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는, '퍼-'로 이해하고자 한다. 중부방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런 기저형 설정이 합리적이며, 그 성조 패턴 또한 앞서 살펴본 '꾸-(借)'와 동일하다. '꾸-'인 경우에도 '꼬'도''와 같은 형태가 수의적으로 발견되나,[183] '푸-'의 경우에는 '포도'와 같은 수의적인 발화를 전혀

182) 공시적으로는 '노푸'-(高)∽높(H_1)-', '아푸'-(痛)∽앞(H_1)-', '나푸'-(淺)∽낲(H_1)-'으로 설정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만약 '푸-'로 기저형을 설정한다면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인 '풔'의 경우 활음 탈락이 되지 않은 형태도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세 지역어 모두에서 활음 탈락이 되지 않는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184)]

여기서 문경지역어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문경지역어에서는 자음어미와의 통합형이 '푸고, 푸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퍼고', '퍼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간이 단일화된 결과이다. 복합기저형 '푸-∽퍼-'가 '퍼-'로 단일화한 것이다. '으'와 '어'가 구분된 시기에 '푸'와 '프'가 '프-'로 단일화한 후 다시 '으'와 '어'가 중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원래 순음 아래에서 '으'를 가진 어사들은 모두 원순모음화를 겪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볼 수 있다. 이전 시기에 '프-'로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퍼'고', 퍼'지''와 같은 형태는 현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문경지역어의 '퍼-'와 같은 단일화의 예로 '처-(舞)', '쩌-(蒸), '저-(負)'를 들 수 있다. 이전 시기의 활용형 '치고, 처', '찌고, 쩌', '지고, 저'에서 모음어미 통합형을 기준형으로 하여 '처-', '쩌-', '저-'로 어간이 단일화한 것이다.

(45), (46)에 제시된 자료에서도 복합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다.

(45) 문경·영주

가. 모리'고,[185)] 모리'지, 모리'이, 몰'라도, 몰'라따(不知)

나. 숭구'고, 숭구'지, 숭구'이, 숭'거도, 숭'거따(植)

(45)에 제시된 패러다임을 통해 자음어미와의 통합형, 또는 매개모음어미와의 통합형에서는 LH,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에서는 HL 성조를 지닌 어간이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리'-∽몰'르-', '숭구'-∽숭'ㄱ(H_1)-[186)]'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46)에 제시된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모리'-~모'리-∽몰'르-',[187)] '숭구'-∽숭'ㄱ(H_1)-'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

183) 울진지역어의 '쑤(射)+았다→쏻'따'(cf. 쑤'고')'에서도 확인된다.

184) 사실 어미 '아(X)'의 교체 관점에서 '노푸'고, 노'파' 등은 성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푸-'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수의적으로 '노퐈'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일기저형을 꺼릴 수밖에 없다.

185) '모리'-'는 울진지역어에서 가장 잘 확인되고 문경지역어나 영주지역어에서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186) 세 지역어에서 다음절 어간 중 '으' 말음 어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숭'그-'는 배제하기로 한다.

187) 문경, 울진지역어에서는 '다리'-'가 지배적인데, 소위 '르' 변칙 활용을 하는 어간들은 이 유형에 속한다. 기저형 측면에서는 꽤 복잡하다. 복합기저형 '다르'-'와 '달'르-'에서 '다리'-'와 '달'르-'로 변화한 것일 텐데, 이를 통해서도 기저형간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러다임 '다르'고~다리'고, 다르'이~다리'이, 달'라'는 '다르'-~다리'-'∽'달'르-'와 같이 세 가지 기저형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다르'-'와 '다리'-'는 물론 이 둘과 '달'르-' 또한 동등한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다르'-'에서 '다리'-'로의 기저형 변화가 고려된다면 기저형간의 위계도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다르'-'가 기존 언어사회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다르'-'가 나중에 유입된 것이라면 이 세 기저형은 동등한 관계로 파악할 수 있겠다. – 이는 앞서 울진지역어에서의 '노푸'고(高), 너푸'지, 노'파, 너'파'에서도 적용되는데 기저형 '노푸'-'와 '높(H_1)-'은 대등한 관계라 할 수 있어도 '너푸'-'는 '노푸'-'에서 파생된 2차적 기저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형 세 가지를 동일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6) 울진

가. 모리'고~모'리고, 모리'지~모'리지, 모리'이~모'리이, 몰'라도, 몰'라따[188]

cf. '몰'따~모를'따', '몰'쎄~모를'쎄', '몰'라~몰ˇ라~몰'레~몰ˇ레'

나. 숭구'고, 숭구'지, 숭구'이, 숭'거도, 숭'거따

사실은 세 지역어 모두에서 (46가 cf.)에 제시된 어형이 확인된다. 이른바 '르' 변칙 용언 중 유독 '모르-'의 경우만이 이러한 활용형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189] 이들과 (45가)~(46가)에 제시된 활용형 모두를 고려한다면 복합기저형은 매우 많아지게 된다.

(47)에서는 앞서 논의되지 않은 변칙동사의 기저형을 한 곳에 모아 제시하기로 한다.

(47) 공통자료(문경·울진/영주)

가. 춥'따', 추'워'

나. 하'고, 헤ˇ도 ; 갇'꼬', 가'터'이/가'트'이, 가'테'도

다. 하'야'코~하야'코, 하얀'거'~하얀'거, 하예'도'~하예'도

(47)에 제시된 활용형의 기저형은 (47가)에서는 '춥(H_2)-'∽'추'우'-'로, (47나)에서는 '하(H_1)-'∽'헤ˇ-', '같(H_2)-'∽'가'테'-'로, (47다)에서는 '하얗(LH_2)-'∽'하야(LH_2)-'∽'하예(LH_2)-' 또는 '하얗(LH_1)-'∽'하야(LH_1)-'∽'하예(LH_1)-'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하나의 어간 이형태로 다른 교체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합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190]

(48)에서는 복합조의 고조화 규칙(음장방언의 단음화 규칙) 여부에 따른 기저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48) 문경/영주·울진

가. 벧ˇ꼬, 베'터/베'타(唾) cf. 얻ˇ꼬, 어ˇ더(得)

나. 떼^고, 떼'어(떼^, 火) cf.[191] 벌^고, 버^러(得), 썰^고, 써^러(切), 끌^고, 끄^러(牽)

접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 변화에 결과한 것인지에 따라 기저형의 위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울진 농촌에서 '달'러'형도 확인됨을 밝힌다. 이는 모음어미의 교체 측면에서 '몰'러~몰ˇ러', '빨'러' 등과 같은 유형이다.

188) 다음절 어간이 'Xa-'로 끝나는 경우는 경북북부지역어에 없는 듯하다('끝나-', '인나'와 같이 경계를 상정할 수 있는 어간은 제외함). 중부방언과의 대응례로 '만'네-(遇)', '바레ˇ-(希)', '지'네'-(過)' 등을 들 수 있는데 '만'네고', '바레ˇ고', '지'네'고'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모두 어간이 재구조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몰'레~몰ˇ레'는 이들 활용형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골ˇ라~골ˇ레' 형태가 확인되지만 '골'레', '골'라'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하다.

189) 중세국어 문헌자료에서의 활용형 '몰ˇ라'를 통해서도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190)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최명옥(1985), 최명옥(1988), 한영균(1985)를 참조할 수 있다.

191) 편의상 세 방언의 형태 중 일반적 어형만 제시한다. 영주·울진지역어의 '쌀-(切)'도 편의상 '썰-'로 제시한 것이다. 울진지역어의 '버^리-(得)', '써^리-(切)'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8가)에서와 같이 유동적 상성에 대응하는 어간 이형태, '벨ˇ-'∽'벨(H_1)-'는 단일기저형으로 설정되는 패러다임 '얻-'과 관련지어 볼 때, 공시적 규칙 포착이 어려우므로 각각의 이형태는 어휘부에 따로 등재되어야 한다. 저고복합조의 고조화 규칙(음장방언에서의 단음화 규칙)을 일반화할 수 있는 음운론적 환경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음을 말음으로 하는 폐음절 어간인 경우에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48나)에 제시된 어간의 경우, 고저복합조의 고조화 규칙은 그 환경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어간은 단일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있다. '벌-', '끌-', '썰-'과 달리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고저복합조가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고조로 변동된다.[192] 이는 2음절 이상의 어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데^+아도→문데^어도→문데'어도→문데^도(撫)'에서 두 번째 도출과정에서 고저복합조의 고조화가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음장방언에서는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하는 용언도 성조방언에서는 복합기저형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겠다.[193] (49)는 하위방언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성조측면에서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194]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의 형태를 대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49) 가. '가+아도→가'도'(去)'류
갈따, 가서, 가던~가던',[195] 가는, 가니(<가느니), 가노, 가나(이상 HH), 가시고, 가시니, 가시면, 갈띠라, 가드나(이상 HHL)~가드'나, 가드라도~가드'라도, 가시이까(이상 HHLL)
나. '가+아라→가라(L·HH)'류
가마, 갈따, 갈리~갈레(이상 L·HH), 가레이, 갈라나, 갈란지, 갈라이껴(이상 L·HHL(L))
다. '가+고→가'고(HL)'류
가먼, 가제, 가이, 가며, 가고, 가라(간접명령), 가게(이상 HL), 간(H_1), 가이께네(HLLL)/가거나, 갈쑤룩, 가지도(이상 LHL)

김완진(1977)에서는 (49)와 같은 예를 후의적 성조로 명명한다.[196] 김완진(1977:57-61), 김성

192) 여러 어간들이 단음절 활용 어간의 기저형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그 부분에서 각각의 어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193) 임석규(2004가), (2004나)의 일부 내용을 가져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194) 고성방언을 대상으로 한 정연찬(1977:67-68)에 의하면 그 자료가 (49)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 용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변동도 방언구획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장 '활용 어간의 기저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49)와 동일한 유형의 어간으로는 하-(爲), 보-(見), 사-(買), 스-(立), 오-(來), 이-(戴), 일라-~인나(起), 지-(負, 落), 나-(産), 나뚜-~네뚜-~나두-~네두-(置), 나서-(出), 나가-(出), 주-(與), 누-(泄), 두-(置), 드가-(入去), 드로-(入來) 등이 있다(임석규 1999:76). 이문규(2002:123-127)에서는 이들을 불규칙으로 파악한다. 분절음운론에서 불규칙 용언을 복합기저형으로 처리하듯이 성조론에서도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필자의 입장이다.

195) '가던(HH)'을 포함해, '가드나(HHL)', '가드라도(HHLL)'는 수의적으로 '가던(LH)', '가드나(LHL)', '가드라도(LHLL)'로도 실현된다.

196)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Lee(1978:110-120)에서는 '나', '너', '누' 등 일부 곡용형의 성조 고려를 통하여 또한 '오나-', '나오-' 등 복합동사의 활용형의 성조를 근거로 이런 류의 어간의 기저성조를 고조로

규(1994:50-56)에서는 '-올/-을', '-ᄋ리/-으리', '-ᄋᆫ/-은', '-ᄋ니/-으니', '-ᄋ며/-으며', '-고', '-더', '-게' 등의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평성으로 실현되고, '-ᄋ시-/-으시-', '-ᄂ-', '-ᄉᆸ-', '-아/-어' 등의 어미 앞에서는 거성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49가)와 (49다)의 표면성조만을 고려한다면 중세국어에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겠다. (49나)의 경우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가라(HL)'와 '가라(L·HH)'는 기능이 판이하게 차이난다.[197] 전자는 간접명령이고 후자는 직접명령이다.[198] 성인출(1998:244-245)에서는 '가라(L·HH)'를 명령형 '가거라'와 관련시켜서 논의하고 있는데 '가마(L·HH)', '갈라이껴(L·HHLL)', '갈라나(L·HHL)', '갈따(L·HH)'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에서의 복합조는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와 관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의 약속법어미가 '-오마'로 실현되었음을 상기한다면, '가마(L·HH)'에서의 복합조는 이해될 수 있다. '갈라이껴(L·HHLL)', '갈라나(L·HHL)' 등은 청자의 의향을 묻는 경우로 파악하면 되겠다. '가라(L·HH)' 또한 청자의 의향을 묻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면 안 되겠느냐' 정도의 문맥이라면 청자의 의향과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199]

이제 우리는 (49)에 제시된 예들을 공시적으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성조방언이라면 성조까지를 고려하여 기저 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용언 '가-'의 경우만 해도 세 가지 복합기저형을 설정해야 한다. (49가)는 '가(H_2)-', (49나)는 '가(L·H)-', (49다)는 '가(H_1)'으로 설정될 수 있다.[200]

아울러 (50)에 제시된 용언 '있-(有)'에서도 복합기저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50) 가. 읻'꼬, 이'써도
　　 나. 이씨'이, 이씨'먼

음장방언에서는 (50)에 제시된 용언을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성조방언에서는 '있-'의 기저 표시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있(H_1)'-'으로 기저 표시를 하고 (50나)와 같은 매개모음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성조변동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50)에서의 성조실현이 (51), (52)에 제시된 '잡-(捕)', '빠르-(速)'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성조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매개모음어미와의 통합형에서 성조변동규칙을 고려할 수는 없다.

(51) 잡'꼬, 자'부니, 자'부먼, 자'바도

(52) 가. 빠르'고, 빠르'이, 빠르'먼
　　 나. 빨'라도

설정한다. 차재은(1999:94-98)에서도 복합동사의 활용형 및 어간형 부사의 성조를 근거로 이런 류의 기저성조를 고조로 설정한다.

197) (49나)에 제시된 자료는 최명옥(1980:83)에서도 확인된다.

198) '가'라고 헤:도 웨 앙 가노. / 헤지기 전에 빨리 가˝라(L·HH)'를 참고할 수 있다.

199) 선어말어미 '-오/우-'의 화석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0) 정연찬(1977:69)에서는 '가-'에 대한 공시적 기술의 어려움이 피력되어 있다.

(51)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간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51)에서는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에만 성조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50)의 경우는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특별한 성조형이 실현된다. 성조변동을 공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51), (52)와는 달리,[201] (50)의 경우는 성조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일기저형 '있-'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복합기저형 '있-(H_1)', '이씨(LH_1)-'로 파악해야 한다.[202]

(53)에 제시된 '따르-(隨)>�-'로 재구조화된 예는 좀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54)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53) 가. 따르'고, 따르'면, 따'라도
　　 나. 딸'코, 따르'면, 따'라도

(54) 딸'코(磨耗), 따'르면, 따'라도

패러다임 (53가)가 (53나)로 바뀌었는데 새로이 생성된 기저형은 '땋-'로 분석될 수 있다.[203] 결과적으로 (54)에 제시된 패러다임과 (53나)는 음소적 차원에서는 동일해졌다. 그러나 성조측면에서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먼저 (53나)와 (54)에 제시된 성조형을 관찰해보면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성조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51), (52)에서도 패러다임 (53나)와 같은 성조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곧 해당 방언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성조형이 매개모음어미와의 통합형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바로 분절음 차원에서만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0)에 제시된 패러다임 '있-'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한 형태의 성조형은 일반적인 성조변동규칙으로 포착해낼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단일한 기저형으로 패러다임 (53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분절음 차원에서는 (53나)의 기저형을 단일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성조까지를 고려한다면 '땋-(H_1)'과 '따르(LH_1)-' 두 가지를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

201) '빠르-', '빨라'의 기저형은 '빠르(LH)-'∽'빨르(HL)-'로 설정할 수 있다. 성조변동의 측면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어간은 그 기저성조가 LH인데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의 어간은 그 기저성조가 HL이다. '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어간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환경이 아닌 어간 '먹-'에서도 '머그'니', '머그'먼'과 같은 발화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사실 '먹-'은 위에서 보인 '잡-'과 같은 성조 패턴을 보여야 한다.

202) 그런데 '있+어'를 포함한 (매개)모음어미 통합형에 대해 노년층은 둘째 음절을 경음으로 발화하지 않기도 한다. '이써'도 아니고 '이서'도 아닌 '읻'서'로 발화하는 것이 일반적임도 밝힌다. 다만 젊은층에서는 둘째 음절이 경음으로 실현된다. 노년층의 기저형은 '있-(H_1)', '이씨'-'라고 하기보다는 '읻ㅅ-(H_1)', '읻시'-'라고 해야 한다. 이는 '갑ㅆ-', '넉ㅆ-' 등에도 적용되어 '갑ㅅ-', '넉ㅅ-' 등으로 기저형이 설정될 수 있다. 미묘한 문제이므로 일단 본고에서는 후자와 같은 기저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 한다.

203) 임석규(2004나)와 같은 재분석의 논의에 기댄다면 이전 시기의 활용형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이 재분석의 기준형이 되어 새로운 어간 '땋-'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ㄹㅎ'을 말음으로 하는 여러 어간 곧 '땋-', '잃- ' 등의 패러다임을 화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다음의 경북북부지역어의 자료를 통해 성조를 고려한 재구조화 경향도 참고할 수 있다.[204] 이러한 류의 어간들로는 '비-', '피-', '기-'를 들 수 있는다. 모두 완전순행동화되는 음운과정과 관계된다. 화자들도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혼란을 겪으며 수의적인 형태로 발화한다.

(55) 가. 띠'고(躍), 띠는', 띠'먼, 띠^도, 띠^서
나. 띠^고, 띠^는, 띠^먼, 띠^도, 띠^서

(55가)의 어간과 모음어미와의 통합형 '띠^도', '띠^서'를 기준으로 어간을 '띠^-'로 재분석한 결과 (55나)에 제시된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성조 실현 양상이나 음운과정 등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패러다임 (55나)를 살펴보면 패러다임 (55가)에서의 어간 이형태들이 단일화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205]

그간의 연구에서는 재구조화의 요인으로 이형태의 단일화에 주목하였다. (55가)에서 (55나)로의 재구조화는 (56)과 같이 설명될 것이다.

(56) 만일 (55가)와 같은 패러다임을 고집한다면 화자들은 여러 이형태들에 대해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화자들은 어간과 모음어미가 통합할 때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라는 음운과정을 기억해야 함은 물론, '띠'고, 띠는''에서 나타나는 성조변동규칙도 인식해야만 (55가)와 같은 패러다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화자들은 기억에 용이한 패러다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55나)와 같은 패러다임이다.

다음 자료를 보기로 한다.

(56) 가. 쌈ˇ꼬, 쌀'무먼, 쌀'마도
나. 쌈ˇ꼬, 쌈'무먼, 쌈'마도

(56가)는 문경·영주지역어의 자료이며 (56나)는 울진지역어의 자료이다. (56가)의 경우는 기저형을 '쌂ˇ-'으로 설정할 수 있다.[206] (56나)의 경우는 기저형을 '쌈ˇ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담'마도(似)', '곰'마도(腫)', '점'마도(少)'[207]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

204) (55)와 유형을 같이하는 용언으로는 '기^-(匍)', '피^-(伸)' 등이 있다. 필자는 (55나)에 제시된 어간을 두 음절로 파악하지 않고 단음절 복합조로 파악하였다. 이런 경우를 단음절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장태진(1960:81), 이동화(1990:34-35), 김주원(1994:139), 김영만(1997:20-21)을 들 수 있다.

205) '이형태의 단일화'라는 용어 대신 '패러다임 규칙화'라는 용어가 이병근(1981:10), 박기영(1995:58)에서 확인된다. 활용패러다임 '미웁고, 미웁지, 미워'가 '미웁고, 미웁지, 미워'로 바뀐다면, 즉 셋 이상의 이형태가 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떤 용어가 더 합당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3의 용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206) '쌂ㆆ-'을 꺼리는 것은 배주채(1989:56-57)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207) 울진지역어에서는 '짐마지고(負)', '둠메친다', '숨마사(隱, 이해어)', '감마사(瞼眼, 이해어)'등도 확인된다. 문경지역어에서는 '젊어지-'의 '젊-'을 '짐ˇ느라고, 질'머라, 짐ˇ는다, 짐ˇ꼬'와 같이 발화하고 있었다. 이는 필자가 '젊어지-', '무너지-', '자빠지-', '넘어지-'의 '젊-', '문-', '자ㅃ-', '넘-'을 확인해 보려는 데

사실 울진지역어에서는 '사'머딸(三月)', '암'마'또(아무말도)', '고'다'펴다', '자'뭇~잘'뭇~잠'뭇', '움'메(얼마)', '함'메'(祖母)' 등과 같이 'ㄹ'이 제대로 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08] '잘뭇'에서 '잠뭇'이 발화되려면 'ㄹ'을 'ㄷ'처럼 발화하는 방법이 있다. '잘뭇'에서 '잗뭇→잔뭇→잠뭇'이 결과한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제시된 형태들은 '사먿딸', '암맏또', '고닫펴다', '욷메'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틀날', '숟가락', '섣달' 등의 표기가 이해될지도 모른다.[209]

아래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한다.

(57) 문경·영주/울진
    가. 묻ˇ꼬, 무러(중부방언)
    나. 물ˇ꼬, 무'러서/무'라사

경북북부의 세 지역어에서는 중부방언의 'ㄷ' 변칙동사에 대당하는 어간은 모두 정칙활용을 한다. 이런 유형의 동사들로는 물ˇㆆ-(問), 께달ˇㆆ-(覺), 들ㆆ-(聞, H_1), 뜰ˇㆆ-(落),[210] 걸ˇㆆ-(步), 실ˇㆆ-(載), 뿔ˇㆆ-(腫), 눌ˇㆆ-(焦) 등을 들 수 있다.[211]

다음에서는 중부방언에서의 '이' 말음어간이 세 지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보자.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
(58)	이고, 여도(戴)	이고, 여도	이고, 여도(이상 HH)
	띠'고, 띠^도(躍)	띠'고, 띠^도	띠'고, 띠^도
	시ˇ고, 시ˇ도(强)	시ˇ고, 시ˇ도	시ˇ고, 시ˇ도
(59)	저고, 저야(負)	지고, 저야	지고, 저야
	처고, 처야(打)	치고, 처야	치고, 처야
	쩌고, 쩌야(蒸)	찌고, 쩌야	찌고, 쩌야(이상 HH)

서 얻은 것이다. 결국 '문-', '자ㅃ-', '넘-'은 확인하지 못했다. 문경지역어에서는 '소에 얹는 운반 도구'인 '질메'', '걸ˇ체~건ˇ체'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특별한 어형성으로 이해된다. 한편, '쌈ㅁ-'과 관련되지 않겠지만 '이만하'면~임만하'면, 시문'(新聞), 이'물(人物), 하ˇ문(漢文), 움'메(얼마), 차'물'(冷水), 차'말'로(眞心), 뜸물'(뜨물), 암ˇ메'(아마, 울진)// 하ˇ문, 뜸물', 움'메'(얼마), 절마^~점마^(저놈아이), 일마^~임마^, 글마^~금마^, 차'말'로(정말로), 뜸물', 암ˇ메(영주)//시문', 이'물, 하ˇ문, 차'물', 차'말'로, 뜸물'(문경) 등도 제시해 본다.

208) 울진지역어의 '우^드노(우리들은)', '꼬ˇ지(꼴찌)', '네^쪄(떨어져)', '무'살'(물살)'[cf. '홍'실(연시)'] 등에서도 'ㄹ' 탈락이 확인된다.

209) 이는 사실 '돈나물(돌나물)', '저까락(젓가락)'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세 지역어에서는 '젓가락'을 '절'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0) 문경지역어나 울진지역어에서는 덜ˇㆆ-(開), 떨ˇㆆ-(落)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211) 문경지역어는 중부방언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강하다.

(60)	낀지고, 낀지서(捕)	낀제고, 낀제서	낀지고, 낀제사
	마시고, 마시도(飮)212)	마세고213), 마세도	마시고, 마세도214)
	건디리'고, 건디리^도(觸)	건디'레고, 건디'레도	건디'리고, 건디'레도
(61)	밀ˇ치고, 밀ˇ치도(推)	밀ˇ체고, 밀ˇ체도	밀ˇ치고, 밀ˇ체도
	노피고, 노피도(高)	노페고, 노페도	노피고, 노페도(이상 HLL)
	cf. 가시고, 가시도(行)	가세고, 가세도	가시고, 가세도(이상 HHL)
(62)	*등[값/밑]지고, *등지도(背)	*등제고, *등제도215)	등지고, *등제도
	등[값/밑]저고, 등저도(背)	등지고, 등저도	등지고, 등저도(이상 LHL)
	떠러저고, 떠러전다(落)	떠러지고, 떠러저도	떠라지고, 떠라저도(이상 HLLL)
	야ˇ단처고, 야ˇ단처도(詰)	야ˇ단치고, 야ˇ단처도	야ˇ단치고, 야ˇ단처도

(58)~(62)에 제시된 예에서 첫 번째 활용형은 자음어미가 통합된 것이고 두 번째 활용형은 모음어미가 통합된 것이다. 특히 (61)은 접사가 통합된 어간이며, (62)는 '떠러지-'를 제외하면 합성어로 처리해야 하는 예이다.

어미 '아(X)'가 어간에 통합할 때, (58)에 제시된 '여도'는 활음화로, 나머지 두 예는 완전순행동화로 설명할 수 있다. (59)에서는 '지-'의 경우를 대표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저+아서→저어서→저서'와 같이 어미가 교체된 후 동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주와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지+아서→지어서→져서→저서'와 같이 어미가 교체된 후 활음화 과정, 활음 탈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형이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 말음 단음절 어간이 없다는 것이다.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Xi'어간은 모두 'Xㅕ'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60)에 제시된 문경지역어의 '낀지서'는 '낀지+아서→낀지어서→낀지이서→낀지서'와 같이 어미가 교체된 후 교체된 모음이 어간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고, 이어 동일모음이 축약되어 도출된 것이다(4장의 '완전순행동화' 참조).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낀제+아도→낀제어도→낀제에도→낀제도'와 같이 어미 '아'가 교체되고 교체된 모음이 어간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된 후 동일

---

212) 문경의 한 고등학생은 '(당구) 치'라'', '떠'러지따'(언어의식 약화), 또 더러는 노년층 화자에게서도 '사기'를 치'따''와 같은 형태가 발화된다. 어원이 어떤지는 확언하기 어려우나 '조짔다(문경)/조졌다(영주)/조졌다(울진)'와 같은 형태로 보아 '조지-'는 형태소 경계를 상정할 수 없는 '만지-'류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213) 영주지역어의 '-시-' 관련 재구조화는 '(입을) 다무세고', '(글이) 노푸세고'류처럼 잘 쓰이지 않는 단어에서는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오'세'고', '가'세'고' 등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214) 울진지역어에서는 특이하게 '맛있아'를 '마세(LH·L)'라고 하기도 한다.

215) 채옥자(2005:105)에는 '미쩼다, 께제서, 만제서' 등의 활용형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경북북부지역어와는 변동양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형태소의 통합과 관계없는 음운론적인 변동인데 서북방언, 동북방언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변동 또한 방언구획의 주요 기준이 될 만하다.

모음이 축약되어 도출된다.(4장의 '완전순행동화' 참조).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껀지+아사→껀지+어서→껀져사→껀제사'와 같은 과정으로, 즉 어미가 교체된 후 활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축약되어 표면형이 도출된다. 특이한 것은 영주지역어의 경우 2음절 이상의 어간인 경우 'Xi'에서 'XE'로 재구조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61)에서와 같이 접사가 통합된 경우, 심지어 선어말 어미가 통합된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 문경지역어나 영주지역어의 경우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 말음 어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60)에서와 같이 단음절 어간이 아니고 2음절 이상의 어간이라면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 말음 어간이 문경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62)에서와 같이 영주지역어의 경우도 '등지고, 등저도', '믿찌고, 믿쩌도'처럼 기저형을 'Xi(X=치경구개음)'로 설정할 수 있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이 확인된다.

'Xi'에서 'XE'로 재구조화된 어간과 그렇지 않은 어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62)에 제시된 어간과 (60. (61)에 제시된 어간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음절수의 차이가 아님은 자명하다. 모두 2음절 이상의 어간이기 때문이다. (60)에 제시된 어간은 어간 내부에 형태소 경계를 둘 수가 없지만 (61)에 제시된 어간은 내부 형태소 경계를 둘 수가 있다. 반면, (62)의 경우는 어간 내부에 단어 경계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바로 'Xi'에서 'XE'로 재구조화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적절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216] 화자들은 2음절 이상의 어간이라 할지라도 경계 요소까지를 고려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60)~(62)를 통해 볼 때, 어간이 2음절 이상일 때에는 세 지역어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영주지역어에서 'E'로 재구조화된 어간이 문경지역어에서는 '이' 말음으로 나타나며, 문경지역어에서 'ㅋ'로 재구조화된 어간이 영주지역어에서는 '이' 말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중부방언과 같이 모든 경우 '이'를 말음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63) 가. 버^고, 버^러서(得)　　써^고~싸^고, 써^러서~싸^라서(斷)
　　나. 버^리고[217], 버^레사[218]　썽'그고-~쌍'그고-, 썽'그라사~쌍'그라서

중세국어의 2음절 어간이었던 것이 (63가)의 영주지역어, 문경지역어에서는 단음절 고저복합조로 실현되고, (63나)의 울진지역어에서는 어간이 2음절로 실현된다.[219]

---

216)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지-' 구성인데, 필자는 '-어지-'를 학교문법에서와 달리 '-어#지-'로 파악하고, '지-'를 보조용언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17) 영주지역어·문경지역어의 '싸'렬' 이'리-'는 중부방언의 '일-'에 대응되는바, 이는 '버^리-:벌ˇ-'의 유형과 같다. 또 영주지역어의 '가'리->가'레-'또한 같은 유형에 속한다. 패러다임 '(부속품을) 가'레고, 가'레지, 가'레도, 가'레라'가 확인된다. '이'리->이'레-' 또한 '이'레고, 이'레지, 이'레도, 이'레라'로 나타난다. 물론 '이'리-', '가'리-' 형도 확인된다. 울진지역어에서 '사ˇ리-(生)'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찌'리-, 찐'네(오줌 ~)', '비'리-, 빈'네(생선 ~)' 등에서도 확인된다(세 지역어 공통).

218) 세 지역어에서 '(쓰레기) 버리-', '(옷이나 사람) 베리-'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인 경우는 '베룽-'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219) '끌-(粹)'의 경우에는 기저형을 쉽게 설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형들이 세 지역어에서 꽤 복잡하게 실현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간의 기저형을 기저성조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논의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어간을 포함하여 성조군에 따른 기저성조형의 수를 검토해 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음절 성조군이라면 7가지의 성조형이 확인되었다. HL(가세, 剪), LH(무네, 文魚), HH(머구, 蚊), L·HH((버:리, 蜂), H·LL(메미, 蟬), LL·H(그후, 以後), LH·L(흘띠, 土)이 그것이다. 성조군이 3음절이라면 몇 가지 성조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자. 이를 통해 경북북부지역어 나아가 현대 국어 성조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2장 '성조소 체계'에서 검토한 내용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복합조가 실현되는 환경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임석규(2004가)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먼저 복합조의 실현 환경을 구체화하고 이어서 HH가 2·3음절 이하에서 확인되는 특별한 유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3음절 성조군의 성조형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L·H, H·L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밀리^-'에서와 같이 둘째 음절 이하에서 고저복합조가 실현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저고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것은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다. LL·HH, LLL·HH 등의 성조형은 (64)에 제시된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4) 가. 퍼담ˇ꼬(涵), 퍼다'마 / 따듬ˇ꼬(琢[220]), 따드'머 / 떠도ˇ는(徨), 떠도'라
씨다듬ˇ꼬(撫), 씨다드'머
cf. 담ˇ꼬(涵), 다'마
나. 자룬ˇ다[잘(L)#운ˇ다(泣)], 잘론ˇ다[잘(L)#논ˇ다(遊)]
가지마ˇ고(가지'#마ˇ고), 오지마ˇ고(오지'#마ˇ고)
다. 김병ˇ현, 김세ˇ진, 신진ˇ식(이상 LL·HH)

(64)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 활용형 (64가)에서는 물론 단어 경계 (64나)에서도 둘째 음절 이하에서 저고복합조를 확인할 수 있다.[221] 그뿐만 아니라 성조형 LL·HH는 성명(姓名)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예의 공통점은 저고복합조 앞의 성조가 모두 저조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선행성분에 고조가 놓인 경우는 뒤에 L·H가 있더라도 그 L·H는 저조로 실현되어야 한다. 단, 선행성분이 저조로 실현된 경우에는 둘째 혹은 셋째 음절에서도 저고복합조가 실현된다. 이는 성조배열제약과 관계되는 것이다. 즉 LL·HH, LH·LL, LLL·HH, LLH·LL 등의 성조형은 가능해도 HL·HH, HH·LL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곧 저고복합조나 고저복합조가 2음절 이하에 놓일 수 있는 것은 그 L·H나 H·L 앞이 모두 L인 경우이며, 이론상으로는 L이 저고복합조나 고저복합조 앞에 몇 음절 연속으로 나타나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저고복합조를 독립된 성조소인 상승조라고 한다면 2음절 이하에서도 상승조가 확인되는 LRH, LLRH 등을 성조형으로 제시해야 한다.

---

220)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따듬꼬'의 경우 수의적으로 'LH-', '씨다듬꼬'의 경우 'HLLL~HHLL'로도 나타난다. 이들이 (64가)와 같은 표면성조를 보이는 이유를 'ㅁ'으로 끝나는 '담ˇ(L·H)-', '삼ˇ(L·H)-', '감ˇ(L·H)-' 등과 같은 단음절 어간의 성조형에 유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21) 울진지역어인 경우는 LL·HL, LLL·HL로 실현된다.

한편 경남방언에 대해서는 LHH, LHHL, LHHH 등이 보고되어 있는데 경북방언에서는 그러한 성조형이 몇몇 논의에서만 보고되어 있다.[222]

(65) 가. 꺼머'트'라(黑), 시꺼머'코', 파라'트'라(碧), 세파라'코'[223]
나. 가바'도', 해조'도', 나가'도'[224], 드가본'다', 일라서'도'
다. 더가'시'먼[더(L)#가'시'먼(去), 더뜨'는'동[더(L)#뜨'는'동(碁)]
좀가'시'먼[좀(L)#가'시'먼(去), 좀뜨'는동[좀(L)#뜨'는'동(碁)]
잘가'시'먼[잘(L)#가'시'먼(去), 잘뜨'는'동[잘(L)#뜨'는'동(碁)]
라. 김석'쭈', 최옥'뀨'[225]),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북방언에서는 HHL, HHLL처럼 첫 두 음절에 고조가 연속으로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65)에 제시된 성조형처럼 첫 음절이 저조로 시작하면서 그 후행 음절에 고조가 연속으로 놓이는 것은 경남방언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다. HH에 저조가 선행하는 성조형은 색채형용사의 활용에서(65가), 합성동사의 활용에서(65나), 단어 경계에서(65다), 성명(姓名)이나 도명(道名)에서 확인된다(65라).

(64), (65)에서와 같이 조사항목을 성명, 단어 경계에까지 확대한다면 방언권에 따라 기존에 보고된 것 이상의 성조형이 보고될 수 있을 것이다.[226] 어간 자체의 성조형도 중요하지만 성조군에서의 성조형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227] 경북북부지역어만 해도 성조군이 3음절어인

---

222) 임석규(1999:56, 83), 임석규(2003:45-47), 임석규(2004가:88)에서 몇 예를 제시한 바 있고, '나가드라'류(나가다, 나오다, 나서다, 가보다 등)에 대해서 LHHL이 보고된 바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차균(2002)의 10장·11장, 이문규(2002:123-127)를 참고할 수 있다. 청송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세환(2005:137-138)에서는 단어 경계에서의 '저꼬치가(HHHL)'를 비롯한 몇 예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223) 이 중 '시꺼머코', '세파라코'는 수의적으로 LLHL로도 나타난다.

224) 김성규(1994:52)에서는 '나가-'에 대해 중세국어 당시의 성조형을 통해 통사적 합성어로 이해함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방언성조에서도 동일한 성조형으로 나타나는 '해조'도''를 통해 볼 때 통사적 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문규(2002:125)에서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사이에 약화된 경계를 상정하여 '나가'드'라'류의 성조형을 설명한다. 곧 성조형 자체로는 하나의 어절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한편 평성 어간, 측성 어간으로 분류하는 김차균(2002가:5)에서는 '나가드라'류에 대해 경북북부지역어에 존재하는 특이 성조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22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기상(1999:338-341)에서는 성명의 경우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해당방언권의 화자들은 대체로 동일한 성조형으로 발화한다고 한다. 김석'수', 김동'길, 김동명'의 경우 각각 다른 성조형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화자들은 한자어의 음절 배열에 대한 성조 직관을 가지는 듯하다. 또 임수혁', 임수'철, 임수'미' 등에서도 둘째 음절, 셋째 음절의 한자가 어떤 것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성명에 대해 같은 성조형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유추의 틀을 찾기 어려울 뿐이지 화자들은 음절 배열에 관한 어떤 기준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26) '울다(L·HH), 우러도(HLL, 泣)'와 같이 성조변동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북북부방언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숨따(L·HH~HH), 수머도(HHL, 隱)'와 같은 성조변동도 나타난다. 물론 숨따(L·HH)에서의 복합성조는 중세국어와 비교해 볼 때 특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화자들의 언어 의식을 파악할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깜따(L·HH~HH), 까마도(HHL, 洗髮 또는 閉眼)', '갈다(L·HH~HH), 가라도(HHL, 磨)'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H_2가 복합성조로 바뀌는 경우이다. 젊은층 화자에게서 '도리(生日+이, HH~L·HH)'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227) 성조군의 표면성조를 파악하다 보면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중부방언이라면 이들 중 몇몇은 하나의 기식군으로 인식될 터인데, 성조 방언에서는 두 개의 기식군(성조군)으로 표면성조가 실현된다는 점

경우 LHL(떠도라), LHH(나가도), LLH(버리밭), L·HHL(버리+가), H·LLL(메미+가), HHL(머구+가), HLL(가세가), LLL·H(조금#뒤), LLH·L(그#홀띠) LL·HH(떠도는), LH·LL(홀띠+가) 등 상당히 많은 성조형이 나타난다.[228] '피치-악센트'류라고 하는 언어들에서는 경북북부지역어에서만큼 성조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3.2.2. 어미의 기저형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어미를 대상으로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교체되는 이유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기저성조 설정 방법에 대한 논의는 '3.1.2.2.'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목록만을 열거하기로 한다.

3.2.2.1. 곡용 어미의 기저형

(66가)는 어간의 성조를 변동시키는 어미이고 (66나)는 어간의 성조를 변동시키지 않는 어미이다. (66나)에 제시된 어미의 기저성조는 그것이 1음절이라면 H_2이며, 2음절이라면 H_2H_2, 3음절이라면 H_2H_2L, 4음절이라면 H_2H_2LL이다. (66나)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먼저 제시한다. 편의상 '-'을 생략한 채 제시한다.

(66) 문경지역어
가. 거'치~가'치, 보다^, 인'데~인'테~한'테, 뻬'께~뻬'끼~뻬'이, 메'둥~마'둥, 버'터~버'텀도, 꺼'지~꺼'정~꺼'짐, 만'치~만'침~멘'치~메'치~메^로, 망'쿰~멩'쿰, 하'고
나. 도, 만, 으로, 이~가, 얼~럴, 언~넌, 에다가, 에, 에서, 이쎄~일쎄, 이야~이사, 이라도~이레도, 이나따나~이나마나, 이라(y)요, 일끼라요~이끼라요[229]

(67) 영주지역어
가. 거'치~가'치, 보다^, 인'데~인'테~한'테, 뻬'께~뻬'끼~뻬'이, 메'둥~마'둥, 꺼'지~꺼'정~꺼'짐, 버'터~버'텀도, 만'치~만'침~멘'치~메'치~메^로, 망'쿰~멩'쿰, 하'고,
나. 도, 만~마, 으로, 이~가, 얼~럴, 언~넌, 에다가, 에, 에서, 이쎄~일쎄, 이야~이사, 이라

이 특이하다. 3음절 성조군이라면 고저복합조 다음에는 저조가 둘이 놓여야 하는데 H·LHL로 실현된 것이 문제이다. 내부에 단어 경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킬#난다(H·L#HH)~클#난다(H·L#HH)', '네#뻰ˇ다(H·L#L·HH)' 등을 포함하여 '아라#주다(HL#HL)', '자바#가주고(HL#LHL)', '껀제#네^따(HL#H·LL)', '너머#질ˇ라꼬(HL#L·HHL)', '올라#가자(HL#HL)', '자#먹짜(H·L#HL, 잡아 먹자),' '꾸먹꼬(H·L#HL, 炙)', '자바#노코(HL#HL)', '울러#미고(HL#L·HL)[cf. 밤(食)#머거(H#HL), 중(粥)#머거(H#HL)]'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영주지역어의 어형을 대표로 제시한 것이다.

228)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의 수를 '음절수+2'라고 한 논의(김영만 1986:28, 김주원 2000:96)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229) 어미가 결합한 복합어미도 여기에 제시한다. 이하 동일한 관점을 유지한다.

도~이레도, 이나따나~이나마나, 일께레요~이께레요, 이레요

(68) 울진지역어

가. 거'치~가'치, 보다^, 인'데~인'데~한'데, 빼'께~빼'끼~빼'이, 버'터~버'텀도, 꺼'지~꺼'정~꺼'짐, 메'둥~마'둥, 만'치~만'침~멘'치~메'치~메^로~마이로, 망'쿰~멩'쿰, 하'과~하'가[230]

나. 도, 만~마, 으로, 이~가~이가, 어ꝏ러~오ꝏ로,[231] 언~넌~어~너~이너~이넌~이노,[232] 에다가, 에, 에사, 이쎄~일쎄, 이야~이사, 이라도~이레도, 이나따나~이나마나, 일께레요~이께레요, 이레요

3.2.2.2. 활용 어미의 기저형

(69가)는 어간의 성조를 변동시키는 어미이고 (69나)는 어간의 성조를 변동시키지 않는 어미이다. (69나)에 제시된 어미의 기저성조는 그것이 1음절이라면 H_2이며, 2음절이라면 H_2H_2, 3음절이라면 H_2H_2L, 4음절이라면 H_2H_2LL이다. (69나)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먼저 제시하고 차례로 어미 '으X', 어미 '아(X)'를 제시한다. 편의상 '-'을 생략한 채 제시한다.

(69) 문경지역어

가. 더'라, 넌'다(꼬)~넌'데이, 던'지~덩'가, 넌'지~넝'가, 거'라, 거'던~거'덩, 기'다(기에), 지'(부사형 어미), 디^, 심미'까, 니'라꼬~너'라꼬, 넝'갑, 넌', 던', 두'룩, 구'로,

나. ㉠ 고서로~고서~고설라메, 나, 노, 지~제(종결어미), 고, 데, 게, 세

㉡ 어까~얼까, 어꼬~얼꼬, 어이~어니~엉께[233]~엉까네~엉께로~어께~어이께, 어먼~어만(서), 얼라먼, 업씨다, 어로, 어께라~어끼라, 얼라카니, 얼레, -어미, 으입시다

㉢ 아서~아서로~아설라메, 아도, 아야, 아여, 아요, 아, 아라, 아씰낀데~아씨낀데, 았

(70) 영주지역어

가. 드'라, 는'다(꼬)~는'데이, 든'동~등'가, 는'동~능'가, 그'라, 그'든~그'등, 지'(부사형 어미), 기'다(기에), 디^, -니'껴,[234] 니'라꼬, 는', 던', 두'룩, 그'러, -시'더

---

230) '네하'과 니하'과'는 영동방언에서도 확인되는데 '-하고'와 '-과'의 혼효형(blending)으로 판단된다.

231) 사'노(山+을), 부'로'(火+을), 나˘로(我+를) 와 같이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대격조사가 '-오' 또는 '-어',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로', '-오'가 선택되는 이른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232) 중부방언의 '성+은'은 울진지역어에서 '써˘이노(성+이는)'로도 나타난다. 아울러 '어'가 '오'로 실현되는 예로는 '오'둘로~오둘'로', '오'에'', '오'뜬'사람'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두 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모^든지(뭐든지), 모^시기(머슥), 모^노(뭐냐) 등도 울진지역어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꽁(H_2, 雉), 데˘골(大闕), 꼰˘투(拳鬪) 등은 영주·울진지역어에서 공히 확인된다. 또, 울진지역어의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호화스럽-'에 대당하는 형태를 '홍아시'럽-~호항시'럽-'처럼 비음을 추가해서 발화한다는 것이다. 경북북부의 한 지역인 '봉화(지명)'를 '봉˘항'으로 발화하기도 했다. 이는 비모음화와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겠다. 어미 '-만'을 '-마'로 '-이넌'을 '-이너' 등으로 발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33) 전남방언의 '강께(去)', '항께(爲)' 등이 문경지역어(울진에서도 약간 나타남)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나. ㉠ 고서, 나, 노, 지~제(종결어미), 고, 데, 게, 세

㉡ 으꼬~을까, 으까~을까, 으이~으니~으이께네, 으면, 을라먼, 읍씨데이, 으로, 으께라~으끼라, 을라그이, 을래, 을라(이)껴, 으면서

㉢ 아서, 아도, 아야, 아요, 아, 아라, 아씰껜데~아씨껜데, 았

(71) 울진지역어

가. 더'라, 넌'다(꼬)~넌'데이, 던'동~던'도~던'지~덩'가, 넌'동~넝'가, 거'라, 거'던~거'덩, 지'(부사형어미), 기'다(기에), 디^, 심미'까, 니'라꼬~너'라꼬, 넌', 던', 두'룩, 거'로, 장가[235], -시'더

나. ㉠ 고사, 나, 노, 지~제(종결어미), 고, 데, 게, 세

㉡ 어까~얼까, 어꼬~얼꼬, 어이~어니~어이까네~어이까레~어이꺼네, 어먼~어머~으모~어민사~어미사,[236] 얼라먼, 업씨다, 어로, 어께라~어끼라, 얼라카니, 얼레, 얼라이껴

㉢ 아사, 아도, 아야, 아요, 아, 아라, 아씰낀데~아씨낀데, 았

---

234) '-니껴'보다 상위의 높임표현으로 이두 '在'의 대응형이 있다. 小倉進平(1944)에는 '와겠소, 와겐니껴(영주, 예천, 안동, 청송)'와 같은 형태가 보고되어 있다. 지금은 '와겠소'는 듣기 어렵고 '와'겐'니껴', '오'겐'니껴' 정도를 들을 수 있다. 반촌 지역의 말인 듯하다. 울진, 문경지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235) '-장가'는 '-지 않은가'의 문법화된 형태이다. '먹짱'가', '가장'가' 등 발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미이다. 이 어미는 영동방언에서도 확인된다.

236) 중부방언 '가면서', '오면서'에 대당하는 형태는 '가'민사', '오'민사' 등이 확인된다.

4. 음소변동

4.1. 교체

교체는 어간말 또는 어미초 음소의 영향으로 어떤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과정이다. 먼저 어미 '아(X)'의 교체에 대해 검토해보자.

4.1.1. 어미 '아(X)'의 '어(X)'화

활용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 '-아(X)'에는 크게 연결어미 '-아도, -아서, -아야'와 종결어미 '-아',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 명령형 어미 '-아라' 등이 있다. 필자는 대체로 어미 '아(X)'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기에서는 종결어미의 '-아'를 고려하여 어미 '아(X)'라고 부르기로 한다.[1]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명령형 어미 '-아라'를 어미 '아(X)'에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임석규(1999:76)에서 지적한 대로 명령형 어미 '-아라'는 '-아라'를 제외한 '아(X)'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 이유는 중세국어의 후의적 성조(金完鎭 1977/73)에 대응하는 용언 '가-(去)'의 활용형 중 '가도, 가서, 가따'는 그 표면성조가 'HH'로 나타나는 반면 명령형 어미가 통합된 '가라'는 'L·HH'로 나타나기 때문이다.[2] 이러한 성조 패턴을 보이는 용언들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를 비롯하여 '오-', '보-' 등 꽤 많이 확인된다. 이는 비단 동남방언에서뿐 아니라 음장방언에서도 확인된다.[3] 이런 점에서 어미 '-아라'는 원칙적으로 어미 '아(X)'에 포함될 수 없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아(X)'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한다. 단, '-아라'와 다른 어미의 차이를 언급해야 할 때에는 그것을 명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어미 '아(X)'를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먼저 울진지역어에서는 단음절이면서 개음절인 어간과 통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어미가 항상 '아(X)'로 실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곧 폐음절 어간인 경우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아(X)'로 실현되고, 개음절 어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Xu'로 끝나는 2음절인 경우도 '이우+아사→이'와사(誦)'와 같이 '아(X)'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아(X)'가 실현되는 환경이 '어(X)'로 실현되는 환경에 비해 수적(數的)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4] 영주지역어와 문경지역어에서의 이 어미는 환경에 따라 '아(-)'로 실현되지 않기

---

1) 어미 '아(X)'의 다른 표현으로 모음어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원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모음어미,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자 한다.

2) 간접명령형 '가라' 또는 인용을 나타내는 '가라고'의 성조는 각각 HL, HLL이다.

3) 이는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을 연구한 김봉국(2000:12), 중국 연변 지역의 말을 연구한 최명옥(2000:31), 서울지역어를 연구한 유필재(2001:14)에도 언급되어 있다.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종결어미 '아'와 연결어미 '아'를 구분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전주지역어를 연구한 최태영(1981:98-100), 전남 화순지역어를 논의한 정인호(1995:56-57), 강원 남부 지역 방언을 연구한 김봉국(2002:9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도 하지만, 'Xu(X)'로 끝나는 2음절 어간에서는 '베우아도→베'와도~베'아도(學)', '바꿓아도→바꽈^도~바까^도(換)'에서처럼 항상 '아(-)'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 어미의 기저형을 '어(X)'로 설정할 때보다는 음운과정의 기술이 상당히 경제적이다.[5] 울진지역어에서처럼 수적(數的)으로 볼 때, '아(X)'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는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우세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지역어에 따라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6] 세 지역어에서도 어미 '아(X)'는 어간말 모음의 환경에 따라 교체되는 양상이 다르다. 먼저 폐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서 개음절 어간의 교체 양상, 후음 말음 어간의 교체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어간말모음 'E'를 제외한 폐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을 먼저 살펴보자.

(1) 어간말모음 'E'를 제외한 폐음절 어간인 경우

	영주/문경(문경 'ɜ'는 편의상 '으'로 제시)	울진
가.	쌂+아도→쌀'마도	쌈ㅁ+아도→쌈'마도(蒸, 쌍ˇ꼬[7])
	짝+아도→짜ˇ가도	짝+아도→짜ˇ가도(小, 작ˇ꼬)
	꼬잡+아야→꼬자'바야[8]	꼬잡+아사→꼬자'바사(꼬집-, 꼬작'꼬)
	꼽+아도→꼬'바도	꼽+아도→꼬'바도(揷, 꼭'꼬)
	솔+아서→소'라서	솔+아사→소'라사(峽, 소ˇ제)
	들뿕+아도→들뽀'까도	덜뿕+아도→들뽀'까도(들볶-, 덜뽁'꼬)
나.	썪+아도→썪어도→써'꺼도	썪+아도→써까도(混, 썩'꼬)
	숨+아도→숨어도→수'머'도	숨ㅁ+아도→숨'마'도(隱, 숨'꼬')
	묶+아도→묶어도→무'꺼도	뭉ㄲ~묶+아도→뭉'까도~무'까도(束, 뭉'꼬~묵'꼬)

4)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아'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경북 서부의 김천지역어의 경우에는 기저형을 '-어'로 설정하기도 한다(이혁화 2005:75).

5) 경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서재극(1969:91-92), 최명옥(1982:47-50)에서는 폐음절 어간의 경우, 경주지역어의 어미 '아(X)'가 대체로 '아'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 향가에서도 어미 '아(X)'의 대당형(可, 良, 惡, 沙, 波, 多)을 제시하고 있다.

6) 경북북부지역어 또는 그 인접지역어에서의 어미초 '아'의 교체 양상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환경별로 교체 양상을 철저히 밝힌 그다지 많음을 알 수 있다. 문경지역어를 연구한 민원식(1982:66-68), 이시진(1986:22-30)에서는 '좁(峽)+아', '잡(獲)+아' 등 폐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이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다. '기+아(匍)', '메+아(束)', '놓+아(放)'류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후음으로 끝나는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이 주로 제시되어 있다. 울진지역어를 연구한 주상대(1989:103-104)에서는 – E 폐음절 어간에서의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 모음조화를 잘 지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해안가 마을에서는 폐음절 어간에서 '너'마도', '우'사도'로 실현됨을 언급하고 있다. 안동지역어를 연구한 서보월(1984:23-27), 조신애(1986:16-27)에서는 그 교체 양상이 환경별로 잘 나타나 있다. 교체 양상이 대체로 영주지역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주지역어와 다른 점은 '뻬'서라(奪), 베'터라(吐), 메'저라(結)'와 같이 폐음절 어간의 말음절 모음이 E인 경우이다. 의성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신승원(1982:17), 신승원(2000:136-139)에서는 '마'가(防), 베'타(서부 지역 면)', '마'거, 베'터(중부, 동부 지역)'와 같이 면 단위에 따른 교체 양상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청송지역어를 연구한 김세환(2005:45-56)에서는 'ㅎ'을 제외한 폐음절 어간에서는 모두 '노'거라(溶), 까'머'라(洗), 메'저라(結)'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7) 이하에 제시된 자음어미와 통합한 어형들은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에도 적용된다. 단 '뭉'꼬'는 울진지역어에서만 확인된다.

8) '꼬자바야' 이하에 제시된 '들뽀까도', '까부러서', '일찌거도', '께꺼저도', '멩거러도'는 문경지역어에서 모두 LLHL로 실현된다. 문경지역어에 존재하는 율동규칙 때문이다.

까불+아서→까불어서→까부'러서	까불+아사→까부라사(箕, 輕, 까부'지)
씩+아도→씩어도→씨'거도	씩+아도→씨가도(冷, 씩'꼬)
일찍+아도→일찍어도→일찌'거도	일찍+아도→→일찌'가도(早, 일찍'쩨)
들ㅎ+아도→(---)→드'러도	덜ㅎ+아도→덜아도→더'라도(聞, 덜'찌)
께끚/께껒+아도→(---)→께끄'저도	께껒+아도→께꺼'자도(精, 께껃'쩨)
멩글+아도→멩그'러도9)	멩걸+아도→멩거'라도(造, 멩거'제)

(1)은 폐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을 제시한 것인데, (1가)를 통해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나)에서는 울진지역어에서만이 '아(X)'가 교체되지 않고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폐음절 어간인 경우 울진지역어는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10) 다만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어간 말모음의 환경에 따라 '아(X)'의 교체 양상이 다르다. 어간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는 '아(X)'가 교체되지 않으며, 어간 모음이 '아'나 '오'가 아닌 경우에는 '아(X)'가 교체되는 것으로 일반화된다. 이는 모음조화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된 것이다.11)

---

9)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어간 '따듬-(琢)', '씨다듬-(撫)', '보듬-(包)'과 어미 '아(X)'의 교체 관계이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이들이 모두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지만 영주지역어나 문경지역어에서는 '어'로 교체된다. – 서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이승재(1980:88-90), 소강춘(1983:33), 심병기(1985:30-31), 배주채(1998:72-73), 김옥화(2001:67-68) 등과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정승철(1995:115-128)에는 '다드마', '맹그라', '가느라'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과 같은 어미의 교체는 경북 북부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물론 영주지역어에서 '따드'마도', '씨다드'마도', '보드'마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고형과 개신형의 관계인지, 반촌지역어와 민촌지역어의 혼재 양상인지 결론짓기 어렵다. 어미의 교체와 관련하여 '비'라멀~비'라머글'은 울진지역어에서뿐 아니라 영주나 문경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욕설 관련 형태들은 아무래도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문경지역어의 '쌂'안물(삶은물)', '볶'안걸(볶은 걸)'은 발화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영주지역어의 '쌀'만는물', '뽀'깐는걸'에 대당한다.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았-'과 관형사형어미 '-는'이 통합된 어형과 관련될 수 있다. 문경지역어의 '-안'은 '-았는'이 문법화된 형태일 수 있다.

10) 울진에서의 주조사지점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해안가 마을 온양리라고 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농촌(고목리)의 경우는 온양리에서 '아'로 실현되는 것이 '어'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해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서면 쪽에서는 영주지역어의 어미 교체와 상당히 비슷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경북 영덕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최명옥(1980)을 들 수 있다. 최명옥(1980:161)에서는 어촌에 접한 농촌의 화자들이 어간 모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어'를 사용하는바 그것은 인접한 어촌 화자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최명옥(1992나/1998다:360-363)에서 음운, 형태, 어휘면의 차이로 보다 구체화된다. '하나의 사회적 자체확인(social identification)의 표지'와 관계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익섭(1976:83-92)에서는 어촌방언권이 따로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직업보다는 계층의 차이가 농촌과 어촌의 방언분화에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라 하였다. 한편, 오종갑(2003:90-94)에서는 어촌지역어의 경우, '영덕, 울진, 삼척지역어'가 '강릉지역어'와 다른 방언권을 형성하고 농촌지역어의 경우는 '영덕, 울진지역어', '삼척, 강릉지역어'가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신파의 경로 차이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온양리와 고목리에서 확인되는 차이 몇몇을 더 언급하고자 한다. 중부방언의 '닭-'이 온양리에서는 '담'마도', '담˘꼬', '담'무모'로 발화되고, 대격과 주제격 어미가 고목리에서는 '-어∽-러'인데 비해 온양리에서는 '-오∽-로'인 점이 특이했다[꼬'터/꼬'토(花), 나˘러/나˘로(我)]. '-오'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로'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결합하는 대격어미이다. 울진 농촌 지역어에서는 '니하'가(너와)', '나다'라'(놔둬라)', '자네'말캉~자네'말칸' 등이 실현되지 않는 듯하며, '곡용에서의 활음화' 또한 그 실현 양상이 어촌 지역에 비해 불규칙하며, 'L·HL' 성조배열 또한 더러 'L·HH'로도 실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11) 중부방언을 대상으로 한 김완진(1971:31)에서는 모음어미 '-아/어'는 정서법상으로 채택되어 있을 뿐이

주지하듯이 이 세 지역어는 모음 ‘애’와 ‘에’가 중화되어 모음 ‘E’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간말 모음이 ‘E’인 활용 어간의 경우 ‘아(X)’가 어떤 교체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어간말모음 ‘E’를 지닌 폐음절 어간

영주/울진	문경
뻿+아도→뻬'사도	뻿+아도→뻬'서도(奪, 뻴ˇ쩨)
벹+아도→베'타도	벹+아도→베'터도(唾, 벹ˇ쩨)
멫+아도→메'자도(結)	멫+아도→메'저도(結, 멫'쩨)

(2)에 제시된 어간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기 때문에 울진지역어에서는 당연히 어미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문경과 영주지역어에서의 교체 양상이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주지역어에서는 어미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나, 문경지역어에서는 수의적이기는 하나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간말모음이 ‘e’인 폐음절 어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멫-’과 같은 폐음절 어간에서의 어미 ‘아(X)’의 교체가 ‘E’로 합류되기 이전의 어간(‘맺-’)에 따른 것이라 이해된다. 문경지역어에서의 수의성은 경북서부방언에서 더러 확인되는데 중부방언과 접촉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실 개음절 어간에서의 교체는 폐음절 어간에서보다 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세 지역어의 자료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예를 (3)에 제시한다.

(3) 개음절 어간(공통자료)

가. 사+아도→사'도'(買) 꼬+아도→까'도'(索)

나. 서+아도→서'도'(立) 끄+아도→꺼'도'(消)

이+아도→이어도→여'도'(戴) 기+아도→기어도→기^도(匍)

꾸+아도→꾸어도→꿔도→꺼'도'(貸)

께+아도→ 께어도→ 께에도→께^도(破)

께+아도→ 께어도→ 께에도→께ˇ도(覺)

(3)에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의 모음이 ‘아’와 ‘오’인 경우에는 ‘아

지 실제는 ‘어’ 쪽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현재의 자연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아/어’는 오히려 모음조화를 철저히 파괴하는 어미로 간주될 수 있다. 어간 모음이 ‘아’인 경우, 어미가 ‘어’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방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원에서 간행한 ≪한국방언자료집≫을 통해 볼 때 ‘꼬저(揷)’로 나타나는 지역은 ‘가머(絲)’로 나타나는 지역에 비해 그 분포가 좁다(하신영 2004:14-23). 이러한 점은 이미 19세기 문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9세기 자료의 모음조화를 검토한 이병근(1976/1979:135)에서도 활용 어간의 경우 ‘이, 에, 애’ 및 ‘외, 위’ 등의 전설모음 계열 다음에서는 ‘-어’만이 실현된다고 했으며, ‘으, 우, 어’도 역시 ‘-어’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어간 모음이 ‘아’, ‘오’인 경우에만 어미 ‘아’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어간말모음이 ‘아’인 경우조차도 ‘ᄎᆞ저’를 통해 수의적으로 ‘어’로 나타남을 언급하였다. 19세기 문헌 자료를 활용한 최명옥(1992:60-61)에서도 ‘앉-어’와 같은 예 몇몇이 제시되어 있다.

(X)'가 교체되지 않으며, 어간 모음이 '아'나 '오' 이외인 경우에는 교체되어 나타난다. 'E'인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교체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에 의한 완전순행동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폐음절에서 영주지역어와 문경지역어가 차이를 보인 것은 어간 모음에 'E'가 개재된 경우였다. 영주지역어의 경우, 폐음절 어간에서는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 반면 개음절 어간에서는 교체되어 나타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어간이 '아'나 '오'로 끝나지 않는 경우, 어미가 교체되어 나타나므로 개음절과 폐음절에서의 교체 양상이 판이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우'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과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을 보인 것이다.

(4)	문경/울진	영주
가.	휘+아도→휘'와도~휘'아도	후우+아도→후'와도~후'아도(曲)
	이우+아도→이'와도~이'아도	에우+아도→에'와도~에'아도(誦)
	시우+아→시'와~시'아	서우+아→서'와~서'아(停)
	장구+아도→장가^도	창구+아도→창가^도(閉)
나.	수우+아도→수ˇ와도~수ˇ아도	수우+아서→수ˇ와서~수ˇ아서(易)
	이루우+아도→이'루와도~에'루아도	에루우+아도→에'루와도~에'루아도(難)
	기루우+아도→기'루'와~기'루'아(戀,苦,貴,騷)	게로우+아도→게'로'와~게'로'아(戀, 苦)
	네루우~메루우+아→네루'와~메루'와[12]	네루우~메루우+아→네루'와~메루'와(尿)

앞서 '우'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에서는 '아(X)'가 교체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4)를 통해볼 때 '우'로 끝나는 2음절 어간에서의 '아(X)'는 교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은 대체로 간단하게 일반화될 수 있었다. 사실 위에서 필자는 의도적으로 '지/치/찌-'류의 어간과 '보/주-' 등의 후의적성조형에 대응하는 어간들을 제외하고 기술하였다. 이런 어간들에서의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면 그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치/찌-'류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자.

(5)	문경	영주/울진
	저고, 저야(負)	지고, 저야
	처고, 처야(打)	치고, 처야
	쩌고, 쩌야(蒸)	찌고, 쩌야(이상 HH)

(6)	문경	영주	울진
	껀지고, 껀지서(捕, 이하 HLL)	껀제고, 껀제서	껀지고, 껀제사
	떤지고, 떤지서(捕)	떤제고, 떤제서	떤지고, 떤제사
	깝치고, 깝치서(서둘다)	깝체고, 깝체서	깝치고, 깝체사
	널찌고, 널쩌서(落)	널찌고, 널저서	널찌고, 널쩌사
	탈ˇ치고 탈ˇ치서(건드리-)	탈ˇ체고 탈ˇ체서	탈ˇ치고, 탈ˇ체사

12) '네X-~메X-'는 '넵-(H_1, 煙)~멥(H_1)-~네굽'-(문경·울진)', '네그릅'-~메그릅'-(영주)'에서도 확인된다.

삐'치고 삐'치서(토라지-)　　　삐'지고 삐'저서　　　삐'치고, 삐'처사

(5), (6)에 제시된 예에서 첫 번째 활용형은 자음어미가 통합된 것이고 두 번째 활용형은 모음어미가 통합된 것이다. 모음어미와의 통합형들을 통해 우리는 세 지역어 공히 어미 '아(X)'가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에서는 '지-'의 경우를 대표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저+아서→저어서→저서'와 같이 어미가 교체된 후 동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주와 울진 지역어의 경우는 '지+아서→지어서→져서→저서'와 같이 어미가 교체된 후 활음화 과정, 활음 탈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형이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에 제시된 문경지역어의 '껀지서', '떤지서'는 '껀/떤지+아서→껀/떤지어서→껀/떤지이서→껀/떤지서'와 같이 어미가 교체된 후 교체된 모음이 어간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고, 연이어 동일모음이 축약되어 도출된 것이다(4.1.2. '완전순행동화' 참조).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껀제+아도→껀제어도→껀제에도→껀제도'와 같이 어미 '아'가 교체되고 교체된 모음이 어간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된 후 동일모음이 축약되어 도출된다.(4.1.2. '완전순행동화' 참조).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껀지+아사→껀지+어사→껀져사→껀제사'와 같은 과정으로, 즉 어미가 교체된 후 활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축약되어 표면형이 도출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고 '이'를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서의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은 앞서 (1)~(5)의 자료를 통해 일반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 말음 단음절 어간은 없다는 것이다.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어간 'Xi'는 모두 'XƎ'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또 특이한 것은 영주지역어의 재구조화이다. 2음절 이상의 어간인 경우 'Xi'에서 'XE'로 재구조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3장 참조). 문경지역어나 영주지역어의 경우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 말음 어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6)에서와 같이 단음절 어간이 아니고 2음절 이상의 어간이라면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이' 말음 어간은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영주지역어의 경우도 '등지'고, 등저'도', '민찌'고, 민쩌'도', '무'너지고, 무'너저도'처럼 기저형을 'Xi(X=치경구개음)'로 설정할 수 있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이 확인된다. 이는 화자들이 형태소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어간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단음절 어간과 음운 현상의 측면을 동일시하게 된다. (6)에도 'Xi(X=치경구개음)' 어간이 제시되어 있다. '널찌-'와 '삐지-'는 '무너지-'와 같이 기원적으로 '-어지-'가 통합된 구성으로 이해된다. '널찌-'는 전남방언의 '너러지-'와 관련지을 수 있고, '삐'지-'는 수의적 교체 어간인 '삐^지-'와 관련지을 수 있는바, 모두 '-어지-'의 통합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어지-'의 '어'가 완전순행동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중세국어의 후의적성조형에 대응하는 '가-'류 어간에서 어미의 교체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다음은 후의적 성조 패턴에 대응하는 동사 중 어간 말음이 '오'나 '우'인 예들이다.

(7)　　　문경·영주13)　　　울진

가. 보+아도→봐ˇ도~봐'도'~바ˇ도~바'도'(見, 공통자료)

나. 주+아도→주어도→줘도→조ˇ도~조'도'(授)　　주+아도→좌도→자ˇ도~자'도'(주'고)

두+아도→두어도→둬도→도ˇ도~도'도'(置)　　두+아도→돠도→다ˇ도~다'도'(두'고)

누+아도→누어도→눠도→노ˇ도~노'도'(尿)　　누+아도→놔도→나ˇ도~나'도'(누'고)

cf.[14] 쏘~싸+아도→싸도(射, 쏘'고'~싸'고')　　쑤+아도→쏘'도'(쑤'고')

꾸+아도→꾸어도→꿔도→꺼'도'~꼬'도'(借, 공통자료)

(7가), (7나)에서의 어미 교체는 의외로 간단하게 기술될 수 있다. 어간말음이 '오'인 경우에는 어미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고 어간말음이 '우'인 경우에는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어미가 교체되어 나타나며 울진지역어에서는 교체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꾸-'에서의 교체 양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울진지역어에서의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논의의 정밀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는 표면성조를 고려해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미 '아(X)'의 교체는 (7)에 제시된 용언류를 제외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모음어미의 교체 양상은 (1)~(5)의 자료를 통해 일반화한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기존의 주장과 달리 (7)에 제시된 예들은 사실 공시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 문경이나 영주지역어인 경우 '오'를 말음으로 하는 '쏘-',[15] '우'를 말음으로 하는 '꾸-'에 '아(X)'가 결합된 활용형은 '싸'도'', '꺼'도''로서 저고복합조가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중부방언의 경우, 보상적 장모음화라고 해서 '보+아도→봐:도'를 설명해 왔지만,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저고복합조의 실현이 오히려 일반적인 양상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7)에 제시된 예들을 오히려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려 한다. 특히 (7나)의 표면형을 공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원순성동화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에 그것을 따라서 잠정적으로 공시적인 과정으로 제시해 본다. '주+어→čwə→čwo→čo'와 같이 원순성동화를 적용한다면—물론 이 경우 복합조의 실현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겠지만—단일기저형 '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는 '꾸-'의 경우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울진지역어의 경우도 '꺼'도'(借)'와 비교해 볼 때 '자도', '다도', '나도' 등은 어미의 교체 측면에서 볼 때 특이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았기에 활음화 규칙으로 쉽게 설명될 듯하지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첫째, 다른 두 지역어의 예에서 공시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점, 둘째, '꾸-'에서는 어미 교체가 일어난 점, 셋째, '쑤+아도→쏘'도''에서는 어미 교체도 일어나지 않고 수의적으로 '쏘ˇ도'와 같은 저고복합조도 실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두 지역어와 같

13) 후술하겠지만 (7나)의 경우는 마지막 도출과정에서 '→' 표시를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잠정적으로 '→'를 사용한다.

14)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 성조형이 (7가), (7나)에 제시된 예와는 다르다. 즉 (7가), (7나)는 'H_1'이 확인되는 성조형인데 반해, '쏘-', '꾸-'는 'H_2'가 확인되는 성조형(쏘'고', 쏘'시'니, 싸'도')이다. 특히 전자는 중세국어의 후의적성조형(가'고, 가'시'고, 가'도')에 대응한다.

15) 기저형을 '싸-'로도 설정할 수 있다(싸'고'~쏘'고', 싸'니'~쏘'니'). '쏘-'에 비해 '싸-'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모음어미 통합형을 기준형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은 관점 — 후의적성조형과 관련된 특이한 교체 — 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주고, 주니, 조도'와 같은 패러다임을 화자들이 기억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패러다임 '주고, 주니, 조도'를 통해 기저형을 설정해 보자. 원순성동화마저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합기저형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자음어미 또는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은 '주-'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은 '조-'라 하는 논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로 기저형을 설정한다면 어미 '아(X)'가 통합할 때 '조도'를 이끌어낼 수 없다. 필자가 아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 기저형을 설정할 수 없는 어형인 듯싶다. 이는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가 화자들의 어휘부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 하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조도, 조서, 조라, 조따, 조써'와 같은 활용형이 모두 저장된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듯하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외운다면 그 나머지 동사들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면 오히려 이런 식의 가설도 흥미로울 수 있다. 또 이러한 동사들은 기본 동사들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쓰이게 될 터이고 아울러 이 동사들과 음운론적 환경이 같은 유형들까지도 패러다임 규칙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꼬머'거(구워 먹-), '꼬와'(借, 꾸어 오-), '조^머거(주워 먹-)'와 같은 수의적인 발화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또한 해당 활용형이 그 동사의 패러다임에 전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빈도로 실현되는 듯하다. 패러다임을 외운다는 것이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주-', '조-'의 복합기저형에 어휘부 표시를 특별히 추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조-'는 어미 '아'가 통합된 형태로 기억되는 것이다. 만약 종결어미를 제외하고 어미의 기저형을 '아(X)'로 잡는다면 어미 '아(X)'까지가 포함된 기저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휘부에 특별한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미 '아(X)'의 교체를 논하는 자리에서 복합기저형의 문제로 건너온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합조의 실현을 문제 삼아 (7)에 제시된 어간들을 앞으로 특별하게 취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들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어 자료에서 후음 말음 어간에서의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은 개음절 어간에서의 '아(X)' 교체 양상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래에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과 어미 '아(X)'의 교체 양상을 제시한다.

(8)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폐음절 어간(공통자료)
가. 쌓+아도→싸아도→싸^도(積, 싸'코)
꽇+아도→꼬아도→꽈도→까^도(放, 꼬'코)
줗+아도→줗어도→주어도→주우도→주^도(拾, 주˘꼬)
붛+아도→붛어도→부어도→부우도→부^도(注, 부'꼬)
옇+아도→여어도→→여^도(入, 여'코)
앃+아도→씨어도→→씨이도→씨^도(문·영16), 洗, 씨'코)

16) 문경·영주지역에서도 '씨'꼬' 형태가 수의적으로 확인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씩'꼬', '씽넌'동', '씨'가라', '씨'그머너'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저형을 '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씨'까'도 확인되므로 '씩-'도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있다.

찡+아도→찌어도→→찌이도→찌^도(搗, 찌'꼬)
바렣+아도→바렣어도→바레어도→바레에도→바레^도(望, 바레'코)[17]
나. 이숳+아도→이수아도→이솨^도→이사^도(連, 이수'코)
니룽(문경·울진)/네룽(영주)+아도→니루아도/네루아도→니롸^도/네롸^도
→니라^도/네라^도(降, 니루'코/네루'코)
잡쑿+아도→잡쑿어도→잡쑤어도→잡쏴^도→잡싸^도(食, 잡쑤'코)
찡궇+아도→찡궇어도→찡구어도→찡과^도→찡가^도(夾, 찡구'코)[18]
cf. 든놓+아도→든노아도→든놔^도→든나^도(入, 든노'코)[19]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에서는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단음절 어간인 경우, 개음절 어간과 동일한 교체 양상을 띤다. 즉, 어간 모음이 '아', '오'이면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체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 2음절 어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나)는 'Xuh'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이다. 후음이 없다면 '베우+아→베와'와 같은 유형에 속할 것이다. '우' 말음이 2음절 어간에서 어미가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후음 말음 어간에서의 어미 교체를 개음절 어간에서의 어미 교체와 동일시 할 수 있다.

문제는 울진지역어이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음절 어간인 경우 '아(X)'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폐음절 어간이라도 후음이 말음일 때는 (8가)에서와 같이 어간 모음이 '아', '오'이면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체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체 양상은 (7)에 제시된 어간들을 제외하면 개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상에서 후음인 경우 '아(X)'의 교체는 개음절 어간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음간에서 후음이 탈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후음이 탈락하면 개음절 어간과 동일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7)의 어간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합성용언에 통합하는 어미 '아(X)'의 교체 양상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음절수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에 제시된 어간과 동일한 교체를 보이며 음운과정 또한 동일하다. (9)는 문경/영주지역어 자료이며 (10)은 울진지역어 자료이다.[20]

---

17) 울진지역어에서는 '바렣'-, 문댛'-(문지르-), 빠잏'-(被粉)'과 같은 'ㅎ' 말음 어간이 매우 많이 확인된다.

18) 울진지역어에서는 '찌구'코, 찌가^도' 형태로도 나타난다.

19) '든놓-'은 어미 교체 관점에서 2음절어간으로 파악해도 무방하나, 앞서 살펴본 '등지'-'의 재구조화(등지->등저'-, 지->저-)가 단음절 어간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음절 어간과 음운현상을 동일시해야 한다. 화자들이 형태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든놓-'을 '놓-'과 관련시키는 한 '든놓-'은 온전한 2음절 어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Xoh'로 끝나는 어간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20) 울진지역어의 '날ˇ 따ˇ가, 날ˇ 또ˇ가(나에게 다오)'는 영주와 문경지역어에서는 '날ˇ조, 네인'데조, 네인'데다ˇ고'로 발화된다. '날ˇ 똘ˇ라고(문경)', '날ˇ 뚤ˇ라고(울진)'는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 실현되기도 하는데 영주지역어에서는 항상 '날ˇ 딸ˇ라고'로 실현된다. 제시된 어형들에서의 경음화는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의 경음화 양상(말ˇ또)과 일치한다.

(9) 문경·영주

나두~나뚜~내두~내뚜~냅뚜+아도→나도'도'(이하 성조 동일)~나또도~내도도~내또도~냅또도(놓아 두다, 내버려 두다)

나^주+아도→나^조도(놓아 주다)

네^주+아도→네^조도(내어 주다)

(10) 울진

나두~나뚜~내두~내뚜~냅뚜+아도→나다'도'(이하 성조 동일)~나따도~내따도~내따도~냅따도(놓아 두다, 내버려 두다)

나^주+아도→나^자도(놓아 주다)

네^주+아도→네^자도(내어 주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개음절어간, 후음말음어간

세 지역어 공통: 어간 모음이 '오', '아' 인 경우에는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는다. 'Xu(h)'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과 통합하는 어미 '아(X)'는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 단, 울진지역어의 '주-'류 어간에 통합하는 어미 '아(X)'는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꾸-'와 비교해 볼 때 특이성을 보이는바 이는 중세국어의 후의적성조형에 대응된다.

(12) 폐음절 어간

울진: 어미 '아(X)'는 교체되지 않는다.

문경/영주: 어간말모음이 '오', '아'인 경우 '아(X)'는 교체되지 않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교체된다.

울진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어미 '아(X)'의 또 다른 교체 양상이 있다. 크게 보면 (11), (12)의 일반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싸싸(有), 꼬'바싸(揷), 저'가싸(記), 머^싸(食), 주'가싸(死)'와 같은[21] 발화에서 종결어미 '아'의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자음으로 끝나므로 어미 '아'는 당연히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 후행하는 종결어미 '-아'는 '이'싸서, 꼬'바써, 저'가써, 머^써, 주'가써'에서처럼 '-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바사(입+어서)', '저'가사(적+어서)'의 경우도 '이'버사', '저'거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의성의 정도는 판이하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 후행하는 어미 '-아'의 '-어'로의 교체는 그렇지 않은 것의 비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바사'~'이'버사'의 경우는 전자로의 실현 경향이 강하다. 사실 교육 및 매체의 영향이 없었다면 전자로의 경향이 압도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특히 '무'나지-', '질'라미-', '뿌'라지-', '걸'라미-', '너'마지-' 등의 예가 수의적으로 발화되는 것, '(글) 일'라,[22] 이르'고'와 같은 소위 '르-' 변칙 용언에서도 어미가 교체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 짐작을 가능케 한

21) 편의상 여기에서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22) 르 변칙 동사 중 '이르-' 이외에는 항상 '흘러', '길러' 등으로 실현된다. '일라'는 새로운 어간 '읽+아'에 유추된 것인지도 모르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측을 하지 않기로 한다.

찡+아도→찌어도→→찌이도→찌^도(搗, 찌'꼬)
바렣+아도→바렣어도→바레어도→바레에도→바레^도(望, 바레'코)[17]

나. 이숳+아도→이수아도→이솨^도→이사^도(連, 이수'코)
니룽(문경·울진)/네룽(영주)+아도→니루아도/네루아도→니롸^도/네롸^도
→니라^도/네라^도(降, 니루'코/네루'코)
잡쑿+아도→잡쑿어도→잡쑤어도→잡쏴^도→잡싸^도(食, 잡쑤'코)
찡궇+아도→찡궇어도→찡구어도→찡과^도→찡가^도(夾, 찡구'코)[18]
cf. 든놓+아도→든노아도→든놔^도→든나^도(入, 든노'코)[19]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에서는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단음절 어간인 경우, 개음절 어간과 동일한 교체 양상을 띤다. 즉, 어간 모음이 '아', '오'이면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체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 2음절 어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나)는 'Xuh'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이다. 후음이 없다면 '베우+아→베와'와 같은 유형에 속할 것이다. '우' 말음이 2음절 어간에서 어미가 교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후음 말음 어간에서의 어미 교체를 개음절 어간에서의 어미 교체와 동일시 할 수 있다.

문제는 울진지역어이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음절 어간인 경우 '아(X)'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폐음절 어간이라도 후음이 말음일 때는 (8가)에서와 같이 어간 모음이 '아', '오'이면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체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체 양상은 (7)에 제시된 어간들을 제외하면 개음절 어간에서의 교체 양상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상에서 후음인 경우 '아(X)'의 교체는 개음절 어간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음간에서 후음이 탈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후음이 탈락하면 개음절 어간과 동일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7)의 어간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합성용언에 통합하는 어미 '아(X)'의 교체 양상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음절수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에 제시된 어간과 동일한 교체를 보이며 음운과정 또한 동일하다. (9)는 문경/영주지역어 자료이며 (10)은 울진지역어 자료이다.[20]

---

17) 울진지역어에서는 '바렣'-, 문뎋'-(문지르-), 빠잏'-(被粉)'과 같은 'ㅎ' 말음 어간이 매우 많이 확인된다.

18) 울진지역어에서는 '찌구'코, 찌가^도' 형태로도 나타난다.

19) '든놓-'은 어미 교체 관점에서 2음절어간으로 파악해도 무방하나, 앞서 살펴본 '둥지'-'의 재구조화(둥지->둥저'-, 지->저-)가 단음절 어간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음절 어간과 음운현상을 동일시해야 한다. 화자들이 형태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든놓-'을 '놓-'과 관련시키는 한 '든놓-'은 온전한 2음절 어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Xoh'로 끝나는 어간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20) 울진지역어의 '날ˇ 따ˇ가, 날ˇ 또ˇ가(나에게 다오)'는 영주와 문경지역어에서는 '날ˇ조, 네인'데조, 네인'데다ˇ고'로 발화된다. '날ˇ 똘ˇ라고(문경)', '날ˇ 뚤ˇ라고(울진)'는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 실현되기도 하는데 영주지역어에서는 항상 '날ˇ 딸ˇ라고'로 실현된다. 제시된 어형들에서의 경음화는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의 경음화 양상(말ˇ또)과 일치한다.

(9) 문경·영주

나두~나뚜~내두~내뚜~냅뚜+아도→나도'도'(이하 성조 동일)~나또도~내도도~내또도~냅또도(놓아 두다, 내버려 두다)

나^주+아도→나^조도(놓아 주다)

네^주+아도→네^조도(내어 주다)

(10) 울진

나두~나뚜~내두~내뚜~냅뚜+아도→나다'도'(이하 성조 동일)~나따도~내따도~내따도~냅따도(놓아 두다, 내버려 두다)

나^주+아도→나^자도(놓아 주다)

네^주+아도→네^자도(내어 주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개음절어간, 후음말음어간

세 지역어 공통: 어간 모음이 '오', '아' 인 경우에는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는다. 'Xu(h)'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과 통합하는 어미 '아(X)'는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 단, 울진지역어의 '주-'류 어간에 통합하는 어미 '아(X)'는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꾸-'와 비교해 볼 때 특이성을 보이는바 이는 중세국어의 후의적성조형에 대응된다.

(12) 폐음절 어간

울진: 어미 '아(X)'는 교체되지 않는다.

문경/영주: 어간말모음이 '오', '아'인 경우 '아(X)'는 교체되지 않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교체된다.

울진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어미 '아(X)'의 또 다른 교체 양상이 있다. 크게 보면 (11), (12)의 일반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싸싸(有), 꼬'바싸(揷), 저'가싸(記), 머^싸(食), 주'가싸(死)'와 같은[21] 발화에서 종결어미 '아'의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는 자음으로 끝나므로 어미 '아'는 당연히 교체되지 않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 후행하는 종결어미 '-아'는 '이'싸서, 꼬'바써, 저'가써, 머^써, 주'가써'에서처럼 '-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바사(입+어서)', '저'가사(적+어서)'의 경우도 '이'버사', '저'거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의성의 정도는 판이하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 후행하는 어미 '-아'의 '-어'로의 교체는 그렇지 않은 것의 비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바사'~'이'버사'의 경우는 전자로의 실현 경향이 강하다. 사실 교육 및 매체의 영향이 없었다면 전자로의 경향이 압도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특히 '무'나지-', '질'라미-', '뿌'라지-', '걸'라미-', '너'마지-' 등의 예가 수의적으로 발화되는 것, '(글) 일'라,[22] 이르'고'와 같은 소위 '르-' 변칙 용언에서도 어미가 교체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 짐작을 가능케 한

21) 편의상 여기에서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22) 르 변칙 동사 중 '이르-' 이외에는 항상 '흘러', '길러' 등으로 실현된다. '일라'는 새로운 어간 '읽+아'에 유추된 것인지도 모르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측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다.

4.1.2. 완전순행동화

완전순행동화는 활용의 경우 어미 '-아(X)'와 '-으(X)'의 어미초모음이, 곡용의 경우 '-에(X)', '-으로'의 어미초모음이 어간 모음에 동화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완전순행동화라는 용어는 최명옥(1976)에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이병근(1978:24)에서는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모음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음장방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완전순행동화로 파악하든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모음화로 파악하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23] 성조방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모음화로 기술되기 어렵다.[24]

아래에서는 먼저 완전순행동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에 대해 필자 나름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어서 활용과 곡용으로 나누어 세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를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25]

우리는 지금까지 (13)과 같은 예를 음운론적으로 세 음절로 표시해 왔다.[26]

(13) 공통자료
    가. 안동'(地名)+에→안도'오
    나. 포'항'(地名)+에→포'하'아

비음탈락과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3음절 표면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성조방언에서 복합조 실현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이러한 견해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27] 여기에서는 먼저 성조방언에서의 복합조 실현 환경을 검토해 보고 (13)에 제시된 표면형을 세 음절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또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되는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4) 가. 놀'리(弄)+아도→놀'리도
    나. 자피'(被捕)+아도→자피^도

---

23) 어미초 '으' 탈락은 보상적 장모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 또 탈락하는 자음이 보상적 장모음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이병근 1978:24), 탈락 후 보상적 장모음화를 유발하는 음운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24) 그 이유는 아래에서 구체화된다.

25) 임석규(2006)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필자의 입장으로 삼는다.

26)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박숙희(1999:31-32), 임석규(1999:32-33), 김봉국(2002:155), 김세환(2005:66)에서도 (13)에서와 같이 그 표면형을 세 음절로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정철(1982:108)는 2음절로 표시를 하나 마지막 음절에 항상 ^ 표시를 두고 있어서 필자의 논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27) 미리 밝히자면 비모음화와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의 과정을 차례로 겪은 다음, 성조배열제약에 근거하여 (13가)는 '안도^', (13나)는 '포'하''로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가 성조방언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도^', '포'하''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장음은 복합조에 수반되는 잉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4가)는 '놀'리도'로, (14나)는 '싱키^도'로 그 표면형이 실현되는바 형태소 경계에서는 그 분절음 환경이 동일한데 표면형에서는 복합조—음장방언이라면 장음—실현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어형이 음장방언에도 존재한다면 어미초모음의 탈락으로 기술하든 완전순행동화로 기술하든 기술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음장방언에서 (14)에 제시된 자료를 어미초모음의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장음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순행동화로 기술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28] 그러나 성조방언에서는 이 두 경우 모두를 반드시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일 어미초모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기술한다면 (14나)에 제시된 표면형의 복합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상에서 제시한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조 실현의 환경이 무엇보다 먼저 고찰되어야 한다. 복합조 실현 환경을 토대로 활용과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몽디^(杖)', '궁ˇ디(肛)' 등의 둘째 음절 복합조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또한 논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립쌍도 제시해 볼 것이다.

음장방언과 마찬가지로 성조방언에서도 첫 음절에는 복합조가 올 수 있다. 물론 성조방언에서의 이 복합조는 음장방언의 장음과 동일한 성격을 보이지만 이때의 장음은 복합조에서 파생된 것이다(이기문 1972가:142, 이기문 1972나:153). 그 예로 저고복합조를 가진 말ˇ(言), 감ˇ(柿), 줄ˇ-(縮), 좋ˇ-(好), 고저복합조를 가진 세^(間), 담^(次), 벌^-(得)[29], 끌^-(牽)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복합조 실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복합조 실현은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선행 음절의 성조가 저조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5) 공통자료

가. 퍼담ˇ-(汲, 퍼담ˇ꼬)	떠돌ˇ-(彷, 떠도는)[30]
나. 오세^(最近)	까부는아^-(까부는 아이)

(15가)에서는 복합조 L·H, (15나)에서는 복합조 H·L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조가 2음절 이하에서 실현될 때, 그 앞 음절의 성조는 왜 모두 L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은 지금까지의 자료 보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다. 이는 성조배열과 관련된다.

이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성조배열유형은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시된 성조배열은 성조변동규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영주지역어의 자료를 활용하기로

28) 중부방언에서는 '애'에 의한 완전순행동화가 일반적이다. '보내(送)+어도'의 통합은 어미초모음이 어간말모음에 동화된 후(보내애도) 축약되어 '보내:도'와 같은 형태가 도출되고, 둘째 음절에는 장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표면형이 '보내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29) 울진지역어에서는 '버^리-~버'리-'로 나타난다. '낼^~내^리(明日)'와 분절음 층위에서의 대응관계를 엿볼 수 있다.

30) '씨다듬-'은 'HHL-~LLH-'으로도 실현된다.

한다.[31]

(16) 한 성조군 내에서의 성조배열

가. 특정 음절의 성조가 H인 경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무조건 L이어야 한다.

예) 드'고서도[32](擧), 깜중'예고(整), 저인'소서(정류소에서), 꺼뜩하'먼(걸핏하면)

나. 어느 두 음절의 성조가 HH인 경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L이어야 한다.

예) 지'네'지도(過), 깜'아'쓰녀네사(머리 감은 후에야), 어'쩨'다(어쩌다), 가바'써'도(가봤어도)

다. 특정 음절의 성조가 L·H인 경우 다음 음절의 성조는 H이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L이어야 한다.

예) 안ˇ찌만도(包), 떠도ˇ지도(彷)

라. 특정 음절의 성조가 H·L인 경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L이어야 한다.

예) 끄^지도(牽), 달게^서라도(撫), 데^고(자꾸), 그단세^(그동안, 그사이)

그런데 이상과 같은 성조배열만으로는 복합조 실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16다), (16라)의 둘째 음절에 복합조가 실현되어 있다는 것과 각각의 첫 음절은 저조라는 것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첫 음절의 성조가 L인 경우, 그 나머지 음절에서의 성조배열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 음절의 성조가 L인 경우에는 '께끄'저도(淸)', '꺼메'서'는(黑), 드리박'끄(突), '따둥ˇ꼬도(磨)', '떨리^고도(顫)'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둘째 음절에는 H_1, H_2, L, L·H, H·L 등 다섯 가지 성조가 모두 놓일 수 있다. 복합조 실현 환경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성조 LH_1, LH_2, LL, LL·H, LH·L에 후행하는 셋째 음절의 성조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17) 가. LL인 경우: L·H, H·L, H_1, H_2 모두 가능

예) 드리미ˇ고(推), 떠밀리^고(退), 뿌루주'코(折), 시커메'도'(黑)

나. LL·H인 경우: H_2 예) 떠도ˇ고(磨)

다. LH·L인 경우: L 예) 들라^라(入)

라. LH_1인 경우: L 예) 다르'고(異)

마. LH_2인 경우: H_2 예) 꺼메'도'(黑)

우리는 (16), (17)을 통해 저조(低調)에 후행하는 둘째 음절에서의 복합조(16다, 16라)를, 또

31) 영주지역어의 자료는 성조 측면에서 경북서부방언 혹은 울진지역어에 비해 매우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위방언권에 따라서도 성조에 관한 제약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 제약이 바로 방언구획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제약을 소개한다. 경북 중에서도 낙동강 서쪽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권에서 발견되는 제약을 중심으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경북서부방언에서의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율동규칙, 울진지역어에서의 'L·H 복합조' 뒤에 저조가 놓이는 제약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이 절의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2) 영주지역어에서는 자음어미 앞에서 어간말음 'ㄹ'이 탈락하는 형태가 우세하다.

저조-저조에 후행하는 셋째 음절에서의 복합조(17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성조방언에서의 복합조 실현 환경을 (1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8) 성조방언에서의 복합조는 주로 첫 음절에서 실현되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단, 둘째 음절 이하에서 복합조가 실현되는 경우는 복합조 바로 앞 음절의 성조가 모두 저조인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과정과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완전순행동화 기술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기로 한다.

(19)에 제시된 자료는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음장도 함께 표시해 보기로 하자.

(19) 가. 놀'리+아도→놀'리도(弄)
나. 깔'리'+아도→깔'리'도(尿)
다. 벌ˇ리+아도→벌ˇ리도(列)
라. 자피'+아도→자피^도(被捕)

(19)에 제시된 자료는 모두 'ㅣ'를 말음으로 가진 개음절 어간 각각에 어미 '아(X)'가 통합한 경우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라)의 경우는, (19가)~(19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태소 경계에서는 그 분절음 환경이 같은데 그 표면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 표면형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분절음만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미초모음의 탈락으로는 특히 (19라)의 경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19가)~(19다)에서는 어미초모음의 탈락으로 설명하고 (19라)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게 되면 일관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또 일관된 기술을 위해 성조를 고려하려 한다. 활용 어간의 기저성조 차이가 표면형의 복합조 실현 여부와 관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33] (19)에 제시된 활용 어간 각각의 기저성조는 (19가)가 HL (19나)가 HH, (19다)가 L·HH, (19라)가 LH이다. 특히 어간의 기저성조가 LH인 (19라)의 경우, 표면형에 복합조가 실현된 점이 특이하다. 아래에서는 (19)에 제시된 네 가지 경우에서의 음운과정을 하나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20) 놀'리+아도[34] → 놀'리어도 → 놀'리이도[35] → 놀'리^도(HL·LL) → 놀'리도(HLL)

33) 어간의 성조형과 관련한 이와 비슷한 견해는 최명옥(1978:201)에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복합조가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발전되지 않았다.

34) 필자는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부여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논의를 보다 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여기에서는 어미의 기저성조를 제시하지 않는다.

35) '놀리이도'의 성조를 HLLL로 표시하는 이유는 어간의 첫 음절 성조가 봉우리형 고조(H_1)이기 때문이다. 성조배열제약 (16가)가 적용되면 나머지 음절은 당연히 모두 저조로 나타난다. 또 후행 과정인 '놀리^도'의 성조를 HL·LL로 표시하는 이유는 음절축약과 성조축약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다.

'아(X)'의 교체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 성조배열제약

어간 '놀리-'에 어미 '-아도'가 통합할 때 첫 번째 적용되는 음운과정은 완전순행동화이다. 완전순행동화 후의 음절수는 4음절로 처음 통합에서와 차이가 없다. 동화된 모음은 음절축약으로 인해 3음절 '놀리도'가 중간과정으로 도출되는데, 이 3음절 어형은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제시한 성조배열 (16가)에 의해 그 둘째 음절의 성조는 저조로 변동된다. 성조배열 (16가)가 적용되는 이유는 첫 음절의 성조가 봉우리형 고조(H_1)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음절은 당연히 저조로 실현된다. 그래서 최종도출형은 표면성조가 HLL인 '놀리도'로 나타난다.

(21) 깔'리'+아도 → 깔리어도 → 깔'리'이도 → 깔리^도(HH·LL) → 깔'리'도(HHL)
'아(X)'의 교체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36] 성조배열제약

(20)에서와 마찬가지로 (21)에서 첫 번째 적용되는 음운과정은 완전순행동화이며 동화 후의 음절수는 4음절이다. 동화된 모음은 음절축약으로 인해 3음절 '깔리도(HH·LL)'가 중간과정으로 도출된다. 이 3음절 어형은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조배열 (16나)에 의해 그 둘째 음절의 성조는 고조로 변동된다. 여기에 성조배열 (16나)가 적용되는 이유는 어간 첫 음절의 성조가 다음 음절에도 또 다른 고조를 요구하는 H_2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도출형은 표면성조가 HHL인 '깔리도'로 실현된다.

(22) 벌ˇ리+아도 → 벌ˇ리어도 → 벌ˇ리이도 → 벌ˇ리도(L·HH·LL) → 벌ˇ리도(L·HHL)
'아(X)'의 교체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 성조배열제약

위 두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순행동화 후 음절수는 4음절이며, 동화된 모음은 음절축약에 의해 3음절 '벌ˇ리도'가 중간과정으로 도출된다. 이 3음절 어형은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하지 않기에 성조배열 (16다)에 의해 그 둘째 음절의 성조는 고조로 변동된다. 여기에 성조배열 (16다)가 적용되는 이유는 어간 첫 음절의 성조가 L·H 복합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도출형은 표면성조가 L·HHL인 '벌ˇ리도'로 실현된다.

(23)의 '자피+아도'의 통합은 (20), (21), (22)에서의 과정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바로 (20)~(22)에 보이는 마지막 도출과정인, 성조배열제약에 의한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37] 그것은 음절축약에 의한 어형이 바로 해당 방언에서의 성조배열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자피'+아도 → 자피어도 → 자피'이도(LHLL) → 자피^도(LH·LL)
'아(X)'의 교체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

---

36) 배주채(1994:102)에서도 이를 축약으로 파악한다.

37) 마지막 과정(성조배열제약)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공허한 적용(vacuous application)에 불과한 것이다.

(20), (21), (22) 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출과정은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이다. 완전순행동화가 되면서 음절수는 4음절로 처음 통합에서와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동화된 모음은 음절축약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3음절 '자피^도(LH·LL)'가 도출되고, 이 3음절 어형은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자체로 표면에서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활용 어간이 'E'로 끝나는 경우도 각각 (20)~(23)의 설명과 완전히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24) 가. 만'네+아도→만'네도(遇)
나. 지'네'+아도→지'네'도(過)
다. 놀ˇ레+아도→놀ˇ레도(驚)
라. 문데'[38]+아도→문데^도(磨)

(19)에 제시된 활용 어간 각각의 기저성조는 차례대로 HL, HH, L·HH, LH이다. 각 표면형의 실현을 설명하는 방식은 (20)~(23)에서와 동일하다. (24다)의 경우와 (24라)의 경우만을 비교해 보자.

(25) 놀ˇ레+아도 → 놀ˇ레어도 → 놀ˇ레에도(L·HHLL) → 놀ˇ레도(L·HH·LL) → 놀ˇ레도(L·HHL)
'아(X)'의 교체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성조축약 　 성조배열제약

(26) 문데'+아도 → 문데'어도 → 문데'에도(LHLL) → 문데^도(LH·LL)
'아(X)'의 교체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성조축약

(25), (26)의 차이점은 (26)에서는 (25)에 있는 마지막 도출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제약이 (25)의 마지막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L·H 복합조 뒤에서는 고조만이 놓이게 되어 표면성조가 L·HHL인 '놀ˇ레도'로 도출되는 것이다. 반면 (26)의 경우는 (23)에서와 같이 음절축약 과정에 의한 '문데^도'가,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하기 때문에 축약된 표면형이 그대로 도출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조방언에서의 완전순행동화와 그에 따른 표면형의 도출이 성조배열제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보았다. 비록 중간과정에서는 동화로 인해 복합조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그 복합조는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27)에 제시된 표면형 3음절에 대해 별다른 이견(異見)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

38) 둘째 음절이 경북서부방언에서는 주로 고조로 실현되고 낙동강 동쪽에 위치한 방언권에서는 복합조로 실현되기도 한다. 둘째 음절이 복합조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24라)에 대한 설명이 다소 복잡해진다. 일단 '문데^아도→문데^어도→문데'어도→문데'에도→문데^도'와 같은 복합성조의 고조화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김성규(1987:71-74), 김성규(1988:35)의 지적처럼 단음화는 공시적인 규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합기저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7) 가. 물'통(水桶)+에→물'토오
나. 신'통'(履桶)+에→신'토'오
다. 영ˇ동(地名)+에→영ˇ도오
라. 안동'(地名)+에→안도'오

(27)에 제시된 곡용 어간의 기저성조는 차례대로 HL, HH, L·HH, LH이다. (20)~(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용에서의 동화과정과 비교해 볼 때 (27)에 제시된 표면형은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28)과 같이 표면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자 한다.[39)]

(28) 가. 물'통+에→물'토
나. 신'통'+에→신'토'
다. 영ˇ동+에→영ˇ도
라. 안동'+에→안도^

(28가), (28나), (28다)에서와 달리 (28라)에서는 표면형에 복합조가 실현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8라)의 경우, 처격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의 기저성조가 LH이기 때문이다. 기저성조가 LH라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둘째 음절에 복합조가 실현되는 환경, 곧 첫 음절이 저조라는 조건에 부합한다. 그런데 (28라)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그 어간의 기저성조가 L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28)에서의 표면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29)에 제시된 유사대립쌍으로[40)] 검토해 보자.

(29) 가. 다ˇ노가써←다ˇ농에(地名)##갔'어'(去)
나. 다ˇ노가써←다ˇ##녹'았어(鎔)

(29)의 두 경우는 표면형이 분명 일치한다. 두 경우 모두 첫 음절에는 복합조(L·H 복합조)와 관계된 성조배열 (16다)가 적용되어 둘째 음절은 자동적으로 H, 셋째와 넷째 음절은 자동적으로 L로 나타나야 한다. 기존의 입장처럼 '다ˇ농+에'의 경우를 '다ˇ노오(L·HHL)' 또는 '다ˇ노^(L·HHL)'로 파악한다면 (29)에 제시된 두 경우의 표면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후자는 성조배열유형에서 맞지 않는다. '다ˇ농에##갔어'가 하나의 성조군을 형성할 때에는 '다ˇ노오가써[41)]', '다ˇ노^가써'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ˇ농+에→다ˇ노'의

39) 규칙 적용 전의 어간과 어미의 음절수와 규칙 적용 후 표면형의 음절수를 동일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다. 또 역사적으로 '기야미'와 같이 3음절이었던 것을 현대국어에서도 3음절(게에미)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음절수의 파악은 역사를 배제한 공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40) (29)에 제시된 대립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논자들이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라는 점에서 서구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이런 유형의 대립쌍은 임석규(2003), 임석규(2004가)에 제시된 바 있다.

41) '다ˇ노오(L·HHL)'는 매우 느린 발화, 또 상당히 의식적인 발화에서나 가능하다. 정상적인 발화에서는 나

과정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30) 다ˇ농+에 → 다ˇ노오(L·HHL) → 다ˇ노^(L·HH·L) → 다ˇ노(L·HH)
비음탈락·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 성조배열제약

'다ˇ농+에'의 통합에서 첫 번째 과정은 비음탈락과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이다. 동화된 음절은 음절축약이 일어나 '다ˇ노^(L·HH·L)'와 같은 중간과정을 얻게 된다. 이어 성조배열 (16다)와 관련된 성조변동규칙이 적용되면 L·H 복합조에 후행하는 음절의 성조는 고조로 변동된다. 이 때문에 최종도출형은 '다ˇ노(L·HH)'로 파악해야 한다.

(31)에 제시된 유사대립쌍도 우리의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31) 가. 영ˇ도이써요←영ˇ도(人名)##이'써요
나. 영ˇ도이써요←영ˇ동(地名)+에##이'써요

(31가)와 (31나)는 모두 첫 음절이 복합조(L·H 복합조)로 시작된다. (31가)는 '누가'에 초점을 둔 설명의문문 '안에 누가 있어?'에 대응하는 응답이며 (31나)는 장소에 초점을 둔 설명의문문 '그 사람, 어디에 있어?'에 대응하는 응답이다. 두 경우가 통사적 구성은 전혀 다르지만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표면형이 똑같이 실현된다. 인명(人名)의 '영ˇ도'를 세 음절로 파악하는 논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영ˇ동'과 처격어미의 통합에 결과한 표면형 또한 세 음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표준어인 '몽둥이', '궁둥이'가 '몽디^', '궁ˇ디'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조방언에서의 복합조 실현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조배열제약이 변화의 관점에서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32)는 각각의 패러다임을 나타낸 것이다.

(32) 가. 몽디^가(杖), 몽디^를, 몽디^도, 몽디^는, 몽디^만
나. 궁ˇ디가(臀), 궁ˇ디를, 궁ˇ디도, 궁ˇ디는, 궁ˇ디만[42]

(32)와 같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몽둥'이'와 '궁ˇ둥이'의 변화과정을 (33)에 간략히 보이기로 한다.

(33) 가. 몽둥'이>뭉뒹'이>(---)>몽디'이(LHL)>몽디^(LH·L)
나. 궁ˇ둥이>궁ˇ뒹이>--->궁ˇ디이(L·HHL)>궁ˇ디(L·HH·L)>궁ˇ디(L·HH)[43]

표면형은 같은 두 음절이지만 둘째 음절에서의 복합조는 (33가)에서만 실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어간의 기저성조와 그에 따른 성조배열제약에 기인한다. (33가)는 저조로 시작하는 어

타나지 않는 듯하다.

42) '군ˇ디'로도 나타난다.

43) '-둥이'라도 '쌍둥'이~쌍두'이', '바람둥'이~바람두'이'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이며 (33나)는 L·H로 시작하는 어사이다. 특히 (33나)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저고복합조와 관계된 성조배열제약이 관여하면서 둘째 음절은 평판조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물통', '신통', '영ˇ동'에 각각 처격어미가 통합된 표면형을 세 음절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측면에서 필자의 견해를 다시 (34)에 제시하기로 한다.

(34) 가. 물'통+에→물'토
　　나. 신'통'+에→신'토'
　　다. 영ˇ동+에→영ˇ도[44]
　　라. 안동'+에→안도^

(34라)에서와 같이 어간이 처격어미와 통합할 때 복합조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안동', '청송', '강능'(이상 지명)', '정낭'(便所)', '도장'(印)', '구녕'(穴)'과 같이 기저성조가 LH인 경우, 정거장(停車場), 암마당(場) 등과 같이 기저성조가 LLH 경우처럼 말음절이 H_1으로 끝날 때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45]

지금까지는 완전순행동화를 보는 필자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부터는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완전순행동화에 대해서 검토해보려 한다.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35가), (35나)에서 확인된다. (35)에 제시된 예는 모두 개음절 어간, 특히 'E' 또는 'i'로 끝나는 경우이다. 그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보+아도', '주+아도', '가+아도', '서+아도', '쓰+아도' 등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35) 공통자료[46]

---

44) 이하에서는 장음을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45) 물론 이론상 어간의 기저성조를 LLLH, LLLLH, LLLLLH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기저성조가 LL·H, LLL·H, LH·L, LLH·L 등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46) '띠(H_1, 躍)-', '기(H_1, 匍)-', '께(H·L, 破)-' 등은 '띠'고', '기'고', '께^고'가 일반적이나 '띠^고', '기^고~기'고'', '께'고' 등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어미 '아(X)'와의 통합형을 기준으로 재구조화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재구조화 경향은 'Xi'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의 기저성조가 'H_1'인 용언에서 나타나며 용언 '시-(休)'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L·H'의 성조를 보이고 어미 '아(X)'와 통합할 때에는 'H_1'의 성조를 보이는 어간들에서 나타난다. 이 두 경우의 재구조화는 모두 어미 '아(X)'와의 통합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재구조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석규(2004나)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어간이 대부분이다 보니 심지어 '피-(開花)'처럼 어간이 'H_2'인 경우에까지 적용되기도 한다(피^고, 핀^다. 피^야, 피^도). 3장 '기저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시ˇ고, 시^도'의 어간은 기저형을 '시ˇ-'와 '시'-' 두 가지로 설정해야 하며 '시^고, 시^도'의 기저형은 재구조화된 어간 '시^-' 하나면 충분하다. 필자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바 있다. 제보자들은 특이하게도 '띠^고', '띤'다', '띠^면서', '띠^도'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세국어를 참고할 때 분명 '띠-'는 'H_1'에 대

가. 데(H_1)+아도→데'어도→데'에도→데^도(化, 데'고)
께^+아도→께^어도→께'어도→께'에도→께^도(破, 께^고)
께˘+아도→께˘어도→께˘어도→께˘에도→께˘도(起床, 께˘고)
마'세+아도→마'세어도→마'세에도→마'세도(飮, 마'세고)
나. 띠(H_1)+아도→띠'어도→띠'이도→띠^도(躍, 띠'고)
기(H_1)+아도→기'어도→기'이도→기^도(匍, 기'고),
이^[47]+아도→이^어도→이'어도→이'이도→이^도(葺, 이^고)
비(H_1)+아도→비'어도→비'이도→비^도(枕, 비˘고[48])
피(H_1)+아도→피'어도→피^도(伸, 피'고)[49]
피(H_2)+아도→피'어'도→피˘도(開花, 피˘고)
다. 지(H_2)+아도→지'어'도→져'도'→저'도'(負, 지'고)[50]
찌(H_2)+아도→찌'어'도→쪄'도'→쩌'도'(蒸, 찌'고')
치(H_2)+아도→치'어'도→쳐'도'→처'도'(打, 치'고')
이(H_2)+아도→이'어'도→여도(戴 이'고)[51]

(35가)와 같이 'E'로 끝난 어간과 어미 '아(X)'가 통합할 때의 완전순행동화는 다른 지역어에서도 확인될 만큼 동남방언에서는 일반적인 음운과정이다. (35나)를 통해서는 '이'로 끝난 어간과 어미 '아(X)'가 통합할 때의 완전순행동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최종도출형의 전 단계에서 고저복합조의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성조배열제약과 관련이 있는데, 'H_1' 단음절 어간에서는 모두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이 고저복합조로 실현된다. 어미가 교체된 다음(데'어도, 띠'어도 등) 어미초모음은 어간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된다(데'에도, 띠'이도 등). 그 다음 음절축약과 성조축약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표면형(데도(데^도, 띠^도 등)을 얻게 된다. 또한 고저복합조를 가진 '께^-', '이^-'에서도 표면형은 고저복합조로 실현되는데, 어간의 성조가 그대로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는

응되는 어간인바,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을 기준형으로 하여 재구조화한 활용형들로 발화하다가 특이하게도 현재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띤'다'와 같이 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곡용 패러다임에서 처격어미와의 통합형에 보수적인 형태가 남아 있다면 활용 어간의 경우에는 현재시제어미와의 통합형에 보수적인 형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어떻든 여기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할 것이다.

47) 세 지역어에서 '이우고', '이아라'처럼 기저형이 '이우-'로도 나타난다.

48) 3장 '기저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음어미 앞에서는 저고복합조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고조로 실현되는 규칙 환경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기저어간은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디-'의 기저형을 당연히 '디(H_1)-'로 제시한 것이다.

49) 울진지역어에는 '피'아도'와 '피^도'가 공존한다. ≪훈민정음언해본≫의 '펴아'와 대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50) 이 자료는 영주와 울진지역어의 자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경지역어에서는 이들 어간들이 '지->저-', '찌->쩌-', '치->처-', '이->여-'와 같이 재구조화되었다. 네 어간 중 '지-'는 '보-', '가-'류 어간(후의적성조형)으로서 기저형을 셋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특히 모음어미 앞에서는 'H_2'를 기저성조로 하는 어간이 확인된다. '보-'의 활용형, '바'도'~바˘도', '봐'도'~봐˘도'의 수의적인 형태 '보'아'도'를 고려한 것이다. 반면 '-고'와 통합한 경우는 '지'고', '이'고', '-마'와 통합한 경우는 '지˘마', '이˘마'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5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경지역어에서는 '여(H_2)-'로 재구조화한 패러다임도 확인된다.

고저복합조의 고조화과정(음장방언의 단음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세 지역어에서는 고저복합조를 가진 활용 어간은 모음어미 앞에서 고조로 변동한다는 규칙을 세울 수 있는 바[52] 이 과정은 두 번째 도출 과정(께'어도, 이'어도)에 해당한다. 어미초모음은 선행모음에 동화된 후(께'에도, 이'이도) 음절축약과 성조축약(께^도, 이^도)에 의해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이다.[53] '마'세+아도→마'세어도→마'세에도→마'세도'에서 두 번째 과정의 4음절이 표면형에서 3음절로 변동한 것은 성조배열제약과 관련된다. 어미초모음이 선행모음에 완전순행동화 된 후 (마세에도) 음절축약과 성조축약의 과정(마'세^도)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어간의 성조 패턴이 첫 음절 외에는 모두 저조만을 요구하므로 축약된 성조는 실현되지 못한다(마'세도).

문제는 (35가)의 '께ˇ+아도→께ˇ어도→께ˇ어도→께ˇ에도→께ˇ도(起床)', (35나)의 '피(H_2)+아도 →피'어'도→피'이'도→피ˇ도(開花)'처럼 어간의 기저성조가 'L·H' 또는 'H_2'인 경우이다.[54] 전자는 고정적 상성 어간에 대응하는바, 모든 과정에 저고복합조는 실현된다. 세 번째 도출과정에서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는데, 동화된 모음은 표면형에 실현될 때, 음절축약에 따른 성조축약을 겪게 되는바. 한 음절에 놓일 수 있는 복합조는 L·H 또는 H·L이므로 당연히 전자로 도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축약의 예는 '처ˇ음~첨ˇ'을 들 수 있겠다. (35나)의 '피+아도'에서는 두 번째 과정에서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는데 그 성조가 'HH-'이므로 음절축약에 따른 성조축약은 'L·H'로 나타난다. 5장 '성조축약'에서 논의되겠지만 'HH-'의 'L·H'로의 축약과 관련된 예로는 '이'아'이~이'아'~야ˇ', '저'아'이~저'아'~자ˇ'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HH-'가 아닌 '그아'이~그아^~가^'에서는 'L·H' 실현이 확인되지 않는다.

(35다)에 제시된 예는 'ㅣ'로 끝나는 어간이지만 완전순행동화 과정과는 관계없다. 음절말 모음이 같은 환경인 (35나)와의 비교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35다)의 과정은 어미 '아(X)'가 교체되고 활음화 과정을 겪은 다음, 활음이 탈락하는 것이다. 활음이 탈락하는 이유는 (35다)의 어간에 개재된 경구개 자음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최명옥 1982:107). 경구개음이 개재되지 않는 '이(戴)+아도'에서는 당연히 활음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35다)처럼 활음화를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35다)에 제시된 어간을 통해 볼 때 활음화와 관개하는 어간은 경구개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아니면 음절초자음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남방언이라면 '지(H_1, 握)+아도→지'어도→지'이도→지^도'와 같이 경구개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활음화가 아닌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표면형이 도출된다. 이에 필자는 임

52) 문헌상 중세국어에는 고저복합조 또는 하강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세 지역어에서 복합조의 고조화를 대부분 규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지역어에서의 고저복합조가 대부분 이전 시기의 단음절 고조에서 발달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벌-(得)', '썰-~쌀-(切)', '끌-(牽)'만이 소위 고정적 고저복합조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들 세 어간에 비해 (35)에 제시된 어간들은 음운론적인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에 화자들은 고저복합조의 고조화 규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53) '기+아도→기어도→겨도→게도→기도(匍)'와 같은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논자도 있지만 'yə→E'와 'E→i'를 모두 공시적 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5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피-'에서뿐 아니라 많은 패러다임에서 '피ˇ도'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도'형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유추와 관련된다. 'Xi'로 끝나는 어간인 경우 '띠^도', '피^도'와 같은 표면성조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기준형으로 하여 재구조화하는 경향과 관계된다.

석규(1999)에서 두 음운과정 즉 완전순행동화와 활음화를 성조 층위에서 파악해보려 한 소박한 노력을 상기하고자 한다. 완전순행동화와 활음화의 적용 여부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성조 패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어미 '아(X)'와 통합할 때 주로 'HLL(H_1과 관계되는 패턴)'의 성조 패턴을 보이고 후자는 어미 '아(X)'와 통합할 때 'HHL(H_2와 관계된 패턴)'의 성조 패턴을 보인다.[55] '지(H_1, 握)+아도'에서 경구개자음이 개재되었더라도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조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ㅣ' 말음 어간과 모음어미가 통합할 때 활음화를 겪는 경우는 '(X)i' 환경의 X가 경구개자음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 성조패턴이 'HH- 패턴(H_2와 관계된 패턴)'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는 (35다)의 네 어간 '지-(負)', '찌-(蒸)', '치-(打)', '이-(戴)'가 포함된다.[56]

(36)은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폐음절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를 보인 것이다.

(36) 문경(으만~으먼), 영주(으먼), 울진(으먼~으모)

가. 붛+으먼→부^먼	붛+아도→부^도(注, 부'꼬)
누ㆆ+으먼→누^먼	누ㆆ+아도→누^도(臥, 누'꼬)
주ㆆ+으먼→주ˇ먼	주ㆆ+아도→주^도(拾, 주ˇ꼬)
나. 놓+으먼→노^먼	{놓+아야→나^야(放, 노'코)}
무눟+으먼→무누^먼	{무눟+아야→무나^야(壞, 무누'코)}
이숳+으먼→이수^먼	{이숳+아도→이사^도(連, 이수'코)}
뿔궇+으먼→뿔구^먼	{뿔궇+아도→뿔가^도(折, 뿔구'코)}
다. 쌓+으먼→싸^먼	쌓+아도→싸아도→싸^도[57](積, 싸'코)
짛+으먼→지^먼	짛+아도→지^도[58](作, 지ˇ꼬)
씽+으먼→씨^먼	씽[59]+아도→씨^도(洗, 씨'코)
옇+으먼→여^먼	옇+아도→여^도(入, 여'코)
바렣+으먼→바레^먼	바렣+아도→바레^도(願, 바레'코)

(36)에 제시된 예를 통해 후음 말음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36가), (36나)에 제시된 어간의 특징은 어간말음절에 '오'나 '우'가 개재된 경우인데, 어간

55) 완전순행동화를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에 의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순행동화 과정이 모두 강도로써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필자의 HLL, HHL 성조패턴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 경향성은 지배적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이 '시+어도', '피+어도'처럼 고정적 'L·H' 어간, 'H_2' 어간인 경우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ˇ도', '피ˇ도'의 다른 형태 '시^도', '피^도'를 고려한다면 특히 후자로의 활용형 변화라면 필자의 결론 – HLL 성조패턴에 의한 완전순행동화 적용과 HHL 성조패턴에 의한 활음화 적용 – 은 큰 의의가 부여될 수 있다.

56) '찌^+아도→찌^어도→찌'어도(HLL)→찌^도(挾, 雲, 찌^고)'에서도 음절초자음은 경구개음이지만 성조패턴이 HLL이므로 완전순행동화를 겪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57) '쌓+아도→싸'아도→싸^도'에서는 'ㅎ' 탈락 과정에 의해 '싸아도'가 중간과정으로 실현되는데 어간말모음이 다른 환경을 참고해 볼 때 '싸아도'는 완전순행동화의 공허한 적용(vacuous applica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

58) 울진지역어와 문경지역어에서는 '저^도'로도 나타난다.

59) 울진지역어에서는 '씽넌다', '씨까~씨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저형이 '씪~씩-'으로 설정된다.

이 어미 '으X'와 통합할 때에는 어간말자음 'ㆆ' 또는 'ㅎ'에 관계없이 모두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어미 '아(X)'와 통합할 때에는 어간 말음이 'ㆆ'인 경우는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완전순행동화를 겪게 되고 어간 말음이 'ㅎ'인 경우는 w 활음화를 겪게 된다. '오', '우' 이외의 모음이 어간에 개입된 (36다)의 경우는 'ㅎ'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든 'ㆆ'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든 어미 '아(X)', '으X'와 관계없이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60)

즉 'ㆆ'을 말음으로 하는 폐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개재된 어간 모음에 관계없이 또 어미 '아(X)', '으X'에 관계없이 어미초모음은 어간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된다. 그러나 어간말음이 'ㅎ'일 경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어간이 'oh' 또는 'uh'로 끝나는 경우, 어미 '아(X)'와 통합하면 활음화가 일어나고, 어미 '으X'와 통합하면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o' 또는 'u'가 아니라면 통합하는 어미 '아(X)', '으X'에 관계없이 완전순행동화만 일어난다.

사실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서의 변동을 잘 관찰해보면 완전순행동화와 활음화는 어미 '아(X)'의 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어미 '으X'는 모두 완전순행동화와 관계하고 어미 '아(X)'는 교체되면 어간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고, 교체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활음화의 환경이 될 때에는 어간모음이 활음으로 변동된다. (36나)에 제시된 네 자료는 모두 어미 '아'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 경우이며 또 그 환경이 활음화의 입력부가 되기 때문에 최종도출형은 활음화한 어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적어도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폐음절 어간에서는 모두 적용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E', 'i'로 끝나는 개음절 어간에서 어미초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활발히 일어나며 특히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이 'HLL' 패턴으로 나타날 때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인 경우, 그 말음이 'ㅎ'이냐, 'ㆆ'냐에 따라, 또 통합하는 어미가 매개모음어미냐 모음어미냐에 따라 그 적용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

곡용에서는 '-에(X)', '-으로'의 어미초모음이 어간 모음에 동화된다. 단음절 어간에서도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나 공시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먼저 2음절 어간에서의 동화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ŋ'으로 끝나는 2음절 어간과 처격어미 '-에(X)'의 통합을 어간의 기저성조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네 부류로 나누어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표면형을 제시할 때 성조배열제약이 관여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옥'쌍'+에→옥'싸'아', '실'강+에→실'가아', '걸ˇ쌍+에→걸ˇ싸아'로 표면형을 제시하지 않고 '옥'싸'', '실'가', '걸ˇ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성조배열제약과 관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앞 부분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어간의 기저성조에 따라 표면형이 달라지는바 '정낭+에→정나^'류에서처럼

60) 영주지역어에서는 '긓+으먼→그^먼', '긓+아도→그^도'와 같이 '으'가 개재된 경우에도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된다. '으'가 음소로 기능하지 못하는 나머지 두 지역어에서는 당연히 '거^먼', '거^도'로 실현된다.

둘째 음절이 단음절 고저복합조로 실현되는 이유는 어간 '정낭'의 기저성조가 LH이기 때문이며 나머지 세 부류의 어간들은 'H_1'으로 끝나지 않기에 이들 표면형의 둘째 음절은 단음절 평판조로 실현된다.

(37) 공통자료

가. LH

거랑+에→거라^(川)	정낭+에→정나^서(便所)
천장+에→천자^서(天障)	다양+에→다야^(地名 단양)
첨방+에→첨바^(川防)	친정+에→친저^(親庭)
구넝+에→구너^(穴)	술뼁+에→술뼤^(酒甁)[61]
강능+에→강느^(地名 강릉)	안동+에→안도^(地名 안동)

나. HH

옥쌍+에→옥'싸'(屋上)	암빵+에→암'빠'(內室)
첵쌍+에→첵'싸'(冊床)	고방+에→고'바'(庫)

다. HL

실강+에→실'가(시렁)	쌀통+에→쌀'토(쌀통)
똥통+에→똥'토(똥통)	밥통+에→밥'토(밥통)

라. L·HH

걸쌍+에→걸ˇ싸(椅子)	딘장+에→딘ˇ자(된장)
상방+에→상ˇ바(사랑방)	동상+에→동ˇ사(銅像)
군청+에→군ˇ처서(郡廳)	장농+에→장ˇ노(欌籠)

cf. 중감빵'+에서→중감빠^서(중간방)[62]

cf. 뒤ˇ깐+에→뒤ˇ까^→뒤ˇ까(便所), 방깐'+에→방까^(방앗간), 허깐'+에→허까^(헛간)
마구깐'(영주)/마구칸'(울진)+에→마구까^/마구카^(廐)[63]

(38) 공통자료

LH	푸데+에[64](#여라(入))→푸데^(부대)	당초+에(#허벋꼬(誤))→당초^(當初)[65]
HH	학쪼+에(#읻꼬)→학'쪼'(學校)	물까+에(#읻꼬)→물'까'(川邊)
HL	몰게+에(#뿌리고(散))→몰'게(沙)	지서+에(#읻꼬)→지'서(支署)
	공터+에(#읻꼬)→공'터(공터)	창고+에(#읻꼬)→창'고(倉庫)[66]

---

61) 문경지역어에서는 '술뼁',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의 '술뼝'으로 발화되는 것이 고형이나 완전순행동화된 어형은 '술뻬^', '술뼤^'이 아니라 '술벼^'인 것이 특이하다.

62) 3음절 이상의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도 2음절 어간에서와 같이 쉽게 확인된다. 편의상 '중감빵'에서의 과정 하나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63)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특이하게도 완전순행동화의 환경이 되지 않는데도 동화되는 어형이 있다. 형태론적으로 접사 '간(間)'이 통합된 일부 어간에 적용된다.

64) 필자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둘로 파악한다. 즉 개음절 어간에는 '-으로'가 통합되지 않고 '-로'가 통합되므로 (41)에 제시될 '-으로'의 통합에서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자료는 개음절 어간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65) 崔明玉(1982:108)에서는 활음화가 적용된 '망:게에', '당체에'(필자의 관점으로는 '망ˇ게', '당체^' 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세 지역어에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곡용에서의 w 활음화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L·HH 경주+에(#읻꼬(有))→경˘주(地名 慶州)　　　　　시네+에(#읻꼬(有))→시˘네(市內)
cf. 집꾸서^+에→집꾸서^(영주·울진)67)
cf. 문경지역어: 정지'+에→정지^(廚)', '다리'+에→다리^(橋)

(37)은 'ŋ'으로 끝나는 폐음절 어간에서의, (38)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보인 것이다. 어간말음절에 놓인 모음 'a', 'ə', 'o', 'u', 'i', 'E'에 관계없이 완전순행동화는 확인된다. 그런데 이 세 지역어에서는 'Xi(ŋ)'으로 끝나는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폐음절 어간의 경우가 더더욱 그러하다.68) 다만 'i'로 끝나는 경우, 문경지역어의 '정지'+에→정지^(廚)', '다리'+에→다리^(橋)' 등을 통해 그 완전순행동화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69)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모든 모음이 동화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38)에 제시된 예에서는 완전순행동화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할 수 있다. '푸데'' 와의 통합을 통해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확인해 보자.

(39) 공통자료
가. 푸데'+에#읻'꼬(有)→푸데^#읻'꼬~푸데^읻꼬
나. 푸데'#읻'꼬(有)→푸데'#읻'꼬~푸데읻'꼬

처격어미가 통합된 (39가)는 두 개의 기식군으로 발화되든 하나의 기식군으로 발화되든 표면형에는 고저복합조가 확인되며, 주격어미가 생략된 (39나)는 어느 경우든 고저복합조가 실현되지 않는다.70) 이로써 우리는 성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간말모음과 처격어미 사이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71)

---

66) 문경에서는 '창'꼬'도 확인된다. 대중매체의 영향인 듯하다.

67) 사실, '집꾸서^+에→집꾸서^(cf. 집꾸서^도)'의 경우 또한 처격어미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순행동화 후 성조배열제약에 의해 '집꾸서^'로 나타나게 된다. '집꾸서^'의 경우, 과거 어느 시기에 '집꾸석'과 처격어미 '-에'가 통합되어 'ㄱ' 약화 및 탈락 규칙과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적용되어 형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처격의 '-에'가 통합된 '집꾸서^' 자체가 어휘부에 등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짝'~이짜^'(이쪽), '어쩌역'~어쩌여^(엊저녁)', '부뚜막'~부뚜마^(부뚜막)' 역시 동일한 과정으로 형성된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울진지역어의 경우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음'녀(陰曆), 양'녀(陽曆), 수까라^(숟가락), 저까라^(젓가락) 등이 그 예이며, ㄱ 약화 및 탈락 후 비음이 첨가된 예로 '방빠닥>방빠당(영·울)'을 들 수 있으며, 그 역 방향으로의 형태 '문찌방>문찌박(영·울)'도 확인된다.

68)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 '접'낑'(接境)+에'에서 완전순행동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뜻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지명에서조차 'Xiŋ'으로 끝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69) 다만, 이 경우 영주지역어에서는 '정지'에~정제^', '다리'에'로, 울진지역어에서는 '정제^', '다레^'로 나타난다.

70) 사실 어간의 기저성조가 LH가 아닌 이상은 '학'쪼'+에#읻'꼬→학'쪼'#읻'꼬~학'쪼'읻꼬', '학'쪼'#읻'꼬(有)→학'쪼'#읻'꼬~학'쪼'읻꼬'에서처럼 표면형의 성조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LH 어간에서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므로 그 밖의 경우에서도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1) 성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더 제시해 본다.
푸데'(부대)+에#여^라(넣어라)→푸데^여라~푸데^#여^라(푸데'도, 여'코)
그푸데'(부대)+에#여^라(넣어라)→그푸데^여라~그푸데^#여^라

문제는 단음절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인데 그 규칙의 기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40)은 단음절 어간 특히 어간 모음이 '아'인 경우에서의 완전순행동화를 나타낸 것이다.

(40) 가. 장+에→자^(市場, 장'도)
　　나. 방+에→바^(房, 방'도)[72]
　　다. 상+에→사^(床, 상'도)
　　라. 땅+에→따^(地, 땅'도')

(40가)~(40다)에 제시된 어간들은 자음어미 '-도'와 결합될 때에는 장도(HL), 방도(HL), 상도(HL)와 같은 표면성조를 보이나 (40라)의 경우는 '땅도(HH)'로 실현된다. 그렇지만 처격의 '-에'와 통합할 때에는 통합할 때에는 비음이 탈락하지 않는 수의적인 형태 '장에(HL)', '방에(HL)', '상에(HL)', '땅에(HL)'처럼 표면성조가 모두 HL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제시된 표면형에는 모두 고저복합조의 표시가 가능하다. 곧 완전순행동화 후 동모음이 축약되면서 성조도 축약되는 것이다.

(40)에 제시된 어간의 음절구조는 모두 'Xaŋ'이다. 그 이외의 경우를 (41)에 제시하기로 하자.

(41) 영주·울진
　　가. 통+에→*토^,[73] 토'에~토'예(桶)　　　농+에→*노^, 노'에~노'예(籠)
　　　　종+에→*조^, 조'에~조'예(鐘)　　　공+에→*고˘, 고˘에~고˘예(鐘)
　　나. 궁+에→*구^, 구'에~구'예(宮)
　　다. 성+에→*서˘, 서˘에~서˘예(鐘)

어간의 모음이 'a'일 때와는 달리 'o', 'u', 'ə' 등일 때에는 비음탈락만 일어날 뿐 — 비음이 탈락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74] 물론 지역어에 따라 (41)에 제시된 예들이 완전순행동화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어렵다.[75] 다만

이'푸'데(부대)+에#여^라(넣어라)→이'푸'데여라~이'푸'데#여^라
몰'게(沙)+에#뿌'리머넌(뿌리면)→몰'게뿌리머넌~몰'게#뿌리머넌(몰'게도)
그몰'게(沙)+에#뿌'리머넌(뿌리면)→그몰'게뿌리머넌~그몰'게#뿌리머넌
이'몰'게(沙)+에#뿌'리머넌(뿌리면)→이'몰'게뿌리머넌~이'몰'게#뿌리머넌

72) 다른 두 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방'아'의 형태가 문경지역어에서 확인된다.

73) 영주에서는 김장철에 '김'치토넌##토^넌 어'데인노'과 같이 발화하는 화자를 만날 수 있었다. 주제를 표시하는 보조사로 '-으넌'이 결합된 형태이다. 그런데 '토^는(통+으는', '토^(통+에)'와 같이 앞에 '김치통'이라는 기식군이 없을 때는 좀처럼 발화되지 않았다. 자연발화 속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듯하다. 다른 지역어 연구에서 확인된다고 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74) 김세환(2005:66)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75) 다만 처격어미 '에'의 역사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처용가》의 '明期月良'이 고려될 수 있겠다. 처격조사의 기원을 '아'로 설정하면 제시된 예들의 어간말음절 모음으로 '아'가 지배적인 이유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여'가나(여관에, 울진지역어)', '인˘나라(옛날에, 울진지역어, 문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단음절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여러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간의 음절구조가 'Xaŋ'인 '강+에(江, 강˘도)', '창+에(槍, 창'도)' 등에서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자^', '바^', '사^' 등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처소]라는 의미자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음절 어간의 음절구조가 'Xaŋ'이라 할지라도 완전순행동화는 봉쇄되는 듯하다.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제약이 없는 것은 아마도 어간의 음절수에 따른 의미전달의 용이함과 관련될 듯하다.

다음으로는 어미 '-에(X)'가 아닌 어미 '-으로'에서의 완전순행동화를 검토해 보자.

(42) 문경·영주/울진 (문경·울진지역어의 자료도 편의상 '-으로'로 제시한다).

가. LH
거랑+으로[76]→거라^로(川) 　 정낭+으로→정나^로(便所)
첨방+으로→첨바^로(川防) 　 친정+으로→친저^로(親庭)
구넝+으로→구너^로(穴) 　 공중+으로→공주^로(空中)[77]
안동+으로→안도^로(안동 地名)

나. HH
옥쌍+으로→옥'싸'로(屋上) 　 암빵+으로→암'빠'로(內室)
책쌍+으로→책'싸'로(冊床) 　 고방+으로→고'바'로(庫)

다. HL
깡통+으로→깡'토로(개미가 깡통으로 드가-)

라. L·HH
상방+으로→상˘바로(사랑방)
cf.[78] 암빵+언/언~어~오→암'빠'언~암'빠'어~암'빠'오(內房)
암빵+얼→암'빠'얼

(42)는 'ŋ'으로 끝나는 폐음절 어간과 어미 '-으로'에서의 통합에서의 완전순행동화를 보인 것이다. (37)에 제시된 어간들 중, (42)에는 누락된 어간도 있다. 조사가 정밀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면 필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아무래도 어미 '-에(X)'와의 통합보다는 '-으로/어로'가 통합하는 경우 완전순행동화 과정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조사 당시에도 인식한 바 있다.[79]

(43)은 단음절 곡용 어간과 어미 '-으로'가 통합한 경우, 완전순행동화 여부를 보인 것이다.

(43) 영주/울진

경지역어)' 등이 특이하다. 경주 출신의 이상신 동학은 경주지역어의 '주마^(주머니에), 주미^(주머니)', '모타^(모퉁이에), 모티^(모퉁이)', '기타^(귀퉁이에), 기티^(귀퉁이)'와 같은 형태를 필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승녕(1980:14)에 제시된 심마니말 '오늘나라(今日)', '낼:나라(明日)'도 이와 동궤일 수 있다.

76) '-으로'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된 표면형인 경우 '-에(X)'와의 통합에서도 완전순행동화는 확인된다. 다만 '공중'(空中)+에'에서는 '공주^'로의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고 비음탈락된 형태 '공주'에~공주'예'가 확인된다.

77) 어간이 'Xuŋ'으로 끝나는 경우는 완전순행동화 과정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울진지역어에서 '지붕'+에→지부^'과 같은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지역어에서는 '지붕에', '공중에'처럼 비음탈락과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78) 곡용· 어간과 어미 '-언', '-얼'과의 통합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들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가 음운과정에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 우리는 원순모음화의 여부로 이들 어미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잎(葉)+언→이펀', '잎+어로(문경·울진)→이푸로'를 참고할 수 있다.

79) 이 또한 처격어미의 기원과 관련될 듯하다.

가. 방+으로→바^로(房)　　　　　　　　장+으로→자^로(場)
나. 농+으로→*노로(籠), 노'으'로　　　　통+으로→*토로, 토'으'로
성+으로→*서로, 서˘으로

(43가)의 어미 '-으로/어로'는 어간말모음 'a'에 완전순행동화된 듯 보인다. 그런데 (43나)에서와 같이 어간모음이 '아' 이외의 경우에는 어간이 '-으로'와 통합하더라도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격어미와의 통합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단음절 어간인 경우, 여러 모로 제약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80) 그런데 (44)에 제시된 '바^넌'이나 '바^럴'과 같은 형태에 주목할 수 있다.81)

(44) 영주·문경/울진
바^+넌/넌~노~너→바^넌/바^넌~바^노~바^너
바^+럴/럴~로~러→바^럴/바^럴^, 바^로~바^러

(44)에 제시된 '바^넌'. '바^럴'의 예를 통해 볼 때 이미 '바^'로의 재구조화가 진행된 것이라 보아야 합리적일 듯하다.82) 이렇게 이해한다면 '바^로' 또한 재구조화된 어간 '바^'에 어미 '-로'가 결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83) 그렇다면 어미 '-으로'와 통합하는 단음절 곡용 어간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적어도 이 세 지역어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를 검토해 보았다. 2음절 이상의 어간에 비해 단음절 어간에서는 동화의 환경이 매우 제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에(X)'와의 통합에서보다는 '-으로'와의 통합에서 더욱 더 제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1.3. 평파열음화

음절말의 양순음(ㅍ), 치경음과 치경경구개음(ㅌ ; ㅅ, ㅆ, ㅈ, ㅊ), 연구개음(ㄲ, ㅋ)은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평파열음화되어 각각 'ㅂ, ㄷ, ㄱ'으로 교체된다. 활용에서의 평파열음화84) 과

---

80) (37)에 제시된 바 있는 '상(床)'의 경우도 '-으로'와 통합할 때 완전순행동화된 어형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으로'와 같은 결합이 '방+으로'에 비해 잘 발화되지 않은 때문일 듯도 하다. 또한 도구를 뜻하는 부사격어미 '-으로'와 통합하는 경우에는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81) '상˘바넌#뜨시'나(溫)', '상˘바도 뜨시'나', '암'빠'넌#뜨시'나', '암'빠'도#뜨시'나' 등을 통해 볼 때 2음절 어간인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82) '장(市場)'에 대해서는 조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필자는 어릴 때 '자^가(장+이)' 정도를 들은 듯하다.

83) 안동 출신이면서 영주 문수면으로 시집 온 화자에게서 '마˘깡는데넌 요˘려가 이써'와 같은 형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도 비모음화가 계기가 된 재구조화로 파악할 수 있다. 주격어미가 통합된 형태 '요려이'에서 어간을 분석한 것이 '요˘려'일 것이다. 아울러 이 화자는 영주지역어의 일반적 형태 '홍'시(軟柿)' 외에 '홍세'기'를 제보했음도 밝힌다.

84) 배주채(1992)에서는 평폐쇄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사실 배주채(1989:80)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평폐쇄음과 유기폐쇄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유기성은 파열 과정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

정은 (45)를 통해서 확인된다.

(45) 문경·영주/울진

가. 갚+세→갑'쎄(報, 가'파) 엎+세→업'쎄(覆, 어'퍼)

나. 같+거든→갇끄'든(唾, 가'테') 웃+끄든→욷ˇ끄든(笑, 우'서/우'사)

닫+고→닫'꼬(閉, 다'다) 잊+고→읻'꼬(忘, 이'저[85]/이'자)

쫓+고→쫃'꼬(追, 쪼'차) 있+고→읻'꼬(有, 이'써/이'싸)

다. 깎+제→깍'쩨(削, 까'까) 섞+제→석'쩨(混, 써'꺼)

(45가)의 활용 어간 '갚-, 덮-'이 어미 '-세'와 통합할 때 어미초자음 'ㅅ' 앞에서 어간말자음 'ㅍ'은 'ㅂ'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45나)의 '뱉-, 웃-, 닫-, 잊-, 쫓-, 있-'이 어미 '-고'와 통합할 때 어미초자음 'ㄱ' 앞에서 어간말자음 'ㅌ, ㅅ, ㄷ, ㅈ, ㅊ, ㅆ'은 'ㄷ'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86] '깎-, 섞-'이 어미 '-제'와 통합할 때 어미초자음 'ㅈ' 앞에서 어간말자음 'ㄲ'은 'ㄱ'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45)에 제시된 어간들은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 모두 평파열음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어간말의 후음은 평파열음화의 환경이 다르다. 어간말의 'ㅎ'은 'ㅂ, ㄷ, ㅈ, ㄱ' 이외의 자음 앞에서 평파열음화하여 'ㄷ'으로 교체되고, 'ㆆ'은 'ㅂ, ㄷ, ㅅ, ㅈ, ㄱ' 이외의 자음 앞에서 평파열음화하여 'ㄷ'으로 교체된다.[87] 그 이유는 'ㅎ'은 'ㅂ, ㄷ, ㅈ, ㄱ'과 'ㆆ'은 'ㅂ, ㄷ,

---

기에 유기폐쇄음보다는 유기파열음이라는 용어가 합리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평폐쇄음이라는 용어보다 평파열음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평폐쇄음화라는 용어 대신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김봉국(2002:35-41)에서는 이러한 음운과정을 평음화, 폐쇄음화로 구분하고 있다. 음절말의 ㅍ이 ㅂ으로 변동하는 것은 평폐쇄음화보다는 평음화라는 용어로 충분하다는 이유이다. 필자는 이를 공허한 적용(vacuous application)으로 이해하여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는 최명옥(2004:90), 이진호(2005:119)에서 확인된다.

85) 영주지역어에서는 '이잗^따', '이잗^뿌렌따'와 같은 형태도 나타난다. 그러면 기저형이 '이줗'-' 또는 '이주^-'로 설정될 수 있을 텐데, '이주'코, 이주^고, 이주^먼'과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뤃'-'의 활용형 '이랃^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잃-'과 '잊-'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86) 마찰음 'ㅅ'은 같은 조음 위치의 평폐쇄음 'ㄷ'으로 바뀐다고 기술할 수 있으나 치경구개음 'ㅈ'계열은 평폐쇄음화가 일어나 'ㄷ'이 된다고 해야 하므로 다른 조음위치로 변동되는 특수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송철의 1990:30),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주채(1992:186)에서는 'ㄷ', 'ㅅ', 'ㅈ'을 '전설음'이라는 부류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인호(2003:41)에서도 평북방언에서의 'ㅈ', 'ㅅ'의 음변화를 설명하면서 'ㄷ'과 'ㅅ', 'ㅈ'을 전설음으로 분류한 바 있다.

87) 기존의 논의는 ㅎ이 ㄷ으로 변동된다는 주장과[Kim Renaud(1975:124), 최명옥(1982:156), 배주채(1992:193), 이진호(2003가:185)] 그러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승재(1980:49-50), 김경아(1998:7]으로 나뉘지만, 본고에서는 전자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ㅎ은 구강 내 조음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송철의(1990:30)에서 제기한 조음위치와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인호(1995:46)에서는 "어미가 ㄴ으로 시작할 때 성문음은 ㆆ이 되고, 이 ㆆ이 어미의 ㄴ에 위치동화되어 ㄷ이 된다"고 함으로써 'ㅎ→ㆆ'이라는 중간과정을 설정한 바 있다. 배주채(1992:192)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필자도 임석규(2004다:319-321)에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어간말자음으로 ㆆ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세 지역어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놓-'과 '-는'의 통합에서 'ㅎ'의 평파열음화가 일어나 중간과정으로 '놓는'이 도출되는데, 이후 비음화 과정에 의해 '논는'이 도출되는데, 이는 '짖+는→진는'의 과정과 동일해지므로 그 나름대로 이점이

ㅅ, ㅈ, ㄱ'과 축약이 되어 각각 유기음과 경음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46), (4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6) 놓+세→논쎄→노'쎄(放, 노'코)

(47) 줗+노→줃노→준ˇ노(拾, 주ˇ꼬)

한편 자음군으로 끝나는 활용 어간의 평파열음화는 자음군단순화의 과정으로 인해 표면형에서 확인할 수 없다. 'ㄹ'계 자음군어간은 'ㄹ'로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간과정의 기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48) 공통자료
가. 훑+고→훌ˇ꼬(扱, 훌'터도)
나. 걿+고→걸ˇ꼬(步, 거'러도)

(48나)의 경우는 축약규칙을 적용하여 경음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평파열음화와는 관계 없다. (48가)의 경우는 ㅌ의 탈락이 먼저냐 아니면 ㅌ이 ㄷ으로 변동하는 평파열음화가 먼저냐에 따라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49가)에 먼저 주목해 보기로 한다.

(49) 가. 엽ㅆ+고→엽ㄷ고→엽ㄷ꼬→엽'꼬 cf. 엽ㅆ+고→엽고→엽'꼬
나. 훑+고→훌ㄷ고→훌ㄷ꼬→훌ˇ꼬 cf. 훑+고→*훌고

(49가)는 자음군의 두 번째 자음이 평파열음화하든 탈락하든 표면형 '엽ˇ꼬'를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경음화시키는 자음은 다르다. 평파열음화 과정을 먼저 적용시키면 경음화시키는 자음은 ㄷ이 될 것이며, 탈락 과정을 먼저 적용시키면 경음화시키는 자음은 ㅂ이 될 것이다. 그런데 (49나)에서는 반드시 평파열음화를 먼저 적용해야 적격형을 도출할 수 있다. 자음 탈락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비적격형인 '*훌고'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음군단순화보다는 평파열음화를 먼저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88]

어간말 평파열음화는 곡용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는 (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도출과정은 활용에서의 평파열음화 과정과 동일하다.

(50) 공통자료(문경·영주/울진)
가. 잎+꺼짐→입'꺼'짐(葉, 이'피')
나. 옷+도→옫'또'(衣, 오'설'/오'소') 이웃+도→이욷또(隣, 이'우제)
젖/젇+도→젇'또'(乳, 저'절'/저'도') 꽃∽끝/끝+빼끼→끋빼'끼(花, 꼬'체∽꼬'테/꼬'테)
다. 벜+도→벅^또(廚, 버^케)

있다고 보았다.

88) '경음화'를 다루는 절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 '여덟+하고→*여덜파고', '여덟+보다→*여덜뽀다'의 비적격형을 통해 볼 때,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기저형은 단독형 '여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래야만 적격형 '여더라고', '여덜보다'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50다)의 경우도 '벜+도'보다는 '벅+도'와 같은 통합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는 바로 곡용 어간의 자립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될 것이다. 3장의 '곡용 어간의 기저형 설정 방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4.1.4. 자음동화

자음동화에는 조음방법이 같아지는 방법동화와 조음위치가 같아지는 위치동화가 있다.[89]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방법이 같아지는 방법동화이며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는 조음위치가 같아지는 위치동화이다.

4.1.4.1. 비음화

비음화는 음절말자음 'ㅂ, ㄷ, ㄱ'이 비음('ㅁ' 또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ㅂ'은 'ㅁ'으로, 'ㄷ'은 'ㄴ'으로 'ㄱ'은 'ㅇ'으로 변동하는 음운과정이다.

비음화는 어간말자음의 평파열음화 과정에 후행하므로 (51)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한다.

(51) 문경·영주/울진: 문경, 울진지역어에서의 '-는'은 '-넌'임.

가. 갚+노→갑노→감노'(報, 가'파) 뽑+나→뽐'나'(選, 뽀'바')

나. 맡+는→맏는→만는'(任, 마'타) 얻+는→언ˇ는(得, 어ˇ더/어ˇ다)

쫗+는다→ 꼳는다→꼰는'다(啄, 꼬'코) 문뎋+는다→문덴는다→문덴는'다(擦, 문데'코)

이숳+는다→이숟는다→이순는'다(連, 이수'코) 꾸ㅎ+는다→꾿는다→꾼ˇ는다(煩, 꾸ˇ꼬)

있+는→읻는→인는'(有, 이'써) 쫓+는→쫃는→쫀는'(追, 쪼'차)[90]

---

89) 자음동화에 대해서는 이병근(1977)에서 비로소 정밀하게 파악되었다. 그 이전에는 자음접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평파열음화를 자음동화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병근(1977)에서는 수의적인 변자음화와 후부변자음화(본고에서의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를 언급하기도 하였고, 복합어에서의 자음동화를 논외로 함으로써 공시적인 음운과정에 대한 정밀화를 꾀하였다. 방언에서의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 최명옥(1974), 최명옥(1982), 이승재(1980), 박경래(1984) 등에서 거의 필수적 현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치동화라는 언급은 이승재(1980)에 제시된 바 있고, 자음동화에 대한 연구사는 송철의(1990)을 참고할 수 있다.

90) 울진지역어에서는 기저형을 '쪼'치-'로 설정할 수 있는 활용형(쪼'치고, 쪼'치모, 쪼'처)도 보인다. '안지'-', '언지'-'유형의 어간확장형이다. '쪼'치-'는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조'처'로 나타나는데 반해 '안지'-'는 모음어미와 통합하지 않는다. 활용형 '안'자'는 '안지'고, 안지'먼, 안'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주·문경에서도 실현된다. 그러므로 세 지역어에서 모두 복수기저형(안지'-, 앉(H_1)-)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모음어미가 이형태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쪼'처'는 특별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젖+는다→젇는다→전ˇ는다(潤, 저'저/저'자)
다. 엮+능가→역능가→영능'가(編, 여'꺼/여'까)　　적+는다→정능'가(記, 저'거/저'가)

(51)에서 우리는 활용에서의 비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어간말자음이 (51가)는 'ㅂ'으로 (51나)는 'ㄷ'으로 (51다)는 'ㄱ'으로 평파열음화된 후 비음화 과정을 겪는다.[91)]

이러한 양상은 (52)에서와 같이 곡용에서도 확인된다.

(52) 공통자료(문경·영주/울진)
가. 앞+만→압만→암'만(前, 아'피)　　집집+메둥→집찜메'둥(家家戶戶, 집찌'비)
나. 밭+메로/마이로→받메로/마이로→반메^로/반마'이로(田, 바'테)
옷+마→옫마→온'마'(衣, 오'시')　　젖/절+메치→젇메치→전'메'치(乳, 저'지')
옻/옽+마→옫마→온'마(漆, 오'치)
다. 벜+만→벅만→벙^만(廚, 버^키)　　무루팍+만→무루'팡만(膝, 무루'파기)[92)]

(52)는 곡용에서 나타나는 비음화 과정의 예로서 활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말자음의 평파열음화 과정을 거친 후 각각의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교체된 것이다.

비음화는 자음군단순화(탈락) 과정에 후행한다. (53)의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53) 가. (영·울/문) 업ㅆ+는동/는지→업ㄷ는동/는지→엄는동/엄는지→엄ˇ는동/엄ˇ는지(無, 업ˇ씨)
나. (문·영/울) 넉ㅆ+만→넉만→넝'만(魂, 넉'씨)　　값+만→갑만→감'만'(價, 갑'씨')
싹ㅆ/싹+만→싹만→쌍'만(料金, 싹'씨/싸'기)

(53가)는 활용, (53나)는 곡용에서 확인되는 비음화의 예인데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남은 자음이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되었음을 볼 수 있다.

비음화가 기식군을 넘어서도 적용된다 것을 (5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조 측면에서 볼 때, 명확히 드러난다. (54)에 제시된 비음화의 예는 하나의 성조군이 아님을 알 수 있다.[93)] 하나의 성조군이라면 '고조-저조-고조'의 연쇄, '고조-상승조'의 연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54) 밤#마신'네(H[94)]#LHL, 밥 맛있네)　　중#마이머거(H# L·HHLL 죽 많이 먹어)

매체에 의한 오염일 수도 있다.

91) 어간말자음이 ㅂ, ㄷ, ㄱ인 경우의 평파열음화는 공허한 적용으로 파악한다.

92) 문경지역어의 경우, '무루팡'만', '무루파'기'의 표면성조는 LLHL이 될 것이다. 울진지역어에서는 '무누'팍'으로도 나타난다.

93) 임석규(1999:20)에서는 (54)의 예를 하나의 기식군으로 파악한 바 있다. 당시 성조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94) 단음절은 비교대상이 되는 높낮이가 없기에 표면성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H로 표시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밥'과 '죽'의 기저성조는 'H_2'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음화는 비음 앞에서 각 부류에 속하는 자음들이 먼저 평파열음화 규칙에 의해서 각각 'ㅂ, ㄷ, ㄱ'으로 변동한 후, 그 'ㅂ, ㄷ, ㄱ'이 다시 비음 앞에서 'ㅁ, ㄴ, ㅇ' 으로 변동하는 음운과정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비음화는 기식군을 넘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4.2. 유음화

국어에서는 'ㄴ-ㄹ' 또는 'ㄹ-ㄴ'의 음운연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규칙이 파생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음화 규칙 또는 'ㄹ' 탈락 규칙이다.[95] 'ㄴ-ㄹ' 또는 'ㄹ-ㄴ'의 음운연쇄가 'ㄹ-ㄹ'로 바뀌는 것이 유음화인바,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와 'ㄹ' 앞에서 'ㄴ'이 'ㄹ'로 바뀌는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공시적으로는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는(X), -나, -노 등)가 통합할 때 일어나는 순행적 유음화만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55)에서 확인된다.

(55) 문경·울진/영주 : '-는'은 문경·울진지역어에서는 '-넌'임.

가.	밟+노[96]→발노→발ˇ로(踏, 발'바)	뚫+노→뚤노→뚤ˇ로(貫, 뚤'버)
	갊+노→갈노→갈ˇ로(갉다, 갈'바)	붊+나→불나→불라(문·울, 先望, 불'부이)
나.	잃+는동[97]→일는동→일'른동(失, 일'코)	핥+는→할는→할ˇ른(舐, 할'타)~할'른
	걸ㅎ+나→걸나→걸ˇ라(步, 걸ˇ꼬)	들ㅎ+노→들노→들'로(聽, 들'꼬)
	실ㅎ+노→실노→실ˇ로(載, 실ˇ꼬)	께달ㅎ+는→께달는→께달ˇ른(覺, 께달ˇ꼬)
	물ㅎ+노→물노→물ˇ로(問, 물ˇ꼬[98])	눌ㅎ+노→눌노→눌ˇ로(焦, 눌ˇ꼬)
다.	맑+노→말노→말로(淸, 말그이)	끍+노→끌노→끌'로(搔, 끌'그이)
라.	아놀롬(안#올#놈), 올'련(올#년), 잘론ˇ다(잘#논다)	

(55라)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다. 자음군이 단순화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지역어에서 'ㄹ'계 자음군은 자음어미와 통합할 때 자음군단순화

95) ㄹ 탈락 규칙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96) 의문사의 유무에 따른 비음운론적 이형태 '-노/나'는 동남방언의 큰 특징이다. 특히 영주지역어. 안동지역어. 봉화지역어의 경우 '-노/나'는 물론 '-도/다', '-로/라'에서도 이형태가 확인된다. '어'데가'도'? 학'꼬'가다?(어디에 가더냐? 학교에 가더냐?)', '니ˇ 어'데로? 학'꼬'라?'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후자는 문경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97) 어미 '-는동', '-든동'은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된다. 문경지역어에서는 '-넌지', '던지'으로 실현된다.

98) 중부 방언의 'ㄷ' 변칙용언은 세 지역어에서는 규칙 활용을 한다. 이것이 경북북부지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경지역어에서는 중부방언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꽤 확인할 수 있다. 중부 방언의 'ㄷ' 변칙용언에 대당하는 용언들이 이 세 지역어에서와 같이 규칙 활용을 보이는 경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1993 등)에 의하면 경남남부지역과 경북북부지역으로 한정된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의 일부 지역어에서는 물론 영덕 지역어(최명옥 1980:152)에서도 일부 단어는 규칙 활용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에 의해 'ㄹ'이 남게 된다. 이로 인해 'ㄹ-ㄴ'의 연쇄는 'ㄹ-ㄹ'로 바뀌게 된다. (55라)는 기식군에서의 순행적 유음화의 예이다.

김완진(1972/1996:30)에서는 '훑-', '앓-'에 '-는다'가 통합할 때의 표면형 '훌른다', '알른다'를 통해 유음화를 간접동화로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간접동화는 이병근(1977)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어 경계를 사이에 두는 유음화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는 유음화로 나누어 보다 정밀화된바 있다.99) 요즘은 규칙순을 통해서 또 층위를 구분하면서 유음화를 직접동화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필자도 규칙순과 탈락에 관한 제약을 둠으로써 유음화를 개재자음과는 무관한 직접동화로 파악하려 한다.

유음화를 간접동화로 본다면100) (56)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101)

영주	문경·울진
(56) 뚧+노→뚧로→뚤ˇ로(貫, 뚤'부먼)	떫+노→떫로→떨ˇ로(貫, 떨'부먼)

이러한 과정은 표면형에 근거한 설명으로 처음 설정한 도출형이 음운과정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미초의 'ㄴ'이 'ㄹㅂ' 자음군 뒤에서 'ㄹ'로 변동될 음운론적 동기가 없다. 국어에서 세 개의 자음이 연속될 때 탈락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ㄹ-ㄴ'의 연쇄는 음운과정을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유음 탈락의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유음화의 과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음운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자.102)

(57) 가. 싸+아도→싸'도'(泄, 싸'고')
나. 쌓+아도→싸아도→싸^도(積, 싸'코)

(57가)의 음운과정과 (57나)의 음운과정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동음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후자는 동음탈락으로 설명할 수 없다. 후자는 후음 'ㅎ'이 탈락되고 난 후 동음탈락규칙이 적용될 환경에 있지만 동음탈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병근(1978:24)에서는 어간말 'ㅎ'이 장음화의 동기라고 하였으나 한영균(1988:8)에서의 언급대로 자음 탈락이 장모음화의 유인(誘因)이 될 수는 없을 듯하다. 자음 'ㅎ'이 장모음화를

---

99) 'ㄹㅁ' 말음 어간인 '삶-'과 '-는'의 통합에서 개재자음이 있어도 유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최명옥(1978:79)에 언급된 바 있다.

100) 유음화를 직접동화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간접동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움라우트와 달리 유음화 과정은 자음군단순화라는 중간과정을 통해 볼 때 직접동화로 파악함이 온당할 듯하다. 김정우(1984:54-57)는 유음화가 일어날 환경 사이에 자음이나 내부단어경계가 게재될 때 유음화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게재자음의 언급은 김완진(1972:30)에 나타나 있다. 박창원(1987:319)에서는 유음화를 간접동화로 볼 경우 개재된 자음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 바 있다. 배주채(1989:92), 유필재(1994:79), 이진호(1997:92), 이진호(1998:97)에서는 유음화를 직접동화로 파악하고 있다.

101) 송철의(1990:31)에서는 유음화를 간접동화로 보려는 논의의 반례로서 '아들네[아들레]'를 들고 있다. 이는 단어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102) 이하의 서술은 임석규(2002나)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완한 것이다.

유발할 수 있는 음성학적 동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주채(1994:102)와 정인호(1995:55-56)에서는 (57가)와 (57나)의 표면형의 차이를 기저의 것과 도출과정의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03] 그런데 국어의 음운과정 중에는 환경만 되면 특정 음운과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영주지역어 자료 (58)을 검토해 보자.

(58) 가. 자부루우+아도→자부루와도→자부루아도→자부롸^도→자부라^도[104]
활음화　　활음탈락　　활음화　　활음탈락
나. 자부라우+아도→자부라와도→자부라아도→자부라^도
활음화　　활음탈락　　동모음축약

(58)은 중부방언의 '졸리-'에 대당하는 것인데 영주지역어에서는 어간이 '자부루우-/자부룹-' 또는 '자부라우-/자부랍-'으로 나타난다. 사실 영주지역어에서는 (58가)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도출형을 자연발화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자부라^도'는 어간 '자부루'우-'와 '-아도'의 통합형에서도 도출할 수 있고, 어간 '자부라'우-'와 '-아도'의 통합형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8)의 활음화와 활음탈락은 환경만 되면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는 것이다.[105] 배주채(1994), 정인호(1995)에서처럼 기저의 것과 도출과정의 것의 차이로 (57)의 예를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설명 방법이 아니다.

이제 (57)에 제시된 두 음운과정의 차이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어간 '쌓-'에 어미 '아(X)'가 통합할 경우 도출될 수 있는 형태로는 일단 '싸'하도, 싸^도, 싸'도''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싸'하도'는 모음간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인데 이는 국어 음운론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적격한 도출형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싸^도'와 '싸'도''인데 '싸'도''는 탈락이 연속으로 적용된 경우이다. 적용 환경마다 관련 음운규칙이 계속적으로 관여한다면 부적격한 표면형이 양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료를 보강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

103) 물론 두 논자의 설명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저의 것'과 '도출과정에서의 것'의 차이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지만 (58나)의 경우 배주채(1994:102)에서는 동모음축약에 의한 보상적 장음화로 설명하고 있고 정인호(1995:55-56)에서는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음화로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탈락이란 순수하게 자음이나 모음이 탈락하는 것 자체만을 지칭하므로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음화라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 음운의 탈락이 다른 음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탈락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수한 음운탈락과 탈락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의 구분 기준을 국어에서는 쉽게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4) 일견 '자부라^도'는 '자부랍'-∽자부라'우-', '차'가'도'는 '차'갑'-∽차'가'우-'에서 도출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사'의 경우는 '우삽-'에서 도출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세 지역어에서는 '우삽꼬∽우삭꼬', '우삽찌'와 같은 활용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우˘사서' 또한 '우˘수우+아서→우˘수와서→우˘수아서→우˘솨서→우˘사서'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활음화를 두 번 겪는 것은 아니지만 '고˘마'도 이들과 같이 특정 음운과정이 환경에 따라 계속 적용된 예이다. '고마우+아→고마와(L·HHL)→고마아(L·HHL)→고마(L·HH·L)→고마(L·HH영주/L·HL울진)'에서 보듯 차례로 활음화, 활음탈락, 음절축약이 적용되어 있다. 마지막 도출에서의 표면성조는 성조배열제약에 기인한 성조변동규칙의 결과이다.

105) 어간 '좋˘-(好)'과 어미 '아(X)'의 통합은 그 예외일 것이다. 또한 '도'우(助)+아도→도와도→도아도→*돠도'의 마지막 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예외일 것이다.

(59) 공통자료(영주/문경·울진)
　잃+는→일는→일'른(失)　　　　뚫ˇ/떫ˇ+노→뚤ˇ노/떨ˇ노→뚤ˇ로/떫ˇ로(貫)
　핥+나→할나→할'라(舐)~할ˇ라

(59)에 제시된 예는 모두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다. (59)의 예를 통해 볼 때, 자음군이 단순화된 후에 유음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ㄹ-ㄴ'의 연쇄는 'ㄹ-ㄹ'로 바뀌게 된다. 만약 적용 환경마다 탈락규칙이 관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표면형 '일'른동/뚤ˇ로/할'라'을 도출할 수 없고 부적격한 표면형 '*이'는동/*뚜ˇ노/*하'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59)에 제시된 예에 대해 규칙순을 설정하는 논의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인위적인 설명 방식인 외재적 규칙순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 한다. '핥-'과 '-나'가 통합할 때 '할'라'와 같이 유음화를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하는 것은 표면형 '할'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이다. 국어에서의 표면음성제약은 모음간의 세 자음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 자음이 연속될 때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자음군단순화이지 유음화가 될 수 없다.[106] 자음군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유음화를 적용하는 것은 외재적 규칙순이 아닌 표면음성제약에 근거한 내재적인 규칙순이다.

필자는 (57나)와 (59)에 제시된 유음화와 동음 탈락의 과정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탈락 과정에 대한 제약을 마련한 바 있다(임석규 1999:22, 임석규 2002:129, 임석규 2004다:322).

(60) 탈락 제약 --- 탈락은 일련의 음운과정에서 연속으로 적용될 수 없다.[107]

모음간 세 자음은 축약의 과정 내지는 탈락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축약의 환경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탈락(자음군단순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일련의 음운과정에서 탈락이 연속으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유음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곧 'ㄹ-ㄴ'의 연쇄는 형태음소 층위에서 'ㄹ'의 탈락이 예상되지만 이미 탈락의 과정에 의해 도출된 형태이므로 더 이상의 탈락은 불가능하다는 것

---

106) 모음간 세 자음에서 자음군단순화를 먼저 적용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뚧+고→뚤ˇ꼬(貫)'의 경음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음군단순화를 먼저 적용하게 되면 비적격형 '뚤고'가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필자는 이를 임석규(1999:37-39)에서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설명한 바 있다. 'ㄹ'을 제외한 폐음절 활용 어간(후음 제외)은 평음 어미와 통합할 때 경음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안ˇ꼬'(包), '넘ˇ꼬(越)'와의 관련성, 곡용에서의 경음화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경음화 과정을 일률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경음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107)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어미초 '으' 탈락과 유음 탈락이 연속으로 적용되는 것('불+으니→부ˇ니(吹)')이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몇몇 논의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강창석(1982:21-28)는 김성규(1988:35-38), 배주채(1993:103), 1994:64-67) 등에서 어미 '으X'의 기저형을 단일하게 설정하지 않고 기저형을 둘('으X'와 'X')로 설정하려 하였다. 또 이혁화(1994:60)도 성조변동의 관점에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자도 이와 견해를 같이한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위에 제시된 예는 '불+니→부니'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탈락은 연속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필자가 제시한 탈락 제약은 큰 문제가 없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차구우+아도→차'구'와도→차'구'아도→차'과'도→차'가'도(冷)'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일련의 음운과정은 w 탈락이 연속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차구아도→차과도'라는 활음화 과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다. 따라서 '할나'가 도출되고 이어서 유음화가 적용되어 표면형 '할'라~할ˇ라'를 얻게 된다.

(60)에 제시된 탈락제약에 의하면 (57나)와 (59)의 유음화를 별다른 무리없이 통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곧 '쌓+아도→싸아도→*싸도(積)'와 같이 동음탈락이 된 도출형과 '핥+는동→할는동→*하는동(舐)'과 같이 'ㄴ' 앞에서 유음이 탈락된 도출형은 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108)

다음에 제시된 예들도 탈락제약을 만족시킨다.

(61) 가. 옇+아도→옇어도→여어도→여^도(插)
　　나. 늫+아도→늫어도→느어도→느:도(插)

(61가)는 동남방언에서 (61나)는 중부방언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109) (61가)에 제시된 두 번째 도출과정 'yəədo'는 동음탈락의 환경이 되지만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 이유는 바로 전 과정에서 후음 'ㅎ'이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ㅎ'이 탈락된 후 연이어 'ə'가 탈락될 수는 없기에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61나)의 두 번째 도출과정 '느어도'는 어간모음 '으' 탈락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후음 'ㅎ'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어간모음 '으'가 탈락될 수 없고 오히려 '으'에 의한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

이상에서 우리는 '뚫+노→뚤노→뚤ˇ로(貫)'와 같은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일련의 도출과정에서 탈락은 연이어 일어날 수 없다'는 탈락의 일반적인 제약을 검토하였다.110)

4.1.4.3. 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는 위치동화이므로 연구개음화를 겪은 자음은, 조음방법은 그대로인 채 조음위치만 변동된다. 따라서 연구개음 앞에서 'ㅂ, ㄷ'은 'ㄱ'으로 변동되고 'ㅁ, ㄴ'은 'ㅇ'으로 변동된다. 이러한 연구개음화는 평파열음화 과정에 후행한다. 이는 (62)를 통해서 확인된다.111)

(62) 문경·울진/영주
　가. 갚+구로·거러/그러→갑꾸로·갑꺼러/깝끄러→각꾸'로·각꺼'러/각끄'러(報, 가'파도)
　　입+거던/그든→익꺼'던/익끄'든(着, 이'버도)　　차겁+고→차'국'꼬(冷, 차'굽'쩨)
　　벧+고→벧꼬→벡ˇ꼬(唾, 베'터도/베'타도)　　닫+고→닥'꼬(閉, 다'다도)

---

108) 최명옥(2005:304-307)에서는 필자의 탈락제약과는 달리 음운규칙이라는 것은 어간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하는 내에서 적용됩다고 하였다.

109) (61나)와 같은 어간모음 '으'에 의한 완전순행동화는 영주지역어에서도 발견된다. 'ㄲㅎ+아도→ㄲㅎ+어도→끄어도→끄^도'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

110) 중세국어의 '알+ᄉᆞᆸ+ᄋᆞ니'가 '아오니(知)'로 형태를 바꾼 것은 통시적인 것이다. 적어도 'ㅿ'이 소실된 이후의 공시 기술은 'ㄹ'과 'ㅿ'의 연속 탈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아오니' 자체를 어휘부에 등재해야 할 것이다. '아오니'의 공시 기술에 대해서는 이진호(2002:166-169)를 참고할 수 있다.

111)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에 대한 서술은 임석규(1999)의 내용과 동일함을 밝힌다.

찾+고→찯꼬→착'꼬'(探, 차'자'도)
나. 따듬+거라/그라→따등ˇ꺼라/끄라(琢, 따드'머도·따드'마도/따드'마도~따드'머도)
신+고→싱ˇ꼬(履, 시'너도)

(62가)는 평파열음화 이후 'ㅂ, ㄷ'이 'ㄱ'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며, (62나)는 'ㅁ, ㄴ'이 'ㅇ'으로 변동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63)은 자음군단순화 이후에 적용되는 연구개음화 과정이다. 모음간 세 자음은 축약에 의한 단순화와 탈락에 의한 단순화가 있는데, 전자가 (63다)의 경우이며, 후자가 (63가), (63나)의 경우이다.

(63) 문경·영주/울진
가. 굶+고→굼꼬→궁ˇ꼬(餓, 굴'머/굼'마)
나. 없+고→업꼬→억ˇ꼬[112](無, 업ˇ써/업ˇ싸)
다. 많+고→만코→망ˇ코(多, 마ˇ네)

연구개음화는 곡용에서도 활발히 나타난다.

(64) 공통자료(문경·영주/울진)
가. 안+꺼정→앙'꺼'지(內, 아'니')　　산+거치→상꺼'짐(山, 사'니)
봄+꺼지→봉'꺼'정(春, 보'미')　　밥+꺼짐→박'거'치(飯, 바'비')
나. 끝∽꽃/끝+거치→꼭꺼'치(花, 꼬'테, 꼬'체/꼬'테, 꼬'치)

그뿐만 아니라 기식군 내에서도 연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대표로 울진지역어를 제시한다.

(65) 멍ˆ거거치(먹은 것같이)　　영'게나능고데(연기나는 곳에)
앙'가야데(안 가야 돼)

4.1.4.4. 양순음화

양순음화도 위치동화이다. 따라서 양순음 앞에서 'ㄷ'은 양순음 'ㅂ'으로 'ㄴ'은 'ㅁ'으로 변동된다. 세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양순음화는 (66)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6) 영주·문경/울진
가. 신+만→심만(履, 시'닐')　　뻔+만/마→뻠'만(本)/뻠'마(뻐'닐)
나. 옷+메둥/마둥→옴'메'둥/옴'마'둥(衣, 오'시')

---

112) '어ˇ써'라는 발화도 수의적으로 나타나는데 '인'꼬, 이'써(有)'에 유추되어 '었-'을 기저형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김 현(2006:116)에서는 이를 반의어에 의한 감염(contamination)으로 파악한 듯하다.

낮+메둥/마둥→남'메'둥/남'마'둥(晝, 나'지')

다. 집씬+빼이→집'씬빼이(鞋, 집'씨널) 반+버터→밤버'터(床, 바'널)

라. 꼳∽꽃/꼳+보고→꼽뽀'고(花, 꼬'테, 꼬'체/꼬'테)

솓∽솥/솓+버텀→솝빼'텀(鼎, 소'테, 소'체/소'테)

(66가)는 'ㅁ' 앞에서 'ㄴ'이 'ㅁ'으로 동화된 예이고 (66다)는 'ㅂ' 또는 'ㅃ' 앞에서 'ㄴ'이 'ㅁ'으로 동화된 예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66나), (66라)의 예들은 그 성격이 단순하지 않다. 'ㅅ, ㅈ'이 'ㅁ' 앞에서 'ㅁ'으로 동화되었다면 그것은 조음위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음방법도 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6나)의 도출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낮+메둥/
평파열음화	낟메둥
비음화	난메둥
양순음화	남메둥

(66나)의 예들은 평파열음화와 비음화를 겪은 다음에 양순음화를 겪은 것이다. (66라)의 예 또한 평파열음화 과정 후에 양순음화의 과정을 겪은 것이라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공시적으로 양순음화 과정은 곡용에서만 나타난다. 활용에서 양순음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양순음으로 시작하는 활용 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음운연쇄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형태론적 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양순음화는 '꼽빧'(花田)'은 물론 '-안뿌리~-압뿌리(문경): 우'럽뿌리(울어 버려)' 등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순음화는 설정성([+coronal][113])과 순음성([+labial])의 음운연쇄일 경우 문법정보에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설명이 합리적이다. 활용에서는 그러한 연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순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순음화는 곡용과 활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음운연쇄와 관계된 순수 음운론적인 과정이다.

또 양순음화의 환경을 만족하는 자음군 어간은 없다. 명사 중 [+설정성]계 자음군은 'ㄹ'계 뿐인데 'ㄹ'은 양순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위치동화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이 절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양순음화에 비해 연구개음화가 특이한 것은 'ㄱ'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만이 존재하고 'ㅇ/ŋ/'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가 없기 때문에 평파열음화에 의한 'ㄷ, ㅂ'은 모두 'ㄱ'으로 변동하며, 'ㄴ, ㅁ'은 'ㅇ'으로 변동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순음화는, 'ㅂ'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는 물론 'ㅁ'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도 존재하기 때문에 평파열음화에 의한 'ㄷ, ㄱ'은 무조건 'ㅂ'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또 한 번의 과정 즉 비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비음화 과정의 유무는 두 음운과정, 즉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13) 'ㄹ'은 물론, 'ㅅ', 'ㅈ' 등은 혀의 정점에서 조음되는 것이 아니므로 [-둔중질(grave)]로 파악하려는 논의가 보다 합리적일 듯하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필자의 논문에서 사용했던 용어 [설정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ㅇ/ŋ/'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는 사실 수의적인 규칙이라고 하지만 이 세 지역어에서만큼은 아주 자연스러운 발화로 나타난다. '면구(面灸)스럽-', '천방(川防)'은 각각 '밍ˇ구', '첨방''으로 발화된다. 한자어에 관한 지식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위치동화된 발화를 기저형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렇듯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의 과정이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발화이고 그 이전의 도출형이 보다 어색한 발화라고 말할 수 있다.

4.1.5. 경음화

경음화는 평음 'ㅂ, ㄷ, ㅅ, ㅈ, ㄱ'가 평파열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러한 과정은 (6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114] 아울러 경음화가 평파열음화에 후행하는 과정임도 확인할 수 있다.[115]

(67) 문경·영주/울진

가. 입+디만→입띠ˆ만(着, 이'부이) 덮+세→덥세→덥'쎄(蓋, 더'푸이)
뺏+제→뺃제→뺃ˇ쩨(奪, 빼'슨) 좇+고→졷고→졷'꼬(追, 조'차)[116]
뜯+디만→뜯'디'만(分, 뜨'든') 맡+고→맏고→맏'꼬(任, 마'타)
땋+지→딱지→딱'찌(削, 따'까) 볶+고→뽁고→뽁'꼬(炒, 뽀'까)
먹+세→먹'쎄(食, 머'근)

나. 서답/세답+도→서답'또/세답'또(澣, 서다'비/세다'비)
앞+도→압도→압'또(前, 아'피) 저봇+도→저볻도→저'볻'또(衣, 저'보'시)
돌쪽+도→돌ˇ쪽또(楅, 돌ˇ쪼기) 서숙+도→서ˇ숙또(粟, 서ˇ수기)
벜+도→벅도→벅ˆ또(廚, 버ˆ키)
갑ㅆ+도→갑도→갑'또'(價, 갑'씨') 넉ㅆ+도→넉도→넉'또(魂, 넉'씨)

(67가)는 활용에서의 경음화 과정을, (67나)는 곡용에서의 경음화 과정을 보인 것이다. 'ㅂ, ㄷ, ㄱ'에 후행하는 자음은 필수적으로 경음으로 변동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간말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이다.

(68) 문경·영주/울진

가. 안+고→안ˇ꼬(包, 아'나) 신+고→신ˇ꼬(履, 시'는)

---

114) 물론 어간말 후음 'ㅎ/ㆆ'과 'ㅂ, ㄷ, ㄱ, ㅈ'의 통합은 '유기음/경음'으로 변동하고, 어간말 후음 'ㅎ'과 'ㅅ'의 통합은 후행하는 'ㅅ'이 경음으로 변동한다. 이러한 관찰은 공시적인 네 음운과정 중 '축약'이 '교체'에 앞서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임석규 2004다).

115) '덮+세→덮쎄→덥쎄', '좇+고→좇꼬→졷꼬'와 같은 과정이라면 평파열음 뒤에서 경음화가 아닌 장애음 뒤에서의 경음화라고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경음화가 평파열음화에 후행하는 것으로도 기술할 수 없다. 본고의 입장은 보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지한 것이다.

116) 이하에서 위치동화는 과정 속에 따로 표시 않기로 한다.

나. 깜+고→깜'꼬'(洗髮, 까'마')　　　　　품+고→품'꼬'(懷, 푸'머'/푸'마')
씨담~씨다듬+지→씨'담'찌~씨'다'듬찌(撫, 씨'다'마~씨'다'드머)
더듬+고→더'듬꼬~더듬'꼬(訥, 더드머 HLL~LHL)
다. 앉+고→안'꼬(坐, 안'자)
라. 쌂/쌈ㅁ+고→쌈ˇ꼬(蒸, 쌀'마/쌈'마)　　굶/굼ㅁ+고→굼ˇ꼬(餓, 굴'머/굼'마)

(68가,나)의 경음화는 논자에 따라 달리 설명되지만 'ㄴ, ㅁ'을 말음으로 하는 활용 어간에 후행하는 어미초자음 'ㄱ, ㄷ, ㅂ, ㅅ, ㅈ'은 경음화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117) 그런데 (68다), (68라)의 예를 비롯한 (69)의 자음군 말음 어간에서의 경음화도 임석규(1999:38-39)에서처럼 '활용 어간'이라는 형태론적 제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118)

(69) 영주/문경·울진
밟+고→ 발ˇ꼬(踏, 발'바),　　　　　떫/떪+고→떨ˇ꼬/떨ˇ꼬(澁, 떨ˇ부이/떨ˇ부이)
핥+고→할'꼬(舐, 할'타),　　　　　부럽/붋+다→부럽'따/불'따(先望, 업ˇ씨이)
끍+고 →끌'꼬(搔, 끌'그이),　　　　맑+고→말'꼬(淸, 말'가)
들ㆆ+고119)→들'꼬(聞, 드'르이),　　걸ㆆ+고→걸ˇ꼬(步, 거'르이)
물ㆆ+고→물ˇ꼬(問, 무'르이),　　　눌ㆆ+고→눌ˇ꼬(飯, 누'르이)
께달ㆆ+고→께달ˇ꼬(覺, 깨다'라)　　실ㆆ+고→실ˇ꼬(載, 시'르이)
뿔ㆆ+고→뿔ˇ꼬(氾, 뿌'르이)

즉 '밟-'과 어미 '-고'의 통합에서 '밟-'이 활용 어간이므로120) 후행하는 평음은 경음으로 되고 이어 자음군이 단순화되어 'ㅂ'이 탈락된 표면형 '발ˇ꼬'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면 후음말음어간인 경우는 '놓'+세→놑'세→놑'쎄→노'쎄(放)'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 '놓'+세→놓'쎄→놑'쎄→노'쎄(放)'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찰음화를 상정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ㄹ' 말음을 가진 '울-(泣)' 류의 용언이다. 그런데 'ㄹ'은 모음과 자연부류를 형성하므로 'ㄹ' 말음 어간은 개음절 어간들처럼 평음을 경음화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에서 어간말자음이 [-모음성]인 경우('ㅎ' 제외121))는 후행하는 평음을 모두 경음화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2)

117) 이병근(1975:88-92)에서 '안(抱)+고, 안+기'에서의 경음화를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언급한 바 있고, 송철의(1977:52-53), 김성규(1987:56-59)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필자는 '안ˇㆆ'과 같이 어간말에 'ㆆ'의 설정을 꺼리는데 그것은 배주채(1989:56-57)에 의지한 때문이다.

118) 이하의 내용은 임석규(2004다)의 일부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119) '들'또보도'(듣지도 보지도)로도 나타난다. 아울러 문경지역어에서는 '들ㆆ-' 이하의 예들이 중부방언과 같은 패러다임(소위 ㄷ 변칙 동사 패러다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도 밝힌다.

120) '여덟+보다→여'덜보다(八)'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이 어간이 '여덜'로 재구조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덜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곡용 어간과 활용 어간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체언의 자립성과 용언의 의존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121) 어간말음이 'ㅎ'인 경우에는 유기음화가 일어난다. 임석규(2004다:312-3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축약이 국어의 음운규칙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이 세 지역어에서는 일괄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경남의 일부방언에서 '밟+고→발꼬'에서처럼 어미초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됨에 반해, '안+고→안고'에서는 어미초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의도하는 연구가 어차피 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밝히려는 큰 목표에 있는 것이라면 임석규(1999)의 방법은 전 방언권을 대상으로 할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김영기(1975), 박경래(1984), 박경래(1985), 이진호(2002), 임석규(2004다)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70), (71)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어미초자음을 경음화하는 자음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70) 핥+고→할'꼬(舐)~할ˇ꼬

(71) 가. 업ㅆ+고→업ˇ꼬(無, 업씨'이)

나. 목ㅆ+도→목'또(割當量, 목'씨)

(70)에서의 최종도출형 '할꼬'에서의 경음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부터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간말자음 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평폐쇄음화된 ㄷ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71)에 제시된 예와 같이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인 경우에는 어간말의 두 자음 중 어느 자음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인가. 먼저 (71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71가)에 제시된 표면형 '업ˇ꼬'를 도출하는 방법은 (72)에서와 같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72) 가. 업ㅆ+고→업ㄷ고→업ㄷ꼬→업ˇ꼬

나. 업ㅆ+고→업고→업ˇ꼬

(72가)와 (72나)의 도출과정을 통해 볼 때, 최종도출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초자음을 경음화하는 자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2가)처럼 평폐쇄음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느냐 아니면 (72나)처럼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음화를 유발하는 자음은 달라진다. (72가)는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이고 (72나)는 자음군 중 앞 자음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이다.

(72나)의 도출과정이 간결성 측면에서는 (72가)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표면형의 도출을 위해 (70)의 '핥+고'에서는 평폐쇄음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71가)의 '업ㅆ+고'에서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이는 원자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또한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한 인위적 장치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70)의 '핥+고', (71가)의 '업ㅆ+고'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때라야 비로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72나)와 같은 도출 방식이라면 (70)에 제시된 표면형을 도출할 방법이 없다.

활용형 '할'타', '할'꼬'를 통해 우리는 기저형을 '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활용형 '할'타'의 경우는 기저 어간 '핥-'과 어미 '-아'가 통합되었는데 어간의 교체는 일어난 것이 아

122) 최명옥(2004:166-170)와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 'ㄹ'로 시작하는 자음군 말음 어간과 어미의 통합에서 중간과정의 차이를 보인다.

니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활용형 '할'꼬'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73)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73) 가. 핥+고→핥고→핥꼬→할'꼬~할ˇ꼬
나. 핥+고→할'꼬~할ˇ꼬

(73가)의 경우는 평폐쇄음화를 겪은 ㄷ이 후행하는 어미의 초성을 경음화시킨 후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올바른 표면형 '할'꼬'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적격한 표면형인 '*할고'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자음군단순화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적격한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는 (73나)에서와 같이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 세 자음 중 'ㅌ'이 탈락한 후 그 보상적인 결과로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두 음운과정의 차이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경음화 규칙보다 먼저 적용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간결성 측면에서는 (73나)와 같은 도출이 당연히 우위에 있지만 (73나)에서와 같이 탈락한 자음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음군단순화 규칙에 의해 탈락한 자음이 어떻게 후행 분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또 국어에서 탈락에 의한 보상적 경음화,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음화 등이 가능한지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123] 이로 볼 때, 자음군에서의 경음화는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처리하기보다는 (73가)와 같은 과정에 의한 경음화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간말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만이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활용에서의 경음화는 비음을 말음으로 하는 비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경음화(신+고→신꼬), 평파열음 뒤에서의 경음화(갚+세→갑세→갑'쎄, 핥+고→핥고→핥꼬→할'꼬)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되었다.

다음 (74)의 자료는 곡용에서 확인되는 'ㄹ' 뒤에서의 경음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화는 영주지역어에서 수의적이지만 빈도수 측면에서 90% 정도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문경지역어에서는 20% 정도, 울진지역어에서는 70% 정도로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경음화되지 않은 어형에 비해 경음화한 어형이 월등히 많이 확인되는 영주지역어 자료만을 나열하기로 한다.[124]

(74) 가. 말+도→말ˇ또(言, 마ˇ리)　　발+도→발'또'(足, 바'리')
게랄+도→게'랄또(卵, 게'라리)　　달갈+도→달'갈또(卵, 달가리 HLL~LHL)
덤불+도→덤불'또(蘿, 덤부'리)　　이울+도→이'울또(衾, 이'우리)
장물+도→장ˇ물또(醬, 장ˇ무리)　　징컬+도→징'컬또(泥, 징'커리)

---

123) '쌓+으니→싸으니→싸:니'에서와 같이 이병근(1978:50), 정인호(1995:60), 김경아(2000:117) 등에서는 후음 탈락과 '으' 탈락에 의한 장모음화를 인정한다. 반면, 한영균(1988:8)에서는 후음 탈락이 장모음화의 동기는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으' 탈락에 의한 장모음화만 인정하고 있다. 탈락에 의한 장모음화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로 파악한다.

124)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임석규(2004가)의 내용을 가져와서 보완한 것이다.

cf. 울^또[125](우리들도, 울진)
나. 감+도→감ˇ도(柿, 가ˇ미)　　　　삼+도→삼'도(蔘·三, 사'미)
그놈+도→그'놈도(厥者, 그누미)
다. 예신+도→예'신도(耳順, 예'시니)　　　　마흔+도→마'흔도(不惑, 마'흐니)
간+도→간'도'(味, 가'이)　　　　반+도→반'도(床, 바'이)

일견 어간말이 'ㄹ'인 경우는 후행하는 자음을 경음화시키고(74가), 음절말이 'ㅁ, ㄴ'인 경우는 후행하는 자음을 경음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74나,다). 그러나 (75), (76)의 예를 통해서 음절말의 'ㄹ'이 후행하는 자음을 모두 경음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75) 말+버텀→말ˇ버텀(言, 마ˇ리). *말뻐텀

(76) 말+거치→말ˇ거치(言, 마ˇ리), *말꺼치

즉, 'ㄹ'을 말음으로 하는 곡용 어간이 ㅂ' 또는 'ㄱ'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곡용의 경음화는 어간말이 'ㄹ'일 때로 한정되어 있고 그 'ㄹ' 뒤의 자음도 'ㄷ'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곡용 어미 '-데로'에서의 경음화도 (77)을 통해 확인된다.[126]

(77) 절+데로→절'떼'로(槇, 저'리')　　　　말+데로→말ˇ떼로(言, 마ˇ리)
질+데로→질'떼'로(道, 지'리')　　　　아들+데로→아'들떼로(子, 아'드리)
딸뜰+떼로→딸'뜰'떼로(女, 딸'뜨'리)

(74가)에서와 같이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 곡용 어미 '-도'가 경음화하는 예는 최명옥(1980) 이후로 이미 활발히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77)의 자료가 보고되면서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의 경음화가 '-도'의 문제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78)을 통해 곡용에서의 경음화는 'ㄹ-ㄷ'의 연쇄에서뿐만 아니라 'ㄹ-ㅈ'의 연쇄에서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78) 말+조차→말ˇ쪼차(言, 마ˇ리)　　　　질+조차→질'쪼'차(道, 지'리')
물+조차→물'쪼'차(水, 무'리')

김반섭(1983:69),[127] 임석규(1999:41)에도 제시되어 있는 (78)과 같은 예를 통해서 곡용 어간

125) 해안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형인 듯하다. 전라남도 남부에서도 이런 어형들을 확인할 수 있다.
126) '-도', '-데로'의 경음화는 최명옥(1982:146)에서 확인되었다. 영주지역어에서는 중부방언의 '-더러'에 해당하는 형이 항상 '-트'러'로 재구조화되어서 경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127) 제보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주지역어의 경음화 현상을 조사한 김반섭(1983:68-69)에는 자랑쓰럽다(63명). 탐쓰럽다(59명), 참뙤다(33명), 민때머리(88명), 맛이 달따(73명), 물건을 달찌(81명) 등과 같은 어형도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의 말음 '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다시 어미초자음 'ㄷ'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어미초자음 'ㄷ'과 'ㅈ'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미초자음 [+설정성]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ㅅ'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를 찾을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서울+서→서울써'에서 나타나는 경음화는 (78)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곡용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설정성] 자음이 경음화된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조사항목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 보자. 환경을 단어 경계에까지 넓혀 볼 수 있다면 좋을 듯하다. (79), (80)에 제시된 예들을 통해 단어 경계에서의 경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자료는 단어 경계이지만 하나의 성조군을 이룬다.

(79) 가. 물'쪼'(물 줘), 불'쪼'(불 줘), 물'쪼'와(물 좋아)
나. 불'딸'라(불 달라), 말ˇ떼(말 돼), 걸'따'라(걸을 말판에 달아), 딸'뚤'빼끼(딸 둘빼끼)[128]
다. 불'쌀'구코(불 살리고),
cf. *물깔아(물 갈아), *물빼려(물 버려)

(79)에 제시된 예를 통해 후행성분이 ㄷ으로 시작될 때뿐만 아니라 ㅈ, ㅅ으로 시작할 때에도 경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ㄹ 뒤에서의 경음화는 어미초자음이 [+설정성] 자질을 지닌 경우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129] (79다)의 경우를 참고해 볼 때, 'ㅅ'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가 존재한다면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79)와 같은 단어 경계에서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80)을 통해서도 단어 경계(한 성조군 형성)에서의 경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80) 가. 잘뜨'나'(잘 드나, 刀), 잘뙜^어(잘 됐어), 열'딸'라고(열 달라고), 열'쎌'테이(열 셀 테니)
나. 잘씨^바(잘 세어 봐), 잘쌀구'코(잘 살리고), 둘ˇ쌀구코(둘 살리고)
다. 잘쪼'도'(잘 줘도), 둘ˇ쪼도(둘 줘도)
라. 예ˇ럴#뜰'먼(例示, 울진-예ˇ럴#띠'리모), 무'럴'#띠'레'(물을 들여, 染色), 그소'릴#뜨'르이(그 말을 들으니)
cf. *잘빧아(잘 받아), *둘꼴라(둘 골라)

용언과 그에 선행하는 부사 '잘' 또는 수사 '열', '둘' 등의 통합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면

---

128) (79)에 제시된 'ㄹ'에 후행하는 모든 성분은 평음으로 실현됨을 밝힌다. '딸'에 후행하는 '둘'도 마찬가지이나 '둘'에 후행하는 '-빼끼'는 '네빼'끼(吾밖에)', '세'빼'끼(牛밖에)' 등과 같이 항상 경음으로 실현된다.

129) 이호영(1996:163), 권인한(1997:250-251), 배주채(2003)에서는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배주채(2003:258-260)에서는 'ㄹ' 뒤에서의 경음화에 대해서 후행 음절이 ㄷ, ㅅ, ㅈ으로 시작할 때 경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또 3음절의 경우 경찰대, 직할시, 열손실, 발달사, 물질적 등에서는 경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그러한 예외들조차도 모두 경음화된 어형이 나타난다.

(80)에서와 같은 경음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80)의 예를 통해서도 후행하는 용언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80라)는 특이하게도 한 성조군을 넘어서까지 ㄹ 뒤에서 경음화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표시된 표면성조가 두 성조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79), (80)에서의 단어 경계에서뿐만 아니라 '물씬', '살짝', '벌떡' 등 고유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물론, 파생어 '딸'뜰'', '아'들뜰', 부사와 보조사의 결합(잘'또)에서도 경음화가 확인된다. 경음화가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활용에서의 연쇄를 제외하면 'ㄹ'과 '[+설정성] 자질을 가진 평음'이 이어지는 경우, 후행자음의 경음화는 상당히 넓은 적용 환경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문제는 '산또(HL, 山)', '강또(L·HH, 江)', '돈또(L·HH, 錢)'와 같은 젊은층에서의 경음화 과정(신승원 2000:163-165)이 보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는 쉽게 찾을 수 없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나 동남방언을 구사하는 화자들에게서는 '산'또', '강ˇ또', '돈ˇ또'와 같이 경음화된 발화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규칙의 확대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130)

(77)~(80)에 제시된 예들은 선행성분이 유음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81)은 선행성분이 유음으로 끝나는 경우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131)

(81) 가. 서울+서→서ˇ울써(地名)　　울산+서→울'싼'써(地名)
　　포항+서→포'항'써(地名)　　처람+서→처'람'써(地名)
　나. 종쩜+서→종'점써(停, 종'쩌미)　　장날+서버텀→장'날써버텀(市, 장'나리)
　　시장+서→시ˇ장써(市場, 시ˇ자이)
　　cf. 경주+서→*경주써(地名)

(81가)는 고유명사에 '-서'가 통합된 경우이며 (81나)는 보통명사에 '-서'가 통합된 경우이다. 곡용 어간 말음이 유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81)의 경음화는 (77)~(80)에서의 경음화와 그 성격이 다르다. (81)에 제시된 경음화는 '-에서'에서의 어미 첫 음절 '에'의 탈락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132) (81)에 제시된 경음화는 영동방언에서도 나타나는데, 경북서부방언에 속하는 상주 지역어와 금릉지역어에서는 (74가)와 같은 경음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하다.133) 각 지역어마다 (77)~(81)에 제시된 예들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

130) 야구 선수였던 이만수는 '농ˇ담또'라고 발화하기도 하였다. 또 서남방언 화자에게서 우연찮게 '아들뽀다'를 들은 적이 있다. 발화 실수의 차원은 아니다. 규칙의 확대인지 규칙의 오적용인지 좀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요즘은 대중매체에서 '신분중꽈'라고 하는 발화도 여러 번 확인된다. 중국 유학생 중에서는 '물+과'도 경음화해서 발음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했다. 그것은 '탈껏, 할껏'에서의 경음화와 관련지은 듯하다고 했다. 어떻든 규칙에 맞지 않는 경음화가 요즈음 많이 확인되는 것이 사실이다.

131) 제시된 경음화는 특히 울진지역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서'가 아니라 '-사'이므로 '서ˇ울싸', '포'항'싸' 등으로 실현된다.

132) 서남방언의 '서울까(←서울에 가)', 동북방언의 '아들께(←아들에게)' 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3) 영동방언은 김봉국(2002:59-60), 경북서부방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논의될 필요가 있다.134)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 평음 'ㅂ, ㄷ, ㅅ, ㅈ, ㄱ'의 경음화의 양상은 (82)와 같으나 정밀한 관찰이 요청된다.

(82) 영주/문경·울진
가. 가'실'뿐(가실 분), 델떼'로(될 대로), 줄'떼(줄 데), 멀^쭈도~멀^쭐또(먹을 줄도), 할'쑤인나(할 수 있나), 할'꺼인나~하'꺼인나(할 것 있나)
나. 가'신'분(가신 분), 준'데(준 데), 먼^주도(먹은 줄도), 항'거(한 것),
cf. 무'너질벡/빅, 수'물밭(播種할 밭), 무'너질다리, 무'너질장소, 무'너질강뚝

(82)에 제시된 예를 통해 볼 때, 'ㄹ' 뒤에서는 경음화가 나타나지만, 'ㄴ' 뒤에서는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 'ㄹ' 다음에서는 'ㄷ, ㅈ'뿐만 아니라 'ㅂ, ㄱ'도 경음화된다. 따라서 곡용 어간의 말음 'ㄹ' 다음에서의 경음화와 관형사형 어미 'ㄹ' 다음에서의 경음화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는 주지하듯이 통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홇ㆆ배: 훈민정음언해). 그러나 '무'너질벽', '무'너질다리', '무'너질제방', '수'물밭' 등에서는 수의적으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기도 하므로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일반화는 주의를 요한다. 선행 요소의 음절수, 후행요소의 음절수, 기식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후행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의존명사의 평음이 경음으로 변동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수관형사와 의존명사의 결합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135)

(83) 영주/문경·울진
가. 열'끄'루(十株), 열'꼰'/열'꾼'(十劵), 열'싸'람(十人), 열'뼁'/열'삥(十甁), 열'뻔'/열'뿐'(十回), 열'떼'(十斗), 열'짜'(十尺)
나. 여'덜끄루(八株), 여'덜꼰/여'덜꾼, 여'덜싸람, 여'덜뼁/여'덜삥, 여'덜뻔/여'덜뿐, 여'덜떼, 여'덜짜
cf. 항그루'(一株), 한곤'/한군', 한사^람, 함벵'/빙', 한본'/한분', 한'데, 한'자

역시 'ㄹ' 뒤에서만 평음 'ㅂ, ㄷ, ㅅ, ㅈ, ㄱ'이 경음으로 변동됨을 알 수 있다(83가). 이러한 양상은 앞서 살펴본 'ㄹ'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의 경음화 양상 — 'ㄹ' 다음에서는 'ㄷ, ㅈ'뿐만 아니라 'ㅂ, ㄱ'도 경음화된다 — 과 환경은 동일한바,136) 이 또한 수관형사의 말음 'ㄹ' 뒤에서

134)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음화가 확인된다. 영주지역어에서의 집'씨이따('짚신이다'의 문맥), 집'씨이씨더 등이 그것이다. 민원식(1994:105)는 어간에 통합하는 어미로 '-잇다'를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설정 근거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인는'게따, 인는'거따, 집'씬이쎄 등은 경음화의 기제(-는 것 같다, ㄹ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13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섭(1994:67)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옳', '뤃' 등 'ㅎ' 말음의 화석화가 'ㅅ' 후치성의 기원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볼 때 '열끄루', '열꼰/열꾼' 등에서의 경음화가 잘 이해될 수 있다.

의 경음화라는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열+보다', '여덜+보다'와 같이 ㅂ으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와의 통합에서는 경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를 필자는 곡용 어간의 자립성과 관련지어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은 평파열음화 혹은 자음군단순화를 겪은 단독형 그 자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여덟+보다'의 통합이 아닌 '여덜+보다'의 통합으로 파악해야 경음화 실현 여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경음화는 꽤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언의 경음화는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를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기술하고 자음군어간과 관련한 경음화는 평파열음화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 곡용과 단어 경계 등에서는 'ㄹ' 뒤에 첫 자음이 [+설정성] 자질을 지닌 후행성분일 때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ㄹ'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의 경음화 환경과 'ㄹ'로 끝난 수관형사 뒤에서의 경음화 환경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위에서 논의한 경음화 중, 지역어 간 차이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본다.

	문경	영주	울진
경음화 '말또'	수의성 약	수의성 강	수의성 강
경음화 '포항써'	수의성 약	수의성 강	수의성 강

4.1.6.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순음 아래에서 비원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공시적으로 확인되는 원순모음화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모두 '으' 또는 '어'가 '우'로 바뀌는 경우이다. 하나는 순음 아래에서 '으'가 '우'로 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뒤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으'가 '우'로 바뀌는 것이다.[137] 전자의 경우는 (84), (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84) 문경/영주/울진
입+엉께/으이께네/어이까네→ 이'봉께/이'부이께네/이'부이까네(着)
갚+으까→가'푸까(報)　　업+으까→어'부까(負)
좁+으이→조'부이(峽),　　숨+으로→수'무'로(隱),
곪+을따→골'물따(腫)　　굶+으이→굴'무이(餓)
뚫/떫/떫+을라/얼라/얼라→뚤'불라/떨'불라/떨'불라(貫)

(85) 영주/문경·울진
짚+으로/어로→지'푸'로(藁)　　풀섶+으로/어로→풀서'푸로(草)

136) 물론 '열', '둘', '여덜'(수 관형사) 뒤에서는 예외 없이 경음화가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필수적 경음화 측면에서는 ㄹ 관형사형에 뒤따르는 의존명사라는 조건이 더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137) '원순모음화'와 '전설고모음화'에 대한 고찰은 임석규(1999)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집+으로/어로→지'부로(家)　　　　　　곱+으로/어로→고'부로(倍)
덤+으로/어로→더'무로(追加)

(84)는 활용, (85)는 곡용에서 나타나는 원순모음화 과정이다. 모두 어간말 원순자음의 영향으로 후행하는 어미가 원순모음으로 변동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86)에 제시된 어간 유형이다.

(86) 공통자료
가. 기뿌'고, 기'뻐도(喜)
나. 시무'먼~수무'먼(植), 시'머도~수'머도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자는 기저형을 '기뿌'-∽기'쁘-', '시무'-∽심(H_1)-~수무'-∽숨(H_1)-'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86)에 제시된 유형은 원순모음화로 처리하지 않는다. (87)은 (86)과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87) 영주·울진　　　　　　　　　　　　　　문경
푸'고'(汲), 푸'먼', 퍼'도', 퍼'라'　　　　퍼'고', 퍼'만', 퍼'도'

특히 문경지역어 자료인 '퍼고', '퍼만', '퍼도'는 '퍼-'로 어간이 단일화되었으므로 원순모음화와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주와 울진지역어의 자료는 일견 원순모음화와 관련시킬 수도 있다. 어간을 '프-'로 설정하여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을 원순모음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순음 뒤에는 모음 '으'가 이어질 수 없다'는 음소배열제약으로 이해하여 패러다임 '푸고, 푸먼, 퍼도, 퍼라'를 복합기저형 '푸(H_2)-∽퍼(H_2)-'로 설정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모음어미와의 통합형 '퍼X'는 이전 시기의 어간 '프-'에 모음어미가 통합한 형태가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진 결과이다.
(68)에서는 앞뒤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비원순모음 '으'가 원순모음 '우'로 바뀌는 과정을 검토하기로 하자.

(88) 공통자료
가. 죽+을따→주'굴따(死)　　죽+으입씨다[138]→주'구입씨다　죽+으로→주'구로
뽂+을→뽀'꿀(炒)　　뽂+으로→뽀'꾸로　　쏙+으이→쏘'구이(欺)
솎+으로→소'꾸로(選)　　꾿+을→꾸'둘(硬)
나. 속+으로→소ˇ구로(內)　　목+으로→모'구로(咽)　　눈+으로→누'누'로(眼)

(88가)는 활용, (88나)는 곡용에서 나타나는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이다. (88)에 제시된 예들은 말음절이 '오/우'인 폐음절 어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89)를 통해 볼 때 '오/우를 가진 폐음절 어간'이란 기술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8)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시더'가 보다 일반적인 어미이다.

(89) 공통자료

놓+으먼→노오먼→노^먼(放, 노'코)　　바꿓+으먼→바꾸우먼→바꾸^먼(換, 바꾸'코)

줗+으먼→주우먼→주^먼(拾, 주ˇ꼬)

cf. 옇+으먼→여어먼→여^먼(入, 여'코)

우리는 (89)에 제시된 예를 통하여 '오/우'를 가진 폐음절 어간이라 할지라도 후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어미 '으X'와 통합하더라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옇+으먼→여어먼→여^먼'에서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경우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의 환경은 '오/우'를 가진 폐음절 어간 중 후음을 제외한 폐음절 어간이 어미 '으X'와 통합할 때로 한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통해 볼 때 위에서 설정한 동화의 환경은 다시 수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90) 공통자료

좋+으먼→조ˇ우먼(好)　　좋+으이→조ˇ우이　　cf. 좋+아도→조ˇ와도~조ˇ아도[139]

(90)에 제시된 원순모음화는 'ㅎ' 말음 어간 중 '좋-'에만 국한된 원순모음화이다. 'ㅎ'을 말음으로 가진 '놓-(放)'은 어미 '으(X)'와 통합할 때 완전순행동화를 겪는(놓+으먼→노오먼→노^먼)' 반면, '좋-'은 어미 '으(X)'와 통합할 때 완전순행동화를 겪지 않는다. '좋-'이 형용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복합성조를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음운론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후자 쪽이 보다 바람직한 추측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기 어렵다. 어떻든 'ㅎ' 말음 어간이 어미 '으X'와 통합할 때, 원순모음에 의해 원순모음화하는 예는 '좋-' 하나에 국한된다. '좋-'을 예외로 인정하여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의 환경은 더 이상 수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데 '놓+으먼'은 수의적으로 '노'우먼'으로도 실현된다. 그러면 '줗+으먼→주'우먼'도 완전순행동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오/우'를 가진 폐음절 어간과 어미 '으X'가 통합할 때 '으'가 '우'로 변동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도 당진지역어를 논의한 한성우(1996:34)에는 '꿈'과 대격의 '-을'이 통합할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으'와 '어'의 구분이 있는 영주지역어에서조차 대격조사가 '-을/-를'이 아니고 '-얼/-럴'이기 때문에 원순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꾸물, 꾸'멀'(夢)). 다만 'ㅁ'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으로', '으먼'과 통합할 때에는 '꾸'무'로(夢+으로)', '수'무'먼(隱+으먼)'에서와 같이 원순모음화가 확인된다.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매개모음어미는 '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어(대격, 주제격어미 계열)'와 '으(매개모음어미 계열)'의 차이에 따라 음운과정이 달리 실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139) '조ˇ와도'는 활음 w 첨가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아도→보와도(見)'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문경지역어에서 '존ˇ데(좋은데)', '존ˇ차(좋은차)'와 같은 형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유형은 중부방언에서도 꽤 확인된다. '추운데~춘(:)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으'와 '어'가 구분되지 않는 문경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도 '꾸'무'로', '수'무'먼'과 같은 원순모음화가 확인된다. 그러면 대격어미도 매개모음어미도 모두 '어'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음운론적 환경이라면 '꿈+얼'에서도 원순모음화가 확인되어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매개모음어미와 그렇지 않는 어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원순모음화를 겪는 것은 매개모음어미일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매개모음어미가 아닐 것이다. '주'굴떼(죽을 때)', '수'물' 떼(숨을 데)'에서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므로 관형사형 어미 또한 매개모음어미로 처리될 것이다.

4.1.7. 전설고모음화

전설고모음화는 공시적으로 'ㅅ, ㅆ, ㅈ, ㅊ'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어미 '으X'와 통합할 때 어미초 '으'가 자음의 영향으로 모음 '이'로 변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은 (91)에서 확인된다.

(91) 공통자료
늦+으이→느'지이(遲)　　쫓+으이→쪼'치이(追)
빗+으이→삐'시이(梳, 빗다)　　있+었+으먼→이'써씨먼(有)
업ˇ씰떼(없을#때)　　이씰찌'게(있을#적에)

(92) 공통자료(문경·울진의 '-으로'는 '-어로'임)
꽃+으로→꼬츠로→꼬'추로(花), *꼬치로　　낫+으로→나'즈'로(晝)→*나지로[140]
못+으로→모스로→모'수'로(釘), *모시로

(91)에 제시된 용언의 활용에서는 전설고모음화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92)와 같은 곡용에서는 전설고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141] 어미 '-으로'가 자연스러운 발화가 아니라서 전설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으로'는 '꼭까주'고(花)', '꼭까'꼬' 등과 같이 '-가주고~가이고(문경)'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미 '-으로'가 자연스러운 발화가 아니라서 전설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못+으로'에서도 원순모음화가 저지될 법하다. 그러나 '못+으로→모수로'에서는 원순모음화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원순모음화와 전설모음화의 규칙 적용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원순모음화의 음성적 동기가 전설모음화의 음성적 동기보다 강하다고 봄이 합리적일 듯하다.

---

140) 확인조사에서 더러는 전설고모음화된 어형이 확인되었지만 필자의 캐묻는 방식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자연발화에서는 해당 어형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141) 영주·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통시적인 변화의 예로는 '치'고'(舞)', '언'지고~언'제고(얹다)', '씨'고'(掃)', '씨'고'(冠, 書)' 등을 들 수 있다. 영주지역어의 '언지-'는 '얹-'에서 재구조화된 것인데 이렇듯 어간이 확장된 재구조화의 예로는 '얼'푸-(<읊-)(誦)'도 포함된다.

4.1.8. 활음화

활음화는 '이' 모음 또는 '오/우' 모음이 어미 '아(X)'와 통합할 때 각각 y 또는 w로 변동하는 음운과정이다.

활용에서의 활음화

먼저 'y'화에 대해 검토해 보자. (93)에서는 음절초에 자음에 없는 단음절 어간에서의 활음화를, (94)에서는 치경구개음을 초성으로 하는 단음절 어간에서의 활음화를, (95), (96)에서는 다음절 어간에서의 활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96)은 접사가 통합된 2음절 어간이다. 활음화 과정은 세 지역어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기저 어간에 따라 꽤 복잡한 양상을 띤다.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
(93)	이고,[142] 여도(戴)	이고, 여도	이고, 여도(이상 HH)
	cf. 띠고, 띠^도(躍)	띠고, 띠^도	띠고, 띠^도
(94)	저고, 저도(負)	지고, 저도	지고, 저도
	처고, 처도(打)	치고, 처도	치고, 처도
	쩌고, 쩌도(蒸)	쩌고, 쩌도	쩌고, 쩌도(이상 HH)
(95)	마시고, 마시도(飮)	마세고, 마세도	마시고, 마세도
	떤지고, 떤지도(投)	떤제고, 떤제도	떤지고, 떤제도(이상 HLL)
	건디리'고, 건디리^도(觸)	건디'레고, 건디'레도	건디'리고, 건디'레도
(96)	밀ˇ치고, 밀ˇ치도(推)	밀ˇ체고, 밀ˇ체도	밀ˇ치고, 밀ˇ체도
	살'리고, 살'리도(生)	살'레고, 살'레도	살'리고, 살'레도
	cf. 가'시'고, 가'시'도(行)	가'세'고, 가'세'도	가'시'고, 가'세'도

문경지역어의 경우에는 (93)에서만 활음화가 확인되고 (94)에서는 동모음탈락, (95), (96)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된다.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의 경우 활음화 과정은 (93), (94)에서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치경구개음으로 시작하는 어간에 한하여 분명히 드러난다.[143] 특히 (94)의 경우처럼, 활음이 표면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 이유는 활음화와 동시에 치경구개음 뒤에서 조음위치를 같이하는 'y'가 탈락되기 때문이다(崔明玉 1982:107).

(95)와 (96)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영주지역어와 문경지역어 사이에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영주지역어에서는 활음화 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어간이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울진지역어의 경우에도 일견 활음화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모든 용언은 (95), (96)에서와 같은 교체를 보인다. 심지어 선어말어미 '-시-'와 어

142) 문경지역어에서는 패러다임 '여'고, 여'지, 여'도''도 등장한다. '치->처-(打)'류의 재구조화(치'고', 치'니', 처'도'>처'고', 처'니', 처'도')와 동일하다.

143) 파찰음을 초성으로 하지 않는 CV에서는 '띠^도'에서처럼 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 '아(X)'의 통합에서도 같은 교체가 나타난다. 이에 '마시+아도→마시어도→마셔도→마세도'의 과정을 공시적인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활용에서는 예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95), (96)에 제시된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려 한다. 우선 (95), (96)의 예들은 단음절 어간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단음절 어간이 아니라면, 모음어미와 통합할 경우 문경지역어에서는 완전순행동화, 울진지역어에서는 활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영주지역어에서는 두 지역어와 다른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변동 및 재구조화는 어간이 'ㅣ'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96)에 제시된 용언들의 경우는 어간 내부에 형태소 경계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가시-'의 경우는 어간이 아니지만 '가시-'와 통합하는 어말어미를 고려할 때 '가시-'의 패러다임을 '가-'의 하위패러다임으로 상정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활용형의 음절수나 그 통합형의 어미 형태가 (95)에 제시된 용언의 패러다임과 일치된다. 문제는 경계를 상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이다. (97)에 제시된 어간이 2음절 어간이라 할지라도 (95)에 제시된 어간들과는 음운과정상 차이를 보인다.

(97)	가. *등[갋/밑]지고, *등지도(背)	*등제고, *등제도[144]	등지고, *등제도
	나. 등저고, 등저도(背)	등지고, 등저도	등지고, 등저도(이상 LHL)
	다. 떠러저고, 떠러전다(落)	떠러지고, 떠러저도	떠라지고, 떠라저도(이상 HLLL)
	라. 야ˇ단처고, 야ˇ단처도(詰)	야ˇ단치고, 야ˇ단처도	야ˇ단치고, 야ˇ단처도

(96)과 비교해 볼 때 (97)에 제시된 어간들은 다음절 어간이므로 (97가)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94)에 제시된 활용형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사실 이는 단순한 형태소 경계가 아니라 단어경계로 인식을 해야 한다. '등#지고', '떠러#지고', '야단#치고'와 같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단어경계로 말미암아 이들 어간들은 '지-', '찌-', '치-'의 패러다임과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언중들은 경계에 대한 정보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에서는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서의 활음화 과정을 살펴보자.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
(98)	가. 노'코, 나^도(放)	노'코, 나^도	노'코, 나^도
	부ˇ꼬, 부^도~버^도(注)	부ˇ꼬, 부^도~버^도	부ˇ꼬, 부^도~버^도
	나. 씨'코, 씨^도	씨'코, 씨^도	씩'꼬, 씨'가도
	지ˇ꼬, 지^도~저^도(作)	지ˇ꼬, 지^도	지ˇ꼬, 지^도~저^도
	찌'꼬, 찌^도~쩌^도(搗)	찌'꼬, 찌^도	찌'꼬, 찌^도~쩌^도
	cf. 조ˇ코, 조ˇ와도~조ˇ아도(好, 공통자료)		

144) 채옥자(2005:105)에는 '미젠따, 께제서, 만제서' 등의 활용형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경북북부지역어와는 변동양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형태소의 통합과 관계없는 음운론적인 변동인데 서북방언, 동북방언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변동 또한 방언구획의 주요 기준이 될 만하다.

(9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미 '아(X)'와의 통합에서 활음화를 거친 형태가 확인되는 것은 어간이 '놓-'인 경우이다.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된 후 활음화, 활음 탈락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꽇+아도→꼬아도→꽈도→까^도(煎, 꼬'코)', 뫃+아도→모아도→뫄도→마^도(集, 모'코)'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용언 '놓-'과는 달리 '좋-'은 같은 환경임에도 활음화를 겪지 않는다(좋+아도→*좌도, *자도). 이는 용언 '좋-'이 'Xoh' 말음을 가진 다른 용언과 달리 'L·H' 복합성조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좋-'이 형용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145)

다만 (98나)처럼 'Xih', 'Xiʔ'로 끝나는 경우 활음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활음화를 겪은 수의적 형태 '저^도(作)', '쩌^도(搗)', '버^도(注)'와 같은 예이다. 이들 활용형은 그 실현 빈도가 낮은 만큼 오히려 특별한 예들로 처리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는 'w'화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
(99)	오'고, 와'도'(來)	오'고, 와'도'	오'고, 와'도'
	보'고, 봐ˇ도~바'도'(見)	보'고, 봐ˇ도~바'도'	보'고, 봐ˇ도~바'도'
(100)	누'고, 노'도'(尿)	누'고, 노'도'	누'고, 나'도'
	주'고, 조'도'(與)	주'고, 조'도'	주'고, 자'도'
	두'고, 도'도'(放)	두'고, 도'도'	두'고, 다'도'
(101)	꾸고, 꺼도(借)	꾸고, 꺼도	꾸고, 꺼도
	꾸고~꺼고, 꺼도(夢, 借)	꾸고~끄고, 꺼도	꾸고~꺼고, 꺼도
	씨고~쑤고, 써도(粥)	씨고, 써도	쑤고, 써도~쏘도
	쏘고, 싸도(射)	싸고, 싸도	쑤고146), 써도~쏘도
	cf. 뜨고, 떠도(碁)	뜨고, 떠도(이상 HH)	띠'고, 떠'도'~띠^도147)

같은 성조 패턴을 보이는 용언들이라도 어간의 말모음이 '오'냐 '우'냐에 따라 활음화한 형태들이 지역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세 지역어 공통적으로 어간의 말음이 '오'인 경우는 활음화한 형태가 명확히 드러난다. 단, 어간 '오-'와 '보-'에서의 활음화 차이는 '보-'에서는 복합조로도 실현된다는 것이다.148) 그 차이는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음절초성의 유

---

145) 김정태(1996:127-130)에서는 임실지역어의 '좌(심병기 1985:61)'를 '놔(放)'와 관련된 규칙의 확산과정으로 이해하려 한다.

146) 최명옥(1982:38-39)에서는 경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음(ㅎ 포함)으로 시작되고 모음으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을 가진 동사의 대부분이 '오>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수-(쏘-, 射), 꾸-(꼬-, 索), 후-(호-, 縫)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47) 이 어간은 일반적으로 'H_2'를 기저성조로 하나 울진지역어에서는 'H_1'을 기저성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8) 이병근(1978:29)은 활음화와 관련하여, 비음절화에 대한 시간 단위의 보상으로, 이른바 보상적 장모음화규칙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오-'(來)의 경우는 '*오아' 또는 '와:'로 실현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보상적 장모음화에 대한 예외로 두었다. 이는 세 지역어에서도 적용된다. '봐ˇ도~바'도''에서의 수의성은 영주

무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수의적 성격을 보이는 '보아도/*오아도'의 차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00)에서처럼 어간모음이 '우'인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려운 용언들이다. 과거 어느 시기에 활음화를 거친 형태가 'wə>o'로 축약되어 현재에까지 투영된 것이라 봄이 좋을 듯하다. 다만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활음화로 파악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101)에 제시된 'u' 말음 어간과 모음어미 통합형을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필자는 울진지역어의 'u' 말음 어간(借, 射 ; 與)에서 어미 '아(X)'가 교체되는 불규칙성,[149] 또 나머지 두 지역어와의 통일된 기술(후의적성조형)을 위해 '자도', '나도' 등을 공시적인 활음화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아(X)'의 교체 참조). (101)에서는 '꾸-(借)'와 모음어미가 통합한 경우에 활음화가 확인된다. 또한 문경지역어의 '쏘-'와 모음어미가 통합한 때에도 공시적인 활음화가 확인된다. 그 밖의 경우는 i 말음 또는 ヨ 말음 용언이므로 활음화와 관련짓기 어렵다. 다만 수의적으로 '꾸-'와 같은 'u' 말음 어간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문경지역어를 연구한 민원식(1982:83)에는 'k'ヨ'go''로 제시된 바, (101)에 제시된 '꾸-' 형은 '꿈'에 유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울진지역어의 '쏘도'는 'wə>o' 축약으로 이해되므로 공시적인 활음화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102)를 통해 다음절 어간에서의 'w'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102) 문경·울진/영주

가. 싸우+아도→싸'와도~싸'아도(爭, 싸'우만·싸'우모/싸'우먼))
　　써우+아도→써'와도~써'아도(附會, 써'우고)

나. 이우/에우+아도→이'와도~이'아도/에'와도~에'아도(暗記, 이'우고/에'우고)
　　피우+아도→피'와도~피'아도(燃, 피'우고)

다. 추우+아도→추'와'도~추'아'도~*촤도(寒, 추'우'이)[150]
　　더루우+아도→더ˇ루와도~더ˇ루아도(→더롸도→더ˇ라도)(濁, 더ˇ루우이)
　　차구우+아도→차'구'와도~차'구'아도(→차과도→차'가'도)(冷, 차'구'우이)
　　무구우+아도→무구'와도~무구'아도[151](→무과^도→무가^도)(重, 무구'우이)
　　고마우+아도→고ˇ마와도~고ˇ마아도(→고ˇ마^도L·HH·LL[152]→고마도L·HHL)(謝, 고ˇ마우이)
　　뚜구우+아도→뚜'구'와도~뚜'구'아도(→뚜과도→뚜'가'도)(溫, 뚜'구'우이)

지역어에서는 후자가 우세형이고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는 전자가 우세형인 듯하다.

149) '주-(與)'에서만이 모음어미가 교체되지 않고 '꾸-(借)', '쑤-(射)' 등에서는 어미가 교체된다.

150) 송철의(1995ㄴ:285-286)에서는 중앙어의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을 대상으로, 어간말모음이 '우'일 때에만 'w' 탈락에 이은 활음화가 가능하고(구워~궈:, 누워~눠:, 추워~춰:), '오'나 '이'일 때에는 활음탈락에 이어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고와~*과:, 도와~*돠, 미워~*며:). 단, 청송지역어의 활용형 '다^라(도와라)'는 예외적이라 할 만하다(김세환 2005:78). 청송지역어에서도 '곱ˇ-(麗)'의 경우에는 규칙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음화의 환경과는 관계 없다.

151) '무거'와도~무거'아도'로도 나타난다. '무과^도'에서 고저복합조의 실현은 앞 음절이 고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103)에 제시된 예와 동일한 유형이다. '완전순행동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152) 대표적으로 영주지역어의 성조형을 제시했다. 울진지역어는 L·HL·LL→L·HLL와 같이 실현된다. 마지막 과정은 성조배열제약에 기인한 것이다. '무과^도'에서의 복합조 실현과 달리 '고마우-'는 첫 음절이 복합조이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102)의 예를 통해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활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153] '싸우아도', '추우아도' 등과 같은 형태가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송철의(1995나:28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음절 이상의 어간은 말음절의 두음에 따라 활음화와 관련된 음운현상이 달리 일어나는데, 어간이 2음절 이상이고 활음화를 겪게 될 음절이 초성을 갖지 않으면 활음화가 필수적이다.[154] 사실 이들 지역어에서 2음절 어간인 경우 구어에 한해서는 활음화를 겪게 될 해당 음절이 초성을 갖더라도 활음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단음절 어간인 경우 또한 이런 접근이 가능할 텐데 더러 '보'아'라'와 같은 형태가 실현되는 것은 매체의 영향 또는 교육의 영향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155] (102다)의 '더ˇ라도', '차'가'도' 등의 형태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더ˇ루와도', '차'구'와도'에서 다시 활음이 탈락되고 활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6] 그래야 '더ˇ라도', '차'가'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여전히 '추'아'도'에서는 '*좌도'가 실현되지 않기에 이런 과정을 상정할 수 없는데, 어간의 음절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ˇ아도'에서 '솨도', '사도'로 실현되지 않는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3)은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에서의 활음화 과정을 보인 것이다. 후음이 탈락된 후에는 (102)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활음화를 겪게 된다.

(103) 따룽+아도→따루'아도→따롸^도→따라^도(注, 따루'코)
뿌루중+아도→뿌루주'아도→뿌루좌^도→뿌루자^도(切, 뿌루주'코)

곡용에서의 활음화

활음화는 곡용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활음화로 파악한 최초의 논의는 崔明玉(1982)이다. 이어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한 곽충구(1994가:147-150), 채옥자(1999:157)에서도 곡용에서의 활음화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김봉국(2002:123-127), 임석규(2004:77-79)에서 성조와 관련지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104) 가. 자리+에→자레에(袋, 柄)　　밀까리+에→밀까레에(麵)
나. 정지+에→정제에(廚)　　도시+에→도세에(市)
고기+에→고게에(肉)

---

153) 'Xi'로 끝난 2음절 이상의 용언도 있을 법하지만 영주지역어에서는 'E'로 재구조화된 형태가 나타난다. 즉 '이기-(勝)'류가 '이게-'류로 재구조화되어 나타난다. 단 젊은층의 발화에서는 '이기고'와 같은 음성형도 나타나지만 어미 '아(X)'와 통합할 때는 '이게도'가 나타난다. 영주지역어에서는 공시적으로 'yə→E'규칙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어의 영향으로 '이기-' 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154) 이는 김완진(1972/1996:39)에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155) 원순모음화에서 검토한 '노^먼(置)', '노'우먼' 중 후자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156) '차'가'아도'는 '차'갑'~차'가'우' 어간에서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ˇ랍-~더ˇ라우-'는 이 세 지역어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가'도'는 '차'굽'~차'구'우'에서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ˇ라도'는 '더ˇ룹-~더ˇ루우'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ˇ라도'는 '더ˇ레도'와 같은 의미이다. '더ˇ레도'는 '무'세라(끔찍하-)'와 같이 통시적인 변화로 이해될 듯하다.

(104)는 최명옥(1982:108-109)에 제시된 예이다. 논의를 위해 崔明玉(1982:108-109)를 인용해 본다.

> (전략) 활음은 음성형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미 E와 결합된 결과가 모두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명사의 말모음이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 장모음은 완전순행동화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화의 경우에 어미 E가 명사 말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하는 것이 월성어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paŋ+E→paa(房), cilk'a+Esə[157] →cilk'aasə. 이런 사실로 미루어 제시된 예들은 활음화를 거친 것이 된다.

최명옥(1982:109)에서는 장모음의 생성에 대해 뚜렷한 해석을 유보하고 있지만 김봉국(2002), 임석규(2004가)에서는 '어미 E와 결합된 결과가 모두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성조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간의 성조가 LH인 '정지'와 HL인 '도시', '고기'에서의 활음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곧 성조배열제약에 따라 복합조(음장방언의 장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대로라면 (104나)와 같은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에→정제^, 도시+에→도'세, 고기+에→고'게'와 같이 표면형이 도출된다. 강릉·삼척·정선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봉국(2002:124-125)을 인용해 본다.

다리'(脚) + 에 → 다례^ → 다레^
y 활음화(H·L화) 활음 y 탈락
머'리(頭) + 에 → 머'례[HL·L] → 머'레
y 활음화(L·L화) 활음 y 탈락(L 탈락)

김봉국(2002)에서는 어간의 기저성조에 따른 표면형의 차이를 성조배열제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y 활음화가 일어난 중간 단계의 곡용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북방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동북방언을 대상으로 한 곽충구(1994가:147-150)에는 '산꼭때계(산꼭대기+에), 딥까례(딥까리+에), 자례에[158](자리+-에)'와 같은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를 참고할 때, 울진지역어에서도 y 활음화가 일어난 이후 활음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성조 층위를 고려할 때에도 어간 말모음이 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아래에서는 곡용에서의 활음화를 살펴보면서 아울러 활음화와 성조와의 상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조의 도움 없이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운과정에서 성조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105)에 제시된 예는 울진지역어자료이다.

(105) 가. 정지'+에→정제^(廚) 다리'+에→다레^(脚) 밀까리+에→밀까레^(麵)
나. 짠'지+에→짠'제(김치) 바가'치+에→바가'체(瓢) 싸름베'기+에→싸름베'게

157) 물론 최명옥(1982)에서는 'E'와 'ə'는 각각 'ɛ'와 'ɜ'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수정한 이유는 본고의 통일된 전사 방법을 위해서이다.

158) '자례에'는 필자의 관점에 기댈 때 '자레^'인 듯하다.

막걸리+에→막껄'레(醪)　세다'리→세다'레(梯)　열'시'+에→열'쎄'(十時)[159]
cf. 나'예'(年歲)←나(H_2)+에

(105)에 제시된 자료에 대해 어간말음 'ㅣ'가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둘째 음절 이하에 고저복합조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105가)의 모음탈락에서는 고저복합조가 실현되고 (105나)의 모음탈락에서는 고저복합조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복합조 실현 여부의 차이를 분절음 층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분절음운의 음운론적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시 성조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160] (105가)에서 고저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것은 바로 곡용 어간의 기저성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곡용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성조가 'H_1'일 때, 활음화 과정을 겪은 표면형에 고저복합조가 나타날 수 있다. (10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지'와 '다리'의 기저성조는 LH_1이며, '밀까리'의 기저성조는 LLH_1이기 때문이다. 분절음운 층위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며 성조 층위에서는 성조축약이 일어나서 고저복합조가 실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은 (105나)의 예에서도 활음화가 일어나며 아울러 성조축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장에서 우리는 처격어미 '-에'의 성조를 H_2로 설정하였다. '짠지+에'의 경우는 어간의 기저성조가 HL이기 때문에 성조변동규칙에 의해 처격어미는 'L'로 변동되는데, 그것이 활음화로 인해 어간말음절의 성조 L과 축약되면서 L·L이 되는 것이다. '다리+에'의 경우는 어간의 기저성조가 LH이기 때문에 성조변동규칙에 의해 처격어미가 'L'로 변동된다. 이 때 활음화에 의해 축약된 성조는 H·L이 된다. 이렇게 축약된 성조가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성조배열제약에 따른 성조변동규칙과 밀접히 관련된다. 성조변동규칙에 의해 H 다음에는 모든 성조가 L로 변동되기 때문에 축약된 성조 L·L은 표면성조로 실현될 수 없다. (105가)의 경우는 축약된 성조 앞에 놓이는 것이 L이기 때문에 고저복합조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성조방언에서 고저복합조와 저고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그 앞 성조가 L인 경우라는 앞 절의 내용을 상기한다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할 때 성조방언에서 성조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곡용에서의 활음화는 순수음운론적인 것이 아니다. 접속을 나타내는 곡용어미 '-에다가'(예: 연'피레다가 골'페네다가 마˘이사따)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처격어미일 때에만 활음화가 나타난다. 이는 (10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6) 싸름베기+에(처격)→싸름베'게
　　　싸름베기+에다가(처격)→싸름베'게다가

---

159) '어금니+에'에서 활음화가 적용된 '어금'네'를 조사해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편, 김봉국(2002:126-127)에서는 곡용에서의 활음화를 여러 부류로 나누면서 활음화의 저해요인에 대해 언급하려 했다. 특히 '돼지+에'와 같이 어간이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돼지+에'는 구어에서 잘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돼지+에게' 또한 '돼지한테'로 발화되기 때문이다.

160) 임석규(1999:29-30)에서는 활용에서의 활음화와 완전순행동화에 대해서도 성조를 고려하여 – HHL(활음화), HLL(완전순행동화) – 해석한 바 있다.

싸름베기+에다가(접속)→싸름베'기에다가~싸름베'기에다가, *싸름베게다가
예) 니ˇ가 버'린기 주바'리에다가 싸름베'기에다 노'끄'레다[161]

한편 또다른 활음화의 예로 '보기+에→보게^'를 울진·영주에서 확인하였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수집하지 못했다.[162] '하기에 어렵-'류는 '-에'가 생략된 채로 발화되는 것이 구어의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울게 때렸다)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107) 공통자료

잔'치'+에→잔'체'(宴)	거'기+에→거'게(거기)
여'기+에→여'게(여기)	어'디+에→어'데(어디)

이러한 예들은 어떠한 어미가 통합되더라도 '잔체, 거게, 여게, 어데'처럼 재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재구조화 경향은 중세국어의 어형(잔치/잔쳬, 거긔, 여긔, 어듸/어듸 등)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어간들은 활음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163]

곡용에서의 w 활음화는 공시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당체^(당초에),[164] 마ˇ게(마구에)' 외에 울진지역어에서는 '고#우+에→고웨^'처럼 활음화 과정을 거친 듯한 형태가 눈에 띈다. 그러나 '부루'+에(상추), 체ˇ수+에(채소), 하토'[165]+에(화투)'에서는 활음화 과정을 보이지 않고 '부루'에, 체ˇ수에, 하토'에'와 같이 활음첨가의 과정을 보여준다. 곽충구(1994가)에서는 육진방언의 '상 뒈서(상(床) 뒤-에서), 시쇄 뒈(시쇄時計 뒤-에)' 등을 제시하여 곡용 어간말 모음 '우'의 활음화를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단음절 어간모음 '우'에 처격어미 '-에'가 연결되면 활음화는 수의적이라고 했다. '우' 단음절일 어간일 경우 수식어가 없이 홀로 쓰이면, 곡용에서 w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수식어의 꾸밈을 받아 2음절 이상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활음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울진지역어에서도 '우+에'는 '웨'로 실현되지 않지만 '고#우+에'는 '고웨^'로 실현된다.[166] 'y' 활음화의 예인 '도시(都市)+-에→도'세'와 '시(市)+에→시예~시에, *세'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108), (109)를 통해 영주지역어의 경우는 일부 어간에서만 y 활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161) '노'껄'~노'껄'씨'는 '놋그릇'을 의미한다.

162) 채옥자(2005:51)에 활음화된 어형 '듣게^는(듣기에는)'이 보인다.

163) '울타리+에'의 울진지역 어형 '울따'레' 또한 주의를 요한다. '울딸''로 재구조화된 어간도 나타나므로 '울따리(LHL, 울타리)+에→울따레(LHL)'에 같은 과정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지역어에 따라 'ㅣ' 말음 어간인 경우 y 활음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가제(枝)'도 15세기 어형 '갖'을 참고할 때, 통시적인 변화의 투영이라 볼 수도 있다.

164) 울진지역어에서는 '단체^'로도 실현된다.

165) '하토'', '봉토''는 모음상승이 역으로 적용된 결과이다.

166) 채옥자(2005:109)에서도 '구에(九)', '후에(後)' 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를 '어간 의미의 불투명 해소'와 관련시키고 있다.

(108) 정지'+에→정제^(廚)　　　마리'+에→마레^(마루)[167](宗)
통시'+에→통세^(便所)
cf. 당초'+에→당초^(當初)

(109) 다리'+에→다리'예(脚), *다레　　　꼬'리+에→꼬'리예(尾), *꼬레
유리'+에→유리'예(琉璃), *유레　　　단'지'+에→단'지'예(缸), *단제[168]
세다리'+에→세다리'예(梯), *세다레

(108)에 제시된 어간이 주격어미와 통합할 때 '*정제가, *마레가'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108)에 제시된 자료만이 활음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09)와 비교해 볼 때 곡용에서의 활음화 과정을 공시적 음운과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로 보아 활음화 규칙이 생명력이 짧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빈도가 높은 단어들에서 활음화가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접촉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문경지역어에서도 y 활음화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10) 마리'+에→마리^(宗)
정지'+에→정지^(廚)
똥시'+에→통시^(便所)

이들 표면형이 활음화에 의한 것이라면 '마리+에→마레→마레→마리'와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처격의 '-에'는 모음상승을 겪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푸데'+에넌→푸데^넌'와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완전순행동화와 성조축약으로 인해 표면형이 도출될 수 있다.

4.1.9. 구개음화

곡용에서의 구개음화 규칙이 공시적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11가)에 보이는 문경, 영주지역어의 일부 곡용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시된 어간은 단일한 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없다. 꼬칠~꼬털, 꼬천~꼬턴, 꼬체~꼬테 등을 본다면 당연히 '꽃'과 '꼳'을 모두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67) 이 또한 통시적 변화의 투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마루+에'에서의 활음화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68) 안동 지방에 접해 있는 문수면에서 '단'제'' 어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곡용에서의 활음화 세력이 부분적으로만 영주지역어에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七大萬法≫(弘文閣 影印本)에 '져근덛올와 잇다가 도로 통싀예 쑿이로라 ᄒᆞ고(5)'와 같은 용례가 보인다. 그런데 현대 영주지역어에서는 '통세^'는 '여'게'와 달리 처격어미와 통합할 때에만 확인된다. 즉 '통세가, 통세럴'로 나타나지 않고, '통시'가, 통시'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111) 가. 꼬철~꼬털, 꼬천~꼬턴, 꼬체~꼬테(花)
바철~바털, 바천~바턴, 바테(田, 이상 HL)
나. 꼬'치, 꼬'치라요(문경)/꼬'치래요(영주)

다만 (111나)처럼 어미 '이X'가 통합한 경우에는 굳이 '빛+이'의 구성이라 할 필요가 없다. 필자가 어릴 때 아랫마을에 들를 경우 '헌모테 간다'고 하였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헌ˇ모치라면 세'몯'또 인'껜'네'라고 되물었다. 이는 화자들이 구개음화 규칙을 인식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169] 구개음화 규칙을 인정한다 해도 (111)에 제시된 문경·영주 지역어에서의 어간은 복합기저형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구개음화 자료이다.

(112) 가. 꼬치, 꼬토, 꼬턴, 꼬테, 꼰만
바치, 바토, 바턴, 바테, 반만(이상 HL)
나. 모지, 모도, 모'더'너~모'더'노, 모데, 몬만(釘)
저지, 저도, 저던, 저데, 전만(乳, 이상 HH)

(112)에 제시된 곡용패러다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울진지역어에서는 (112가)의 경우 기저형을 '꼳', '밭'으로 각각 설정할 수 있으며 (112나)의 경우 또한 '몯', '젇'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구개음화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격어미가 통합된 경우를 '꽂+이', '빛+이', '못+이', '젖+이'로 파악해야 한다. 어미 '이X'와의 통합형을 제외하고 표면형으로 확인되지 않는 '꽂', '빛', '못', '젖' 등을 굳이 기저형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앞서 3장 '곡용 어간의 기저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진지역어에는 'ㅌ' 또는 'ㄷ'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꽤 많다. 어간과 대격어미의 통합형이 '유'토(윷), 나'토(낮), 수'토~수'꾸도(숯), 헤'삐'토(햇빛), 헤'삐'토(햇볕), 며'토'(몇)'와 같이 실현되므로 이들은 모두 'ㅌ' 말음을 가진 단일 어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빗(債務)', '낫(鎌)', '갓(笠)', '붓(筆)', '곳(處)'에 대당하는 어간 또한 대격어미와 통합할 경우 '비'도'', '나'도'', '가'도'', '부'도'', '가'던'고도(가던 곳을)'로 나타나므로 이들은 모두 'ㄷ' 말음을 가진 단일 어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170] 이러한 ㅌ, ㄷ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은 '이X' 어미와 통합할 때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ㅊ, ㅈ으로 변동된다.

4.2. 탈락

4.2.1. 자음군단순화

169) 물론 대표적인 패러다임 '밭'을 기준형으로 하여, 그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구개음화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자는 의도이다.

170)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곡용 어간의 기저형'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자음군단순화는 특정 환경에서 자음의 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음절말과 음절초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는 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VCCCV 연쇄, 즉 모음간의 세 자음은 두 자음으로, 어말의 두 자음은 하나의 자음으로 변동하게 된다. 특히 모음간 3자음 연쇄는 두 가지 방향의 변동이 가능하다. 하나는 탈락의 과정이고 하나는 축약의 과정이다.[171] 어말의 두 자음은 축약의 환경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과정만을 겪게 된다.

(1) -디만 -드라 -고 -지 -능가 -으이/-아
가. 업ˇ띠만, 업ˇ뜨라, 억ˇ꼬, 업ˇ찌, 엄ˇ능가(無, 업ˇ씨이)
나. 발ˇ띠만, 발ˇ뜨라, 발ˇ꼬, 발ˇ찌, 발ˇ룽가(踏, 발'바)
다. 굼ˇ띠만, 굼ˇ뜨라, 궁ˇ꼬, 굼ˇ찌, 굼ˇ능가(飢, 굴'무이)
라. 할띠'만, 할뜨'라, 할'꼬, 할'찌, 할룽'가(舐, 할'타)
마. 발'띠만, 발뜨'라, 발'꼬, 발'찌, 발'룽가(暗, 발'가)
바. 게안티'만, 게안트'라, 게안'코, 게안'치, 게안능'가(無妨, 게아'네)[172]

(1)에 제시된 각 어간의 기저형은 '업ㅆ-', '밟-'. '굶-', '핥-', '밝-', '게않-'이다. (1가)~(1마)에서 각각 하나의 자음이 탈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례로 ㅆ, ㅂ, ㄹ, ㅌ, ㄱ이 탈락되었다.[173] 다만 (1바)에 제시된 'ㄴㅎ'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문제된다. 여기에서 'ㅎ'은 후행 평음 'ㄷ', 'ㄱ', 'ㅅ'과 축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음간의 3자음은 탈락의 과정이 아니라 축약의 과정을 겪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1바)의 마지막 활용형 '게안능'가'는 모음간 'ㄴㅎㄴ'의 연쇄이므로 축약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 축약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74]

필자는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자음군단순화를 보이는 아래의 자료에 대해 '유음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탈락제약을 두어 'ㄹ' 탈락을 봉쇄한 바 있다. 탈락제약은 (3)과 같다.

(2) 문경·울진
붊+노→불'노→불'로(望貫, 불'부이) cf. 부럽+노→부럼'노(부러'와, 영주)
(3) 탈락 제약 --- 탈락은 일련의 음운과정에서 연속으로 적용될 수 없다.

일련의 음운과정에서 탈락이 연속으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음군단순화 후에 남은 'ㄹ'은

171) 자음군단순화는 줄곧 탈락의 관점으로 접근해 왔다. 임석규(2004다)에서 자음군단순화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눈바 있다.

172) 동남방언에는 형용사에 '-은동'이 아닌 '-는동'이 통합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좋ˇ(好)+는동'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울진지역어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173)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방식은 여타 하위 동남방언과 일치한다. '읊-'에 대해서는 문경과 울진지역어에서는 해당 어형을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 영주지역어에서는 '얼푸-'로 재구조화되어서 단순화 방식을 알 수 없으나 필자는 어릴 때 '울ˇ꼬, 울ˇ른다'로 발화한 듯하다.

174) '감제'(藷)+이라요(문)/이래요(영·울)→감제'라요/감재래요'에서는 탈락의 과정을, '감제'+이었어→감제'여써(공통자료)'에서는 음절 축약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축약의 환경이 되지 않고 후자는 축약의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감제여써'의 고형으로 '감제레써'가 확인되는데 이때는 계사 어간 '이'가 탈락한 것이다. 축약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즉 'ㄹ-ㄴ'의 연쇄는 'ㄹ'의 탈락이 예상되지만 자음군단순화라는 탈락 과정에 의해 도출된 형태이므로 더 이상의 탈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음군이 단순화되어 '불'노'가 도출되고 이어서 유음화가 적용되어 표면형 '불'로'를 얻게 된다.

곡용에서도 자음군단순화는 확인된다.

(4) 가. 목ㅆ+도→목도→목'또(割當量, 목'씨)
　　나. 갑ㅆ+꺼지→갑'꺼'지→각'꺼'지(價, 갑'씨')
　　다. 여덟+버터→여'덜버터(八, 여'덜비)

그런데 곡용에서의 자음군단순화는 곡용 어간이 활용 어간과 달리 자립성을 지니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되기 전에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여덟#'과 같이 두 자음과 휴지의 연쇄(또는 단어 경계)에 의해 자음군이 단순화된다고 볼 수 있다.175) 그렇지 않으면 (4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곡용에서의 경음화는 'ㄹ' 뒤에서 'ㄷ' 또는 'ㅈ' 등과 같이 [+설정성] 자질을 가진 음소로 시작하는 곡용 어미가 올 때 확인된다. 어미와의 통합에서 자음군단순화가 된다면 용언의 경우, 한 자음이 탈락되면서 보상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이해하면서(밟+고→발꼬), 곡용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음 탈락은 특별한 음운론적 작용을 하지 않으며, 곡용과 활용에서의 자음군단순화 양상은 어간의 자립성의 유무로 인해 차이를 보인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176)

물론 단어 경계에서도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난다.

(5) 네목쭝'에~네목쭝'에(내 몸 중에) 여'덜짜루(여덟 자루)

위에 제시된 예 또한 곡용에서의 자음군단순화 과정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즉 '여덟#자루→여덜자루→여덜짜루'처럼 먼저 곡용 어간의 자립성에 근거하여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 '여덜'이 되고 '여덜'의 'ㄹ' 뒤에서 'ㅈ'이 'ㅉ으로 변동한다는 것이다.177)

4.2.2. 후음 탈락

175) '바'파'고(밥+하고), 여'덜하고(여덟+하고), 나'타'고(낮+하고)'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활용에서는 축약 규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곡용에서는 축약규칙이 아닌 첨가, 평파열음화 규칙을 가장 적용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석규(2004다)에 제시되어 있다.

17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석규(2004다)를 참고할 수 있다.

177) 고유어 계열의 수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에서는 후행하는 명사가 한자어이든 고유어이든, 후행하는 명사의 음절초 평음의 경음화는 수관형사의 말자음이 'ㄹ'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임석규 1999:41, 김세환 2005:20). 이것은 열뙤, 열싸람, 열짜루, 열끄루, 열뿐 / 열뜽급, 열쌍점, 열쭈기, 열께, 열떼 / *한뙤, *한싸람, *한짜루, *한끄루, *한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음 탈락이란 후음 'ㆆ',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탈락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후음 탈락은 (6)에서 확인된다.

(6) 공통자료

가. 젛+아도→젛어도→저어도→저^도(攪, 저ˇ꼬),

누ㆆ+아도→누ㆆ어도→누어도→누우도→누^도(臥, 누'꼬)

실ㆆ+으먼→실으먼→시'르면(載, 실ˇ꼬)

나. 바꿓+아도→바꾸아도→바까^도(換, 바꾸'코)

쫄궇+아도→쫄구아도→쫄과도→쫄가^도(목을 조르다, 쫄구'코)

앓+아도→알아도→아'라도(痛, 알'코)

(6가)는 'ㆆ'의 탈락과정을, (6나)는 'ㅎ'의 탈락과정을 보여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어미 '아(X)'의 교체가 이루어진 후 후음이 탈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ㆆ'을 말음으로 하는 모든 어간은 어미 '아(X)', 또는 어미 '으X'에 관계없이 모두 완전순행동화를 겪게 되므로 후음의 탈락에 앞서 어미 '아(X)'가 교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어미 '아(X)'의 '어(X)'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미가 교체되지 않는다면 제시된 예들이 모두 완전순행동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미 '아(X)'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면 활음화 과정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가)의 '누ㆆ+아도'에서 어미가 교체되지 않는다면 활음화를 겪은 표면형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4.2.3. 유음 탈락

일반적으로 유음 탈락은 음운론적 제약이나 형태론적 제약에 의해 어간말의 유음이 탈락되는 음운론적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김완진(1972/1996:29-30)에서 유음은 ㅅ이나 ㄴ 앞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고,[178] 이병근(1981)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음 탈락의 동기는 동기관적 이화라고 규정된 바 있다. 이는 중부 방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이고, 동남방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영덕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최명옥(1980:193), 경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최명옥(1982:157-158)에서는 유음탈락의 환경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 현상을 경북 동해안 지역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 특징으로 본 바 있는데, 같은 동해안지역어인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도 이러한 활용형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79]

이러한 현상은 경북북부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울진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18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부방언을 포함한 여타 방언에서는 어미 '-

---

178) 추가적으로 '붑:니다(吹)', '부:오'에서의 탈락도 설명되고 있다. '-지' 앞에서의 유음탈락은 수의적이라 언급하였다.

179) 김봉국(2002:52-53)을 참조할 수 있다. 강릉과 정선 지역어에서의 유음 탈락 자료가 확인된다.

180) 이병근(1981:236-239)에서는 현대 중부 방언에서 활용의 유음탈락은 어간이 장모음인 경우, ㄷ, ㅈ을

ㄴ다, -나, -니, -ㅂ니다, -시-' 앞에서 어간말 유음이 탈락되는 반면 영주와 울진 지역어에서는 모든 자음 앞에서 유음이 탈락된다. 이는 (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7) 영주/울진
가. 씰-(掃, 씨'르'이)
씨'니'껴, 씬'데'이, 씨'시'고, 씨'이'[181], 씨'든'동, 씨'제', 씨'그'레이, 씨'먼', 씸'미'다[182]
나. 쌀-(剉, 싸^라)[183]
싸^니껴, 싼^데이, 싸^이, 싸^시고, 싸^든동, 싸^제, 싸^그레이, 싸^먼, 쌈^미다
다. 널-/열-(빨래를 널-, 너'러/여'라)
너ˇ니껴, 넌ˇ데이, 너ˇ이, 너ˇ시고, 너ˇ든동, 너ˇ제, 너ˇ그레이, 너ˇ먼, 넘ˇ미다
여ˇ니껴, 연ˇ데이, 여ˇ이, 여ˇ시고, 여ˇ든동, 여ˇ제, 여ˇ그레이, 여ˇ먼, 염ˇ미다
라. 멩글-(造, 멩그'러/멩그'라)
멩그니'껴, 멩근'데이, 멩그'이, 멩그'시고, 멩그든'동, 멩그'제, 멩그그'레이, 멩그'만, 멩금미'다
마. 고들-(枯, 고'드'러/고'드'라)
고'드'니껴, 고'든'데이, 고'드'이, 고'드'든동, 고'드'제, 고'드'고, 고'드'먼, 고'듬'미다

(7)의 여러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세 지역어에서는 어간말 유음이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물론 'ㄱ', 'ㅁ'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탈락한다.[184] 그렇다면 유음은

두음으로 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필수적인 탈락을 보이던 중세 국어와 연결되는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탈락의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 세 지역어에서는 복합조가 아닌 어간에서도 유음의 탈락은 확인되나,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ㄱ, ㅁ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살ˇ-'의 활용형 '사ˇ고', '사ˇ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 볼 수 있다.

181) '-으이(-으니)', '-으이께네(-으니까) 등은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될 수도 있다. '-으니께네'를 기저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진호(2001:73-76)의 지적대로 공시음운론적 기술에서 표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기저형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활용에서 유음이 탈락되는 형태인 '가ˇ이(耕)', '가ˇ이께네(갈-(耕)+-으니까)' 등은 이미 굳어진 활용형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시적으로 '이' 앞에서 유음이 탈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기존의 방식대로 '-으니', '-으니께네'를 기저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82) 교육 및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보이는 '-ㅂ미다(영주·울진지역어의 어형은 '-니더'임) '가 통합된 각 패러다임의 마지막 활용형은 유음 탈락 규칙의 확대로 파악하기보다는 통시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부방언에서조차 'ㄴ', 'ㅅ' 이외 '-ㅂ미다' 앞에서도 유음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불+ 숩+ ᄂᆞ+이+다'의 통합으로 파악되기에 유음 탈락은 이해될 수 있다. 하오체 종결어미가 통합된 '부ˇ오', '멩그'오'도 역사적으로 'ㅿ' 앞에서 유음이 탈락된 것이다. 문제는 '부ˇ마', '멩그'마'의 경우이다. 중세국어의 청유형 종결어미 '-오마/우마'와 관련을 짓더라도 유음 탈락의 동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병근(1981:240)에서는 '부:마'보다는 '불:마'가 많이 쓰인다고 하면서 '부:마'에서의 ㄹ 탈락을 패러다임 규칙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진호(2002:169)에서는 '부ˇ오', '부ˇ마' 등을 어휘부에 등재하는 것이 공시론적으로 부담이 적은 기술이라고 하였다. 복합기저형을 꺼리는 것은 출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도 이진호(2002)의 관점을 취하여 공시적인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 자음어미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규칙을 설정하더라도 매개모음어미가 통합된 '부ˇ오', '부ˇ마'는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부ˇ마'의 경우는 '부ˇ머넌'과 동일하게 유음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불ˇ머넌'은 수의적으로 나타나지만 '불ˇ마'는 수의적으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183) 울진지역어에서는 '썽'걸-', '쌍'걸-'로도 나타난다.

184) 매개모음어미는 [-모음성] 말음과 통합할 때에는 '으(X)'로 실현되나 'ㄹ'을 포함한 [+모음성] 말음과

모든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공시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 모든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규칙 적용 환경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필수적 탈락과 수의적 탈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준어에서의 'ㄹ' 탈락 환경에서는 이들 세 지역에서도 필수적으로 'ㄹ'이 탈락된다. 규칙 적용의 확대는 바로 수의적 'ㄹ' 탈락에 적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기식군 내에서는 (8)과 같이 'ㄲ'(관형사형 어미 'ㄹ'과 '것'의 통합에서 생긴 경음) 앞에서도 'ㄹ'이 탈락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8) 공통자료
 가. 할'께인나~하'께인나(할 것이 있나)
  할'꺼인나~하'꺼인나(할 것 있나)
 나. 줄'꺼도업따~주'꺼도업다(줄 것도 없다)185)
 cf. 할'쑤인나(할 수 있나)

'ㄹ' 탈락 현상은 활용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공통자료(영주/울진·문경)
 질~길+부텀→질'부'텀'(道, 질'또')
 멩절/밍절+보담도→멩'절보담도/밍'절보담도(名節, 멩'절또/밍'절또)
 이울/이불+꺼짐→이'울꺼짐/이'불꺼짐(衾, 이'울또/이'불또)

4.2.4. 비음 탈락

'ㅇ'과 'ㄴ'은 특정 환경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의 탈락 환경은 다르다. 먼저 'ㅇ' 탈락을 보이는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0) 영주/문경·울진
 가. 방+이/이·이노→바'이/바'이·바'이노(房, 방'도) 둥/덩+이→드'이/더'이(獸, 둥'도/덩'도)
  양+이레/이라·이레→야'이레/야'이라·야'이레, (羊, 양'도)
  농+이→노'이'(籠, 농'도') 공+이→고ˇ이(球, 공ˇ도)
  흉~홍~숭+이→휴'이~후'이~수'이(訟, 흉'도~홍'도~숭'도)
  벵~병/빙+이→베'이~벼'이/비'이(瓶, 벵'도~병'도/빙'도)
 나. 민장+이→ 민ˇ자이(面長, 민ˇ장도) 실강+이→실'가이(살강, 실'강도)

통합할 때에는 'X'로 실현되는 관점을 취하므로 유음 말음 어간과 통합하는 어미 '먼'을 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185) (8가)의 경우는 2음절에 수의적으로 고저복합조가, (8나)의 경우는 2음절에 수의적으로 고조가 놓이기도 한다. 'ㄹ'이 탈락하는 다른 예로 울진지역어에서는 '고'다'프-', 영주지역어에서 '시'타'(嫌惡)' 등을 들 수 있다. 유기음 앞에서 'ㄹ'이 탈락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울진 지역에서는 많이 확인된다.

주경+이→주겨'이(人名, 주경'씨)
후지통+이레요/이라요·이레요→후'지토이레요/후'지토이라요·후'지토이라요(후'지통도)

(11) 상+은→사'은(床, 상'도)　　　　콩+은→코'은(豆, 콩'도)
상+얼→사'얼　　　　콩+얼→코'얼

(10가)는 단음절 어간과 주격어미를 포함한 '이(X)'의 결합이며, (10나)는 다음절 어간과 '이(X)'의 결합이다. 어간의 음절수와 관계없이 어간말자음 'ㅇ'이 탈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그 중간과정으로는 비모음화를 상정할 수 있다. 노년층의 말에서는 비음이 탈락하지 않는 형태에 비해 탈락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단, (11)과 같은 '-언', '-얼'의 통합에서는 비음이 탈락한 형태와 탈락하지 않은 형태가 수의성을 보이면서 균형 있게 나타나는 듯하다. 또 '에(X)', '으X(매개모음어미)'의 통합에서도 '장ˇ농+에→장ˇ노', '장ˇ농+으로→장ˇ노로' 등과 같이 비음탈락형이 잘 실현된다. 이로 볼 때 어간말자음 'ㅇ'은 모음간에서 탈락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 비모음화, 완전순행동화를 거친 후 비음이 탈락한 형태 자체가 기저형이 된 어형들도 몇몇 눈에 띈다. 이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 단어들이기 때문인 듯하다. 바^(그 바^노 따'까싸, 바^도, 바^를), 시ˇ자(여'게 시ˇ자는 다'쎄메둥 서)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ㄴ'은 모음 사이에서 모두 탈락의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다. 어간말 'ㄴ'은 '이(X)' 앞에서 탈락되는데 그 예를 제시하면 (12)와 같다.

(12) 공통자료
기산+이→기ˇ사이(計算)　　　　돈+이/이노(울진)→도ˇ이/도ˇ이노(錢)
간+이→가ˇ이(肝)　　　　술짠+이→술'짜이(杯)
정신+이→정시'이(精神)　　　　무현+이→무ˇ혀이(人名)
cf. 술잔+으로→*술자아로, *술자느로 , 술잔+에→*술자아, *술자네

그러나 부정부사 '안'의 말음 'ㄴ'은 모음에 앞서거나 'ㅎ'에 앞설 때 탈락되는 경우가 (13)에서 확인된다.[186]

(13) 영주·울진
아오'고(안#오고)　　　　아오'먼(안#오면, 來)
아올'로오고(안#올라오고, 登)　　　　아'운다(안#운다, 泣)
아하'고(안#하고)　　　　아하'먼(안#하면, 爲)
cf.[187] 모ˇ아라바써(알아보았어), 모ˇ해(못 해), *모ˇ가도(몬까도)

186) 이러한 현상은 청송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세환(2005:95)에도 나타난다. 영주지역어의 경우, 'y'로 시작하는 어간 앞에서 탈락되는 듯도 하나, 실제 제보자에게서 캐내지는 못하고 이해어 수준으로만 조사되었다(아'여고←안#열고, 아'열먼←안#열면, 實). 'ㅎ'로 시작하는 어간의 통합에서 '안'의 비음이 탈락하는 것도 제한적인 듯하다. '안#헤^진다'에서는 '아헤^진다'로 발화되지 않았다. 어쩌면 '하-'의 활용형과 통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쪼만하'-~쪼마하'-'와 같은 복합어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울진지역어에서는 비음탈락이 매우 활발하다. 죽'삐'(죽변), 고마'(그만). 암'마'(암만), 하'머~하'모(하면), 한'자#하'먼(一杯), 이거'노(이거는), '운ˇ도(運動)' 등과 같이 몇몇 단어에서 보이는 이런 특별한 현상은 비모음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비모음화가 활발한 영주지역어에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188]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비모음화의 환경이 매우 넓다고 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189]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러한 현상은 공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예 또한 마찬가지이다.

(14) ※[190] 하ˇ문(漢文), 시문'(新聞), 차'말'로(眞心), 이'물(人物), 차'물'(冷水)
cf. 뜸물'(쌀뜨물), 암ˇ메(아마)

다음은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된 자료들이다. 영주지역어의 경우 이들 중 첫 세 예만 확인되었다. '뜸물'과 '암메'는 그 반대방향으로의 현상일 듯한데 이는 세 지역어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양방향 모두 뚜렷한 음운론적 기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ㅇ' 탈락이 형태소 경계에서뿐만 아니라 단어 내부에서도 활발하다는 것은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 가. 조'일(終日), 지역(懲役), 노'악(農樂), 노'업(農業), 주앙'~주왕'(中央), 도'업(同業),
cf. *시호, 시노'(信號), *지학, 지ˇ낙(進學)
나. 노'협(農協, 영·울), 조'합(綜合), 고항'(空港)
다. 적'따'히(適當히), 천처'이(천천히)

(15)를 통해 'ㅇ'은 모든 모음 사이에서 탈락될 뿐 아니라 'ㅎ' 앞에서도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어내부에서나 공시적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191] 그러나 'ㄴ'은 공시적 환경에서는 'i'나 'y' 앞에서만 탈락한다. 'y'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다면 'ㄴ'은 당연히 탈락할 것이다.[192] 이로 볼 때, 'ㅇ' 탈락과 달리 'ㄴ' 탈락은 구개음화와 동일한 환경에서 적용된다는 것

187)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모(L·H)~못(L·H)'∽'못(L·H)'은 이 부사의 후행성분의 첫 음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후행성분이 모음이나, /h/로 시작할 때, 부사 '몯'은 '모'로도 – 모ˇ아라바(못 알아보다)~모ˇ다라바, 모ˇ헤(爲)~모ˇ테, 모ˇ이나(戴)~모ˇ디나 – 나타난다. 'y'로 시작하는 후행성분과 통합하는 '모ˇ여고(開)~몬ˇ녀고, 모ˇ여(戴)~몬ˇ녀' 역시 '안'에서의 비음탈락과 마찬가지로 이해어로 접근하여야 한다. 사실 '모~못'∽'못'은 경북북부 이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몯'에 대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으로는 '힘가ˇ지끈(힘'껏')', '몸써'리/몹써'리', '몽'침'(목침)', '문지방'/문지박''(이상 영주), 놈ˇ(높)(울진), 헤꿈헤'/헤꿉헤'(이상 울진), 꼰'물긴/꿀'불견(문경) 등을 들 수 있다.

188) 영주지역어에서도 '네'마'(나+만)', '암'마'', '고마''는 확인된다.

189) 지금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정밀화할 자료들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 다른 지역어를 통해서라도 이 현상에 대한 정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90) 환경이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를 따로 둔다.

191) 이러한 현상은 세 지역어에서 모두 발견되나 문경지역어에서는 탈락하지 않는 형태가 꽤 확인된다.

을 알 수 있다.[193]

다음으로는 울진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비음 탈락과 관련된 재구조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194]

(16) 철현+이→철혀'이
철형+이→철혀'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철혀'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철형"인지 '철현"인지 확답을 내릴 수 없다. (16)에 제시된 두 표면형이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인명 뒤에 '이'라는 접사를 통합시켜 '철혀'이가, 철혀'이도, 철혀'이를, 철혀'이만, 철혀'이네집'과 같이 발화한다.[195] 일상발화에서 단독형을 쉽사리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주 화자들은 심지어 '철현'네', '주견'네', '미ˇ견네'와 같이 발화하기도 한다.[196] '철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미견', '주견' 등은 한국인의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을 텐데도 화자들은 그런 발화를 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현상과 동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17)에 제시해 보자.

(17) '데ˇ통녀이, 데ˇ통녀인데, 데ˇ통녕'도 > '데ˇ통녀이, 데ˇ통녀인데, 데ˇ통년'도(영주·울진)
오ˇ가이, 오ˇ가인데, 오ˇ강도 > 오ˇ가이, 오ˇ가인데, 오ˇ간도(공통자료)[197]
뚜꺼'이, 뚜꺼'인데, 뚜껑'도 > 뚜꺼'이, 뚜꺼'인데, 뚜껀'도(울진)

(18) 김지ˇ녀이, 김지ˇ녀인데, 김지ˇ녕도 > 김지ˇ녀이, 김지ˇ녀인데, 김지ˇ년도(영주 인명)
cf. 박씨ˇ규이, 박씨ˇ규인데, 박씨ˇ균도 > 박씨ˇ규이, 박씨ˇ규인데, 박씨ˇ규도(영주 인명)

(17)은 일반명사에서, (18)은 고유명사에서 확인되는 재구조화의 예이다. 역시 비모음화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형태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어간 '데ˇ통년, 오ˇ간, 뚜껀', 김지ˇ년'을 생성한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이 영주지역어,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이유는 이 두 지역어에서 비모음화 후 비음탈락 된 형태가 비음탈락을 겪지 않는 형태에 비해 많이 발화되기 때문인 듯하다. 반면, 문경지역어에서는 비모음화된 발화가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7), (18)에서 보인 재구조화가 잘 확인되지 않는 듯하다.

---

192) 첨사 '-요'가 'y'로 시작하는 어미이다. 그런데 자음어간 뒤에서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ㄴ' 탈락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잔+요→잔뇨'의 과정이 바로 'ㄴ' 첨가 과정이다.

193) 이와 환경이 다른 n-구개음화는 '까'여느꺼(그깐년의 것)', '저'연'(저 년)' 등에서 확인된다.

194) 이러한 재구조화 경향은 문경지역어의 경우 인명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경우에는 자연발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195) 친정 부모가 시집간 딸을 지칭(호칭)하는 '김'실이', '이ˇ실이' 등도 인명 형성의 접사와 관련된다.

196) 울진지역어에서의 '펴나롭'-(평화롭-)'은 이와는 환경이 다르므로 다른 기제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197) '오ˇ강'뿐 아니라 '가ˇ이, 가ˇ인데, 강ˇ > 가'이', 가'인'데, 간(光, H_2)'도 동일한 유형이다. 성조가 바뀐 것이 특이할 뿐이다.

4.2.5. 어간말 '아/어' 탈락

이른바 동음탈락, 어간말 '아/어' 탈락이라고 하는 음운과정은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간말 모음이 탈락한 것이냐 어미초 모음이 탈락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우선 세 지역어에서 동음이 탈락하는 예를 제시해 보자. (19가)와 (19나)는 세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19다)는 문경지역어에서, (19라)는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된다. (19라)에 제시된 어간 말음은 모음 '으'와 '어'가 중화에 결과한 것이다. 이는 영주지역어에서 '으' 말음 어간으로 분류된다.

(19) 가.	가+아도→가'도'(去)	자+아야→자'야'(寢)	타+아야→타'야'(乘)
	파+아도→파'도'(掘)	디가+아야→디가'야'(入)	
나.	나서+아도→나서'도'(進)	스~서[198](영주)/서(문경·울진)+아도→서'도'(立)	
다.	저+아도→저어도→저'도'(負)	쩌+아도→쩌어도→쩌'도'(蒸)	처+아도→처어도→처'도'(打)
라.	꺼+아도→꺼어도→꺼'도'(消)	떠+아도→떠어도→떠'도'(浮)	써+아도→써어도→써'도'(書)

(19가)와 달리 (19나)~(19라)는 어미가 교체된 후 탈락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에 제시된 예에서의 음운과정은 (20)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0)에 제시된 두 예는 다른 방언에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20가)와 (20나)의 음운과정이 달리 나타나는 것에 대해 그동안은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 가. 가+아도→가'도'(去)
나. 가+아라→가ˇ라(去)

(20가)는 이른바 동음탈락으로 설명해 오던 것이다.[199] (20나)는 (20가)와 환경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음탈락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200] (21)에서 보듯이 첫 번째 도출형에서 동음이 탈락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98) '스'고, 스'니, 서'야', 서ˇ라'~'서'고, 서'니, 서'야', 서ˇ라'를 통해 패러다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가 노년층의 주된 발화이다. 그런데 '나서-'는 '나스-'로 나타나지 않는다. '立'의 의미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빈도수 내지 기본 동사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

199) 최현배(1937/1999:124)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어간말모음과 어미초모음 중 어느 것이 탈락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그 앞 음을 받아 잇기 때문에 소리를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진(1972/1996:37-38)에서는 어간말 '으' 탈락과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고려하여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어 최명옥(1976:65-66)에서는 장음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최명옥(1982:117)에서는 어미초모음과 어간말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바탕으로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을 통해서 임석규(1999:16, 76-77)에서는 명령형 어미 '-아라'는 어미 '아(X)'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최명옥(2000:31), 김봉국(2000:12), 유필재(2001:114) 등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사실 이것은 '가-(去)'류 용언의 특이성이므로 '가-'류 용언 이외의 용언은 명령형 어미를 어미 '아(X)'에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가-'류 용언에 대해서는 김완진(1977:57-61)과 임석규(1999:76-77)를 참조할 수 있다.

(21) 쌓+아도→싸'아도→*싸도, 싸^도(積)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모음 연쇄의 환경—자음탈락으로 인한 모음연쇄를 포함하여—을 검토하기로 한다. 한 방언 특히 중부방언만을 대상으로 음운론적 연구가 이루어질 때 특정 음운과정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우리는 여러 방언에서 실체적 증거를 찾아 특정 음운과정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정 음운과정의 기제를 밝히기 위한 실체적 증거(substantive evidence)를 성조 층위에서 마련하여[201] 기존의 주장을 보완하는 데 의의를 둔다.[202]

(20가)의 동음탈락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그 나름대로의 견해를 펼쳐 왔다. 이를 음운론적 강도로 해결하려는 논의는 물론, 어간 또는 어미의 기능부담량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실체적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논자마다 음운론적 강도나 의미의 기능부담량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우리는 동음탈락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영균(1988:15), 고광모(1991:46), 신승원(1999:12)에서는 중세 문헌자료의 '가아~가(去)/펴아~펴(伸)' 등의 예를 통해 어미초 '아'가 탈락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통해서 어느 모음이 탈락하는지 밝히는 것은 우리가 15세기 당시의 음운과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하다. 동사 '가-'와 어미 '-아'가 통합할 때 15세기 당시의 발화를 그대로 표기했을 가능성보다는 단지 어미 연결을 고려하여 '가아'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또한 문헌상의 '펴아'는 15세기 당시 어미 '아'의 교체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점에 기댈 때, '펴아~펴(伸)'를 동음탈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없다. 신승원(1999:13)에서는[203] 중세 문헌의 '셔아셔(立)~셔아~셔어~셔'의 예를 동음탈락의 순차적인 변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셔어'에서 어미의 모음이 탈락하여 '셔'가 도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셔어'도 '가아'와 마찬가지로 어미 연결을 고려한 표기형태 곧 당시 구어와는 무관한 표기 형태라 볼 수도 있다.

배주채(1994:99)에서는 (22)에 제시된 활용형의 형태 분석을 통해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으

201) 성조지역어의 음운론적 기술에서 대부분의 논의들은 음운과정을 분절음 층위에서 접근하여 왔다. 분절음 층위에서 특정 음운과정의 기제를 밝히기 어려울 때 성조 층위에서 그 접근을 모색한 몇몇 논의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논의들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움라우트와 성조와의 관계를 예로 들 때 움라우트의 기제가 성조로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뿐더러(백두현 1982나), 비성조방언에서도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202) 임석규(2002나)에서의 몇몇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203) 신승원(1999:14)에서는 '말아라~말라/가거라~가(:)라' 등의 예를 통해 어미초모음이 탈락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직접명령과 간접명령의 차이이지 동음탈락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가거라~가라~가:라' 또한 동음탈락과 관련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듣지도 보지도~듣도 보도' 또한 '듣+지+도'와 관련된 특수한 것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듣+지+는'의 경우는 '듣는'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된 '드러온나~드론나(들어오너라)' 또한 동음탈락과 관련시킬 수 없다. '드로나(들어오니?), 드로고(들어오고)' 형태를 참고해 볼 때 동남방언에서 '드로-'는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드간나(들어갔니?), 드가나(들어가니?)' 등을 참고해 볼 때 '드가-'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는 동음탈락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

로 파악하고 있다. 활용형의 형태 분석을 통한 이러한 주장은 신승원(1999:12)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22) 가. ㄲ:-아도(索)
　　나. 깨:-도(索)

(22가)는 어간말모음, (22나)는 어미초모음이 탈락했을 경우를 형태 분석한 것이다. 두 논의에서는 (22가)처럼 자음에 장음이 얹힌 어간의 이형태(ㄲ:-)를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파악하면서 동음탈락을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22나)와 같이 분석하면 어간이 둘 이상의 이형태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 패러다임은 매우 규칙적인 것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위와 같은 입장에 선다면 어간말 '으' 탈락은 정상적인 음운과정이라 볼 수 없다. 중부방언의 '긋-(劃)'과 '-어도'가 통합한 도출형 '거:도'는 'ㄱ:-어도'로 분석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는 (22가)의 'ㄲ:-아도'와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운 분석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또는 부자연스러운 분석을 문제 삼는다면 어간말 '으' 탈락은 다른 음운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언중들은 어간의 이형태를 가지지 않는 규칙적인 패러다임을 선호하겠지만 주지하듯이 '낳-(産)'의 활용형과 같이 둘 이상의 이형태를 갖는 패러다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많다. 영주지역어에서 패러다임 '흐르고, 흐르먼, 흘러'은 분명히 이형태가 둘인바, 이러한 '르' 불규칙 동사 패러다임은 그렇지 않은 동사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패러다임 '비르고, 비르먼, 빌러(借)', '드르고, 드르먼, 들러(訪)'가 '르' 불규칙 패러다임을 기준형으로 하여 패러다임 변화를 겪은 것이다.

배주채(1991:397)에는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임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어간 모음이 탈락했다고 하면 어간 '펴-'와 어미 '-아'의 통합에서 '*파'와 같은 형태가 중세 문헌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펴+어'와 달리 '펴+아'가 탈락의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어미초모음이 탈락한다는 견해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어간말모음이 탈락한다는 견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동음탈락에 대하여 성조 층위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 하는 논의들을 몇몇 발견할 수 있다.

정인상(1982:68), 이동화(1990:84), 곽충구(1994가:171-172, 398-399)에서는 동음탈락의 경우 어간말모음이 탈락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곧 어간 '가-(去)'와 '아(X)'가 통합한 '가도', '가서'의 표면성조는 '가고, 가지' 등의 성조와 다르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가'고, 가'지'에 비해 '가서, 가도'로[204] 실현되는 이유를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어간말 모음에 얹힌 고조가 탈락되면서 그 모음도 탈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후의적 성조(김완진 1973/77:57-61)에 대당하는 여러 용언들(가-, 하-. 주-, 나-, 이-, 누-,

---

204) 필자는 HH를 '가'서'', '가'도''로 표시하지만 정인상(1982), 이동화(1990)에서는 '가'고'와 달리 이런 유형에 '가서', '가도'와 같이 특별한 성조표시를 하지 않는다. 동북방언에는 이런 성조 유형이 없다.

두-, 사-, 서-, 오-)의 활용형에서 수의성을 보이는 '보아도(見), 하여도(爲), 주어도(與)'의 표면성조가 'HHL(필자)/LLL(앞서 언급한 세 논의)'인 점을 고려할 때[205] 곧 앞 두 음절의 성조가 동일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어간말모음과 어미초모음 중 어떤 모음이 탈락하는지 쉽게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보-'와 '가-'가 동일한 성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보아도, 하여도, 주어도' 등이 'HLL'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가'고, 가서'의 표면성조를 통해서 동음탈락을 설명하려는 것은 유보되어야 한다. 특히 안동지역어를 연구한 이동화(1990:84)은 후의적 성조 패턴을 가지는 용언 '가-(去)'의 본질을 간과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언 '가-'류의 성조는 중세국어 시기의 성조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동음탈락에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배주채(1994:100-101)에서는 국어 방언의 성조는 기저성조를 설정하여 성조변동을 기술하는 것보다 모든 어간과 어미는 어절 성조형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식의 성조형 중심의 기술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정인상(1982), 이동화(1990), 곽충구(1994가) 등과 같은 논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배주채(1994)의 이러한 논의는 모든 방언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206] 성조방언에서도 그 차이가 있겠지만 경북북부, 특히 영주, 울진의 화자들은 신조어를 들으면 신조어의 구성성분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신조어의 성조를 결정한다. '탁'아'방, 빨래방', 노래방''의 표면성조는 분명 특정 성조규칙이 관여한다. 예를 들어 '유아방 또는 노인방'이라는 신조어가 생긴다면 이는 틀림없이 전자는 'LLH' 후자는 'HHL'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LH(유아)+H(방)→LLH'가 되는 성조변동규칙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꾸(LH)'와 '머거(食, HL)'가 통합한 기식군 '자꾸머거(LLHL)', '멩글-(LH)'과 어미 '-는(H)'이 통합한 형태 '멩그는(LLH)'에서도 동일한 성조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성조형 중심의 기술 태도가 기저성조 중심의 기술 태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문규(1997:63)의 지적대로 성조형 중심의 기술 태도로서는 경북 방언의 체계적인 성조변동규칙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인상(1982:68), 이동화(1990:84), 곽충구(1994가:171-172, 398-399)의 논의 방식을 성조형 중심의 기술 태도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논의의 문제점은 '가-', '하-'. '주-', '나-', '이-', '누-', '두-', '사-', '서-', '오-' 등의 특수한 성조 패턴 곧 김완진(1977/73:57-61)에서 제시한 후의적 성조 패턴을 간과한 데 있다.

우리는 몇몇 근거를 통해 동음탈락의 경우는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임을 주장한다. 먼저

---

205) 정인상(1982:68), 곽충구(1994가:171-172, 398-399)의 논의는 그 자체로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수의적 형태 '보아도(見), 하여도(爲), 주어도(與)'의 표면성조가 경북북부지역어(HHL)와 달리 'HLL'로 실현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두 논의에서는 이런 식의 논의가 보강되어야 보다 강력한 주장이 될 수 있다.

206) 성조형 중심의 기술이 타당한지 기저성조 중심의 기술이 타당한지는 성조방언마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문경지역어에서도 기저성조 중심의 기술 태도를 취한다. 성조형 중심의 기술 태도의 특별한 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간과 어미에 기저성조를 부여하는 논의는 성조형 중심으로 설명하는 논의에 비해 설명력이 높다.

(23)에 제시된 영주, 울진지역어의 예를[207] 관찰해 보기로 한다. 물론 분절음 층위에서가 아닌 성조 층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려 한다.

(23) 가. 앙간'다
　　나. 앙'갇따

(23)에 제시된 부정부사 '안'의 기저성조는 'H_1'이다. 반면 용언 활용형 '간다'와 '갇따'의 성조는 'HH'이다. 부사 '안'에 후행하는 형태의 성조는 모두 'HH'임에 반해 부사 '안'에 활용형이 통합된 성조는 (23가)와 (23나)가 다르다. '앙간다'는 'LHL'로, '앙갇따'는 'HLL'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앙간다(LHL)'에서 음절 '간'의 성조가 왜 'H'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어간 '가-'의 말모음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 때문이다. 이것은 어간 '가-'의 활용형 '가고(HL), 가니(HL), 가지(HL)'의 첫 음절의 성조가 'H'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208] 반면 '앙갇따(HLL)'의 둘째 음절('갇') 성조가 항상 'L'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어간 '가-'의 모음 '아'가 탈락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활용형 '갇따'에서 첫 음절의 모음 '아'는 어미 '아(X)'의 '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적당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24)에서와 같이 부사 '자꼬'와 '간다', '갇따'의 통합에서도 확인된다. (24)에 제시된 예를 통해 우리는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24) 가. 자꼬간'다　자꼬준'다　cf. 자꼬', 간'다', 준'다'
　　나. 자꼬'갇따　자꼬'졷따　cf. 갇'따', 졷'따'

(25) 가. 앙간'다　안준'다　cf. 안(H_1)
　　나. 앙'갇따　안'졷따

(24),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사 '자꼬'와 '안'에 후행하는 성분의 성조는 모두 'HH(필자)/LL(세 논의)'임에 반해 부사 '자꼬' 또는 '안'과 후행성분이 통합한 성조는 다르게 나타난다. '자꼬간다'는 'LLHL'로, '자꼬갇따'는 'LHLL'로, '앙간다'는 'LHL'로, '앙갇따'는 'HLL'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자꼬간다'의 셋째 음절 '-간-' 또는 '앙간다'의 둘째 음절 '-간-'의 성조가 왜 'H_1'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어간 '가'의 '아' 모음이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 때문이다. 이것은 어간 '가-'의 활용형 '가고(H_1L), 가니(H_1L), 가게(H_1L)'의 첫 음절의 성조가 'H_1'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꼬갇따(LHLL), 앙갇따(HLL)'에서 음절 '-갇-'의 성조가 항상 'L'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어간 '가-'의 모음 '아'가 탈락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어간 '가-'의 모음 '아'가 탈락되지 않았다면 '앙갇따', '자꼬갇따'에서 음절 '-갇-'의 성조가 'H_1'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앙간다'를 통해 그 경향은 확인

---

207) 문경지역어에서는 '안'이 항상 저조로 실현되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208) '간다' 이외에 '가는'과 '가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가는'과 '가던'의 표면성조는 'HH'임에 반해, 부사 '안'은 이들과 통합할 때 저조로 실현된다. 그 이유는 '갇따'에서와는 달리 '가는/가던/간다'에서는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었다. 이에 활용형 '갇따'에서 첫 음절의 모음 '아'는 어미 '아(X)'의 '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간다(HH)' 또는 '갇따(HH)'에 부사('자꼬' 또는 '안')를 통합한 형태에서의 성조 차이는 어간말모음의 탈락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동음탈락은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209]

(26)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간말모음이 탈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6) 가. ᄐᆞ+아→타(燒)　ᄑᆞ+아→파(掘)
　　나. ᄎᆞ+안→찬(鹹)

(26가)는 중세국어 자료이며 (26나)는 지금까지도 /ㆍ/가 음운으로 존재하고 있는 제주방언의 자료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세국어에서 'ᄐᆞ-(燒), ᄑᆞ-(掘)' 등의 용언이 어미 '-아'와 통합할 때 '타, 파'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어미초모음의 탈락보다는 어간말모음의 탈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ᄐᆞ-'와 '-아도'의 통합에서 도출된 '타도'가 현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타도'에서의 'a'는 다름 아닌 중세국어 당시의 어미초모음이다. 정승철(1995:122)에서는 중부방언의 '짜서(鹹)'에 해당하는 제주방언 '찬(ᄎᆞ+안)'을 통해 어간말모음 '아'가 탈락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26가)의 자료를 통해 공시적인 음운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다만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15세기 당시의 공시적인 자료를 검토해 본 것이다. 또한 (26나)와 같은 제주도 방언 자료를 통해 경북북부지역어의 공시성을 이해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국어음운론의 실체가 다른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도 사실은 소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부방언에서 확인되는 아래 자료들이다.[210]

(27) 펴+아도→펴'도'(伸)　　켜+아도→켜'도'(火)

(27)에 제시된 예들을 검토해 볼 때 일견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11] 그러나 (27) 또한 (28)과 같은 과정을 거쳐 어간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9) '가-'류(후의적 성조 패턴을 가진 용언) 이외의 용언에서는 어간말모음과 어미초모음 중 어느 모음이 탈락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싸-(包)'의 활용형 '싸고', '싸지', '싸도', '싿따' 등은 모두 HH로 실현되며 부정부사 '안'을 통합하더라도 모두 HLL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210) 중부방언을 포함한 많은 방언권에서 '켜->키-(火)'의 재구조화가 확인된다. 경북북부지역어에서 '켜-'와 '키-'는 수의성의 보인다.

211) 전북방언에서의 '꼬+어야→꼬야(索), ㄲ+어야→ㄲ야(消)' 도출과정을 근거로 동음탈락의 경우 어미초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논자도 있다. 그러나 김옥화(2000:117-127)에서는 '꼬야(索), ㄲ야(消)'의 형태를 어미 '어'가 탈락되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어미 '으'가 탈락되어 도출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하면서 중부방언의 어미 '어X'에 대당하는 것들이 '으X'로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꼬+으야'에서 탈락된 '으'는 중부방언에서의 어미 '으X'의 두음과 같은 것이다.

(28) $p^hyə+ato \rightarrow p^hyəato \rightarrow p^hyədo$
어미 a의 교체 어간말모음 탈락

'$p^hyə$'와 'ato'가 통합하면 어미 'a'가 'ə'로 교체되어 동음탈락의 환경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어간말 'ə'가 탈락하여 '$p^hyədo$'가 도출된다.[212] '$k^hyədo$'도 동일한 과정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가) '가'도''와 (20나) '가ˇ라'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29)에 제시된 자료를 검토해 보자.

(29) 가. 갈ˇ레(去, 가'고) 볼ˇ레(見, 보'고) 올ˇ레(來, 오'고)
나. 쌀'레'(泄, 싸'고') 찰'레'(蹴, 차'고')
다. 울ˇ레(泣, 우ˇ지~울ˇ지)
라. 쓸'레'(掃, 쓰'지'~쓸'지')

(29) 각각의 어간에 통합된 어미는 '-ㄹ레'로 동일하다. 그런데 (29가)에서는 복합성조가 실현된 것이 특이하다. 어미 '-ㄹ레'는 청자의 의향을 묻는 것으로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와 관련시킬 수도 있지만 (29나)의 '싸-', '차-'와 (29라)의 '쓸-'에서는 복합조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213] (29다)의 복합조는 어간의 기저형과 관련되니 문제는 없다.

(29가)의 복합조 실현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20)에 제시된 '가+아라→가ˇ라'는 물론 '보/오-+아라→봐ˇ라(見)/와ˇ라(來)'와 같은 복합조 실현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임석규(1999:76-77)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중세국어의 후의적 성조에 해당하는 용언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는 분절음 층위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 보-, 오-, 주-(與), 누-(泄), 두-(置), 하-(爲)' 등은 기저성조를 셋으로 설정해야 비로소 '갈ˇ래', '가ˇ라' 등에 개재된 복합조를 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성조방언에서는 기저형이 성조를 달리하는 '가(H_1)-, 가(H_2)-, 가(L·H)-' 셋이 될 것이고, '갈ˇ래', '가ˇ라'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비성조방언에서는 그 기저형이 '가-'와 '가:-' 둘이 될 것이다. 이렇듯 '가-' 류 용언에 한해서 경북북부지역어에서의 기저형이 음장방언과 다른 이유는 이전 시기의 성조패턴이 현대에까지 그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214]

---

212) 이병근(1978:13-18)에서는 수의적 교체형 '되서~되ˇ서(化)'를 근거로 하여 어미초모음 '어'가 탈락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장음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 이런 가능성은 김경아(2000:168)에서도 짧게 제시된 바 있다 – 을 고려해 볼 때 '되서'는 현재 중부방언에서 '눈:(雪)'에서의 장음이 소실되어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중부방언의 장음이 성조방언의 복합성조에 대당한다고 할 때 복합성조를 지닌 성조방언에서는 '되:서'는 단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조방언에서의 복합성조는 중부방언의 장음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중부방언에서의 '패서(發)' 또한 '되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213) 다만 후의적성조형에 대응하는 (29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도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3장 '기저형' 참조). 후의적성조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특정 방언에서의 변화가 달랐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14) 곽충구(1994가:166-169)에서는 '가/보-+은냐→간:냐(去)/본:냐(見)'를 완전순행동화에 의한 장모음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가-'류 용언이 아닌 '치-(打)'와 '-은냐'의 통합에서도 장모음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보+으문→보문(見)'과 비교해 볼 때, 장음의 실현은 곽충구(1994가:168)의 언급대로 형태론적 제약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 성조방언의 자료, 중세국어의 자료, 제주방언의 자료를 통해 동음탈락은 어간모음이 탈락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가+아라→가ˇ라'의 도출에서 복합조가 개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보충할 것이 있다. 우리는 (21)의 예 '쌓+아도(積)'에서 후음이 탈락한 첫 도출과정 '싸아도'에서 동음이 탈락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필자는 '유음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탈락제약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즉 '음소는 연이어 탈락할 수 없다'는 제약이 '싸아도'의 동음탈락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모음이 축약되면서 성조도 축약되어 표면형 '싸^도'를 얻게 된다.

4.2.6. 어간말 '으/어' 탈락

어간말 '으/어' 탈락이란 '아(X)'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의 '으/어'가 탈락하는 음운론적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음운론적 과정은 (30)에서 확인된다.

(30) 공통자료(문경·울진의 어간은 'X어'215))
  가. ㄲ(H_2)+아도→꺼'도'(消), 뜨(H_2)+아도→떠'도'(碁)
  나. 바'쁘+아도→바'빠도(忙) cf. 바쁘'+머는→바쁘'머는, 바쁘+고→바쁘'고
  다. 달'르+아도→달'라도(異) cf. 다르'+머는→다르'머는, 다르+고→다르'고

(30가)를 통해, 활용 어간 'ㄲ-'가 어미 '-아도'와 통합할 때 어간말모음 '으(영주)/어(문경·울진)'가 탈락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0나,다)를 통해 어미 '아(X)'와 통합할 때는 'HL' 성조를 가진 어간이 통합되며, 어미 '으X'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는 'LH' 성조를 가진 어간이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HL' 성조를 가진 어간의 어간말모음 '으/어'가 어미 '아(X)' 앞에서 탈락한다. 어미 '아(X)'이든 '으X'이든 모두 'LH' 성조를 가진 어간이 통합된다고 본다면 'LH' 어간에 어미 '아(X)'가 통합될 때 그 성조가 'HLL'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절 어간이 '으'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어간말 '으' 탈락의 용례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르->땋-(從, H_1)', '모'으->뫃-(集, H_1)'과 같은 재구조화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표준어 '담그-', '잠그-', '치르-' 등이 '당궇'-', '장궇'-', '치뤃'-' 등으로 실현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4.2.7. 계사 '이' 탈락

계사 '이'의 탈락 여부는 김완진(1972/1996:41-42)에서 간단하게 언급된 바 있고, 이를 체계

215) 사실 중화된 모음 'ɜ'로 인해 공시적 기술은 매우 복잡해진다. 후고를 기약한다.

적으로 다루려 한 논의로는 이승재(1994), 배주채(2001), 김성규(2001)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논의에서 발전되지 못한다. 다만 공시적 음운론 연구에서 '이-'의 탈락에 대한 논의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서 단지 경북북부지역어의 계사 '이-'가 탈락하는 자료를 몇몇 보이고자 한다.

계사 '이'의 탈락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때 탈락한다. 이 경우의 자연부류는 유음이 장애음 및 비음과 같은 부류를 이룬다. 계사 '이'의 탈락은 (3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1)은 울진지역어의 자료를 대표로 제시한 것이다.

(31) 네게'레~네헤^레(내 것+이야), 착'이'레(冊)[216]
늑'떼'야(늑대), 부'리'야(火)
능거'리사~소데'끼사(누룽지+이야), 골ˇ페니사(볼펜), 뻰'치사(펜치, 具), 가우'리사(가오리)
띠'야~떼'야(도), 거'리'야(걸), 유ˇ치야(윷)
떠께'제(蓋+이지), 마시'리제(村), 가운테제(中)

탈락의 기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이는 재구조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217] '그 음악가 이름 퀘니지'라는 발화를 듣고 음악가의 이름을 되묻는 경우, '퀜', '퀘니', '퀘니지' 세 가지 대답이 모두 가능하다. 화자들은 처음 발화에서의 '퀘니지'를 '퀜+이지', '퀘니+이지'로 분석할 수도 있고, '퀘니지'를 어간 자체로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는 '그 사람 이름 이영석'과 같은 계열이다. 특히 '퀘니+이지'로의 분석은 화자들의 무한한 언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언어능력은 (32)에서 보인 어간의 확대 및 (33)에서 보이는 어간의 축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울진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재구조화이다.

(32) 가. 주룸싸런, 주룸쌀또, 주룸싸리, 주룸싸리고, 주룸싸리야
나. 주룸싸리넌, 주룸싸리도, 주룸싸리가, 주룸싸리고, 주룸싸리야

임석규(2002가:323-32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사 혹은 주격어미를 포함한 어미 '이X'와 어간의 통합형을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32나)와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중세국어의 '풀>프리', '털>터리' 등에서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변화는 어간에 대한 재분석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3)은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 보이는 재구조화이다.

216) 주지하듯이 계사의 활용형에도 방언차는 존재한다.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정승철(1997)에서는 '책이랏저(책이었다)', '책이라신게(책이었네)', 영동방언을 대상으로 한 이익섭(1981)에서는 '삼년째래요(삼년째예요)' 등이 확인된다. '-이에요'의 경우 문경지역어에서는 '-이라(y)요',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이레요'가 대표적이다.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연모시레써(池+이었어)'와 같이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217) 기제가 간단하다고는 하였지만 사실 '소이지 않다', '반도인 우리나라', '친구이기 어렵다'에서의 '이' 탈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31)에 제시된 예는 모두 어말인 경우이다.

(33) 가. 주막꺼리고, 주막꺼리지, 주막꺼리야, 주막꺼레, 주막꺼리넌, 주막꺼리로, 주막꺼리도
　　 나. 주막꺼리고, 주막꺼리지, 주막꺼리야, 주막꺼레, 주막꺼런, 주막껄로, 주막껄또

(33가)에 제시된 곡용형을 토대로 언중들은 '주막꺼리+이고/이지/이야'를 '주막껄+이고/이지/이야'로 재분석하여 어간이 축소된 새로운 어간 '주막껄'을 도출해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재분석한 어간 '주막껄'을 통해서 화자들은 처격어미와의 통합형(주막껄+에→주막꺼레)을 도출할 수 있다.

4.2.8. 활음 탈락

공시적인 활음탈락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활음에 관한 분포제약에 대해 검토해 보자. 이병근(1973)에서 보인 성과대로 공시적인 환경과 그렇지 않는 환경의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중모음은 세 지역어에서 분포상의 제약을 갖는다. 활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의 경우 그 활음은 분명히 실현되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의 경우 활음이 수의적으로 탈락된다. 그 대강을 보이면 (34)와 같다. (34)는 영주지역어 자료이다. 수의적인 형태는 생략하고 제시한다.

(34) 공통자료
　　 가. 예닐'곱, 엿(엿, H_2), 야께'이(狐), 유리'(琉璃), 요데'기(衾) ; 월(月, H_2), 와ˇ넹(緩行), 웨ˇ(何)
　　 나. 포'시'(標示), 호ˇ자(孝子), 후'가(休暇), 구'칙(規則), 비ˇ로(肥料), 통신'포(通知表), 서'구'(石油) ; 걸'(大闕), 치'럴'(七月), 가ˇ일(果實) 실'가'(果實), 게ˇ짝(櫃), 긍게'(金櫃)
　　 cf. 오강'(요강), 오세^(近來), 오번'(요번)

(34가)에서는 활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35나)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지역어/울진지역어의 경우218) 위에 제시한 이중모음에 관한 분포상의 제약은 (35)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수정되어야 한다.

(35) 가. 명ˇ(命), 호명'(呼名), 기ˇ시니껴(有), 데통넌
　　 나. 머여'(先), 우유'(牛乳), 주ˇ요(主要), 시ˇ월(歲月), 데ˇ왕(大王)
　　 cf. 게(契, 공통자료)

(35가)를 통해 'yə/yƎ'는 첫 음절이 아닌 환경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멍', '호멍', '기시니꺼', '데통넌'과 같은 활음탈락형이 수의적으로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yE'는 자음과 결합된 채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 (35나)를 통해서 활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일지라도 2음절 이하에서는 활음이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예를 통해서는 단어 내부에서의 이중모음에 관한 분포 제약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

218)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데통녕', '구녕' 등에서 '여'가 확인된다. 많은 경우 '밍˘', '호밍''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영주, 울진지역어에서도 '밍단''(명단)'과 같은 발화가 확인된다.

이다. 활용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하의 환경에서는 활음이 탈락된 채로 나타나기도 한다[베우+아도→베'아도(學), 더우+아도→더'아도(暑)]. 따라서 활음 탈락의 환경은 단어 내부와 단어 경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음화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세 지역어에서 활음은 단음절 모음 어간과 모음어미가 통합할 때에 한하여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36) 이+아도→여'도'(戴)　　　　　　　　오+아도→와'도'(來)

그런데 모음어미와 통합하는 어간이 단음절 모음 어간이 아닌 경우에는 활음이 탈락되기도 한다. 이러한 활음탈락에는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것과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두 부류가 있다. (37)은 활음이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며 (38)은 활음이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수의적 현상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일 경우 또는 모음 음절일지라도 2음절 이하인 경우에 한해 확인된다.

(37) 영주·울진
지+아도→지어도→져도→저'도'(負)　　　　찌+아도→찌어도→쪄도→쩌'도'(蒸)
치+아도→치어도→쳐도→처'도'(打)

(38) 영주/문경·울진
가. 보+아도→봐'도'~바'도'(見)
나. 에우/이우+아도→에'와도~에'아도/이'와도~이'아도(誦)
에루/이루+아도→에'루와도~에'루아도/이'루와도~이'루아도
수우+아도→수ˇ와도~수ˇ아도(易)　　　베우+아도→베'와도~베'아도(習)

(37)은 활음화 후 'y'가 경구개자음과 조음위치를 같이하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다.[219] 한편 문경지역어는 위에 제시된 어간이 '저-', '쩌-', '처-'로 실현되기 때문에 모음어미와 통합하더라도 활음화의 환경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문경지역어에서의 필수적인 활음탈락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8가)는 활음화 후 활음 'w'가 탈락되는데[220] 노년층의 발화에서는 미미하게 들리기도 한다.[221] (38나)의 '에우-', '수우-', '베우-'의 둘째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6)과는 달리 수의적으로 활음이 탈락된다. 이는 음절수와 관련 있는 듯하지만 음절 위치의 문제가 아님을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219) 이 외에 'y'가 탈락되는 예를 더 확인할 수 있다. '-아야 X'에서 'y' 탈락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된다. 물론 '가야지~가이지'와 같은 현상도 확인되는데 이는 세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가'아'지~가'야'지(가야지), 와'아'지~와'야'지, 헤ˇ아지~헤ˇ야지, 저'거아지~저'거야지(書) / 가'아'데~가'야'데(가야#돼), 와'아'데~와'야'데, 헤아데~헤ˇ야데, 저'거아데~저'거야데].

220) y가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경지역어에서는 '이기+어→이'기(勝)'와 같이 완전 순행동화 과정, 울진지역어에서는 '이기+어→이'게'와 같이 공시적 축약규칙을 적용하여 표면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지역어에서도 '이게+어→이'게'처럼 활음화의 환경을 확인할 수 없다.

221) 미미하게 활음 'w'가 들린다고 해도 음운론적으로는 의의가 없다.

(39) 문경/영주·울진

올로오~올라오+아도→올'로와도~올'라와도(올라오다)

드로/드오~드로+아도→드롸도~드라도/드와도~드롸도~드라도(이상 HHL)

'오-(來)'가 '올로오-, 드로~드오-, 나오-' 등에서처럼 합성동사의 제2성분인 경우, 음절 '오'는 2음절 이하에서도 어미 '아(X)'와 통합할 때 활음이 탈락되지 않고 '와-'로 나타난다. 문경지역어의 '드라도'를 참고한다면 역시 '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라고 하더라도 합성동사의 선행성분의 말음이 자음인 경우로 한정된다.[222] 물론 이는 형태론적인 차이는 아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이-'에서도 합성동사가 있다면 활음탈락이 되지 않는 형태가 도출될 것이 기대된다. 영주지역어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보여'(*보어, 산이 보여)'를 통해서도 형태론적인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4.3. 첨가

4.3.1. ㄴ 첨가

공시적인 'ㄴ' 첨가는 단어 경계 사이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40)을 통해 확인된다.[223]

(40) 공통자료

가. 올'려자도(올#여자도)　　　　온'녀자가(온#여자가)

나. 푸'른니피(푸른#잎이)

다. 먼^냐기(먹은#약이)

cf. 오'디'부이(옷#입으니), 오'딥'꼬(옷#입고), 모˘디저~몬˘니저~모˘이저(못~모#잊어), 모˘디즐~몬˘니즐~모˘이즐(못~모#이즐), 하'리도(할#이도), 하'니도(한#이도)

제시된 'ㄴ' 첨가 환경의 공통점은 선행성분이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이 i 또는 y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디'부이', '모˘디저' 등의 예에서는 'ㄴ' 첨가의 환경이 되지만 첨가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시적인 'ㄴ' 첨가는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파악함이 바람직하다. 후행요소의 음운론적 환경으로는 첨가 과정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40가)에서처럼 첨가된 'ㄴ' 앞에서는 'ㄹ'이 탈락되지 않는다. 이는 필자가 설정한 탈락제약과 같이 국어에 존재하는 큰 제약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ㄹ-ㄴ 연쇄는 유음화 과정을 겪는다.

222) 물론 자음 중에 'ㅇ'은 제외되어야 할 듯하다. '*등오+아→등와' 정도로 나타날 듯하기 때문이다.

223) 합성어 '꽃이름', '상이름'에서는 첨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단어경계라 할지라도 '모˘디즐(못#잊을)', '모˘디전는지(못#잊었는지)', '오'딥'꼬(옷#입고)' 등에서는 첨가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ㄴ' 첨가는 단어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조사 항목을 좀더 넓힌다면 'ㄴ' 첨가는 단어 경계가 아닌 곡용의 환경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곡용 어간과 첨사 '-요'의 결합에서 첨가 과정이 확인된다. 물론 어간이 폐음절인 경우에서만 'ㄴ' 첨가가 확인된다.

(41) 영주·문경/울진
가. 이칭+요→이ˇ칭뇨224)(二層)
나. 물+요→물뇨→물'료'(水)
다. 갑씨+요→갑씨뇨→갑뇨→감'뇨'(價)
cf. 세로/세리+요→세'로'요/세'리'요(新)

(42) 문경
가. 이칭+여→이ˇ칭녀(二層)
나. 물+여→물녀→물'려'(水)
다. 갑씨+여→갑씨녀→갑'녀'→감'녀'(價)
cf. 세로여→세'로'여(新)

그러나 다음을 통해 합성어 형성에서의 'ㄴ' 첨가는 수의적임을 알 수 있다.

(43)※ 영주·울진
지'빌~짐'닐(집일) 바'딜~반'닐(밭일)
무'략'~물'략'(물약) 노'닐'~논'닐'(논일)
나디'근~난니'근(낯익은)
cf. 처'딘'상(첫인상), 마시'따(맛있다), 머시'따(멋있다)

(43)에는 'ㄴ' 첨가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그 중 'ㄴ'이 첨가되지 않는 어형이 일반적이다. 다만, '처딘상', '마시따' 등에서는 'ㄴ' 첨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성어에서의 'ㄴ' 첨가는 15세기 어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잠정적 가설을 세울 수 있다. (40)과 (43)에 제시된 예 중 '녀즈(女子)', '닐(事)', '닞-(忘)', '닙-(着)', '니-(熟)'이 그 조건을 만족한다. 이들 예에서의 'ㄴ' 첨가는 통시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라 봄이 바람직하다. 반면 '인상', '있-'의 이전 시기 어형은 초성으로 'ㄴ'을 갖지 않았으므로 첨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 '약'의 중세 어형이 현대 어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약'의 경우는 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y'로 시작하는 후행성분인 경우 'ㄴ' 첨가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한'뉼換率, 담ˇ뇨(毯), 금늉'金融)이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여전히 '일'이 후행성분인 경우가 문제로 남는다. 김주필(1994:114-119)에서는 '솜이불', '늦여름', '앞이마', '설익-', '콩잎' 등에서의 ㄴ 첨가는 통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집일', '짓이기-', 밤윷', '맨입' 등은 과도교정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225) 필자도 일단 이런 관점을 견지하기로 한다. 다만 종합적인

224) 표준발음은 '이층뇨'가 아닌 '이층요'이며, 요즘 중부방언에서는 '이층이요'와 같은 발화가 우세하다.

225) 이 중 '맨입'의 후행성분 '입'의 중세 어형은 '닙-'이므로 제외해야 할 듯하다. '군입', '나뭇잎' 등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동남방언에 중세 문헌의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43)에 제시된 예들은 중부방언과 달리 'ㄴ'이 확인되지 않는 어형도 확인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전 시기부터 n-구개음화(n 탈락)의 세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공시적인 'ㄴ' 첨가는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파악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합성어에서의 'ㄴ' 첨가 현상까지를 검토해 보니 비음운론적 제약은 바로 통시적인 산물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과도한 'ㄴ' 첨가 즉 단어 경계 이외의 환경에서 적용되는 'ㄴ' 첨가는 어형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다르다

(44)※ 가. 한''뉼(換率), 검ˇ녈(檢閱), 송ˇ별련(送別宴)
나. 이'로'일(日曜日) *일료일
부냐'(分野) *분냐
cf. 전ˇ나(電話)~저ˇ나~[čəˇnɦa] ; 일'랑'년(一學年)~이'랑'년~[írɦáŋɲən]
번노'(番號)~버노'~[pənɦó] ; 간노'부(看護婦)~가노'부~[kanɦóbu]

(44가)에 제시된 '한뉼', '검녈', '송별련' 등에서의 'ㄴ' 첨가는 여러 방언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경남 지역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일료일', '분냐' 등에서의 첨가는 경북북부지역어에서 확인하기 힘들다. 한편 '전나', '일랑년' 등에서의 'ㄴ' 첨가는 그 기제가 일반적인 'ㄴ' 첨가와는 다르다. 이러한 유형, 곧 'ㅎ' 자리에 ㄴ이 첨가되는 유형이 화자에 따라 발화되기도 한다는 점은 특이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첨가 현상은 경북북부지역어의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4.3.2. 활음 첨가

활음첨가는 모음 뒤에서 y나 w가 수의적으로 첨가되는 과정을 말한다. 송철의(1995나:273)에서는 원칙적으로 'y'가 첨가되는 경우는 두 모음 중 선행모음이 '이'일 때이고, 'w'가 첨가되는 경우는 선행모음이 '오'나 '우'일 때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활음첨가는 활음화나 모음탈락이 필수적일 때는 관여하지 못하는 음운 현상이며, 선행모음이 활음의 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짝을 이루는 활음이 첨가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간의 논의에서는 호격어미에서의 활음첨가에 비중을 둔 나머지, 활음첨가의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곧 곡용에서는 y가 첨가되고 활용에서는 환경에 따라 y 또는 w가 첨가되는 형태론적인 제약을 활음첨가의 기제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다음에 제시된

'ㄴ'이 없는 채로 발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맨입', '꽃잎'의 발화에서는 'ㄴ' 첨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는 듯도 한 것이 문제이다.

여러 예를 통해 활음첨가의 동기를 밝혀보기로 하자.[226] (45)~(47)에 제시된 자료는 공통으로 확인되는 자료이다.

(45) 가. 영'수야,　　　영'수가(人名 영수, 영숙)
　　나. 기+에→기'예~기'에(耳)　　　베+에→베'예'~베'에'(腹)
　　　　차+에→차'예~차'에(車)　　　우+에→우'예~우'에[227](上)
　　　　서+에→서'예~서ˇ에(署)　　　베차+에→베ˇ차예~베ˇ차에(白菜)
　　　　부루+에→부루'예~부루'에(상추)

(45)는 곡용에서 나타나는 활음첨가이다. 그런데 (45나)에 제시된 일련의 예들은 'y'의 첨가가 수의적인 반면 (45가)에 제시된 호격어미에서의 'y' 첨가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45가)와 (45나)의 성격을 공시적으로는 달리 파악해야 한다. 특히 (45나)에 제시된 활음첨가는 어간말모음의 후설성 자질에 관계없이 모두 활음 'y'가 첨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6)에 제시된 활용에서의 활음첨가는 어간말모음의 자질에 따라 활음 w와 y가 첨가됨을 알 수 있다. 곧 (46가)는 활음 'w'가 (46나)는 활음 'y'가 첨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28]

(46) 가. 보'아'도~보'와'도(見)　　　주'어'도~주'워'도(與)
　　나. 기'어도~기'여도(匍)　　　께'어도~께'여도(破)

(47)를 통해 단어내부의 활음첨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47) 가. 미ˇ안(未安)~미ˇ얀　　히'안(稀罕)~히'얀　　누'에(蠶)~누'예
　　　　기'억(記憶)~기'역　　미ˇ에(이름, 美愛)~미ˇ예
　　나. 소ˇ암(效驗)~소ˇ왐　　두엄'(肥)~두웜'　　추'앙(推仰)~추'왕
　　cf. $V_{1}\text{ŋ}V_{2}$ 눙에~눙예(누에), 고등에~고등예(고등어), 중앙~중왕(中央), 동안~동완(童顔)

(47가)에 제시된 첨가 환경을 살펴보면 활음이 첨가되기 전의 음운연쇄에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은 전설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7나)에서의 활음첨가 환경을 살펴본다면 활음이 첨가되기 전의 모음연쇄는 두 모음이 모두 후설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47가)의 예를 제외하면 (45나), (46)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단어 경계[이#에^(이#아이)~이#예^, 그#에^~그#예^]에서도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음 사이에 자음 'ŋ'이 개재된 '눙'에~눙'예(누에)', '잉ˇ에~잉ˇ예(잉어)', '고둥'에~고둥'예(고등어)', '상에'~상예'(상어)', '중앙'~중왕'(中央)', '동안'~동완'(童顔)' 등에서도 적용된다.[229]

---

226) 이는 임석규(1999), 임석규(2004가)에서의 논의에 자료를 다각화하여 보충한 것이다.

227) 울진지역어에서는 활음화한 '웨^'형태도 확인된다. 물론 '그웨^(그#우에)'처럼 지시관형사가 '우'에 선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28) (46)에 제시된 예는 바'도', 조'도', 기^도, 께^도에 대응하는 보다 공식적인 발화이다.

229) 울진지역어에서는 비음이 탈락한 형태가 모두 확인되나, 영주지역어에서는 '이ˇ예'는 확인하지 못했다.

(48)은 활음첨가를 형태론적 제약 없이 음운론적으로 일반화해 본 것이다.[230]

(48) $V_1V_2 \rightarrow V_1yV_2$: 'V_1'과 'V_2' 중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전설모음인 경우
$V_1V_2 \rightarrow V_1wV_2$: 'V_1'과 'V_2'가 모두 후설모음인 경우.
(단, V_1과 V_2 사이에는 자음으로 ŋ이 게재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45가)의 예는 활음첨가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수의적인 활음첨가와는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 바로 호격어미는 어휘부에 '-아'와 '-야'가 모두 등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음으로 끝나는 인명 뒤에서의 호격어미는 '아'가 선택되고 모음으로 끝나는 인명 뒤에서의 호격어미는 '야'가 선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활음첨가와 관련된 활음의 자질은 [후설성]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축약

축약이란 두 개의 음소가 통합하여 하나의 음소로 되는 음운론적 과정을 말한다.

4.4.1. 유기음화

유기음화란 평음 'ㅂ, ㄷ, ㅈ, ㄱ'와 후두마찰음 'ㅎ'이 통합하여 유기음 'ㅍ, ㅌ, ㅊ, ㅋ'으로 되는 음운론적 과정을 말한다. 세 지역어에서 유기음화의 과정은 (49)를 통해 확인된다.

(49) 공통자료
가. 옇-(入)　　여트'라, 여'코, 여'체, 여크'레이
둔넣-(臥)　　둔너트'라, 둔너'코, 둔너'체, 둔너크'레이
앓-(痛)　　알트'라, 알'코, 알'체, 알크'레이

나. 집+하고→지파'고(家)　　금깝ㅆ+하고→금'까파고(金價)
옷+하고→오'타'고(衣)　　낮+하고→나'타'고(晝)
젖(문·영)/젇(울진)+하고→저'타'고(乳)　　죽+하고→주'카'고(粥)

(49가)를 통해 활용에서의 유기음화 과정을, (49나)를 통해 곡용에서의 유기음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231] 사실 활용에서는 '앓(痛)+고'에서처럼 세 자음이 연속될 때 자음군단순화 이

---

230) 이러한 결론은 비단 동남방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방언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31) 필자가 조사한 지역보다 훨씬 남쪽 지방의 말을 대상으로 한 최명옥(1974:89-90), 최명옥(1980:209), 최명옥(1982:143)에서 곡용에서의 유기음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방언집을 보더라도 곡용에서의 유기음화는 경북의 북부지역어에서 잘 확인될 수 있는 음운과정이고 중부지역 이하만 하더라도 지역어에 따라 유기음화를 보이는 지역어와 그렇지 않는 지역어들이

전에 유기음화가 적용된다. 활용의 전 음운과정을 점검하더라도 유기음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곡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49나)의 '낮+하고'에서 유기음화가 먼저 적용되면 표면형이 '*나차고'로 실현되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석규(2004다)에서는 이런 점에 근거하여 곡용과 활용에서의 규칙간 선후 관계를 모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곡용에서는 평파열음화가 축약에 앞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32] '낮+하고'에서도 평파열음화를 먼저 적용해야만 올바른 표면형 '나'타'고'를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곡용 어간의 자립성에 기인한 것인바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곡용 어간은 평파열음화된 어간인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석규(2004다)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경주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최명옥(1980:209), 청송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세환(2005:41)에서는 2음절 '어근'과 '하-'가 통합된 파생어에서 유기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울진지역어에서는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근의 말자음 'ㄱ', 'ㅅ'이 탈락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50)※ 옴복- : 옴보가'다~옴보하'다(우세형)[233]
　　　삐쭉- : 삐쪼가'다~삐쪼하'다(우세형)
　　　쪼삣- : 쪼삐다'다~쪼삐하'다(우세형)
　　　헤꼽- : 헤꼬바'다

그러나 최명옥(1980:209)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음절 어근 '따'카'-(哀惜), 차'카'-(善), 수타'-(多)' 등에서는 유기음화가 확인된다.

4.4.2. 경음화

경음화는 교체에 의한 것과 축약에 의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음소목록을 설정할 때 'ㆆ' 설정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필자가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곡용에서의 유기음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주지역어는 필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232) 사실 활용과 곡용을 통틀어 첨가 규칙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 순수 음운론적인 활음 첨가를 제외하면 활용에서는 첨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낫 가져와'라고 했을 때 청자가 '난뇨'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낫+요→낟요→낟뇨→난뇨'처럼 평파열음화를 먼저 적용할 동기가 없다. '낫+요→낫뇨→낟뇨→난뇨'와 같이 먼저 첨가과정을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 첨사 '-요'는 'ㄴ' 첨가된 형태 '-뇨'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꽃잎→꼰닙' 또한 '꽃잎→꼳입→꼳닙→꼰닙(김성규·정승철 2005: 263)'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꽃잎→꽃닢→꼳닙→꼰닙(임석규 2004다: 324)'으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ㄴ' 첨가에 대해 서술하는 자리에서 비음운론적 제약을 언급한 바 있다. '잎'에 대해 'ㄴ' 첨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 평파열음화된 '입'에 대해 'ㄴ' 첨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평파열음화를 먼저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인위적인 것이다.

233) 울진지역어어에서는 'ㄱ'이 탈락한 형태가 다수 실현된다. '옴보:한'거' 외에 '히쓰하'노(핼쑥)', '들라날라하'고(들락날락)', '피'세'업씨(혈색없이)', '자부:하'노(자욱)', '양'녀(양력)', '자'녀'네(작년+에) 등이 확인된다. 환경이 조금 다른 경우지만 '그것'또'를 '그어'또'라 하는 것은 중부방언의 '것:도'와 관련될 것이다. 참고로 영주지역어의 'ㄱ' 탈락형 '한˘보(한복)'를 제시한다.

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축약에 의한 경음화는 'ㆆ'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ㆆ'과 'ㅂ, ㄷ, ㅅ, ㅈ, ㄱ'이 축약에 의해 'ㅃ, ㄸ, ㅆ, ㅉ, ㄲ'으로 나타나는 것은 (5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1) 공통자료
붕+고→부'꼬(注, 부ˇ먼)　　　　중+제→주ˇ쩨(拾, 주ˇ먼)

4.4.3. '여'의 '에'화

울진지역어에서만큼은 활용에서 공시규칙으로 '여→에'를 설정할 수 있다.[234] '여→에' 변동은 '베리+아도→베리어도→베려도→베'레도(亡, 베리고)'와 같이 2음절 이상으로 끝나는 활용어간이 어미 '아(X)'와 통합할 때 활음화에 후행하는 과정이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공시 규칙이라 할 만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아래에 제시한다.

(52) 누'키+아야→누'키어야→누'켜야→누'케야(尿)
생'기+아도→생'기어도→생'겨도→생'게도(奉)
곤'치 +아사→곤'치어사→곤'쳐사→곤'체사(改)
기'리'+아도→기'리'어도→기'려'도→기'레'도(讚)
주ˇ무시+아도→주ˇ무시어도→주ˇ무셔도→주ˇ무세도(寢)
꼬시'+아야→꼬시'어야→꼬셔^야→꼬세^야(香)
써이^+아도→써이'어도→써여^도→써에^도~써예도(書)
뿌시^+아도→뿌시'어도→뿌셔^도→뿌세^도(破)

(52)에 제시된 예의 경우 문경지역어에서는 '누'키야', '써이^도' 등으로 나타나므로 완전순행동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영주지역어에서는 '누'케야', '써에^야' 등과 같이 실현되므로 잠정적으로 축약 규칙을 상정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영주지역어에서는 '여→에' 규칙을 인정하기 어렵다.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는 물론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에도 '누'케고', '누'케이께네', '쓰에^고', '쓰에^이께네' 등과 같이 둘째 음절 모음이 E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Xi>XE'로의 변화, 즉 어간의 재구조화로 파악될 수 있다.[235]

---

234) 예'자'(女子), 옌장'(道具), 예수'~예께'이(狐), 예ˇ치~이ˇ치(여치) 등과 같은 단어 내부에서의 변화를 고려하면, '누'키+아야→누'키어야→누'켜야→누'케야→누'케야'와 같은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의 둘째 음절 'k^{h}yə'가 'k^{h}ye'로 변동되는 것은 y에 의한 전설성 동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명당'의 방언형 '멩당'도 무리 없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첫 음절 'myəŋ'은 전설성 동화의 단계 'myeŋ'을 거쳐 'meŋ'으로 실현될 수 있다. 김완진(1963/1971:21-23)에서 처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필자와 같이 단어 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아우르고자 한다면 (52)에 제시된 울진지역어의 여러 예는 공시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듯하다. 최근의 '여>--->에'와 관련된 연구사 및 논의는 김성규(2003)을 참조할 수 있다.

235) 자세한 내용은 어간의 기저형 및 완전순행동화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5. 성조변동

성조변동 또한 분절음 변동에서와 같이 몇 부류 곧 교체,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어간과 어미의 기저음소 통합에서 음운규칙을 통해 표면형을 도출하듯이 성조 층위 또한 어간과 어미의 기저성조 통합에서 성조변동규칙을 통해 표면성조를 도출한다.

음소변동규칙이 음소배열제약을 어기는 음소배열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조변동규칙 또한 성조배열제약을 어기는 성조배열에 적용된다. 곧 성조변동규칙은 성조배열제약을 어기는 성조소 연쇄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조변동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조배열제약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조배열제약은 'H_1'에 관계된 제약과 'H_2'에 관계된 제약, 저고복합조에 관련된 제약, 고저복합조에 관계된 제약 네 가지가 확인된다.[1]

경북북부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성조배열제약은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울진지역어의 경우 저고복합조 관련 제약이 다른 두 지역어와 다르다. 울진지역어는 저고복합조 뒤에 저조만이 올 수 있고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는 저고복합조 뒤에 고조만이 놓일 수 있다.[2]

(1) 성조배열제약(자료는 영주지역어 자료)

㉮ 'H_1'에 관계된 제약

특정 음절의 성조가 H인 경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무조건 L이어야 한다.

예) 자바도(捕, HLL), 저인소(정류소, LHL), 깜중예고(整, LHLL), 거뜩하면(걸핏하면, LLHL)

㉯ 'H_2'에 관계된 제약

어느 두 음절의 성조가 HH인 경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무조건 L이어야 한다.

예) 깜아쓰녀네사(감은 후에야, HHLLLL), 어쩨다가(어째다가, HHLL), 가바써도(去, LHHL)

㉰ 저고복합조에 관련된 제약

- 영주·문경: 특정 음절의 성조가 L·H인 경우 다음 음절의 성조는 H이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L이어야 한다.

예) 안찌마는(包, L·HHLL), 떠도지도(彷, LL·HHL)

- 울　진: 특정 음절의 성조가 L·H인 경우 그 외 음절의 성조는 L이어야 한다.

예) 안찌마는(包, L·HLLL), 떠도지도(彷, LL·HLL)

㉱ 고저복합조에 관련된 제약

특정 음절의 성조가 H·L인 경우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L이어야 한다.

---

1) '완전순행동화'를 고찰할 때 그 첫 머리에도 성조배열제약이 제시된 바 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주지역어는 다른 하위 방언권과 비교해 볼 때, 성조 측면에서 문경지역어 혹은 울진지역어에 비해 특이한 규칙이나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곧 영주지역어는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경북 방언의 일반적인 제약이나 규칙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위방언권에 따라서도 성조에 관한 제약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 제약이 바로 방언구획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예) 께다가도(破, H·LLLL), 바까도(換, LH·LL)

여기서 울진지역어의 성조 특이성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고자 한다. 그 특이성은 성조배열이 L·HH이 아니라 L·HL인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성조배열 L·HL과 H·LL은 합류되어 의미 변별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단독형인 경우 고저복합조 '가(그 아이)' '아(童)', '쌈(戰)' 등과 저고복합조 '가(邊)' '덜(少)', '다(諸)'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복합조에 한 음절이 덧붙는 '가^가(그#아이가)/가ˇ가(末+이)'와 '세^가(間)/세ˇ가(鳥)'에서는 그 대립이 확연하지 않다. '자ˇ(저#아이)', '야ˇ(이#아이)', '가^(그#아이)'의 성조 또한 단독형일 때에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어간에 주격어미 '-가'가 통합되면 세 어형의 성조 차이가 확연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편 원래 저고복합조를 가진 어형이 '이'항년(2학년)', '오'게반(5개 반)', '사'월(4월)', '영'구(研究)'처럼 고조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동북방언에서의 성조실현과 동일하다.[3] 이 또한 L·HL과 H·LL 두 복합조의 합류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합류된 두 복합조의 음성형이 오히려 H·LL에 가까워진 것이 H·LL과 HL의 수의적 실현으로 나타난다. 사실 고조와 고저복합조의 변별은 곡용에서 혼하지 않기 때문에 고저복합조를 고조로 발화해도 큰 문제는 없게 된다. 문경지역어에서 '자피'-(被獲)'와 '자피^-'가 공존하는 것도 울진지역어의 '이'항년(2학년)', '오'게반(5개반)' 등과 관련지을 수 있겠다.

5.1. 교체

5.1.1. 고조화

고조화 규칙은 'H_2'와 관련된 제약, 저고복합조와 관련된 제약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H_2'와 관련된 제약에서의 고조화를 검토해 보자.

어간말음절의 성조가 'H_2', 또는 'L·H'로 끝나는 경우 어떤 어미와 통합하더라도 어미 첫 음절의 성조는 고조로 교체된다. 이는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 적용될 수 있고, 울진지역어의 경우에는 어간이 'H_2'로 끝나는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성조배열제약에서 언급한 대로 울진지역어는 저고복합조 뒤에는 저조만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울진지역어의 저조화 규칙은 해당 자료에 간단히 명기하기로 한다. (2)는 어간말음절의 성조가 'H_2'인 경우이며, (3)은 어간말음절의 성조가 L·H인 경우이다.

---

3)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 방언과 동북방언 성조와의 관련성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시소운동', '예기발화', '한 음절 뒤로의 성조 이동(Shift)' 등으로 사가(HL), 사가(LH) 등의 성조 뒤바뀜 현상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는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성조뒤바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내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문경지역어에서 '사가(LH)'라고 하고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 사가(HL)라고 하는 등 대방언권이 아니라 소방언권마다 달리 나타나는 것은 나름대로 내적 이유가 있을 듯하다. 사과나무(LLLH)에서 '사과'를 떼어내면 사과(LH)가 된다. 음성형은 마지막 음절 고조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합성어의 성조변동이 그 구성요소의 기저성조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근거를 통해서 성조분화를 설명하는 방식도 가치 있을 듯하다. 성조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소운동, 예기발음, 음절간 성조 이동 등과 내적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듯하다.

※ 공통자료(울진지역어는 L·H 다음에 L)

(2) 가. 뽑(H_2)+든가(H_1L)→뽑뜽가(選, HHL) cf. 먹(H_1)+든가(H_1L)→먹뜽가(食, LHL)
노랗(LH_2)+든가(H_1L)→노라뜽가(黃, LHHL)
나. 물(H_2)+메치(H_1L)→물메치(水, HHL) cf. 배(H_1)+메치(H_1L)→배메치(梨, LHL)

(3) 가. 짛(L·H)+든가(H_1L)→지뜽가(作, L·HHL)
떠돌(LL·H)+든가(H_1L)→떠돌둥가(彷, LL·HHL)
나. 굴(L·H)+메치(H_1L)→굴메치(窟, L·HHL)

(2가), (3가)는 활용에서의, (2나), (3나)는 곡용에서의 고조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에 제시된 어간 '뽑-', '노랗-', '물'의 기저성조는 각각 'H_2', 'LH_2', 'H_2이다. 어간의 성조가 'H_2'로 끝나기 때문에 어미 첫 음절의 성조 'H_1'이 'H_2'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에 제시된 어간 '짛-', '떠돌-', '굴'의 기저성조는 각각 'L·H', 'LL·H', 'L·H'이다. 어간의 성조가 'L·H'로 끝나기 때문에 어미 첫 음절의 성조 'H_1'이 'H_2'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곡용 어간 '뼤/뼤(骨)', '웨/위[4](瓜)'를 통해서 고조화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자.

(4) 문경·울진/영주
가. 뻬/뼤도(骨, HH), 뻬/뼤넌(HH), 뻬/뼤럴(HH), 뻬/뼤가(HH), 뻬/뼤사(HHL), 뼤에(HH~HL)
나. 뻬/뼤꺼짐(HHL), 뻬/뼤메치(HHL), 뻬/뼤메둥(HHL), 뻬/뼤처럼(HHL), 뻬/뼤버터(HHL),
뻬/뼤메로(HHL),[5] 뻬/뼤보담도(HHLL)

(5) 문경·울진/영주(울진의 경우는 L·H 다음에 L)
가. 웨/위도(瓜, L·HH), 웨/위넌(L·HH), 웨/위럴(L·HH), 웨/위가(L·HH),
나. 웨/위꺼짐(L·HHL), 웨/위메치(L·HHL), 웨/위메둥(L·HHL), 웨/위처럼(L·HHL),
웨/위버터(L·HHL), 웨메로/위메로(L·HHL), 웨/위보담도(L·HHLL)

논의를 위해 어미의 기저성조를 다시 제시해 보자.

(6) 가. -도(H_2), -언/넌(H_2), -얼/럴(H_2), -이/-가(H_2), -에(H_2), -이사(HH), -치고는(HHL)[6]
나. -인데(HL), -한테(HL), -꺼짐(HL), -메치(HL), -메둥(HL), -처럼(HL), -버터(HL),
-메로(H·LL), -보담도(LH·LL)~-보다(LH·L)

각 어간에 (6나)에 제시된 어미가 통합되었을 때 우리는 고조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6나)에 제시된 어미의 첫 음절의 성조는 (4나), (5나)에서 모두 'H_2'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가)의 어미가 통합된 (4가), (5가)에서는 공허한 적용(vacuous applica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 'wi'이다.
5) '-메로'는 울진지역어에서 '-마이로'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은바, 제시된 곡용형은 '뻬'마'이로', '웨˘마이로'로 나타난다.
6) 어미가 결합한 복합어미도 여기에 제시한다. 이하 동일한 관점을 유지한다.

그런데 (6나)의 어미 '-메로'가 통합된 형태, '삐메로(HHL), 빼메로(HHL)', '웨메로(L·HHL), 위메로(L·HHL)'의 표면성조를 통해 우리는 'H_2', 'L·H'에 후행하는 성분의 성조가 'H_2'로 교체된 것은 'H_1'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L(고저복합조)도 'H_2'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성조군으로 범위를 넓혀서 고찰해 보면, 'H_2', 'L·H'에 후행하는 성분의 성조가 'H_2'로 교체되는 것은 'H_1', 'H·L'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고복합조 및 저조도 동일한 교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7] (7)에 제시된 자료를 검토해 보자.

(7) 영주·울진/문경
이#베차→이베차(HHL), 저#베차→저베차(HHL), 그#베차→그베차(HLL)
이#데지→이데지(HHL), 저#데지→저데지(HHL), 그#데지→그데지(LH·LL)
이#감제→이감제(HHL), 저#감제→저감제(HHL), 그#감제→그감제(LLH)/그감제(LHL)
cf. 베차(L·HH, 白菜, 울진은 L·HL), 데지(H·LL, 豚), 감제(LH, 藷)

관형사 '이', '저', '그'의 기저성조는 각각 'H_2', 'H_2', 'H_1'이며, '베차', '데지', '감제'의 기저성조는 각각 'L·HH(영주·문경), L·HL(울진)', 'H·LL', 'LH_1'이다. 고조화는 관형사 '그'를 제외한 '이', '저'와의 통합에서 확인된다.[8] 제시된 곡용 어간의 첫 음절 성조는 저고복합조, 고저복합조, 저조인데 지시관형사 '이', '저'와의 통합에서는 모두 고조 즉 'H_2'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고조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XY_0 \rightarrow L_0HHL_0/L_0H_$ (여기의 H는 'H_2'이며, X, Y는 임의의 성조이다, 세 지역어 공통)
$XY_0 \rightarrow L_0L \cdot HHL_0/L_0L \cdot H_$(문경지역어, 영주지역어[9])

(선행성분이 'H_2' 또는 L·H로 끝나는 경우 후행성분의 첫 음절 성조는 H로 교체되고, 그 다음 음절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L로[10] 교체된다.)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인 경우는 두 규칙이 모두 존재하는 반면 울진지역어에서는 'H_2' 관련 규칙만 존재한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저고복합조 다음에 저조가 놓이기 때문에 고조화 규

7) 김차균 교수, 이문규 교수, 김주원 교수의 일련의 논문에서는 이를 중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8) 관형사 '그'와의 통합은 저조화의 예이므로 다음 절에서 구체화되는데 그 대강을 제시하기로 한다. 관형사 '그'와의 통합에서는 두 가지의 저조화가 확인된다. 저조화 규칙 ①, 저조화 규칙 ②가 확인되는데, 저조화 규칙 ①은 선행성분의 'H_1'이 저조화되는 것이고 저조화 규칙 ②는 후행성분의 'H_1'이 저조화되는 것이다. 전자는 후행성분에 'H_1'이나 'H·L'이 놓이면 선행성분의 'H_1'이 저조로 바뀌는 것인데 '감제', '데지'의 기저성조에는 각각 'H_1'과 'H·L'이 존재하므로 관형사 '그'가 저조로 교체되어 있다. 반면 후자는 후행성분에 'H_1'이나 'H·L'이 존재하지 않아 선행성분의 'H_1'이 그대로 고조로 실현되는 것인바, '베차'의 기저성조 L·HH에는 'H_1'이나 'H·L'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형사 '그'가 고조로 실현될 수 있다.

9) 울진지역어는 복합조 뒤에 L이 놓인다는 제약으로 인해 '$XY_0 \rightarrow L_0L \cdot HLL_0/L_0L \cdot H_$'와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10) 이는 저조화 규칙에서 다루는데 한 성조군에서 고조는 하나만 놓일 수 있다는 '성조배열제약 ㉮'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의 경우, 이론적으로 'H$_2$', 'L·H' 관련 규칙의 개별적인 예는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편의상 일부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좌측 'H$_2$' 관련 규칙은 나머지 두 지역어와 동일하고 우측 L·H와 관련된 규칙만 표면형이 L·HL로 달라진다.

(9) LLLLH$_2$+LLLLH$_2$→LLLLHHLLLL   LLLLL·H+LLLLH$_2$→LLLLL·HHLLLL
LLLLH$_2$+LLLLH$_1$→LLLLHHLLLL   LLLLL·H+LLLLH$_1$→LLLLL·HHLLLL
LLLLH$_2$+LLHHL→LLLLHHLLLL   LLLLL·H+LLHHL→LLLLL·HHLLLL
LLLLH$_2$+HHLLL→LLLLHHLLLL   LLLLL·H+HHLLL→LLLLL·HHLLLL
LLLLH$_2$+LLHLL→LLLLHHLLLL   LLLLL·H+LLHLL→LLLLL·HHLLLL
LLLLH$_2$+L·HLLLL→LLLLHHLLLL   LLLLL·H+LLHLL→LLLLL·HHLLLL
LLLLH$_2$+H·LLLLL→LLLLHHLLLL   LLLLL·H+H·LLLLL→LLLLL·HHLLLL
LLLLH$_2$+LLH·LLL→LLLLHHLLLL   LLLLL·H+LLH·LLL→LLLLL·HHLLLL

위의 경우를 잘 관찰해 보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두 성분이 통합된 표면형의 성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곧 고조화 규칙에서 중요한 것은 후행성분의 성조가 아니라 선행성분의 성조가 'H$_2$', 또는 'L·H'로 끝나는 경우이다.

5.1.2. 저조화

저조화 규칙은 저조가 아닌 성조 즉 'H$_1$', 'H$_2$', 'L·H', 'H·L'가 저조로 변동하는 것이다. 저조화 규칙은 고조화 규칙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논의는 꽤 길게 이어질 것이다. 저조화 규칙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선행성분의 말음절이 'H$_1$'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선행성분의 말음절 'H$_1$'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성조배열제약 ㉮' 즉 'H$_1$'과 관련된 제약이 성조방언의 가장 일반적인 제약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의 성조군에 'H$_1$'이 하나만 놓일 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성조변동규칙을 아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는 경우

다음 자료는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된다. 문경지역어는 두 지역어와는 다른 특별한 율동규칙 — 저조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 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된 저조화 규칙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 없이 제시되는 자료는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된다. 문경지역어도 그 규칙의 적용 방식은 같으나 다만 율동규칙으로 인해 표면성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다시 언급한다.

(10) 가. 먹(H$_1$)+던(H$_1$)→먹떤(LH$_1$)

나. 안(H_1)+먹뗜(LH_1)→암먹뗜(LLH_1)
다. 자꼬(LH_1)+먹뗜(LH_1)→자꼬먹뗜($LLLH_1$)

(11) 가. $H_1+H_1 \rightarrow LH_1$
나. $H_1+LH_1 \rightarrow LLH_1$
다. $LH_1+LH_1 \rightarrow LLLH_1$

(10)에 제시된 과정 각각은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통점은 선행성분이든 후행성분이든 모두 말음절에 'H_1'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모두 선행성분의 'H_1'이 저조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에 제시된 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12) $(L)H_1+(L)H_1 \rightarrow (L)(L)LH_1$

그러나 이 저조화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자료를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래의 자료는 하나의 성조군을 이룬 경우이다(영주, 울진 자료).

(13) 가. 자꼬(LH_1)+바꾸튼동(LLH_1L)→자꼬바꾸튼동(LLLLHL)
자꼬(LH_1)+바꾸트라도(LLH_1LL)→자꼬바꾸트라도(LLLLHLL)

나. $LH_1+LLH_1L \rightarrow LLLLH_1L$
$LH_1+LLH_1LL \rightarrow LLLLH_1LL$

(13가)에 제시된 과정 각각은 (13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후행성분의 성조 'H_1' 뒤 음절에도 L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후행성분의 'H_1' 뒤에 저조가 놓이더라도 결국 선행성분의 'H_1'이 저조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성분이든 후행성분이든 고조 앞에 저조가 이론상 열이 놓이더라도 성조변동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그것이 하나의 성조군을 형성한다면 고조에 선행하는 저조의 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행성분의 고조 뒤에 놓이는 저조의 수와도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단 선행성분은 항상 고조로 끝나야 한다.

(10)~(13)에 제시된 저조화 규칙은 A 성분의 성조가 (14가)와 같고 B 성분의 성조가 (14나)와 같을 때에만 적용된다.

(14) 가. H_1, LH_1, LLH_1, $LLLH_1$, $LLLLH_1$, --- ('H_1'으로 끝날 때)
나. H_1, LH_1, LLH_1, $LLLH_1$, $LLLLH_1$, ---//H_1L, H_1LL, LH_1L, LLH_1, LLH_1L, $LLLH_1LL$, LH_1LLLL --- ('H_1'이 음절에 관계없이 존재할 때)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성조군으로 발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

(15) LLLLLLLLLH+LLLLLLLLLH→LLLLLLLLLLLLLLLLLLLH

LLLLLLLLLH+LLLLHLLLLL→LLLLLLLLLLLLLLHLLLLL

이상의 자료를 생성음운론의 방식을 원용해 다음과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16) 저조화 규칙 ①: 선행성분 'H_1'의 저조화

$L_0H \rightarrow L_0L / _L_0HL_0$(여기에서의 고조는 '$H_1$')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이 존재하면 선행성분의 'H_1'은 'L'로 교체된다.[11])

이는 동남방언 전체에서도 가장 일반화된 규칙인데 형태소 경계, 단어 경계는 물론 복합어 형성에까지 관여하는 순수음운론적 규칙이다. 곧 위에서 언급한 A 또는 B의 성분은 형태소든 단어든 어절이든 A와 B가 하나의 성조군을 형성한다면 저조화 규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상에서 'H_1'과 관련된 저조화 규칙을 검토하였다. (19가), (20가)는 위에 제시한 저조화 규칙 ①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규칙을 여러 자료에 적용해 보면서 저조화 규칙 ①의 환경을 보완해 가도록 하자. 편의상 어미의 기저성조를 다시 제시한다(영주/울진).[12]

(19) 막-(防)[13]

가. 망는데이(LHLL), 막뜬동(LHL), 막끄레이(LHLL), 막씨더(LHL), 망니더(LHL), 망니껴(LHL), 막겐니겨(LLHL), 막끼다(LHL).

나. 막께(HL), 막노(HL), 막쩨(HL), 막꼬(HL), 마가도(HLL), 마갇따(HLL), 마그먼(HLL), 마그이께네(HLLLL), 마그신다(HLLL), 마글라이껴(HLLLL)

(20) 말(馬)

가. 말한테(LHL), 말꺼짐(LHL), 말메치(LHL), 말메둥(LHL), 말처럼(LHL), 말버터(LHL), 말메로(LH·LL)/말마이로(LHLL), 말보담도(LLH·LL), 마라고/마라가(LHL)

나. 말또(HL), 마런(HL)/마러너(HLL), 마럴/마로(HL), 마리(HL), 마리사(HLL), 마레(HL)

(21) 가. -는데이(HLL), -든동(HL), -그레이(HLL), -시더(HL), -니더(HL), -니껴(HL), -겐니껴 (LHL), -기다(HL) --- (H=H_1)

나. -게(H), -노(H), -제(H), -고(H), -아도(HH)[14], -앋따(HH), -으먼(HH), -으이(HH),

---

11)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저조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저조화 규칙 ①이 적용된 후 다시 율동규칙이 적용되어 끝에서 두 번째 음절(penultimate position)에 고조가 놓이게 된다.

12) 어미에도 기저성조를 부여함에 따라 그간의 연구에서 제기된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 앞에서의 'H→L' 또는 'L→H' 규칙은 적어도 세 지역어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하위 방언도 역시 어미의 기저성조를 설정할 수 있을 듯하며 그 활용형의 패턴이 삼척지역어처럼(김봉국 1998:23) 수의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영주지역어처럼 정연한 교체를 보이는가에 따라 성조방언의 생명력도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13) 편의상 울진지역어의 'ㅋ'는 영주지역어에 맞추어 전사한다. 이하 같은 관점을 유지한다.

14) 세 지역어에서 일부 단음절 부사 '좀', '더' 등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morph)의 성조는 'L'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 그래서 '-아도'의 성조를 'LL'로 보지 않고 'HH'로 설정한 것이며 '-고'의 성조도 'L'로 보지

-으신다(HHL), -을라이꺼(HHLL) --- ($H=H_2$)

(22) 가. -인데(HL), -한테(HL), -꺼짐(HL), -메치(HL), -메둥(HL), -처럼(HL), -버터(HL), -메로(H·LL)/-마이로(HLL), -보담도(LH·LL), -하고/하가(HL) --- ($H=H_1$)

나. -도(H), -언(H), -얼(H), -이(H), -이사(HH), -에(H) --- ($H=H_2$)

어간 '막-'(H_1)과 각각의 어미를 통합시켜 보면 (19)에 제시된 활용형 전체의 성조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막-'과 어미 '-니껴'는 'H_1+H_1L'의 성조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표면형은 '망니껴(LHL)'로 나타난다. '막-'과 곡용 어미 '-든동'이 통합할 때('H_1+H_1L') 그 표면형은 '막뜬동(LHL)'으로 나타난다. 여기는 모두 저조화 규칙 ①이 적용된 것이다. 즉 'H_1'과 'H_1'의 통합은 성조배열제약에 의해 필연적으로 변동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에 앞의 'H_1'이 'L'로 교체되는 것이다.

(20가)의 어간 '말(馬)' 또한 'L'과 'H'로 교체되어 나타나므로 그 기저성조를 'H_1'으로 제시한 바 있다(3.1.1절 참조). 어간 말(H_1)과 각각의 어미를 통합시켜 보면 (20)에 제시된 곡용형 전체의 성조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말'과 어미 '-인데'의 기저성조는 각각 'H_1'과 'H_1L'이다. 따라서 표면형 '마린데'의 성조는 'LHL'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과 어미 '-보담도'가 통합할 때 (H_1+LH·LL), 그 표면형은 '말보담도(LLH·LL)'로 나타난다.[15] 여기는 모두 저조화 규칙 ①이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16)의 우변에 제시된 규칙 적용 환경에 H 대신 H·L이 놓이더라도 'H_1'은 저조로 변동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7)에서 확인한 '그#데지→그데지(LH·LL)'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20나)의 '말보담도(LLH·LL)'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데지(LH·LL)'는 'H_1'인 '그'와 'H·LL'인 '데지'가 결합된 것이며, '말보담도(LLH·LL)'는 '말(H_1)'과 '-보담도(LH·LL)'가 결합된 것이다. 두 자료 모두 후행성분에 H·L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성분의 'H_1'과 후행성분의 'H_1' 또는 'H·L'의 결합에 관계된 도출은 저조화 규칙 ①을 보완한 것인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23) $L_0H \rightarrow L_0L / L_0 \left[\begin{matrix} H{\cdot}L \\ H \end{matrix} \right] L_0$_ (여기에서의 고조는 '$H_1$')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면 선행성분의 'H_1'은 'L'로 교체된다.)

한편, (19나)에 제시된 '막-'과 어미 '-게, -아도'의 통합은 각각 'H_1+H_2, H_1+HH'이므로 각각

않고 'H_2'로 설정한 것이다.('3.1.2'절 참조)

15) '마란테~마린데'와 '말보담도'의 표면 성조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자(마린데)는 'H_1'과 'H_1'이 직접 통합한 것임에 반해 후자(말보담도)는 'H_1'과 'H_1' 사이에 'L'이 개재되어 있다. 후행성분에 'L'이 'H_1' 앞에 놓이는 것은 성조변동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그 표면형은 'HL', 'HLL'로 나타난다. 후행성분에 'H_1'이 존재한다면, 저조화 규칙 ①에 의해 선행성분의 'H_1'이 'L'로 교체된다. 그러나 (19나)의 후행성분에는 'H_1'이 없기 때문에 저조화 규칙 ①은 적용되지 않는다. (20나) 또한 후행성분에는 'H_1'이 없기 때문에 저조화 규칙 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나)에 제시된 '말(馬)'과 어미 '-도', '말(馬)'과 어미 '-이사'의 결합은 각각 'H_1+H_2, H_1+HH'이므로 그 표면형 각각은 'HL' 또는 'HLL'로 나타난다. 선행성분에 'H_1'이, 후행성분에 'H_2'가 확인되는 또 다른 예, '빠줗(LH_1)-'과 '-고서도(H_2H_2L)'의 결합인 '빠주코서도(LH_1LLL)'에서도 'H_2'는 모두 저조로 변동된다. '빠주코서도'가 특이한 것은 바로 '막-', '말'에서와 달리 'H_1' 앞에 저조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붕(LH)+이사(H_2H_2)→지부이사(LHLL)'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저조화 규칙 ②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24) 저조화 규칙 ②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여기서 후행성분에 H나 H·L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단 이유는 후행성분에 H나 H·L이 존재하면 저조화 규칙 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행성분이 복합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자. 사실 후행성분에 'H'나 'H·L'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H_2' 혹은 'L·H' 두 경우뿐인데 위에서 'H_2'의 예들은 확인한 바 있으므로 후행성분에 'L·H'가 놓이는 경우만을 검토해 보자.

(25) 영주/울진

가. 안(H_1)#뺀노(L·HH/L·HL, 奪)→안뺀노(H_1LL)

안(H_1)#따둥꼬(LL·HH/LL·HL, 磨)→안따둥꼬(H_1LLL)

나. 마신는(LLH_1, 甘)#감(L·H, 柿)→마신는감(LLHL)

(25가)는 부정부사 '안'이 통합된 경우인데 후행성분에는 '뺀노(L·HH/L·HL)', '따둥꼬(LL·HH/LL·HL)'와 같이 첫 음절 또는 둘째 음절에 저고복합조가 놓여 있다. (25나)는 관형구성으로서 후행성분에 저고복합조 '감(L·H)'이 확인된다. 이들 예의 후행성분의 'L·H'는 표면형에서 모두 저조로 교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저조화 규칙 ②는 더 이상의 수정이 필요 없음을 알 수 있다.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는 경우에 한해 저조화 규칙 ①, 저조화 규칙 ②를 검토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선행성분의 말음절이 'H_1'이 아닌 경우에 한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L·H, H·L, H_2, L로 끝나는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선행성분이 'H_2', 혹은 'L·H'로 끝나면 후행성분의 첫 성조는 고조로 교체됨을 고조화 규칙에서 확인하였다. 앞서 제시된 자료 일부를 가져와서 (26)에 제시해 보자.

(26) 가. 뽑(H_2)+든동(H_1L)→뽑뜬동(選, HHL)
　　나. 굴(L·H)+보담도(LL·HL)→굴보담도(L·HHLL)

(26)에 제시된 어간 '뽑-', '굴'의 기저성조는 각각 'H_2', 'L·H'이다. 어간의 성조가 'H_2', 또는 'L·H'로 끝나기 때문에 어미 첫 음절의 성조 'H_1'이 'H_2'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에 제시된 다음절 어간에서도 마찬가지 교체가 확인된다. 어미 '-든동'의 첫음절 성조 'H_1'은 표면형에서 'H_2'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울진지역어의 경우는 (27나)의 경우, '떠도든동'이 LL·HLL으로 실현된다. 저고복합조 다음에 모든 성조는 저조로 교체되는 규칙 때문이다. (27), (28)은 세 지역어에서 모두 확인된다. 물론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28나)에 율동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표면성조가 도출된다.

(27) 가. 노랗(LH_2)+든동(H_1L)→노라튼동(黃, LHHL)
　　　시커멓(LLH_2)+든동(H_1L)→시커머튼동(黑, LLHHL)
　　나. 떠돌(LL·H)+든동(H_1L)→떠도든동(彷徨 LL·HHL)

다음으로는 선행성분이 H·L로 끝나는 경우를 검토하기로 하자.

(28) 가. 쌀(H·L, 切)+드라도(HLL)→쌀드라도(H·LLLL)
　　　쌀(H·L, 切)+고도(H_2H_2)→쌀고도(H·LLLL)
　　　싼(H·L, 切)#감(L·H)→싼감(H·LL)
　　나. 바꾸(LH·L, 換)+드라도(HLL)→바꾸드라도(LH·LLLL)
　　　바꾸(LH·L, 換)+고도(H_2H_2)→바꾸고도(LH·LLL)
　　　바꾼(LH·L, 換)#감(L·H, 柿)→바꾼감(LH·LL)
　　　바까(LH·L, 換)#나도(H·LL, 置)→바까나도(LH·LLL, 바꾸어#놓아도)

(가)는 단음절 어간, (나)는 2음절어간의 경우로서, 두 경우 모두 선행성분이 H·L로 끝난다. 두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저조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29) 저조화 규칙 ③(종합화 이전): 선행성분이 H·L로 끝나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변동된다.

다음으로는 선행성분이 L로 끝나는 경우를 확인해 보자. 사실 세 지역어 모두에서 선행성분이 'L'인 단음절 곡용 어간, 활용 어간은 확인되지 않는다.[16] 그러므로 선행성분의 성조가

16) 다만 용언과 통합할 때 항상 L로 실현되는 부사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경지역어의 부정부사 '안'이다. 이 경우는 당연히 기저성조를 저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부사 '잘', '더' 등의 경우가 특이하다. 용언과 통합할 때에는 항상 저조로 실현되는데 일부 곡용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고조(H_1)로 실현된다(cf. 잘'

이상의 경우처럼 'L·H', 'H_2' 'H·L'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성분이 L이나 'H_2H_2', 'L·HH'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먼저 선행성분이 'L'로 끝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영주/울진).

(30) 가. 마세/마시든동(HLLL), 마세/마시그레이(HLLLL), 마세/마시시더(HLLL),
마세/마시니더(HLLL), 마세/마시기다(HLLL), 마세/마시니껴(HLLL)
나. 마세/마시게(HLL), 마세/마시지(HLL), 마세/마시노(HLL), 마세/마시제(HLL),
마세/마시고(HLL), 마세서/마세사(HLL), 마세따(HLL), 마세/마시면(HLL),
마세/마시이(HLL), 마셀/마실라이껴(HLLLL)

(31) 메미(H·LL)#자부로(HLL, 捕)→메미자부로(H·LLLLL)
추저운(HLL, 汚)#데지(H·LL, 豚)→추저운데지(HLLLL)
지네는(HHL, 過)#사람사람(L·HH/L·HL, 人)→지네는사람(HHLLL)
바레는(LH·LL, 希)#사람(L·HH/L·HL, 人)→바레는사람(LH·LLLL)[17]
무거운(LHL, 重)#데지(H·LL, 豚)→무거운데지(LHLLL)

(30)은 활용에서의 변동, (31)은 단어경계에서의 변동이다. (30가)에 제시된 어미의 기저성조는 'H_1L' 또는 'H_1LL'인데 위 활용형에서는 어미의 첫 음절의 성조가 모두 'L'로 교체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표면형이 달리 나타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0나)에 제시된 어미의 기저성조는 '$H_2(H_2)$---'인데 위 활용형에서는 어미의 첫 음절의 성조가 모두 'L'로 교체되어 있다. (31)에 제시된 예에서는 선행성분이 'L'로 끝나지만 그 성조는 다양하게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후행성분의 첫 음절 성조는 L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는 선행성분이 'H_2H_2' 또는 'L·HH'로 끝나는 경우이다. (32가)는 선행성분이 'H_2H_2'이며, (32나)는 'L·HH/L·HL'인 경우이다(영주·문경/울진).

(32) 가. 살찐(HH, 肥)#사람(L·HH/L·HL, 人)→살찐사람(HHLL)
살찐(HH, 肥)#데지(H·LL, 豚)→살찐데지(HHLL)

또, 자'른, 더'도, 더'는). 이는 세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잘(L, 善)#우ˇ네(泣)→자루ˇ네	잘(L)#띠도(H·L, 躍)→잘띠도(LH·LL)
막(L, 强)#우ˇ네(泣)→마구ˇ네	막(L)#띠도(H·L, 躍)→막띠도(LH·LL)
더(L, 少)#우ˇ네(泣)→더우ˇ네	더(L)#띠도(H·L, 躍)→더띠도(LH·LL)
잘(L, 善)#간다(HH, 行)→잘간다(LHH)	잘(L)#우러(HL)→자루러(LHL)
막(L, 强)#간다(HH, 行)→막깐다(LHH)	막(L)#우러(HL)→마구러(LHL)
더(L, 少)#간다(HH, 行)→더간다(LHH)	더(L)#우러(HL)→더우러(LHL)

위에 제시된 모든 예에서 후행성분의 성조는 그대로 표면성조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후행성분의 성조는 단음절 부사와 통합하더라도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2음절 부사어는 'LL'을 기저성조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7) 문경지역어의 경우 이하 두 자료에 율동규칙이 적용된다.

나. 조운(L·HH/L·HL, 好)#데지→조운데지(L·HHLL/L·HLLL)
조운#사람→조운사람(L·HHLL/L·HLLL)

cf.[18] 큰(H_2, 大)#데지(H·LL)→큰데지(HHL)
운(L·H, 泣)#데지(H·LL)→운데지(L·HHL/L·HLL)
분(L·H, 吹)#사람(L·HH/L·HL, 人)→분사람(L·HHL/L·HLL)
그(H_1, 其)#데지(H·LL)→그데지(LH·LL)
마른(LH_1, 其)#데지(H·LL)→마른데지(LLH·LL)

(32가), (32나)의 모든 예들에서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33) 저조화 규칙 ③(종합화 이전): 선행성분의 성조가 'L' 또는 'HH', 'L·HH'로 끝나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우리는 (29)의 H·L로 끝나는 경우와 (33)을 통합적으로 (34)와 같이 저조화 규칙 ③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29)와 (33)에서의 후행성분의 성조가 모두 L로 교체된다는 점이 바로 일반화의 기반이다.

(33) 저조화 규칙 ③
선행성분의 성조가 'H·L', 'L' 또는 'HH', 'L·HH'로 끝나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북부지역어 성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한 성조군에는 'H_1'(또는 H·L)이 하나만 놓인다는 것과, H_2가 둘 연속 놓인다는 것(또는 L·H 뒤에는 H가 놓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4) 형태소 경계이든 단어 경계이든 고조화, 저조화 규칙에 결과한 'H_1(또는 H·L)' 또는 'HH(또는 L·HH)'의 위치가 결정되면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모두 저조로 교체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 확인된다. 앞서 제시된 자료 몇몇을 다시 가져와서 그 변동을 검토하도록 하자.

(35) 가. 물(H_2, 水)+보담도(LH·LL)→물보담도(HHLL)
나. 뜨심물(LHL, 溫水)+메로(H·LL)→뜨심물메로(LHLLL)
다. 진(L·H, 主)+보담도(LH·LL)→진보담도(L·HHLL/L·HLLL)
라. 아(H·L, 兒)+보담도(LH·LL)→아보담도(H·LLLL)
마. 먹(H_1, 食)+고서(H_2H_2L)→먹꼬서(HLLL)

18) '큰데지', '운데지'는 고조화의 예지만 고저복합조 전체의 교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사람' 또한 고조화의 예이지만 저고복합조 전체의 교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그데지', '마른데지'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선행성분의 'H_1'이 저조화된 예이다.

바. 먹(H_1, 食)+슴미다(LHL)→먹씀미다(LLHL)

(34)를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35가)의 '물(H_2)+보담도(LH·LL)→물보담도(HHLL)'와 (35나)의 '뜨심물(HL)+메로(H·LL)→뜨심물메로(HLLL)'일 것이다. 고조화 규칙에 의해 전자의 후행성분 'LH·LL(-보담도)'의 첫 음절 성조는 H로 교체되는데, 이 때 HH의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모두 'L'로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저조화 규칙에 의해 전자의 후행성분 'H·LL(-메로)'의 첫 음절 성조는 L로 교체되고, 선행성분의 성조는 교체되지 않고 첫 음절 'H_1'이 그대로 실현된다. 이 때 'H_1'의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모두 'L'로 실현된다. (35다)의 '진보담도'의 경우, 'L·H' 뒤에서의 고조화 규칙으로 인해 둘째 음절까지의 성조가 'L·HH/L·HL'로 결정되므로 어미 '-보담도'의 둘째 음절 복합조는 저조로 교체되며. (36라)의 '아보담도'의 경우 또한 'H·L' 뒤에서의 저조화 규칙으로 인해 둘째 음절까지의 성조가 'H·LL'로 결정되므로 어미 '-보담도'의 둘째 음절 복합조는 L로 교체된다. (35마)에 제시된 '먹꼬서'의 경우는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더라도 후행성분에 'H_1'이 없으므로 선행성분의 'H_1'은 그대로 실현된다. 첫 음절의 성조가 'H_1'으로 결정되므로 뒤따르는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반면 (35바)에는 선행성분이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도 'H_1'이 존재하므로 후행성분의 'H_1'은 그대로 실현된다. 따라서 그 나머지 성조는 당연히 저조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성조변동은 성조배열제약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편의상 따로 저조화 규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조변동규칙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적용 영역을 단어 경계 이상으로 확대하여 논의해 보자. 먼저, (36), (37)을 통해 부정부사 '안(H_1)'과 용언의 통합(어절경계)에서의 성조변동규칙을 확인해 보자.[19]

(36) 영주/울진

가. 막-(防)

망는데이(LHLL), 막뜬동(LHL), 망니더(LHL), 막끼다(LHL), 망노(HL), 막꼬(HL), 마가도(HLL), 마간따(HLL), 마그먼(HLL), 마그이께네(HLLLL), 마그신다(HLLL), 마글라이껴(HLLLL)

나. 싸-(包)

싼데이(HHL), 싸든동(HHL), 싸니더(HHL), 싸기다(HHL), 싸노(HH), 싸고(HH), 싸도(HH), 쌌따(HH), 싸먼(HH), 싸이께네(HHLL), 싸신다(HHL), 쌀라이껴(HHLL)

다. 뺏-(奪)

뺀는데이(L·HHLL/L·HLLL[20]), 뺃뜬동(L·HHL), 뺀니더(L·HHL), 뺏끼다(L·HHL), 뺀노(L·HH), 뺏꼬(L·HH), 빼사도(HLL), 빼삳따(HLL), 빼스먼(HLL), 빼스이께네(HLLLL), 빼스신다(HLLL), 빼슬라이껴(HLLLL)

라. 쌀-(切)

싼데이(H·LLL), 싸든동(H·LLL), 싸니더(H·LLL), 싸기다(H·LLL), 싸노(H·LL), 싸고(H·LL), 싸라도(H·LL), 싸랃따(H·LL), 싸먼(H·LL), 싸이께네(H·LLLL), 싸신다(H·LLL),

19) (28)~(42)에 제시된 자료는 임석규(1999:109-116)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충하여 제시했음을 밝힌다. 물론 그 자료들은 세 지역어에서 공히 확인된다.

20) 울진지역어 자료는 (28다)의 표면성조가 L·HHL_0가 아니라 L·HLL_0이다. 이하 성조 표시를 생략한다.

쌀라이껴(H·LLLL)

(37) 영주/울진

가. 암망는데이(LLHLL), 암막뜬동(LLHL), 암망니더(LLHL), 암막끼다(LLHL), 암망노(LHL), 암막꼬(LHL), 암마가도(LHLL), 암마간따(LHLL), 암마그먼(LHLL), 암마그이께네(LHLLLL), 암마그신다(LHLLL), 암마글라이껴(LHLLLL)

나. 안싼데이(HLLL), 안싸든동(HLLL), 안싸니더(HLLL), 안싸기다(HLLL), 안싸노(HLL), 안싸고(HLL), 안싸도(HLL), 안싼따(HLL), 안싸먼(HLL), 안싸이께네(HLLLL), 안싸신다(HLLL), 안쌀라이껴(HLLLL)

다. 암뺀는데이(HLLLL), 암뺄뜬동(HLLL), 암뺀니더(HLLL), 암빽끼다(HLLL), 암뺀노(HLL), 암빽꼬(HLL), 암빼사도(LHLL), 암빼삳따(LHLL), 암빼스먼(LHLL), 암빼스이께네(LHLLLL), 암빼스신다(LHLLL), 암빼슬라이껴(LHLLLL)

라. 안싼데이(LH·LLL), 안싸든동(LH·LLL), 안싸니더(LH·LLL), 안싸기다(LH·LLL), 안싸노(LH·LL), 안싸고(LH·LL), 안싸라도(LH·LL), 안싸랃따(LH·LL), 안싸먼(LH·LL), 안싸이께네(LH·LLLL), 안싸신다(LH·LLL), 안쌀라이껴(LH·LLLL)

(36)의 자료에 부정부사 '안'을 통합시키면 (37)와 같이 실현된다. 부정부사 '안'의 성조는 'H'로도 나타나고 'L'로도 나타난다. 곡용 어간 '말(馬)'의 성조를 결정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즉, '안'의 성조가 'H'와 'L'로 교체를 보이기 때문에 그 기저성조는 'H_1'으로 설정해야 한다. (36가)와 (36라)에서처럼 후행성분인 동사의 활용형에 고조나 고저복합조가 있으면 '안'의 성조는 (37)에서처럼 저조로 교체된다. 이는 저조화 규칙 ①로 설명된다. '안(H_1)+막는데이(LHLL)→암망는데이(LLHLL)', '안(H_1)+빼스먼(HLL)→안빼스먼(LHLL)', '안(H_1)+싼데이(H·LLL)→안싼데이(LH·LLL)'의 과정은 'H_1'끼리의 통합, 또는 'H_1'과 고저복합조(H·L)의 통합이므로 즉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므로 선행성분의 'H_1'이 'L'로 교체된 것이다. 반면, '안'에 후행하는 성분에 'H_2'와 저고복합조가 있으면 이는 모두 저조로 교체된다. 이는 저조화 규칙 ②로 설명되는데.[21] '안(H_1)+싼데이(HHL)→안싼데이(HLLL)', '안(H_1)+뺀는데이(L·HHLL)→암뺀는데이(HLLLL)'의 과정은 후행성분에 'H_1'이 없으므로 앞 성분의 고조 '안(H_1)'이 제 성조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후행성분의 'H_2'나 저고복합조는 저조로 변동되는 것이다.

부정부사 '안'의 성조변동은 영주/울진지역어에서는 (37)에서와 같이 실현되나 문경지역어에서는 '안'의 기저성조가 무조건 저조로 실현되기 때문에 '안' 통합형의 성조는 문경지역어의 특유한 율동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37)에 제시된 모든 예는 '암마그신다(LLLHL), 암빼사따(LLHL) 등에서처럼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인다. 다만 울진지역어의 '안' 통합형의 성조는 영주지역어에 비해 그다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안'이 고조로 실현될 때 저조

21) 이에 대한 이문규(1997:51-57)의 견해는 필자와는 다소 다른데 그것은 결국 울진지역어의 저고복합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이이다. 이문규(1997)에서는 고장조를 설정하고 있다. 필자는 저고복합조 또는 H_2 앞의 부정부사 '안'이 고조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2장 '성조소체계'를 참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용언'의 성조 실현에 대해서는 大江孝男(1978:105~111), 이문규(1997:38~63), 임석규(1999:112~114), 김주원(2000:108~109)을 참고할 수 있다.

로 실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는 다른 지역어, 특히 울진 이남 지역의 말이 간섭된 결과인 듯하다.

(38), (39)에 제시된 예 또한 합성어가 아니라 구에서의 성조 교체를 보여준다.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저조로 시작하는 (38)의 '산녹꼬'와 (39)의 예들에 율동규칙이 관여하여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게 된다.

(38) 영주·문경/울진
가. 산녹꼬(LHL, 산이 높고 ← H_1+HL)
cf. 물말근(HHL, 물이 맑은 ← H_2+HL),
나. 상곡꼬(HLL, 산이 곱고 ← H_1+L·HH//L·HL),
할싸고/쑤고(HLL, 활을 쏘고 ← H_1+HH)

(39) 영주/울진·문경(문경은 표면형에 율동규칙 적용)
가. 노푼산(LLH_1, 높은 산 ← LH_1+H_1),
노푼뚠덕(LLLH_1, 높은 언덕 ← LH_1+LH_1),
노푼이자(LLHL, 높은 의자 ← LH_1+HL)
인는집(LLH_1, 있는 집 ← LH_1+H_1)
노푼집(LLH_1, 높은 집 ← LH_1+H_1)
나. 노푼벡/노푼빅(LHL, 높은 벽←LH_1+H_2)
인는눔(LH_1L, 있는 놈 ←LH_1+H_2)
노푼눔(LH_1L, 높은 놈 ← LH_1+H_2)

(38가), (39가)를 통해 선행성분이 저조로 교체되는 저조화 규칙 ①을, (38나), (39나)를 통해 선행성분의 'H_1' 뒤에서 후행성분이 저조로 교체되는 저조화 규칙 ②를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지시관형사, 대명사가 성조군을[22] 이루는 경우에도 성조변동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40)~(42)는 세 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 자료이다. 이하에서는 성조변동규칙을 통해서 기저성조도 알아보는 방식을 병행하고자 한다.

(40) 이보담도(LLH·LL) 그보담도(LLH·LL) 저보담도(LLH·LL)
이도(HL) 그도(HL) 저도(HL)
cf. 고보담도(LLH·LL) 요보담도(LLH·LL)

(41) 이거는(LHL), 그거는(LHL), 저거는(LHL), 고거는(LHL), 요거는(LHL)[23]
이거메치(LLHL), 그거메치(LLHL), 저거메치(LLHL), 고거메치(LLHL), 요거메치(LLHL)

(42) 이무런(水, HHL) 이지번(家, HHL) 이사라먼(人, HHLL)
그무런(LHL) 그지번(HLL) 그사라먼(LH·LLL)

---

22) '형(兄)'이 접사로 쓰인 경우[학'쑤'형도(HHLL)]와 '형'이 명사로 쓰인 경우[학'쑤'#형'도(HH#H_1L)] 또한 성조군의 수가 다르다.

23) 울진지역어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거, 저거, 그거 등이 LH로 나타나기도 하고 HL로 나타나기도 한다.

저무런(HHL)	저지번(HHL)	저사라먼(HHLL)
고무런(LHL)	고지번(HLL)	고사라먼(LH·LLL)
요무런(HHL)	요지번(HHL)	요사라먼(HHLL)

(40)은 '이, 그, 저'가 대명사로 쓰인 경우이다. 해당 대명사가 각각 두 예에서 'L'과 'H'로 교체되어 나타난다('고', '요'도 이에 준한다). 이에 '말(馬)'의 기저성조 설정 방식을 적용하여 이들 대명사의 기저성조를 'H_1'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이거, 그거, 저거, 고거, 요거'의 기저성조는 모두 'LH_1'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명사 '이거, 그거, 저거, 고거, 요거'의 표면 성조는 어미에 따라 'LH'와 'LL'로 교체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형사로 쓰일 때의 성조는 대명사로 쓰일 때의 성조와 다르다. '그'와 '고'는 'L'과 'H'로 교체되어 나타나므로 그 기저성조를 'H_1'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반면 '이'와 '저', '요'는 'H'로만 나타나고 또 후행 음절의 성조를 'H_2'로 교체시키므로(고조화 규칙 ①), '이, 저, 요'의 기저성조를 'H_2'로 설정할 수 있다. 또, 형용사 '이렇(HH)-, 저렇(HH)-, 요렇(HH)-, 그렇(HL)-, 고렇(HL)-',[24] 동사 '이레(HH)-, 저레(HH)-, 요레(HH)-, 그레(HL)-, 고레(HL)-'[25] 등의 기저성조도 지시관형사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성조율동규칙에 의해 (43)에 제시된 자료 중, 저조로 시작하는 성조군의 표면 성조가 재조정을 받게 된다. 즉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또는 고저복합조)가 놓이게 된다. '이거메치', '저사라먼' 등은 표면성조가 LLHL로 나타나며, '그보담도', '이보담도'는 LLH·LL과 같이 끝에서 둘째 음절 위치에 고저복합조가 놓이게 된다.

다음을 통해 합성어에서도 성조변동규칙(저조화·고조화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울진지역어나 문경지역어에서도 다르지 않다. (41), (42)에서와 마찬가지로 문경지역어의 성조율동규칙에 의해 (43)에 제시된 표면 성조는 재조정을 받게 된다. 즉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게 된다.

(43)※ 유리(LH_1)+창(H_1) - 유리창(LLH_1)　　사랑(LH_1)+방(H_1) - 사랑방(LLH_1)
상가(LH_1)+집(H_1) - 상가찝(LLH_1)　　디안(LH_1)+문(H_1) - 디안문(LLH_1)
소굼(LH_1)+집(H_1) - 소굼찝(LLH_1)　　중간(LH_1)+문(H_1) - 중간문(LLH_1)
중간(LH_1)+방(H_1) - 중간빵(LLH_1)　　중간(LH_1)+집(H_1) - 중간찝(LLH_1)
강낭(LH_1)+콩(H_1) - 강낭콩(LLH_1)　　버리(LH_1)+밭(H_1) - 버리밭(LLH_1)
장미(LH_1)+꽃(H_1) - 장미꽃(LLH_1)　　우리(LH_1)+집(H_1) - 우리집(LLH_1)
우유(LH_1)+뻥(H_1) - 우유뻥(LLH_1)

(44)※ 꼬무(LH_1)+신(H_2) - 꼬무신(LHL)　　버리(LH_1)+밥(H_2) - 버리밥(LHL)
마당(LH_1)+비(H_2) - 마당비(LHL)　　소굼(LH_1)+물(H_2) - 소굼물(LHL)

---

24) 편의상 복합기저형 모두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25) '이'레'고', '저'레'고' 등을 통해 볼 때 기저형 '이'레'-', '저'레'-'는 모음어미와의 통합형을 기준형으로 하여 재구조화된 것이다. 물론 '이'러'-', '저'러'-', '요'러'', '그'러'', '고'러'' 패러다임도 확인된다.

중간(LH_1)+질(H_2) - 중간찔(LHL)

(45)※ 서구(HH)+집(H_1) - 서구집(HHL)　　양념(HH)+고기(HL) - 양념고기(HHLL)
글(H_2)+방(H_1)[26] - 글방(HH)

(46)※ 서구(HH)+통(H_2) - 서구통(HHL)　　양념(HH)+간장(HH) - 양념간장(HHLL)
글(H_2)+눈(H_2) - 글눈(HH)

(43)은 '바꿓(H_1)+는(H_1)→바꾼는(LH_1)'과 같은 유형이며, (44)는 '바꿓(LH_1)+고(H_2)→바꾸코(LH_1L)'와 같은 유형이다. (45), (46)은 '지네(HH)+는(H_1)→지네는(HHL)'과 같이 어간의 기저성조가 HH이거나, '뽑+는→뽑는'과 같이 어간의 기저성조가 'H_2'인 경우에서의 성조변동이다. (43)은 HH 뒤에서 모든 성조가 L로 교체되는 저조화 규칙 ③이, (44)는 고조화 규칙이 적용된 예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형태소 경계에서뿐만 아니라 합성어에서도 성조변동규칙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즉 (43), (44)를 통해서 'H_1'과 'H_1'의 통합이 'LH'로 나타난다는 것을[27](저조화 규칙 ①), 'H_1'과 'H_2'의 통합이 'HL'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저조화 규칙 ②). 이는 모두 '성조배열제약 ㉮'와 관련된 것이다. 또 (45), (46)에 제시된 예를 통해 'H_2'가 연속으로 셋이 나타날 수 없다는 '성조배열제약 ㉯'와 관련된 성조변동규칙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파생어를 통해서도 성조변동규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형용사파생접미사 '-답-(H_1)/-다우-(HL)'가 2음절 어근과 결합한 용언의 표면 성조는 몇 가지로 나뉜다. 'LH_1' 성조를 지닌 곡용

---

26) 그러나 합성어의 제1성분이 'H_2' 단음절인 경우는 이러한 규칙의 예외가 더러 보인다.
가. 안(H_2)+방(H_1) - 암빵(HH, 안방)
나. 손(H_2)+발(H_2) - 손발(HH, 手足)
다. 밥(H_2)+통(H_2) - 밥통(HL, 밥통)
라. 밥(H_2)+상(H_1) - 밥쌍(LH_1, 밥상)

필자는 가,나)와 같은 예를 규칙으로 설정하고 다,라)와 같은 예를 예외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필자와는 달리 이동화(1990:92-93)에서는 라)와 같은 예에 중점을 두어 이를 규칙으로 설정하고 특히 가)류 예를 예외적 존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완벽한 설명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성조변동규칙의 예외가 유독 합성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7) 다음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그러나 예외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갖고 있다.
사가(HL)+나무(LH) - 사가나무(사과나무, $LLLH_1$)
감(L·H)+나무(LH) - 감나무(감나무, LLH_1)　　벅(H·L)+문(H_1) - 벙문(부엌문, LH_1)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HL' 어간 '사가'는 '(L)H'와 결합할 때 'LL'로 바뀌기도 하고 또 복합성조를 가진 어간 '감', '벅'이 'LH'와 결합하면 'L'로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이 지역어에서의 성조는 합성어의 제1성분보다는 제2성분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어형은 항상 합성어의 제1성분을 이룰 때 제2성분에 'H_1'이 있으면 제 성조를 유지하지 못한 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가(사과)'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 예로 '사가밭(LLH_1), 사가농사(LLHL), 사가상자(LLHL)'를 들 수 있는데, '사가농사, 사가상자'는 'HLLL'로도 나타난다. 이는 화자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어형의 성조에 유추되느냐 아니면 변동규칙을 지켜내느냐의 차이인 듯하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소수에 해당하며 그 나름대로의 규칙을 보이므로 소수 규칙(Minor rules)으로 처리할 만하다.

어간만이 '답(H_1)-'과의 통합에서 성조 교체를 보인다. 'LH_1'을 기저 어간으로 하는 어근이 성조변동을 겪어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저조화 규칙 ①로 설명할 수 있다.

(47) ※ 문경·영주/울진

학쌩(HH)+답(H_1)-	---	학쌩답꼬(HHLL, 學生)
농촌(HL)+답(H_1)-	---	농촌답꼬(HLLL, 農村)
어런(L·HH)+답(H_1)-	---	어런답꼬(L·HHLL/L·HLLL, 丈)
아제(LH_1)+답(H_1)-	---	아제답꼬(LLHL, 친척 아저씨)

2음절 어근과 '-다우-'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표면 성조는 (47)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만 존재하고 'LHLL'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음절 어근과 '-다우-'가 결합할 때에도 'LLHLL'의 성조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조화 규칙 ①'이 관여하여 셋째 음절의 'H'를 'L'로 교체시키기 때문인바 'LLHLL' 성조가 기대되는 예는 모두 'LLLHL' 성조로 실현된다.

(48)※ 문경·영주/울진

아지메(H_1LL)+답(H_1)-	---	아지메답따(HLLLL, 아주머니)
무지게(HHL)+답(H_1)-	---	무지게답따(HHLLL, 무지개)
선셍님(LH_1L)+답(H_1)-	---	선셍님답따(LHLLL, 선생님)
경상도(L·HHL)+답(H_1)-	---	경상도답따(L·HHLLL/L·HLLLL, 경상도)
산나물(LLH_1)+답(H_1)-	---	산나물답따(LLLHL, 산나물)

이 밖에도 '-시룹-(-LH_1-)', '-롭-(-H_1-)', '-하-(-H_1-)'에 통합하는 어근이 2음절이라면[28] 'LH_1'의 성조를 지닌 어근은 전술한 접사 앞에서 'LL'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49)※ 문경·영주/울진

쳉피(LH_1)+시룹(LH/HL)	----	쳉피시룹따(LLLHL/LLHLL, 猖披)
펭하(LH_1, 平和)+롭(H)-	---	펭하롭따(LLHL, 平和)
가난(LH_1)+하(H_1)-	---	가난하다(LLHL, 艱難)

울진지역어의 경우에는 '-시룹따'의 성조가 HLL이므로 '쳉피시룹따'는 LLHLL로 나타난다.

이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어(또는 파생어)의 선행성분 말음절 'H_1'이 후행성분의 'H_1'과 만나게 되면 예외 없이 'L'로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행성분에 존재하는 'H_1'이 놓이는 음절 위치와 관계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자어에서도 성조변동규칙을 적용하여 개별 한자음의 기저성조를 파악할 수 있다.[29]

---

28) 'H_1'을 기저형으로 하는 단음절 어간도 '-답-, -시룹-, -롭-, -하-' 접사 앞에서 모두 'L'로 교체되어 나타난다.(정답따/꼳땁따(LHL)

29) 하나의 한자가 여러 성조—단일기저성조가 아니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예: 觀光(L·HH), 觀覽(LH), 觀客(HL), 觀相(HH)]. 성조변동규칙의 일면을 소개하기 위해 논의에 포함시킨다.

(50)※ 세 지역어 동일

가. 金氏, 南氏, 林氏(이상 HL), 石氏, 朴氏(HH), 金哥, 南哥, 林哥(이상 LH), 石哥, 朴哥(HH)

H_1 --- 金, 南, 林, 哥　　　H_2 --- 朴, 氏

나. 文字(HL), 字典(이상 HH)

H_1 --- 文　　　H_2 --- 字

다. 國家, 國歌, 國民, 國文(이상 모두 HH)

H_2 ---國

'金氏'의 성조가 'HL'로 나타나면 'H_1'과 'H_2'의 통합임을 알 수 있다. 'H_1'과 'H_2'의 통합이 'HL'로 도출되는 것은 '저조화 규칙 ②'와 관련된다. 통합이 'H_1+H_1'이라면 '저조화 규칙 ①'이 적용되어 '金哥'에서처럼 'LH_1'으로 그 성조가 나타날 것이며, 'HH'로 표면 성조가 나타나면 첫 성분이 'H_2'라는 것을 '고조화 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朴哥', '石哥'의 표면성조 HH를 통해 '朴'과 '石'의 기저성조가 'H_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文字'의 표면성조 HL을 통해 '文'의 성조는 'H_1'이며 '字'의 성조는 적어도 'H_1'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H_2', 저고복합조, 고저복합조 중 하나일 텐데 '字典'의 표면성조 HH를 통해 본다면 '字'의 기저성조는 당연히 'H_2'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한자음의 기저성조를 판단할 수 있다. '國家', '國民'에서도 표면성조를 통해 '國'의 기저성조를 예측할 수 있다. '國家', '國民'의 표면성조가 HH이므로 '國'의 기저성조는 당연히 'H_2'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저조화 규칙을 모아 (51)에 제시하고, 미루어 두었던 문경지역어의 성조율동규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51) 가. 저조화 규칙 ①: 선행성분 'H_1'의 저조화 ---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면 선행성분의 'H_1'은 'L'로 교체된다.

나. 저조화 규칙 ②: 후행성분의 저조화 --- 선행성분의 성조가 'H_1'으로 끝나고 후행성분에 'H_1' 또는 'H·L'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다. 저조화 규칙 ③: 후행성분의 저조화 --- 선행성분의 성조가 'H·L', 'L' 또는 'HH', 'L·HH'로 끝나면 후행성분의 성조는 모두 L로 교체된다.

cf. 형태소 경계이든 단어 경계이든 고조화, 저조화 규칙에 결과한 'H_1(또는 H·L)' 또는 'HH(또는 L·HH)'의 위치가 결정되면 나머지 음절의 성조는 모두 저조로 교체된다.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

이제 미루어 두었던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30] (43)은 그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30) 이혁화(1994:37-38)를 통해 김천지역어에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주원(2000:108)에는 경북서부 및 경남 서부에서도 이런 현상을 제시하였다. 경남지역은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경북의 '구미', '문경', '상주', '김천'에서는 이런 현상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52) 그소리물라라고그레능가보구'만[31]
그세도모차마'요
터라구라카는사람도이'꼬
cf. 못싸는거업써'[32]요('몯'은 저고복합조),

잘써는사라미라고할떼'는
헹이가튼거여논는거'는
전자가이고인능거지'요
지넬라카'고[33]('지네-'는 HH)

(52)에 제시된 자료는 과연 하나의 성조군일까 의심될 정도로 한 성조군으로서는 매우 길게 나타나는바,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그소리(LHL), 잘써는(LH·LL), 그세(LH·L), 헹이(LH), 터라구(LHL), 전자(LH·L)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L로 시작하는 어형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율동규칙이 적용되어 있다.[34] 다음에서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을 보다 확연히 관찰할 수 있다.

(53) 유리', 유리'라, 유리라'도, 유리라'여, 유리라카'고, 유리라카지'도, 유리라카더라'도

단독형 이외에는 모두 둘째 음절에 저조가 놓여 있다. 저조화 규칙에 활용했던 자료들 중 몇몇에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54) 가. 먹(H_1)+던(H_1)→먹떤(LH_1)
나. 안(H_1)+먹떤(LH_1)→암먹떤(LHL)
다. 자꼬(LH_1)+먹떤(LH_1)→자꼬먹떤(LLHL)
라. 암마가여(LLHL), 암마경께(LLHL), 암마거신다(LLLHL), 암막썸미까(LLLHL)
마. 암뻬사도(LLHL), 암뻬성께(LLHL), 암뻬서신다(LLLHL), 안뻬썸미까(LLLHL)

(54)에 제시된 예들을 통해 끝에서 둘째 음절에만 H가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 영주지역어나 울진지역어에서는 암먹떤(LLH1), 자꼬먹떤(LLLH1), 암마가요(LHLL), 암뻬사도

31) 특이하게 '물라라고(問, 묻느라고)'로 나타난 예이다. '물러라고'는 사실 '물러라고'로 나타나야 할 예이다. 권인한(1987:35-36)에 '달알(月+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발화실수로 언급되어 있다. 필자도 '물라라고'를 발화실수로 인정한다. 고형의 'ᄂᆞ'와 관련 맺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른 발화에서는 이런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제보자가 '잡'아라고', '뿍'안거'와 같은 형태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발화실수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영주·문경지역어의 '뿍+았+는#걸'에 대당한다는 점에서 달리 볼 가능성도 있다.

32) 세 지역어에서는 수의적으로 '업서'로도 실현된다.

33) 율동규칙이 워낙 강력한 것이라서 율동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적용된 것이다. 외지인 특히 음장방언을 사용하는 화자가 문경 성조를 흉내낼 때 이런 유형의 발화가 잘 확인된다.

34) 이러한 규칙은 성조지역어 혹은 그 인접 지역어에서 조금이나마 확인된다. 필자의 경험 또는 그간의 보고에 따르면 단양, 제천, 정선, 평창, 양양, 경북 서부 방언 등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조지역어인 경우에 이러한 율동규칙이 존재하는 쪽은 음장방언에 접해 있는 지역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성조 소멸에 대한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중세 문헌에 반영된 성조가 현대에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듯하다.

35) 문경지역어가 아닌 경우에도, 4음절 어간의 기저성조로 'LHLL' 형은 많지 않은 반면 'LLHL' 형은 그 수가 매우 많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경지역어의 율동규칙과 성조형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LHLL), 안뻬섬미까(HLLLL)[36] 등으로 나타남을 이미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L로 시작하더라도 이러한 율동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LHH-'로 시작하는 경우이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55) 똑가'테'요, 덜와'따'가도, 잘가'는'사람이라도

위에 제시된 예들이 율동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LHH-'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똑가'꼬'(同一), 디라'도'(들어와-), 잘가'도'(善去) 등에서도 'LHH'는 확인된다.[37]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율동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6) 들끼'에도(듣기에도), 시알'리라(세라), 가은장'이라요(가은장이에요), 연풍떼'기지(宅號+이지), 토비라카'지요(퇴비라 하지), 들안'잔는(들어 앉아 있는), 깐중거'리라(정리하다)
cf. 비틀연장하곤'(베틀연장하고는), 나뿌다칼떼^(나쁘다 할 때)

위 예는 발화실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 기저성조와 관련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영주지역어 화자나 울진지역어 화자인 경우 (56)에 제시된 예와 같이 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쁘다칼떼^'의 경우도 이 두 지역어의 화자들은 '잘떼^', '할떼^'처럼 발화하기도 하니[38] 문경지역어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예는 아니다. 다만 '비틀연장하곤''에서는 설명이 꽤 어려워 보인다.[39]

여기에서 우리는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버리'밭', '버리'밥', '마라'톤', '티리'비'를 그대로 기저성조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2음절 단독형 '유리', '마리' 등은 항상 LH로 실현되고 3음절 단독형 '버리'밥', '다리'비', '까마'구' 등은 항상 LHL로 실현된다. 반면 '버리'밭', '마라'톤', '티리'비' 등은 '버리밭'', '마라톤'', '티리비''로도 실현된다. 물론 빈도수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듯하다. 사실은 후자가 기저형이고 전자는 L로 시작하는 어간에 율동규칙이 적용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방언구획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경지역어와 그 동쪽 지역어 간의 방언구획을 논할 때 많은 어형에 기저성조의 차이도 적용하고 율동규칙의 존재 여부 차이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저성조의 차이는 없고 율동규칙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기준이 논자에 따라서는 한 가지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문경지역어의 기저성조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등어선

36) 이는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존재하는 후행성분의 저조화 규칙에 의해 HLLLL로 나타난다.

37) 물론 '디로고', '잘가고' 등에서는 LHL로 나타난다. 후행성분이 바로 후의적성조형이기 때문이다.

38) '떼^'로 나타나는 또다른 경우는 '아직떼^', '저녁떼^' 등이다. '떼+에'의 완전순행동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39) 더러 몇 음절까지 발화한다고 하면서도 음절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영주 화자들이 '헤고(하고)'라고 하는 것과 동궤의 발화실수인 듯하다. 예를 들어 모음어미 통합형으로 발화하려다 갑자기 다른 연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하려 할 때 더러 접할 수 있는 발화실수이다.

의 값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 기준으로 등어선의 값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방언구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필자는 문경지역어의 표면성조를 도출하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제시된 예는 단어경계를 두고 있는 한 성조군이다.

(57) 가. 노푼(LH_1)#산(H_1) → 노푼산(LLH_1)→노푼산(LH_1L)
성조배열제약과 변동규칙 율동규칙 적용
나. 버리(LH_1)#밭(H_1) → 버리밭(LLH_1)→버리밭(LH_1L)
성조배열제약과 변동규칙 율동규칙 적용
다. 버리(LH_1)#밥(H_2) → 버리밥(LH_1L)
성조배열제약과 변동규칙

결국 첫 도출형에서의 성조는 세 지역어에서 존재하는 선행성분 말음절 'H_1'의 저조화 규칙으로 동일하게 설명되며, 그 이후의 과정은 문경지역어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율동규칙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정 어사의 기저성조가 다르다면 문경지역어와 나머지 두 지역어는 기저성조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나, 필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기저성조의 차이는 거의 없되, 율동규칙의 유무로 두 방언권의 표면성조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조변동규칙, 즉 고조화 규칙, 저조화 규칙에 대해 검토해 보았고, 아울러 문경지역어의 성조율동규칙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고조화 규칙은 후행성분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며 저조화 규칙은 선행성분 및 후행성분에서 공히 확인되는 것인바, 선행성분에서의 저조화는 한 가지 경우인데 반해, 후행성분에서의 저조화는 4가지로 세분될 수 있었다. 후행성분에서의 변동이 많다는 것도 이 세 지역어, 나아가 경북 방언 성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문경지역어의 경우는 고조화, 저조화 규칙이 적용되고 난 후에 또다른 성조율동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이성을 강조하였다.

5.2. 탈락

성조의 탈락은 성조가 자음에는 놓이지 않기 때문에 모음탈락의 과정에서 확인된다. 경북북부의 세 지역어에서는 분절음이 탈락하면서 성조도 함께 탈락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장에서 우리는 어간말모음의 탈락을 꽤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어간말모음이 탈락한다는 근거는 4장의 '어간말 아/어 탈락' 부분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 대강을 제시하기로 한다.

(58) 공통자료
가(H_2)+아도/어도(H_2H_2)→가도(H_2H_2)
어간말모음탈락과 성조탈락

서(H_2)+아도/어도(H_2H_2)→서도(H_2H_2)
어간말모음탈락과 성조탈락

(59) 영주지역어
긓(H_1)+으먼(H_2H_2)→그으먼(HLL)→그먼(H·LL)
후음탈락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

(58)에서는 중간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59)에서는 그 중간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58)의 경우, 같은 성조 패턴을 보이는 '보-'의 활용형 중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보아도(HHL)'의 경우를 참고해 볼 때, (59)에 제시된 그으먼(HLL)의 성조형과는 차이를 보인다.[40] 우연의 일치인지 성조가 탈락하는 경우는 경북북부지역어의 경우 모두 HHL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은 어간말모음 '으(영주)' 또는 'ㅋ(문경·울진)' 탈락에서의 성조변동이다. 역시 분절음이 탈락하면서 성조도 탈락한다. 이 경우 또한 성조형이 HHL이다.

(60) 뜨(H_2)+아도/어도(H_2H_2)→떠도(H_2H_2)
어간말모음탈락과 성조탈락

이로 볼 때, 성조언어의 설명에서 활용되는 '부동성조(Floating Tone)', '성조상존성(Tonal Stability)' 등은 적어도 경북북부지역어에는 확인되지 않는 듯하다.

5.3. 축약

성조의 축약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활음화로 인해 음절이 축약된 유형에서의 성조축약,[41] 완전순행동화 이후 동모음이 축약된 유형에서의 성조축약이 그것이다. 넓게 본다면 이는 음절축약이다.[42]

다음은 곡용에서 활음화를 보이는 울진지역어의 자료이다.[43]

(61) 가. 다리(LH, 脚)+에→다레(LH·L)　버리(LH, 麥)+에→버레(LH·L)
나. 머리(HL, 頭)+에→머레(HL)　소데끼(LHL, 누룽지)+에→소데께(LHL)

---

40) '그으먼(HLL)'의 경우 동일모음이 탈락하지 않는 이유는 4장에서 '탈락제약'으로 설명된 바 있다.

4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음화는 곡용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를 활음화로 파악한 최초의 논의는 최명옥(1982)이다. 이어 육진방언을 비롯 주로 동쪽 지역 말에서 활음화가 보고되어 있다.

42) 배주채(2001:36)에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김성규·정승철(2005:95)에서도 '꾸+어→꿔:'를 음절축약에 의한 장모음화로 기술하고 있다.

43) 울진지역어와 달리 영주지역어에서는 '정지(LH, 廚)+에', '통시(便所, LH)+에' 등 일부 어간에서만 활음화 과정이 확인될 뿐 (52)에 제시된 예는 '다리예(LHL)', '머리예(HLL)'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문경지역어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확인된다. 자세한 것은 4장의 '활음화', '완전순행동화'를 참고할 수 있다.

(61)에 제시된 자료들에 대해 어간말음 'ㅣ'가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둘째 음절 이하에 고저복합조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61가)의 모음탈락에서는 고저복합조가 실현되고 (61나)의 모음탈락에서는 고저복합조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분절음운의 음운론적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성조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44] (61가)에서 고저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것은 바로 곡용 어간의 기저성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곡용 어간의 마지막 음절 성조가 'H'일 때, 활음화 과정을 겪은 표면형에는 고저복합조가 나타날 수 있다.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리'와 '버리'의 기저성조가 LH이기 때문이다. 분절음운 층위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며 성조 층위에서는 성조축약이 일어나서 고저복합조가 실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은 (61나)의 예에서도 활음화가 확인되고 아울러 성조축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조축약이 표면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성조배열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5] 성조배열제약에 의해 H 다음에는 모든 성조가 L로 변동되기 때문에 축약된 성조 L·L은 표면성조로 실현될 수 없다. (61가)의 경우는 축약된 성조 앞에 놓이는 것이 L이기 때문에 고저복합조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고저복합조와 저고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그 앞 성조가 L인 경우라는 앞 장의 논의를 상기한다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성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다음은 활용에서의 활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공통자료).[46]

(62) 놓(H_1)+아도 → 노'아도 → 놔^도 → 나^도(放)
　　　후음탈락　활음화·성조축약　활음탈락
　　바꿓'+아도 → 바꾸'아도 → 바꽈^도 → 바까^도(換)
　　　후음탈락　활음화·성조축약　활음탈락
　　차'구'우+아도 → 차'구'와도 → 차'구'아도 → 차'과'도 → 차'가'도(冷)
　　　활음화·성조축약　활음탈락　활음화·성조축약　활음탈락
　　우˘수우+아도 → 우˘수와도 → 우˘수아도 → 우˘솨도 → 우˘사도(笑)
　　　활음화·성조축약　활음탈락　활음화·성조축약　활음탈락

두 번째 음운과정에서 음절이 축약되면서 동시에 성조도 축약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어는 성조가 완전히 자립적인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분절음에 의존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완전순행동화와 관련된 자료에서 성조축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63)은 문경지역어에서 실현되는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 과정이다.

---

44) 임석규(1999:29-30)에서는 활용에서의 활음화와 완전순행동화에 대해서도 성조를 고려하여 해석한 바 있다. 즉 성조패턴 HHL(활음화), HLL(완전순행동화)과 관계짓고 있다.

45) 김차균(2002가), 이문규(2002)의 체계에서는 이를 중화로 처리하지만, 필자는 이를 성조배열제약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임석규(2003:59)를 참조할 수 있다.

46) '보+아도→바도(HH)'에서 확인되는 성조축약 문제는 후일을 기약한다.

(63) 가. 정지(LH)+에도 → 정지이도(LHLL) → 정지도(LH·LL)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머리(HL)+에도 → 머리이도(HLLL) → 머리도(HL·LL) → 머리도(HLL)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저조화 규칙
나. 푸데(LH)+에도 → 푸데에도(LHLL) → 푸데도(LH·LL)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창가(HL)+에도 → 창가아도(HLLL) → 창가도(HL·LL) → 창가도(HLL)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저조화규칙

두 번째 음운과정에서 동모음축약이 확인된다. 끝에서 둘째 음절의 고저복합조 실현 여부는 역시 기저성조가 관여함을 보여준다. 동모음이 축약되면서 성조도 축약되는데 그 축약된 성조는 성조배열제약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음절 어간이라면 LH(또는 LH·L) 어간에서, 3음절 어간이라면 LLH(또는 LLH·L) 어간에서만 마지막 음절에 복합조가 실현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4장의 '완전순행동화'를 참조할 수 있다.

(64)에 제시된 자료 또한 문경지역어에서 발견되는 완전순행동화이다.

(64) 가. 놀'리+아도→놀리어도(HLLL)→놀리이도(HLLL)→놀리도(HL·LL)→놀리도(弄, HL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저조화 규칙
나. 깔'리'+아도→깔리어도(HHLL)→깔리이도(HHLL)→깔리도(HH·LL)→깔리도(尿, HH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저조화 규칙
다. 벌ˇ리+아도→벌ˇ리어도(L·HHLL)→벌리이도(L·HHLL)→벌리도(L·HH·LL)→벌리도(列, L·HH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저조화 규칙
라. 싱키'+아도→싱키어도(LHLL)→싱키이도(LHLL)→싱키도(被履, LH·L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64)에 제시된 자료는 모두 'ㅣ'를 말음으로 가진 개음절 어간 각각에 어미 '아(X)'가 통합한 경우이다. 각각의 세 번째 음운과정에서 성조축약이 확인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64라)의 경우는, (64가)~(64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태소 경계에서는 그 분절음 환경이 같은데 그 표면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 표면형의 차이는 분절음 층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또한 일관된 기술을 위해 성조를 고려해야 한다. 활용 어간의 기저성조 차이가 표면형의 고저복합조 실현 여부와 관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47] (64)에 제시된 활용 어간 각각의 기저성조는 (64가)가 HL (64나)가 HH, (64다)가 L·HH, (64라)가 LH이다. 특히 어간의 기저성조가 LH인 (64라)에서 표면형에 고저복합조가 실현되어 있다. 이는 성조배열제약과 관계한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기에 여기에서는 (64라)의 경우만을 설명하기로 한다.[48]

4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간 성조형과 관련하여 최명옥(1978:201)에 비슷한 언급이 보인다. 그러한 언급은 이병근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음도 밝히고 있다. 다만, '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복합조가 실현되고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발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65) 싱키(LH)+아도→싱키어도(LHLL)→싱키이도(LHLL)→싱키도(LH·L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성조축약

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출과정은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이다. 완전순행동화가 되면서 음절수는 4음절로 처음 통합에서와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동화된 모음은 음절축약과 성조축약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3음절 '싱키도(LH·LL)'가 도출되고, 이 3음절 어형은 해당 방언의 성조배열에 부합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자체로 표면에서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다음과 같은 어간말 환경에서도 어간의 기저성조와 성조배열제약으로 인해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공통자료).

(66) 가. 만네(HL)+아도→만네어도(HLLL)→만네에도(HLLL)→만네도(HL·LL)→만네도(遇, HL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　저조화 규칙
나. 달레(LH)[49]+아도→달레어도(LHLL)→달레에도(LHLL)→달레도(撫, LH·LL)
어미 '아'의 '어'화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

(67) 가. 쌓+아도→싸아도(HLL)→싸도(H·LL)
후음탈락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
나. 쌓+으먼→싸으먼(HLL)→싸아먼(HLL)→싸먼(H·LL)
후음탈락　완전순행동화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

(66나)의 경우는 (66가)와는 달리 음절축약과 성조축약 과정의 결과인 '달레^도'가 해당 지역어의 성조배열에 부합하기 때문에 축약된 표면형이 그대로 도출되는 것이다. (67)에서도 동모음축약과 성조축약이 확인된다. (67)에서 축약된 성조 또한 해당 지역어의 성조배열제약과 부합하므로 표면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비모음화에 이은 완전순행동화 과정에서도 성조 축약 과정이 확인된다(공통자료).

(68) 가. 밥통(HL)+에→밥토오(HLL)→밥토(HL·L)→밥토(HL)
나. 신통(HH)+에→신토오(HHL)→신토(HH·L)→신토(HH)
다. 영동(L·HH)+에→영도오(L·HHL)→영도(L·HH·L)→영도(L·HH)
라. 안동(LH)+에→안도오(LHL)→안도(LH·L)

두 번째 제시된 음운과정에서 성조축약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축약된 성조가 그대로 나타

48) 울진지역어에서의 'yƎ>E' 축약 또한 같은 설명이 적용된다.

49) 둘째 음절이 경북서부방언에서는 주로 고조로 실현되고 낙동강 동쪽에 위치한 방언권에서는 복합조로 실현되기도 한다. 둘째 음절이 복합조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57나)에 대한 설명이 다소 복잡해진다. 일단 '달레어도(LH·LLL)→달레어도(LHLL)→달레에도(LHLL)→달레도(LH·LL)'와 같이 첫 도출과정에서 복합조의 고조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4장 '완전순행동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저복합조의 고조화 규칙은 저고복합조의 고조화 규칙과 달리 음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성조배열제약과 관계한다. 2음절 어간이라면 LH 어간에서, 3음절 어간이라면 LLH 어간에서만 마지막 음절에 복합조가 실현될 수 있다.

다음은 단어 경계에서 확인되는 성조축약이다.

(69) 이아이(HHL)/이아(HH)/야(L·H)[50]
　　저아이(HHL)/저아(HH)/자(L·H)
　　그아이(LHL)/그아(LH·L)/가(H·L)

(69)에 제시된 자료는 분절음 층위에서나 성조 층위에서 공시적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필자 나름대로 성조 층위에서의 규칙을 모색해 보려 한다. 어절 경계가 하나의 성조군이 되면서 앞 음절 성조 즉 관형사 '이', '저', '그'의 성조에 따라 저고복합조가 실현될 수도 있고 고저복합조가 실현될 수도 있는데, '그'의 성조만이 '아'이', 또는 '아^' 앞에서 저조로 실현된다. 반면 '이'와 '저'는 고조로 실현되는데, 그러면 후행 음절의 성조는 성조변동규칙으로 인해 당연히 고조로 변동된다. 결국 두 음절의 성조가 H-H로 동일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고복합조가 실현된다. 이는 단어 내부에서의 축약이라 할 수 있는 '누구(HH)'의 또다른 1음절 어간 '누(L·H)'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51] 반면 '그'가 통합된 경우는 첫 두 음절의 성조가 'L-H'이므로 — 두 음절의 성조가 'H-L'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이때는 저고복합조가 실현되지 않고 고저복합조가 실현된다. 필자의 부산 출신 지인이 '이아', '저아', '그아'를 모두 HL로 발화하고 그 축약형을 모두 고저복합조로 발화하는 것도 같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두 음절의 성조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고저복합조로 발화된다는 것이다.[52] 다음과 같은 단어내부의 축약에서도 그러한 변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단, '처음(L·HH)~첨(L·H)', '주인(L·HH)~진(L·H)' 등에서와 같이 저고복합조로 시작하는 음절은 저고복합조가 그대로 나타난다.

(70) ※ 단어내부에서의 축약(문경·영주/울진)
　　가. 싸움(HL)~쌈(H·L), 마음(LH)~맘(H·L), 다음(HL)~담(H·L), 내일(HL)~낼(H·L)
　　　누우(LH, 姊)~누(H·L), 마을(LH)~마(H·L),
　　나. 고함(HL)~고암(HL)~괌(H·L)~감(H·L), 무어(HL)~머(H·L)
　　cf. 처음(L·HH/L·HL)~첨(L·H), 주인(L·HH/L·HL)~진(L·H), 사이(HL)~세(H·L)

(70가)는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싸암', '다암', '마암'의 동모음이 축약되어 각각 단음절로 나타나는 예들이고, (70나)는 활음화되면서 음절이 축약된 예이다. (70가), (70나)에 제시된 예들의 특징은 원래 두 음절의 성조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음절의 성조가 서로 상이한 경우는 축약될 때 고저복합조로 나타난다. 그 예는 '사이(HL)>세(H·L)'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50) '야(이 아이)는 '수식어인 '이'와 피수식어인 '아'가 밀착되어 하나의 복합어처럼 된 다음 단어 경계가 더욱 약화되어 음절경계로 대치되면서 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송철의 1995나:280-281).

51) '누라꼬~니라꼬(L·HHL, 누구라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 '피(H_2)+아도→피'어'도→피˘도'와 '띠(H_1)+아도→띠'어도→띠^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면형의 저고복합조와 고저복합조의 차이는 축약 이전의 표면성조에서의 차이 여부와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크게 두 부류, 활음화 또는 완전순행동화로 인해 음절이 축약된 유형에서의 성조 축약을 검토하였는데, 분절음운과정과 성조 층위의 상관성을 충분히 검토할 때 비로소 음운과정의 기제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경북북부지역어의 성조는 완전히 자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분절음에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3)에 제시된 활용형의 경우는 울진지역어에서는 '나'도'', '다'도'', '자'도''로 나타난다. 기저형은 '누-(尿)', '두-(置)', '주-(與)'로 동일하나 활용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음어미가 통합된 활용형의 경우 세 지역어에서는 복합조로 실현되지 않는 형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14)의 경우는 대격어미와 통합할 때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꼬'털~꼬'철'과 같이 수의적인 양상이 확인되고 울진지역어에서는 '꼬'토'와 같은 단일기저형이 확인된다. 울진지역

1) 인접한 충청, 강원 방언에서 확인되는 '즈:질(低質)', '즈:놔(電話)' 등과 같은 모음상승은 물론 '미웁-(憎)', '그리웁-(戀)', '몰르-(不知)', '흘르-(流)' 등과 같은 어간의 재구조화도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경북북부의 세 지역어 문경, 영주, 울진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음운 목록을 설정하였다. 자음의 경우는 성문폐쇄음을 포함하여 20개, 모음의 경우는 '으:어' 대립의 유무에 따라 7개(영주지역어)/6개(문경지역어, 울진지역어)를 확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조를 고려한 최소대립쌍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성조소로 두 가지를 확정하였고 복합조는 고조와 저조가 병치된 저고복합조와 고저복합조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illegible]

$XY_0 \rightarrow L_0L\cdot HHL_0/L_0L\cdot H_$(Ul-jin)

Substitution to low tone ①: substitution of 'H_1' in the first constituent

$$L_0H \rightarrow L_0L/_L_0 \begin{bmatrix} H \\ H\cdot L \end{bmatrix} L_0 (H \text{ is } `H_1\text{'})$$

Substitution to low tone ②: substitution in the second constituent

When the final-syllable of the first constituent is 'H_1', and 'H_1' or 'H·L' do not exited in the second constituent, all tone of the second constituent are substituted for low tone.

Substitution to low tone ③: substitution in the second constituent

When the final-syllable of the first constituent is 'H·L', 'L' 또는 'HH', or 'L·HH',, all tone of the second constituent are substituted for low tone.

Key Words : Gyeongbuk-bukbu Subdialect, Phonological processes, Alternation, Deletion, Addition, Contraction, Compound tone, Underlying tone,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

(8) '바꿓'-', '겨눟'-', '바렣'-', '문뎋'-'에서와 같이 어간말에 'ㅎ'을 갖는 어간이 많이 확인된다는 점
(9) 자음군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일'찌', '글'찌', '발ˇ꼬', '널'꼬' 등으로 실현된다는 점
(10) 활용 어간의 말음 유음이 'ㄴ', 'ㅅ'으로 하는 어미 이외의 환경 앞에서도 잘 탈락한다는 점
(11) '질(路)', '세～시(舌)' 등과 같은 구개음화가 나타난다는 점
(12) '마'세도(飮)', '마'시도', '비'베도(混)', '비'비도'와 같은 활용형이 확인된다는 점
(13) '노'도'(尿)', '도'도'(置)', '조'도'(與)' 등의 활용형이 확인된다는 점
(14) '花'의 의미를 지닌 어간의 기저형이 '꽅～꽃'으로 나타난다는 점
(15) '이'미'(母)', '지ˇ사(祭)' 등에서의 모음상승, '부'주(扶助)', '체ˇ수(菜)' 등의 모음상승이 잘 확인된다는 점
(16) '버ˇ리(蜂)'에서와 같이 곡용 어간이 확장된 형태가 많다는 점
(17) '베'비'(法)'와 같은 움라우트가 활발했다는 점

위에서 제시한 동남방언의 특징 중에서 경북북부지역만의 특징들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기로 한다.[1)]

(2)～(5)의 경우는 경북북부지역어의 특징은 아니다. '쌀'과 '살'은 의미가 변별이 되며, '곱-'류 어간은 중부방언에서와 같이 복합기저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곡용 어간 '밥'과 어미 '-하고'의 통합은 유기음화를 겪고, '월료일'과 같은 'ㄴ'의 과도한 첨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6)～(11)의 경우는 경북북부지역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1), (12)～(17)의 경우는 경북북부지역어에서도 지역어에 따라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의 경우 영주지역어는 'ㅡ'와 'ㅓ'가 변별이 되어 단모음이 7개이며,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는 단모음이 6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거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 볼 때 영주에 인접한 북부 지역의 말은 단모음으로 7개를 설정할 수 있다.

(12)에서처럼 'ㅣ'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인 경우 지역어 간 차이가 뚜렷하다. 문경지역어에서는 '마'시도', '비'비도'로 나타나고 영주와 울진지역어에서는 '마'세도', '비'베도'로 나타나는데, 영주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도 지역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주지역어는 기저형 자체가 '마'세-', '비'베-'인데 반해, 울진지역어의 경우 기저형은 '마'시-', '비'비-'이지만 모음어미가 통합하면서 '마'세도', '비'베도'로 실현된다.

(13)에 제시된 활용형의 경우는 울진지역어에서는 '나'도'', '다'도'', '자'도''로 나타난다. 기저형은 '누-(尿)', '두-(置)', '주-(與)'로 동일하나 활용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음어미가 통합된 활용형의 경우 세 지역어에서는 복합조로 실현되지 않는 형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14)의 경우는 대격어미와 통합할 때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는 '꼬'털～꼬'철'과 같이 수의적인 양상이 확인되고 울진지역어에서는 '꼬'토'와 같은 단일기저형이 확인된다. 울진지역

1) 인접한 충청, 강원 방언에서 확인되는 '즈:질(低質)', '즈:놔(電話)' 등과 같은 모음상승은 물론 '미웁-(憎)', '그리웁-(戀)', '몰르-(不知)', '흘르-(流)' 등과 같은 어간의 재구조화도 경북북부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의 경우 '빋(債)', '젇(乳)', '붇(筆)', '몯(釘)' 등도 다른 두 지역어의 기저형과 구분된다.

(15)에 제시된 '에>이' 모음 상승은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쉽게 확인되나 영주지역어의 경우,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오>우' 모음상승은 울진지역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삼'춘(三寸), 파두'(波濤), 청'수(淸掃) 등은 다른 두 지역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6)에 제시된 어간 확장형(버ˇ리) 또한 울진지역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격 '-이가', 주제격 '-이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어간 확장형은 서쪽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17)과 같은 움라우트는 세 지역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경지역어와 울진지역어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될 뿐인데 특히 문경지역어에서 이미 타계하신 분들은 '콩(豆)+이>킹'이'로 발화했다고 하는 제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 중 음운과정에 대한 필자 나름의 접근 방법을 비롯하여 지역어 간 차이점을 위주로 제시한다. 먼저 필자는 성조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 음장방언과 달리 성조방언에서는 완전순행동화의 기술도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 성조방언에서 복합조 실현 환경이 제대로 검토될 때 완전순행동화의 기술도 보다 정밀해질 수 있다. 성조방언이 음장방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복합조(L·H 복합조, H·L 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안동(LH)+에→안도오', '포항(HH)+에→포하아'와 같이 표면형을 3음절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성조방언에서 장음(복합조에 따른 잉여적인 것)이 실현되는 환경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활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와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를 비교·검토하기도 하였다.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립쌍을 제시해 보기도 하였다. 그 결론으로 '안동(LH)', '포항(HH)'에 각각 처격어미가 통합되면 비모음화, 완전순행동화, 음절축약이 차례로 적용되고, 이어 성조배열제약이 관여하여 그 표면형이 '안도(LH·L)', '포하(HH)'로 도출됨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음탈락에 의한 곡용에서의 완전순행동화는 단음절어간인 경우 매우 제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활음화를 겪은 표면형 '다레^(脚)', '밀까레^(粉)'에서 고저복합조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것은 바로 곡용 어간의 기저성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곧 곡용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성조가 'H(=H_1)'일 때, 활음화 과정을 겪은 표면형에는 고저복합조가 나타날 수 있다. '다리'의 기저성조는 LH이며, '밀까리'의 기저성조는 LLH이기 때문이다. 분절음운 층위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며 성조 층위에서는 성조축약이 일어나서 고저복합조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반면 '바'지(下衣)+에→바'제'에서는 둘째 음절에 복합조가 실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간의 기저성조가 H 또는 H·L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표면형은 성조배열제약과 밀접히 관련되어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3) 동음탈락의 경우, 어간말모음이 탈락된다는 것을 성조 층위에서 설명하였다. 용언 활용형 '간다', '간따'의 성조는 모두 'H_2H_2'임에 반해 부정부사 '안'과 용언 활용형이 통합한 형태는

2) '파도>파두', '콘도>콘두' 등의 모음상승의 예는 울진지역어에서 매우 많이 나타난다.

'LHL(안 간다), HLL(안#갇따)'로 그 표면성조가 달리 나타난다. 그 이유는 활용형 '갇따'의 첫 음절 모음 '아'가 다름 아닌 어미 '아(X)'의 '아'이기 때문이었다. 용언 '가-'의 어간말모음이 탈락되지 않고 남아 있는 'LHL(안 간다)'의 성조와 비교해 볼 때 그 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4) 활음이 첨가되는 과정은 두 모음 중 적어도 하나가 전설모음이면 y가 첨가되고, 두 모음 모두 후설모음이면 w가 첨가되는 것으로 일반화된다. 또 두 모음 사이에 /ŋ/이 개재되더라도 활음 첨가 규칙에는 변함이 없음(고등'에~고등'예)도 확인하였다. 호격어미가 통합된 '철수야', '영숙아'는 수의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국'씨에~국'씨예(麵)', '보'아'도~보'와'도(見)' 등은 수의성을 보이는 경우이므로 분명 다른 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5) 조사 대상을 단어 경계에까지 넓혀 나가다보면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일반화가 가능함을 강조하였는데, 곡용 어간말 'ㄹ' 뒤의 경음화는 후행성분이 '[+설정성]' 평자음으로 시작될 때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곡용에서는 물'쪼'차, 질'떼'로, 말ˇ또 등의 예를, 단어 경계에서는 불'똘'리고, 불'쌀'구코, 물'떼'먼, 잘떼^써, 돌'찌'네면, 잘짜ˇ라, 무'릴'#띠'리'고(두 기식군, 물을##들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6) 영주지역어의 '만'지->만'제-', '밀ˇ치->밀ˇ체-'류의 재구조화는 대체로 '이'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일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음절수보다는 '커'지'->*커제-', '야ˇ단치->*야단체-'류를 고려할 때, 화자들의 경계 요소 인식이 결정적이다. 이는 문경지역어의 재구조화(커'지'->커'저'-, 야ˇ단치->야ˇ단처-)에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되며, 울진지역어의 음운과정에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된다. 울진지역어의 경우, 어간에 따라 활음화 후 활음 탈락의 과정(커지+아→커지어→커져→커'저')을 겪기도 하고, '여→에' 과정(만지+아→만지어→만져→만'제)을 겪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7) 어미 '아(X)'의 교체는 울진지역어가 다른 두 지역어에 비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울진지역어에서는 '이', '으', 'E'로 끝나는 어간 또는 후음을 말음으로 하는 어간('이', '으', 'E'가 개재된 후음말음어간)과 통합하는 '아(X)'는 '어(X)'로 교체된다. 그 밖의 환경, 즉, 뜨'라(落), 씨'까(洗), 지'라(長), 주'가(死), 어'파(覆), 빼'사(奪), 메'자(結) 등에서는 '아(X)'가 교체되지 않고 나타난다. 특히 '이'싸싸(있었어), 머^싸(먹었어), 저ˇ가싸'(적었어)처럼 과거시제선어말어미, 종결어미도 '-았-', '-아'로 실현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울진지역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말에서는 영주지역어 '아(X)' 교체와 흡사하게 나타남을 언급하였다.

(8) 후의적성조형에 대응하는 '가-(去)'류 어간의 활용형은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보이므로 모든 음운과정에 주의가 필요한바, 갈ˇ라꼬(가려고), 줄ˇ라꼬(주려고) 등에서처럼 저고복합조가 실현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가-'류 어간이 아닌 경우는 '쌀'라'꼬(包)', '팔라꼬(掘)'에서처럼 저고복합조가 실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특히 '가-'류 용언에 대해 중국어의 의도법과 관련시켜 보려 하였다.

(9) 문경지역어와 영주지역어에서 확인되는 '누'고, 누'먼, 노'따'(尿)'류에서 모음어미와의 통합형 '노'따''는 '꾸'고', 꺼'따'(夢)'와 비교해 볼 때 공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꾸ˇ꼬, 꾸^~꾸'어(炙)'와 비교해 볼 때, '누-(尿)', '두-(置)', '주-(與)' 용언은 온전한 '우' 말음 어간으로 보기 어렵다. 국어에서의 '아(X)'의 교체는 '우' 말음 어간에서나 'Xuh'로

끝나는 어간에서나 그 실현 양상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울진지역어의 '누'고, 나'따'(尿)'류 또한 공시적인 설명은 가능하나, '꾸'고', 꺼'따'(借)'와 비교해 볼 때 다른 두 지역어와 동일하게 통시적인 정보를 요하는 활용형으로 간주되어야 하겠다.

(10) 문경지역어에는 특별한 율동규칙이 존재하는바, L로 시작하는 성조군의 성조는 대체로 끝에서 둘째 음절에 고조 또는 고저복합조가 놓이는 것이다(유리라'고, 유리라카'지, 유리라카지'여). 단 'LHH-'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더뽑'쑵'미다)

(11) 영주지역어에서는 부정부사 '안'의 기저성조가 'H_1'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안'은 후행성분에 'H_1'이 존재하는 경우 저조로 교체되고, 후행성분에 'H_1'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체되지 않고 실현된다. 이는 울진지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성조교체지만 영주지역어에 비해 그 실현 양상이 확고하지 않다. 이러한 '안'의 성조교체는 '안'이 무조건 저조로 실현되는 문경지역어와의 차이로 부각되었다.

(12) 울진지역어에서 확인되는 성조 특이성은 성조배열이 L·HH이 아니라 L·HL인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성조배열 L·HL과 H·LL은 합류되어 의미 변별 기능을 잃어버렸다. 단독형인 경우에는 두 복합조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복합조에 한 음절이 더 이어지는 '가^가(그#아이가)/가ˇ가(邊+이)'와 '세^가(間)/세ˇ가(鳥)'에서의 대립은 확연하지 않다. '자ˇ', '야ˇ', '가^'의 성조 또한 단독형일 때에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어간에 주격어미 '-가'가 통합되면 그 표면성조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편, 울진지역어에서는 원래 저고복합조를 가진 어형이 동북방언에서처럼 '이'항년', '오'게반'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L·HL과 H·LL 두 복합조의 합류와 무관하지 않음도 언급하였다.

(13) 분절음이 탈락할 때, 그 성조도 같이 탈락한다는 점, 또 일본어에서보다는 상당히 많은 성조형이 관찰된다는 점(2음절 성조형 7개, 3음절 성조형 11개) 등을 경북북부지역어의 성조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4) 분절음이 축약되면 성조도 축약되며, 분절음이 탈락되면 성조도 탈락된다. 곧 성조가 완전히 자립적인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분절음에 의존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조언어 설명에서 활용되는 '성조상존성(Tonal stability)', '부동성조(Floating tone)' 등은 적어도 경북북부지역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참고논저

강창석(1982), <현대 국어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 현상: 활용, 곡용에서의 '으-Ø'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50, 국어연구회.

강창석(1985), <곡용과 활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음운현상에 대한 비음운론적 제약의 극복을 위하여>,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47-67.

강창석(1989),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국어학회, 3-40.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고영근(1989), <파생접사의 분석 한계>, ≪어학연구≫ 25-1, 서울대 어학연구소, 97-110.

고영근(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사이근수박사 환력기념논총≫, 이병근·채완·김창섭(1993)에 재수록, 11-23.

곽충구(1980), <십팔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국어연구회.

곽충구(1990),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84-94.

곽충구(1994가),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곽충구(1994나), <계합 내에서의 단일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남천박갑수선생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549-586.

곽충구(2000),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1123-1166.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1.

권인한(1987), <음운론적 기제의 심리적 실재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76, 국어연구회.

권인한(1997), <현대국어 한자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29, 국어학회, 243-260.

기세관(1985),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의 모음대응에 대한 통시적 고찰>, ≪나랏말≫ 창간호, 순천대 국어교육과, 226-258.

김경아(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4, 국어연구회.

김경아(1996), <위치동화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7, 국어학회, 131-156.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김무식(1992), <경북 방언 초분절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의성지역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22, 국어학회, 57-86.

김무식(1999), <경북방언 용언의 성조형>,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9, 1-33.

김반섭(1983), <경주지역어의 경음화현상 연구>, 계명대대학원(석사).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 150, 국어연구회.

김봉국(1999), <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29-154.

김봉국(2000), <강릉·삼척지역어의 활음화>, ≪한국문화≫ 2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33.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방언의 음운론>, 서울대대학원(박사).

김봉국(2003), <복수기저형의 유형 (1) -형성 요인의 관점에서>,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165-199.
김봉국(2004), <고모음 탈락 현상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3, 국어학회, 37-61.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5-44.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159-165.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김성규(2001), <음성 언어 층위와 문자 언어 층위의 위상에 대한 연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65-88.
김성규(2001), <'이-'의 음운론적 특성>, ≪국어학≫ 37, 국어학회, 285-313.
김성규(2003), <'여>예>에'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61-182.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성환(1987), <경북 방언 성조에 관한 연구>, 계명대대학원(박사).
김세환(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80, 국어연구회.
김세환(2006), <경북 방언의 '다리^(他)'에 관하여>, ≪방언학≫ 3, 한국방언학회, 157-176.
김영만(1966), <경남 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85-115.
김영만(1972), <고금성조 비교 재론>, ≪한글≫ 149, 한글학회, 43-76.
김영만(1974), <방점표기의 원칙과 성조변화>,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63-76.
김영만(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대학원(박사).
김영만(1991), <국어 초분절음소의 이론과 실제>, ≪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139-164.
김영만(1992), <운소론>, ≪국어학연구백년사≫ Ⅰ, 일조각, 26-80.
김영만(1997), <국어 초분절음의 공시적 연구>, ≪영남어문학≫ 32, 영남어문학회, 5-51.
김영태(1983), <창원지역어연구>, 중앙대대학원(박사).
김옥화(2000), <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 36, 국어학회, 97-131.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김완진(1963),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김완진(1971)에 재수록, 2-44.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71-299.
김완진(1977),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탑출판사.
김재문(1977), <서부경남 방언의 음운 연구>, ≪논문집≫ 15, 진주교대, 91-122.
김정우(1984), <국어 음운론의 경계문제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59, 국어연구회.
김정대(1998), <경남방언의 성격>,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321-364.
김정태(1996), ≪국어 과도음 연구≫, 박이정.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국어연구회.
김종규(2003), <히아투스와 음절>, ≪한국문화≫ 3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22.
김주석·최명옥(2001), ≪경주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김주원(1991가), <경상도방언의 고조의 본질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75-93.

김주원(1991나),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방법: 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어학연구≫, 27-3, 서울대 어학연구소, 585-607.
김주원(1994), <성조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인문과학≫ 10,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135-164.
김주원(1995), <중세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언어≫ 20-2, 한국언어학회, 1-28.
김주원(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91-115.
김주원(2003), <성조론>, ≪국어학회 집중강좌≫, 2003, 1-22.
김주필(1994), <17·8세기 구개음화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김차균(1977), <어절성조체계의 기술방법>,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133-156.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김차균(1985), <중세국어와 경상도방언의 성조 대응 관계 기술의 방법>, ≪역사언어학≫, 전예원, 203-240.
김차균(1991), <일본 언어학계의 한국어 성조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출판부, 120-172.
김차균(1997), <삼척방언과 울진방언 음조형의 비교>, ≪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논총 국어학연구의 새지평≫, 태학사, 405-438.
김차균(2002가), <안동방언과 밀양방언 성조 비교>,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회, 5-99.
김차균(2002나),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의 비교>,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1-80.
김차균(2003), ≪영남 방언 성조 비교≫, 역락.
김태상 · 김무식 역(1991), ≪초분절음소론≫, 한신문화사.
김태엽(1996), ≪경북말의 높임법연구≫, 태학사.
김 현(1997), <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45, 국어연구회.
김 현(1999), <모음간 w탈락과 w삽입의 역사적 고찰>,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195-254.
김 현(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국어학≫ 37, 국어학회, 85-113.
김 현(2002),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불명추론>, ≪어학연구≫ 38-3, 서울대 어학연구소, 779-799.
김 현(2003), <활용상에 보이는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요인과 유형>, 서울대대학원(박사).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출판부.
김혜영(2004), <통영 방언의 불규칙 활용 연구>, ≪형태론≫ 6-1, 박이정, 25-42.
도수희(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0.
문곤섭(1986), <경남방언의 성조 고찰(1)>, ≪경남어문≫ 18, 경남어문학회, 23-31.
문효근(1962), <대구방언의 고저 · 장단>, ≪인문과학≫ 7,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53-103.
문효근(1974), ≪한국어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민원식(1982),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대학원(석사).
민원식(1994), <문경말의 어미구조에 대한 통시적 연구>, 충남대대학원(박사).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국어연구≫ 57, 국어연구회.
박경래(1985),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세대별 고찰>, ≪방언≫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56.
박경래(1986), <괴산방언과 문경방언의 음운체계에 대한 세대별 비교고찰>, ≪조건상선생고희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31-158.
박기영(1995), <국어 유음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연구≫ 131, 국어연구회.
박숙희(1999), <영일 지역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충남대대학원(석사).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대학원(박사).
박종덕(2005), ≪안동지역어의 음운연구≫, 박이정.
박종희(1998), <중세국어 활음 'j'의 음운론적 기능>, ≪한글≫ 239, 한글학회, 5-32.
박진혁(2003), <중국 훈춘 지역 조선어의 복합어 성조>, 서강대대학원(석사).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모음사에 대하여>, ≪국어연구≫ 54, 국어연구회.
박창원(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고성지역어의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국어학≫ 16, 국어학회, 301-324.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사전≫, 태학사.
배병인(1983), <산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교육대학원(석사).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국어연구회.
배주채(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주시경학보≫ 11, 탑출판사, 73-106.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배주채(1998), ≪고흥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배주채(2001),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7, 국어학회, 33-59.
배주채(2003),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25, 성심어문학회, 247-283.
백두현(1982가), <금릉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대학원(석사).
백두현(1982나), <성조와 움라우트: 성주·금릉지역어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16, 경북어문학회, 145-157.
백두현(1985), <상주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소당천시권박사화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85-109.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변광수 편(2003), ≪개정증보판 세계주요언어≫, 역락.
서보월(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모음현상을 중심으로>, ≪안동문화≫ 5,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21-42.
서재극(1969), <경주방언의 부사형 -a와 향찰 '-良-'>, ≪어문학≫ 21, 한국어문학회, 87-99.
서정목(1981), <경남진해지역어의 움라우트현상에 대하여>, ≪방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53.
성인출(1998), <국어의 hiatus 회피 거부 현상>, ≪한민족어문학≫ 33, 한민족어문학회, 223-256.
소강춘(1983), <남원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대학원(석사).
소신애(2004), <어간 재구조화의 진행 과정(1)>, ≪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139.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5.

송철의(1977),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국어연구회.
송철의(1982), <국어의 음절문제와 자음의 분포제약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75-194.
송철의(1990), <자음동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2-32.
송철의(1991),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278-296.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송철의(1995가),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273-290.
송철의(1995나),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 창간호,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269-292.
송철의(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국어학회, 287-311.
신기상(1987), <동부경남방언의 고저장단>, ≪국어국문학≫ 97, 국어국문학회, 205-209.
신기상(1993), <동부경남방언 피동사, 사동사의 고저장단>, ≪국어학≫ 23, 국어학회, 93-117.
신기상(1999), ≪동부경남방언의 고저장단≫, 월인.
신기상(2002), <'하-爲'의 고저장단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61-282.
신승용(2004), <'ㅓ'[ə] 원순모음화 현상 연구>, ≪국어학≫ 44, 국어학회, 63-88.
신승원(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대학원(석사).
신승원(1990가), <영풍지역어의 분화양상>, 영남어문학 17, 영남어문학회, 27-56.
신승원(1990나), <영풍지역어의 조사자료>, 영남어문학 18. 영남어문학회, 121-149.
신승원(1999), <모음음운현상 설명에 대한 연구 (Ⅰ): 동모음 '아' 탈락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27, 영남어문학회, 7-26.
신승원(2000),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홍익출판사.
심병기(1985), <임실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대학원(석사).
안병희(1967), <한국어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67-261.
안병희 · 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오정란(1995), <비음화와 비음동화>, ≪국어학≫ 25, 국어학회, 137-164.
오종갑(1982), <'첩해신어'에 나타난 경상도 방언적 요소>, ≪긍포조규설교수화갑기념 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513-530.
오종갑(2003), <동해안 어촌 지역어의 음운론적 비교>, ≪어문학≫ 82, 한국어문학회, 33-99.
유필재(1994), <발화의 음운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25, 국어연구회.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이기문(1972가),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이기문(1972나),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이기문 외(1991), <한국어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0, 대한민국 학술원, 45-99.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이기백(1969), <경상북도의 방언구획>, ≪동서문화≫ 3,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83-217.
이동화(1986),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와 검토>, ≪영남어문학≫ 13, 영남어문학회, 445-459.

이동화(1990), <경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영남대대학원(박사).
이동화(1991), <국어성조와 음운현상의 관련성에 대해: 경북방언을 중심으로>, ≪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565-583.
이동화(1993), <경북방언의 성조와 음장>, ≪영남어문학≫ 21, 영남어문학회, 63-83.
이문규(1993), <비모음화에 대하여-경상도 방언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14, 문학과 언어연구회, 93-111.
이문규(1997), <경북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한글≫ 238, 한글학회, 33-65.
이문규(1998), <성조소 기술 방법론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213-234.
이문규(2002), <대구방언과 안동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101-149.
이문규(2003), <경북방언의 '나가더라'류 성조형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 언어연구회, 109-126.
이문규(2006), <국어 성조 체계의 성조형 대응 양상>,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109-137.
이병근(1970),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 9, 이병근(1979)에 재수록, 139-157.
이병근(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이병근·곽충구 편(1998)에 재수록, 205-225.
이병근(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국어학회, 17-44.
이병근(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숭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이병근(1979)에 재수록, 1-22.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국어학회, 1-28.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이병근(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한글학회, 223-246.
이병근(1986), <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 국어학회, 11-39.
이병근·채완·김창섭(1993), ≪형태≫, 태학사.
이병근·곽충구 편(1998), ≪방언≫, 태학사.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이상규(1983), <경북 지역어의 주격 '-이가'>, 어문논총 17, 경북어문학회, 125-143.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이상신(1998), <VyV 연쇄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155, 국어연구회.
이상신(2007), <'아' 말음 처격형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음운론연구회발표요지≫. 未刊.
이상억(1977), <자립분절음운론과 국어>, ≪이숭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265-290.
이상억(1979가), <성조와 음장>, ≪어학연구≫ 15-2, 서울대 어학연구소, 123-139.
이상억(1979나), <음조배정규칙에 관한 두어 문제>, ≪국어학≫ 8, 국어학회, 51-57.
이상억(1980), <사동·피동어간형성 접미사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21, 고려대국어국문학연구회, 121-138.

이상억(1990), <성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28-138.
이상억(2001), <국어음운현상과 관련된 제약들의 기능부담량에 대한 연구>, ≪음성·음운·형태론연구≫ 7-1, 한국음운론학회, 125-152.
이숭녕(1967),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325-411.
이숭녕(1980), <쇠멸단계에 들어선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에 대하여>,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1.
이승욱(2001), <문법화의 단계와 형태소 형성>, ≪국어학≫ 37, 국어학회, 263-283.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5, 국어연구회.
이승재(1994), <'이다'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14-28.
이승재(2004), ≪방언 연구≫, 태학사.
이시진(1986),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대학원(석사).
이옥화 · 이수주(1983), <풍기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칠대만법'과 유성저해음의 대비를 중심으로>, ≪비사논집≫ 6, 계명대 학도호국단, 1-10.
이익섭(1972가),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이병근 · 곽충구 편(1998), 281-312.
이익섭(1972나),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동대어문≫ 2, 동덕여대 국어국문학회, 17-25.
이익섭(1976), <한국 어촌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61-97.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출판부.
이재오(1971), <경북안동방언의 음운체계>, 고려대교육대학원(석사).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국어연구≫ 147, 국어연구회.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81-120.
이진호(2002), <음운교체양상의 변화와 공시적론 기술>, 서울대대학원(박사).
이진호(2003가), <국어 ㅎ-말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167-195.
이진호(2003나), <음운론적 시각에서 본 중세국어 합성어의 긴밀성>,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1-228.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 정보>, ≪석정이승욱선생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315-333.
이현희(1994),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88-101.
이혁화(1994), <금릉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 119, 국어연구회.
이혁화(2005), <무주, 영동, 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이혁화(2006), <동남방언의 접미사 '-긑-'과 동사 '긑-'에 대하여>, ≪이병근교수정년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1185-1201.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임홍빈(1981), <사이시옷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1-35.
임석규(1999), <영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60, 국어연구회.
임석규(2002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곡용어간의 재구조화>, ≪형태론≫ 4-2, 박이정,

319-338.
임석규(2002나), <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0, 국어학회, 113-138.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37-69.
임석규(2004가), <동남방언 음운론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국어학≫ 43, 국어학회, 63-95.
임석규(2004나),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박이정, 1-23.
임석규(2004다), <음운규칙 간의 위계 검토>,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01-327.
임석규(2006), <성조방언에서의 모음동화>, ≪이병근교수정년퇴임기념국어학논총≫, 태학사, 1167-1184.
장윤희(2002), <현대국어 '르-말음' 용언의 형태사>, ≪어문연구≫ 1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1-83.
장태진(1960), <대구방언의 운소분석>, ≪어문학≫ 6, 한국어문학회, 76-89.
전광현(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9, 동양학연구소, 37-58.
전광현(2003), ≪국어사와 방언 2≫, 월인.
정 국(1980), <성조의 기능론적 분석>, ≪어학연구≫ 16-2, 서울대 어학연구소, 159-165.
정 철(1980), <경북지방 방언의 음운상의 몇 가지 문제점>, ≪난정남광우박사회갑기념논총≫, 일조각, 347-361.
정 철(1982), <음운자질의 흡수 현상>,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7-109.
정 철(1989), <경북의성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대학원(박사).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국어연구회.
정승철(1991), <음소연쇄와 비음운론적 경계- 제주도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360-372.
정승철(1995),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67-107.
정승철(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43-554.
정연찬(1968), <경남방언의 모음 체계- 특히 고성·통영 부근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2, 단국대 국어국문학연구부, 59-79.
정연찬(1976), ≪국어성조에 관한 연구≫, 일조각.
정연찬(1977), ≪경상도방언성조연구≫, 탑출판사.
정원수(1994), <경북방언의 복합 동사 형성에 나타나는 성조 변동 연구>, ≪한글≫ 224, 한글학회, 74-93.
정원수(1997), <경북방언 피동사의 성조 연구>,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회, 443-464.
정원순(1988), <영주 북부지역어의 음운과 그 실현>, 연세대 대학원(석사).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용언 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79.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국어연구회.
정인호(1997),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145-178.
정인호(2006), ≪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태학사.
조현숙(1985), <경북방언의 운율체계 연구: 봉화지역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66, 국어연구회.
주상대(1975), <울진방언의 음운 연구>, 경북대교육대학원(석사).
주상대(1989), <울진지역어 모음의 음운현상 연구>, 계명대대학원(박사).
차재은(1999), ≪중세국어 성조론≫, 월인.
채옥자(1999), <중국 연변지역어의 활음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139-164.
채옥자(2005), ≪중국 연변지역 조선어의 음운 연구≫, 태학사.
천시권(1965), <경북지방의 방언구획>, ≪어문학≫ 13, 한국어문학회, 1-12.
최명옥(1974), <경남삼천포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32, 국어연구회.
최명옥(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 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14, 국어학회, 61-82.
최명옥(1979), <동해안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방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4.
최명옥(1980), ≪경북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국어학회, 149-188.
최명옥(1988가), <변칙동사의 음운현상: li-, lə-, ɛ(yə)-, h-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서울대 어학연구소, 41-68.
최명옥(1988나),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63-80.
최명옥(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7-39.
최명옥(1990가),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18회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학술원, 67-88.
최명옥(1990나), <방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667-675.
최명옥(1991),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238-251.
최명옥(1992가), <경상남북도간의 방언분화 연구>, ≪애산학보≫ 13. 애산학회, 53-103.
최명옥(1992나),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 부사형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39-163.
최명옥(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성곡학술문화재단, 1599-1642.
최명옥(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외골 권재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우골탑, 861-892.
최명옥(1995), <'X ㅣ]Vst 어Y'의 음운론>,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167-190.
최명옥(1998가),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
최명옥(1998나),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최명옥(1998다),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최명옥(1999), <현대국어의 성조형과 그 분포>,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55-581.
최명옥(2000), <중국연변지역의 한국어 연구>, ≪한국문화≫ 2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7-62.
최명옥(2001), <'으Y'류 어미의 사전학적 표시와 언어학적 표시에 대하여>, ≪한일어문학논총(梅田博之敎授 古稀紀念)≫, 태학사, 309-329.
최명옥(2004), ≪국어음운론≫, 태학사.
최명옥(2005), <한국어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와 그 대체 기제>, ≪인문논총≫ 5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85-311.
최영미(2001), <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대학원(석사).
최전승(1983), <비어두음절 모음의 방언적 분화>,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54-175.
최전승(1997), <용언활용의 비생성적 성격과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 현상>, ≪국어학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1207-1257.
최태영(1984), <풍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숭실어문≫ 1, 숭실어문학회, 35-55.
최태영(1981), 전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대학원(박사).
최학근(1991), ≪국어방언연구≫, 명문당.
최한조(1997), ≪대구말의 음운현상과 성조연구≫, 홍익출판사.
최현배(1937/1999), ≪우리말본≫, 정음사.
한성우(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41, 국어연구회.
한성우(2006),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월인.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75-402.
한영균(1988), <비음절화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26.
한영균(1990), <불규칙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57-168.
허 웅(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외솔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479-519.
허 웅(1955), <방점연구: 경상도방언 성조와의 비교>, ≪동방학지≫ 2, 연세대 국학연구소, 39-194.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 (Ⅰ)≫, 태학사.
황대화(1986), ≪동해안 방언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방언자료≫ 7(경상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 2(강원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 8(경상남도편).
大江孝男(1978), Negative Adverbs in Southern Dialects form an Accentual Point of View, In Kim. ed.(1978), 99-112.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硏究≫, 岩波書店.
河野六郎(1945/1979), ≪朝鮮方言學試攷: '鋏'語攷≫, 東都書籍.
Anderson, H.(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 765-793.
Anderson, S.R.(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Academic Press.

Anttila, R.(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Bybee, J.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Chomsky, N. &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per and Low.

Durand, J(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gman.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Hopper, P.J. & E.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yman, L.M.(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Jeffers, R.J. & I. Lehiste(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he MIT Press.

Katamba, F.(1989), *An Introduction to Phonology*, London: Longman.

Kenstowicz, M. & C. Kisseberth(1979),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Kim, C.W. ed.(1978),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C.: Hornbeam Press, .

Kim-Renaud, Young-Key(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Tower Press.

King, R.D.(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J.: Prentice-Hall

Kiparsky, P.(1973), "Elsewhere in phonology", In S. Anderson and P. Kiparsky(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inehart and Winston, 93-106.

Lee, S.D.(1987), "A study of tone in Korean dialect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Lee, S.O.(1978), "Middle Korean Tona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Lehiste, I.(1970), *Suprasegmentals*(김태상 · 김무식 역 1991)

McCawlay, J.D(1970), "Some tonal systems that come close to being pitch accent systems but don't quite make it" In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526-32.

McMahon, A.S.(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ke, K.L.(1948), *Tone Languag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amsey, S.R.(1974), <함경·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학회, 105-132.

Ramsey, S.R.(1978), *Accent and Morphology Korean Dialects*, 탑출판사.

Ramstedt, G.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Vennemann, T.(1974), "Words and syllables in natural generative grammar", In T. Bruck et al.(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hicago Linguistic Society, 346-374.

<ABSTRACT>

A Phonological Study on Gyeongbuk-bukbu Subdialect

Lim, Seok-kyu

This paper aims to study a synchronic phonological study of Gyeongbuk-bukbu Subdialect which is used in Mun-gyeong, Yeong-ju, and Ul-jin in Kyeongsangbuk-do.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 establish the phonemic and tonal system. On the basis of this system, I analyze the synchronic phonological processes and tone rules. The recognition on tone plays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phonological issues, because there exists tone in this subdialect. this recognition related with minimal pairs is also considered to be as essential in establishing of the vowel system in chapter 2.

In chapter 2 there are 20 consonants(p, p', ph ; t, t', th' ; k, k', kh' ; s, s' ; ?, h' ; c, c', ch ; m, n, ŋ ; l). In each subdialect. the vowel system is confirmed differently; Whereas three is 7 vowels(i, E ; ɨ, ə, a, u, o) in Yeong-ju subdialect, three is 6 vowels(i, E ; Ǝ, a, u, o) In Mun-gyeong and Ul-jin subdialect.. And there are two kinds of tonemes in this subdialect ; Low tone and high tone. There are L·H and H·L in compound tones. High tone is divided into H_1 and H_2 according to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

In chapter 3, underlying representation classified by tonal pattern is presented. and then some issues are explained on the base of distinctive underlying representation among three subdialects; The number of multi-underlying representation can be increased, when tone is considered. And distinction of declensional stem is explained in establishing of underlying form.

In chapter 4, the phonological processes of this subdialec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 alternation, deletion, addition, and contraction. The inventories of each groups are represented below:

Alternation : neutralization, alternation of final 'a', nasalization, liquidization, velarization, bilabialization, assimilation of 'ɨ', 'E' or 'a' affected by pre-vowels, rounding of 'ɨ' affected by pre-labials, fronting of 'ɨ', glottalization, glide formation.

Deletion : deletion of stem final 'h' or 'ʔ', deletion of liquid, deletion of nasal, simplification of consonantal clusters, deletion of stem final 'a' or 'ə', deletion of stem final 'ɨ', deletion of glide.

Addition : addition of 'n', addition of glide.

Contraction : contraction of stem final 'h' and following obstruents, contraction of stem final 'ʔ' and following obstruents.

In describing 'Assimilation affected by pre-vowels' and Liquidization, the recognition on tone is very important. The well-formed derivations are very related with underlying tone.

In chapter 5, tone rules is confirmed on the base of constraint of tonal sequence.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 related with H_1 and H_2 are two groups. These constraints are existed in each subdialect, whereas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 related with L·H of two compound tones is not alike in each subdialect.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 are as follows.

Tonal sequence ①: There can be only one H_1 in a tonal-group.

Tonal sequence ②: There can be two consecutive H_2's in a tonal-group.

Tonal sequence ③: There can be only one L·H in a tonal-group;
(X)L·HH(Y) in Mun-gyeong and Yeong-ju subdialect, vs. (X)L·HL(Y) in Ul-jin subdialect

Tonal sequence ④: There can be only one H_1 in a tonal-group.

There exists idiosyncratic tonal sequence in Mun-gyeong: When the first tone of breath-groups is low, the high tone in penultimate position is represented as follows: yuri(LH), yurirago(LLHL), yurirak^{h}ago(LLLHL), yurik'əci(LLHL), etc.

Synchronic tone rules are very related with these constraints; When a stem is combined with a ending, tonal sequence is decided by synchronic tonal rules($H_1+H_1 \rightarrow LH$ and $H_2+H_1L \rightarrow H_2H_2L$. etc.).

The tonal rules can be formalized as follows:

Substitution to high tone: $XY_0 \rightarrow L_0HHL_0/L_0H_$ (H is 'H_2')

$XY_0 \rightarrow L_0L{\cdot}HHL_0/L_0L{\cdot}H_$(Mun-gyeong and Yeong-ju)

$XY_0 \rightarrow L_0L \cdot HHL_0 / L_0L \cdot H_$(Ul-jin)

Substitution to low tone ①: substitution of 'H_1' in the first constituent

$$L_0H \rightarrow L_0L / _L_0 \left[\begin{matrix} H \\ \\ H \cdot L \end{matrix} \right] L_0 \text{(H is 'H}_1\text{')}$$

Substitution to low tone ②: substitution in the second constituent

When the final-syllable of the first constituent is 'H_1', and 'H_1' or 'H·L' do not exited in the second constituent, all tone of the second constituent are substituted for low tone.

Substitution to low tone ③: substitution in the second constituent

When the final-syllable of the first constituent is 'H·L', 'L' 또는 'HH', or 'L·HH',, all tone of the second constituent are substituted for low tone.

Key Words : Gyeongbuk-bukbu Subdialect, Phonological processes, Alternation, Deletion, Addition, Contraction, Compound tone, Underlying tone, Constraints of tonal sequence.